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추진 관련 자료집 ⑦

REPORTS ON COOPERATIVE OF PAJU BOOKCITY

2001. 1. - 2003. 1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CITY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추진 관련 자료집 ⑦**

2001. 1.- 2003. 1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 문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을 마무리해나가고 있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은 이상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했던 선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기록과 보존에 충실해야한다는 원칙을 위해 지난 2000년 '건설추진자료집 ⑥' 발간 이후 중단되었던 건설추진자료집 발간을 이어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자료집 ⑦은 2001년부터 2003년의 출판도시 조성 자료들을 바탕으로 편집되었습니다. 13년동안 준비했던 출판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대하며 건축착공식을 개최한 이후 입주사 사옥 건축을 시작해 '건축의 해'로 불리운 2001년은 역사적인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로부터 출판단지가 21세기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성을 인정받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축비를 국고지원 받았습니다.

2002년은 '출판도시 입주의 해'로 보진재와 한길사를 비롯한 몇몇 입주사가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출판도시 시대의 문을 연 의미있는 해로 평가됩니다. 조합은 출판도시 기반시설이 적절한 시기에 인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며 입주사를 위한 셔틀버스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2003년은 특히 1995년부터 준비했던 파주출판도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교육연구동이 완공되어 '파주어린이책한마당'을 무사히 치뤄 '책의 도시'의 탄생과 도시 건설 과정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꿈처럼만 보였던 '출판도시'가 현실이 되는 순간의 자료를 묶어 발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출판도시 조성 과정의 자료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건설추진자료집이 출판도시의 소중한 역사자료로 쓰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은

차 례

서문	3
2001년 입주를 위한 사옥 건축의 첫 삽을 뜨다	6
●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9
● 인쇄 발간된 자료	13
●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43
●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65
2002년 입주의 해, 출판도시 시대의 문을 열다	68
●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71
● 인쇄 발간된 자료	77
●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87
●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111
2003년 문화예술행사, 책의 도시 탄생을 알리다	116
●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119
● 인쇄 발간된 자료	125
●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165
●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181

2001년

입주를 위한 사옥 건축의 첫 삽을 뜨다

2001년은 지난 13년동안 준비했던 출판도시에 집을 짓는 '건축의 해'로 이전까지 기반시설공사 등 평면적으로 조성되던 출판도시에 입주사 사옥 건축이라는 입체화의 서막이 오른 역사적인 해였다. 이 같은 의지를 모아 6월 15일 출판도시 건축착공식을 성대히 개최하여 출판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향한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입주사들의 설계용역 계약 지속 추진과 건축허가 취득 등 사옥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건축일정에 돌입하였다.

출판도시 건축착공의 첫 삽은 6월 15일 건축착공식과 함께 건축공사에 돌입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보진재가 주역이었다. 곧바로 화성문화인쇄가 착공했으며 2, 3차 공동발주를 통해 11월, 12월 건축을 착공한 열화당, 한길사, 국제전산교구, 동넵 등이 출판도시 건축을 선도하였다.

특히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축비 국고지원 85억원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확정되어 2002년도 25억원, 2003년도 6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정부로부터 우리 출판단지가 출판문화진흥과 21세기 지식강국을 선도하는 대표성을 인정받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2월 7일 한국통신과 출판단지 구내통신 및 사이버드림타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걸맞는 다양한 최첨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설계가 완료된 70개 입주사 사옥 모형을 전시하는 제2차 건축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001년

2001년 주요행사

01.12	시범지구 건축설계를 중심으로 한 건축가단 워크숍
01.16	제11차 정기총회
03.26	안중근 의사 91주기 추도식 및 직원 워크숍
04.04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입주사 자금지원 설명회 개최
	인쇄지구 입주사 간담회
05.17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축공사 현장설명회
05.19	출판단지 건설을 위한 국내 건축·도시 답사(전북 고창 개암사/선운사)
06.01	출판관련 단체장들과 청와대 예방
06.15	파주출판도시 시범지구 입주사 사옥 건축착공식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
07.19	건축착공 및 일정설명회
08.18	건축착공을 위한 건축주 연찬회
09.02	출판유통시스템 선진화 벤치마킹을 위해 유럽 유통회사 네덜란드 센트럴북하우스, 독일 베탈스만, 리브리사 방문
09.14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대안센터 주관 출판단지 풍력발전기 견학 및 세미나
10.18	시범지구 2차 건축공사 현장설명회
11.13	시범지구 제2차 건축공사 계약조인식
11.14	시범지구 제3차 건축공사 현장설명회
12.07	한국통신공사 고양전화국장과 사이버 드림타운 협정 및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12.14	제2차 건축전시회 국제심포지엄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① 2001. 06. 15 파주출판도시 시범지구 입주사 사옥 건축 착공식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



② 2001. 06. 22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신축공사 계약 서명식 및 현장공정회의 개최



③ 2001. 12. 07 한국통신과 사이버 드림타운 협정 및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④ 2001. 12. 14 제2차 건축전시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인쇄 발간된 자료

제11차 정기총회 서류

2001년 1월 16일(화) 오후 2시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❶ 제11차 정기총회 서류 표지 (2001. 01. 16)

목 차

1. 정기 총회 회순	3
2. 2000년도 사업보고서	5
3. 2000년도 결산보고서	21
4. 2000년도 잉여금 처분(안)	55
5. 감사보고서	59
6. 2001년도 사업계획서(안)	63
7. 2001년도 수지예산서(안)	75
8. 2001년도 조합비 책정의 건	89
9. 출판도시 건설사업 분담금 책정의 건	93
10.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97
11. 2001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101
12.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105
13. 임원 선출의 건	109

제11차 정기총회 회순

一. 성원보고

一. 개회선언

一. 국민의례

一. 개 회 사

一. 축 사

一. 의사록 서명이사, 서기, 감찰 지명

一. 제10차 정기총회 의사록 승인

一. 보고사항

1. 2000년도 사업보고

2. 감사보고

一. 의안심의

1. 2000년도 결산 승인의 건

2.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3. 2001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4. 2001년도 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5. 2001년도 조합비 책정의 건

6. 출판도시 건설사업 분담금 책정의 건

7.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8. 2001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9.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10. 임원 선출의 건

一. 기 타

一. 폐 회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개발사업 지 반 조 사 보 고 서

2001.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②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개발사업) 지반조사보고서 2001. 02

제 출 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귀중

귀 사업협동조합과의 용역 계약에 의거 수행한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반조사 ” 에 대한 과업을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완료하고 그 성과를 종합분석하여 본 보고서로 작성 제출합니다.

2001 년 2 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258-6번지

주식회사 정진컨설턴트

대표이사 이 웅

(TEL : 574-6864(代) , FAX : 3017-6864)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제 10-622호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우

상



목 차

1. 서 언	1
1.1 조사목적	3
1.2 조사위치	3
1.3 조사범위	3
1.4 조사기간	4
1.5 조사장비	4
2. 조 사 방 법	5
2.1 조사위치 선정	7
2.2 시추조사	18
2.3 표준관입시험	18
2.4 자연시료채취	19
2.5 공내지하수위 측정	21
2.6 시험굴조사	21
2.7 실내토질시험	21
3. 토질 및 암반의 분류방법	23
3.1 토질의 분류 및 기재방법	25
3.2 암반의 분류 및 기재방법	28
4. 조 사 결 과	31
4.1 지형 및 지질	33
4.2 지층개황	35
4.3 표준관입시험결과	77
4.4 공내지하수위 측정결과	87
4.5 시험굴조사 결과	98
4.6 흙의 공학적특성	99
4.7 흙의 압축 특성	111

5. 토공성과분석	119
5.1 절토부의 토공작업	121
5.2 성토부의 토공작업	122
5.3 성토재의 다짐 및 지지력특성	122
5.4 노상토의 지지력 산정	124
5.5 토량환산 계수	128
6. 구조물 기초검토	131
6.1 일반사항	133
6.2 구조물 기초형식의 분류	133
6.3 직접기초 검토	136
6.4 말뚝기초 검토	138
7. 결 론	143
8. 부 록	147
8.1 지반조사 위치도	
8.2 시험굴조사 주상도	
8.3 실내시험 성과표	
8.3.1 시험굴 조사	
8.3.2 UD 시험	
8.4 지층단면도 (별책)	
8.4.1 시범지구 지층단면도	
8.4.2 2차지구 지층단면도	
8.5 시추주상도 (별책)	
8.5.1 시범지구 시추주상도	
8.5.2 2차지구 시추주상도	

별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개발사업
지반조사보고서
(시범지구 지층단면도 및 시추주상도)

2001.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③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개발사업) 지반조사보고서 별책

출판도시 건설사업은 21세기 지식경영 벤처산업이다
Construction of Paju Book City is 21C knowledge based venture business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기본계획

The Basic Construction Plan
Asia Publication-Culture and Information Center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도

003

출판도시 건축공사 명단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경세원 김영준
(주)교문사 류제동
국제전산교구 장주열
기환재 김형근
(주)김영사 박은주
(주)도봉공장 홍원식
홍백개 한형희
동남 이진복
풍경사 최국주
(주)두비 서정권
(주)디자인하우스 이영배

말과창조사 이돈환
박경사 안종만
범우사 윤형두
(주)보진재 김정선
(주)샘터사 김성구
(주)서울지류유통 총성일
성인당 이종순
시공사·음악세계 전재국
(주)안그래픽스 김옥철
양서원 박철을
업무 최한숙

열화당 이기웅
(주)웅진닷컴 윤석금
은하출판사 이종소
이진출판사 이진식
자유이카데이 주정희
(주)지경사 김병준
(주)청암미디어 안종민
푸른나무 유동환
(주)한림사 김연호
화성문화인쇄(주) 허강두
* 총 33개사, 가나다순

행사장 오시는 길



자유로를 따라 앞진간 남면으로 횡주대교 기점 1.7km 지점에 위치한 산남공원 표지판을 보고 들어오시면 행사장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나타납니다.

초대합니다

파주출판도시 건축공사 착공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



일시 2001년 6월 15일(금) 14:00

장소 파주출판단지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울사무실 02)511-9566~8 출판단지 인포룸 031)942-0016

행사일정

파주출판도시 건축공사 착공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 기념식 2001년 6월 15일 14:00

식전 행사 서울 팜스 오케스트라 공연
지휘—하성호

본 행사 개식 선언
경과 보고
이사장 인사
내빈 축사
시공업체 소개 및 인사
시삽 및 착공 이벤트
폐식

<지혜의 빛> 조각품 관람 및
풍력발전기 견학

식후 행사 다과회—인포룸

* 회관은 사절하였으며, 장식여부를 6월 11일까지 사무국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늦음이 짙어가는 6월 15일, 우리 출판문화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출판도시를 가시적으로 형상화하는 건축착공식을 갖게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 드립니다.

지난 13년간 출판 관련 산업인들이 협동화사업으로 추진해 온 출판도시 건설을 위해 우리 조합은 공동성의 실현이라는 '위대한 계약서' 정신에 의해 건축설계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특히 '셋강 살리기' 등 환경친화적이고 세계적인 문화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명망있는 국내외 건축가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헌신적 노고의 결실로 시범지구 33개 입주사가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이번에 공동으로 착공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출판문화인들은 건축착공을 계기로 출판도시가 21세기 지식강국을 선도하는 지식인프라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의 중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002년 6월 월드컵 이전에 입주를 완료하여 문화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성과 노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사다망하신 줄 아오나, 부디 참석하시어 출판도시의 성공적인 건축착공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을 축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 6.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전화 511-9969~8, 팩시밀리 511-9969
pajuboo@unitel.co.kr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발간되는 「출판도시뉴스」는 부설기 간행물부
조립현물 비롯하여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 추진에 관계되는 시책 각계에
우로로 보내드립니다.

이 회보는 발행 여기용, 편집주권 신기삼, 편집
김근성, 디자인 기영녀에 책임으로 관물업소-4C,
제호 디자인 / 편집주

출판도시뉴스

PAJU BOOK CITY NEWS

제24호
2001. 6. 15.

파주출판도시 시범지구 건축 착공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 개최

2001년 6월 15일 (금) 14:00



21세기 지식강국을 선도할 출판문화인의 자궁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조감도

드디어 13년 동안 출판문화인들이 백절불굴의 의지로 추진해온 출판도시가 건축 착공에 들어감으로써 입체화의 서막이 올려졌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은 6월 15일(금)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에서 시범지구 입주사 시육건축 착공식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을 동시에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은 총 부지 48만평으로 계획된 원대한 출판도시 계획을 가시적으로 형상화시키는 첫 시범지구사업으로서, 40여명의 국내외 저명 건축가들과 함께 공동성의 실현을 통해 건설되는 출판문화도시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대하게 거행됐다. 착공식에는 조합원은 물론 출판문화계 인사와 저작자, 예술인, 정관계 인사, 언론인, 건축가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출판도시의 성공적 착공을 축하하고 21세기 지식강국을 선도할 출판문화산업의 미래비전이 출판문화인들에 의해 제시되기를 축원했다. 특히 이번 착공식에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축하공연이 곁들여져 환경친화적 문화도시의 구심점이 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는 계기가 됐다.

특집 **미리본 입주사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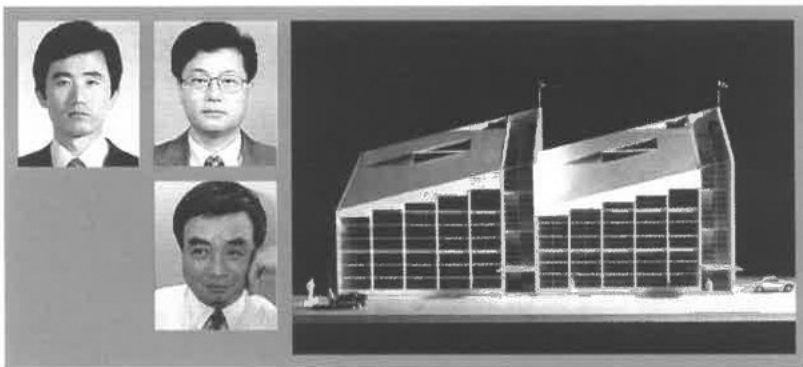
파주출판도시 시범지구 건축 착공 출판도시에는 이런 건축이...

금년은 출판도시 건축 착공의 해로 6월 15일, 대망의 건축공사 착공식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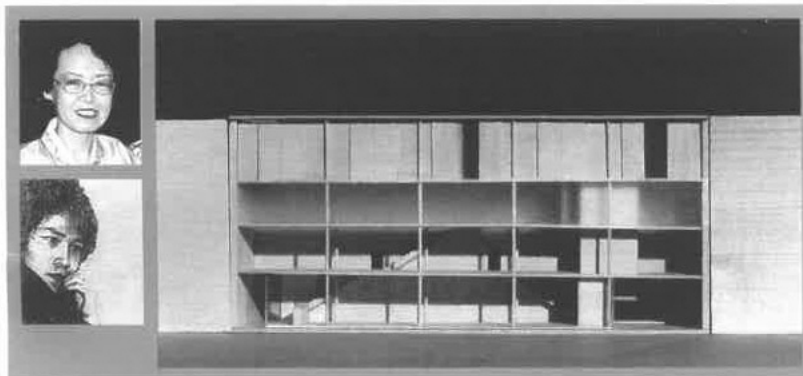
건축 착공은 설계가 완료되어 건축허가를 취득한 시범지구 33개 입주사를 중심으로 착공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에 착공과 함께 본격 건축에 돌입할 입주사의 사옥을 미리 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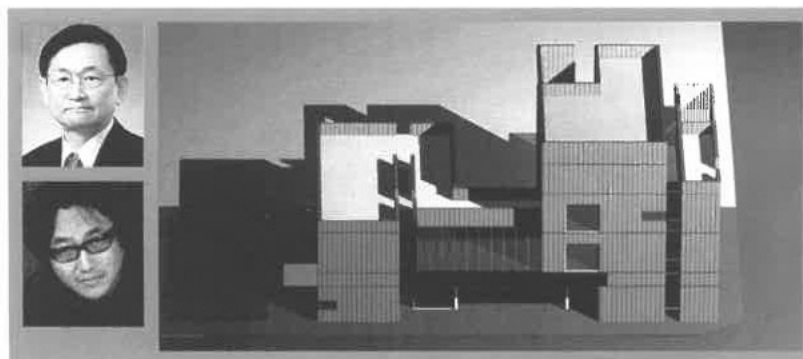
있도록 조감도와 모형사진을 일괄적으로 게재하여 출판도시의 미래상을 알리고자 한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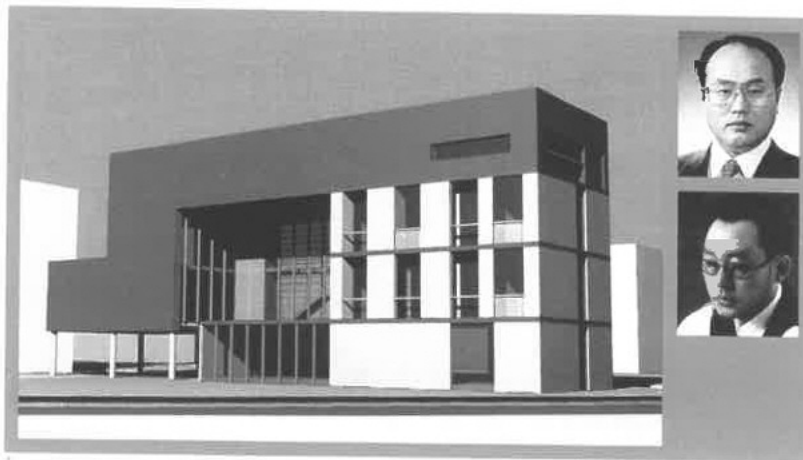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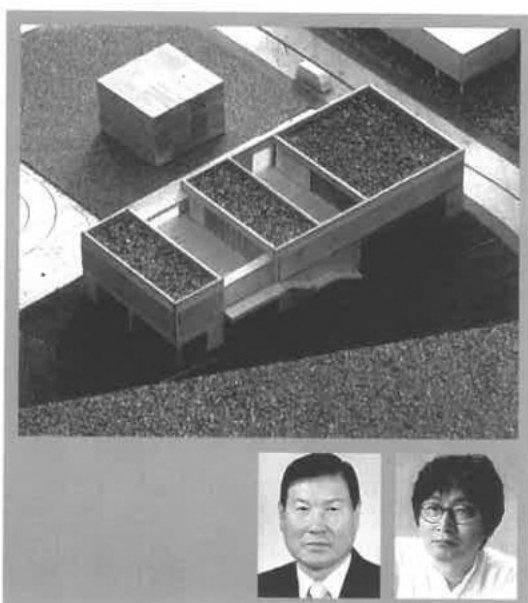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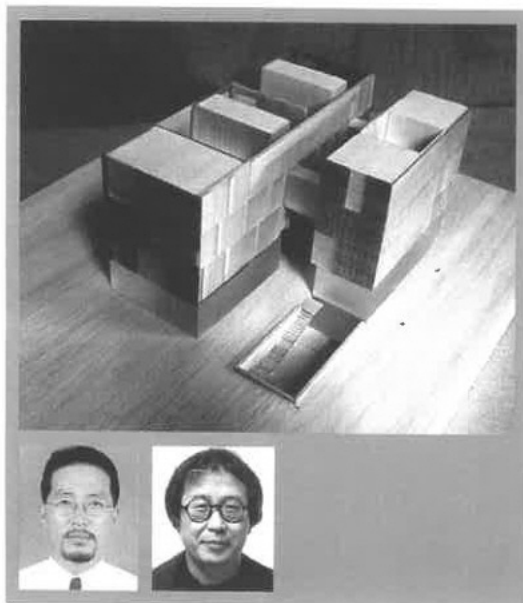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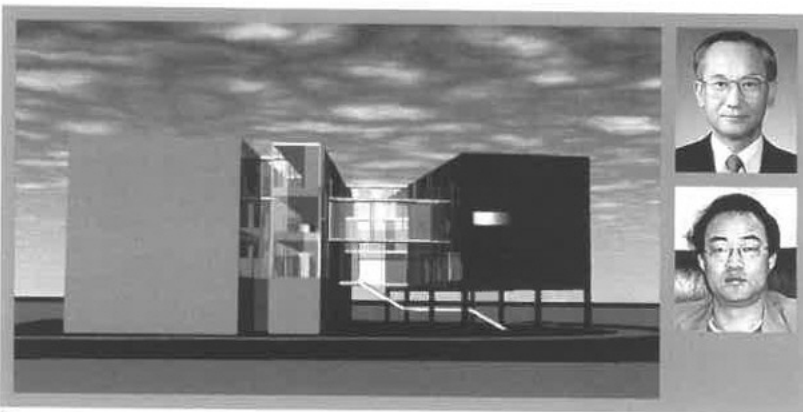
1. 기한재와 동영사
대표 강형근(왼쪽)
대표 최국주(오른쪽)
설계 김현(광양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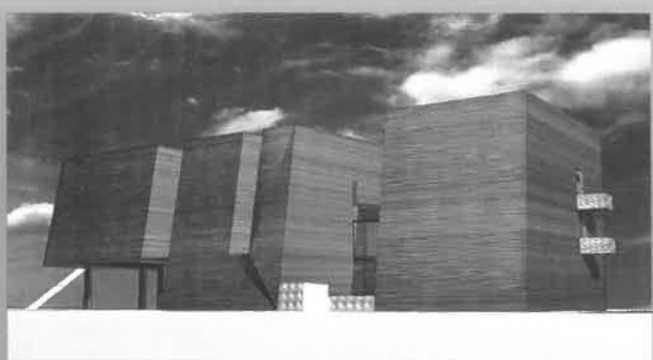
2. 자유아카데미
대표 주정희
설계 김종규(이투건축)

3. 지식산업사
대표 김경희
설계 이종호(에터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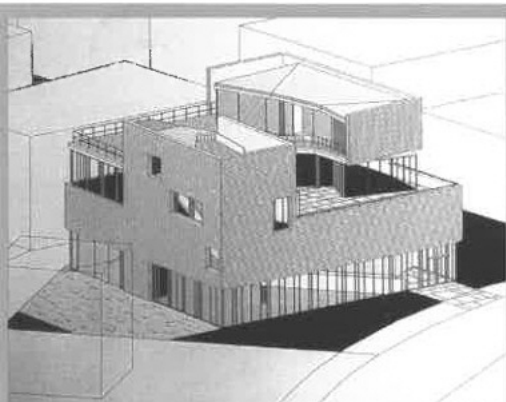


4. 아진출판사
대표 이진식
설계 최욱(스튜디오최욱)
5. 상안당·업무
대표 이종춘
설계 박병길(김우)
6. 셀터사
대표 김성구
설계 송호상(이로제)
7. 도봉금장
대표 홍환익
설계 임현식(기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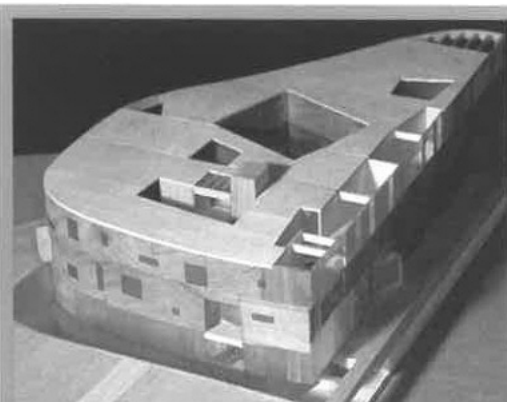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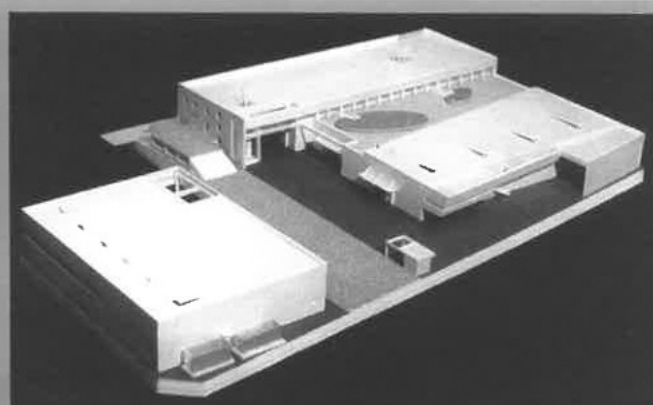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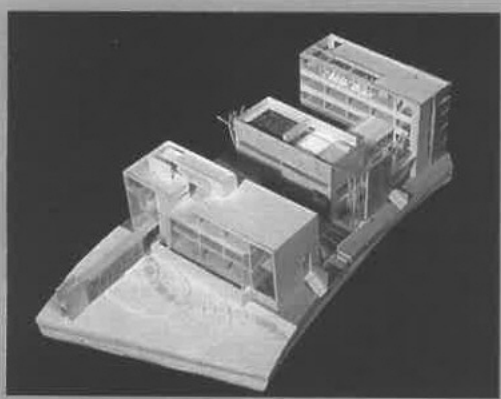
11

- 8. 한길사
대표 김언호
설계 김현(메다건축)
- 9. 디자인하우스
대표 이영혜
설계 Stan Allen(미국)
- 10. 박영사
대표 안종만
설계 송효성(이로제)
- 11. 화성문화인쇄
대표 허갑부
설계 정기용(기용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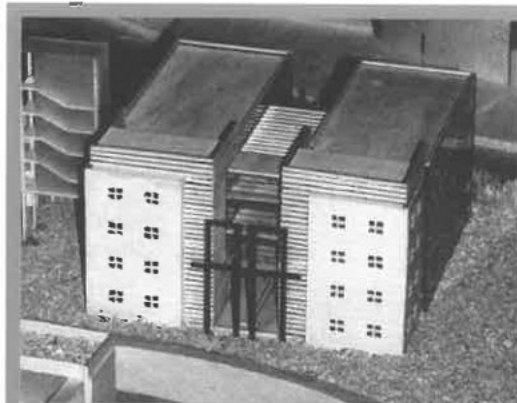
4



12



13



14

12. 국제친선교구
대표 장주영
설계 김민철(이르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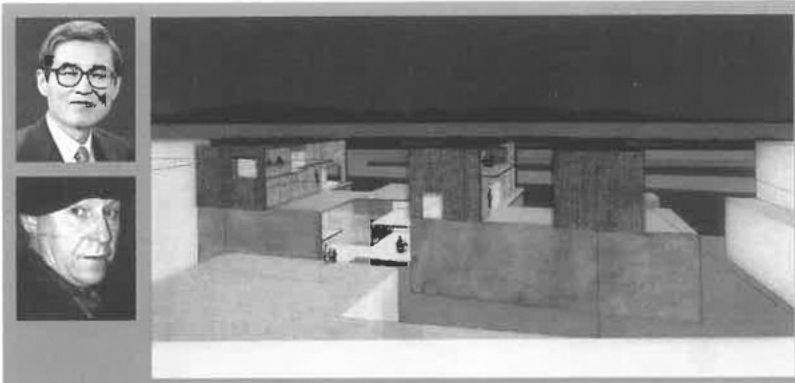
13. 지경사
대표 김병준
설계 정기봉(기용건축)

14. 범우사
대표 윤영우
설계 전성철(통국건축)

15. 교문사
대표 유재홍
설계 김영준(이르제)



15



16



17

16. 열화당

대표 이기홍
설계 Florian Beigel(영국)

17. 말과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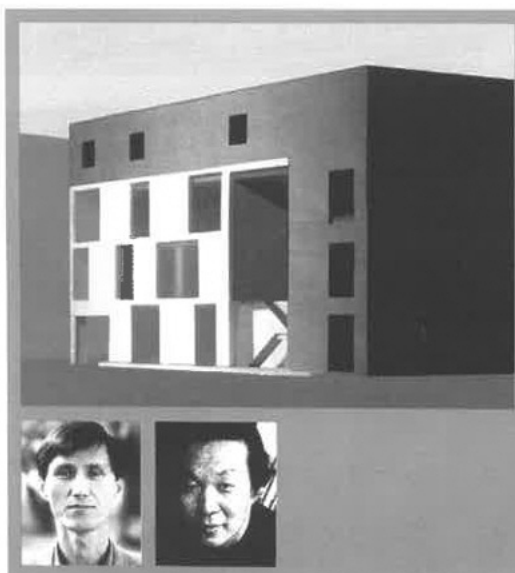
대표 이준환
설계 민원석(기오현)

18. 물배개

대표 한철희
설계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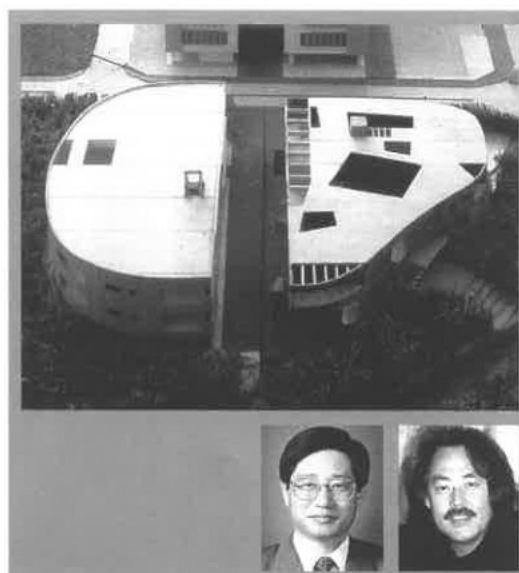
19. 청담미디어

대표 안종민
설계 이일홍(후리건축)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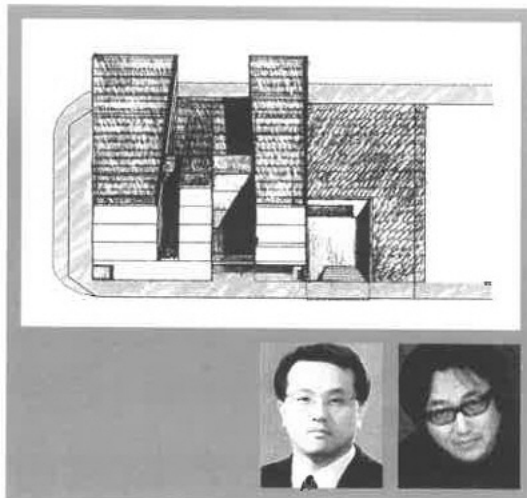
18



19



20



21

20. 두비
대표 서광권
설계 강형섭(건축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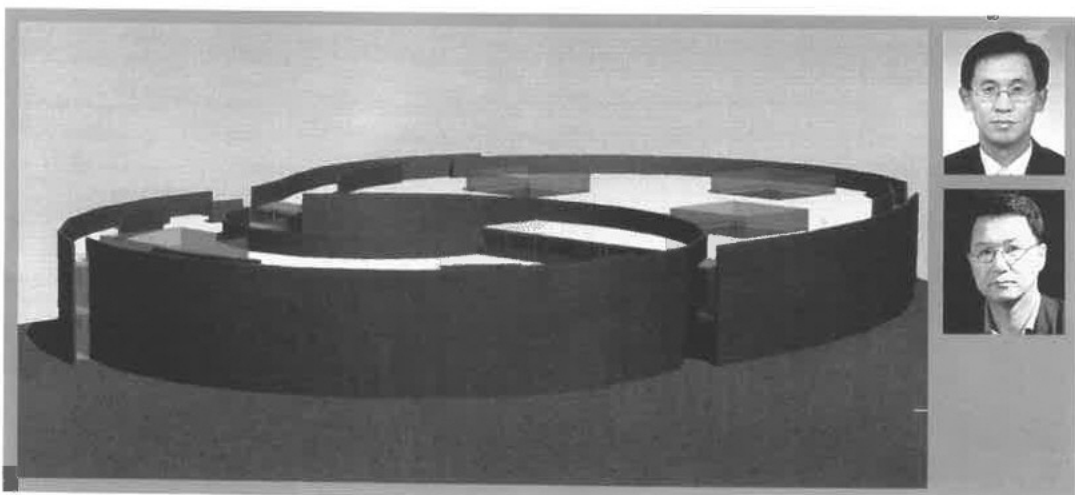
21. 음악세계
대표 전재국
설계 이종호(메타건축)

22. 푸른나무
대표 김경천
설계 최욱(스튜디오웍스)

23. 용진미디어
대표 유재현
설계 김민섭(아르키움)



22



23

7

24. 경세원
대표 김영준
설계 김영준(이로제)

25. 보진재
대표 김정선
설계 이항배(단우로건축)



24

출판도시에 사옥을 확충하며 뜻깊은 인쇄역사 90주년을 출판도시에서

김정선 보진재 대표

우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합원들이 출판도시의 건설을 공약 온 지 여인 10여년이 흘러 이제 출판도시를 탄생시키는 마지막 단계인 건축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장애물을 헤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환경 친화적이고 조형미 있는 출판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진정 자신을 희생하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오신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진재는 1912년 8월15일 종로1가에서 한 사장의 증조부 김진한 선생이 '보진재 석판 인쇄소'라는 상호로 창업한 이래 원호시대, 영동포시대를 거쳐 파주에서 창립 90주년을 맞게 되었



습니다. 뜻깊은 90주년을 파주 출판도시에서 맞게 되는 보진재는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가장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공장이 되고자 지난 1년 동안 설계에 공을 들였고, 이제 훌륭한 건설회사를 만나 설계대로 차질 없이 공장을 완공하여, 출판 기획에서부터 편집, 인쇄, 제본, 유통까지의 수직

계열화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협동화 출판도시를 만들고자하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진재는 지난 1930년대와 1960년대에 누렸던

칼라 음색 인쇄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다시 찾아 출판도시에 입주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출판사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디지털 인쇄의 도입 등 품질 위주의 경영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불었던 노력의 결실을 맺게되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치기 쉬운 때인지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협심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꿈이 눈앞의 현실로 실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물론 건물의 완성만 하드웨어의 완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창의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하듯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출판도시의 각종 프로그램이 멋지게 펼쳐지도록 입주자 모두가 협력하고 같이 노력해야만 우리 출판도시는 건축물의 도시로 서문만 아니라 진정한 출판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25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전화 511-9966~8, 팩시밀리 511-9969
www.bookcity.org
pajucc@unitel.co.kr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출판도시뉴스」는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여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 추진에 관계되는 사회 차이에
부조로 보충합니다.

이 제보는 발행 매기용, 편집주간 신기남, 편집
집행성, 디자인 기법 등에 해당으로 단을드립니다.
제호 디자인 / 안상수

출판도시뉴스

PAJU BOOK CITY NEWS

제25호
2001. 12. 13.

출판도시 건축 본격 활성화

12개 입주사 착공 및 착공 단계, 70여개 입주사 설계 완료
12월 15일 제2차 건축전시회 개최

출판도시가 2002년 입주의 해를 앞두고 기반시설공사가 90% 공정을 향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공동발주를 통한 입주사 사옥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출판도시 입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입주사는 28개사이며, 12월 중에 추가로 설계가 완료된 25개 입주사가 파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취득하게 되며, 현재 설계가 진행중인 입주사는 39개에 이른다. 조합 집행부는 건설한 중견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도급순위, 재무구조, 시공경험, 지명도 등의 실사를 통해 건설한 지명경쟁입찰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공동발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지명경쟁입찰을 통한 공동발주는 검증되지 않은 건설업체가 시공할 경우 우려되는 부실시공 및 부도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쟁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규모의 건축을 실현함으로써 입주사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건축을 제공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6월 15일 1차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정확건설, 대표 정세화)와 보진재(동원건설, 대표 김성현) 건축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10월과 11월 2, 3차 건축공사 발주를 통해 현재 12개 입주사가 사옥건축 착공 단계에 있다.

조합 집행부는 공동성 정선에 입각하여 국제전산교구, 동넵, 도봉금장, 열화당 등 4개 입주사 사옥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8일 2차 공동발주를 실시하였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입찰결과 열화당, 동넵, 국제전산교구 사옥 건축 시공업체로 건백건설(대표 정인철)이 선정되었다. 10월말에 착공한 화성문화인쇄(유명E&C, 대표 김상근)는 공장학공에 들어가 기초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다.

3차 건축공사 공동발주에는 말과창조사, 자유아카데미, 한길사, 기한재, 동명사 등 5개 입주사가 참여하여 지난 11월 14일 현장설명회에 이어 23일 입찰을 실시했다. 3차 입찰 참여사중 600여평 규모의 한길사 사옥은 1순위 적격업체로 선정된 건통건설(대표 서성본)과 11월 30일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학공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4개 입주사도 적격 시공업체가 확정되는 대로 착공할 예정이다.

조합 집행부는 출판도시 참여 건축가들과 공동으로 12월 14일 '공동성의 가치'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이어 12월 15일부터 2002년 1월 15일까지 설계가 완료된 70여개사 입주사 사옥 모형을 전시하는 출판도시 제2차 건축전시회를 개최하여 출판도시의 미래 비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파주출판도시는 현재 기반시설공사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범지구쪽 도로 포장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출판도시 건축을 선도하는 입주사들

남북 교류의 전진기지이자 통일
신세역을 열어갈 우리 민족의 미래의
땅이자 약속과 번영의 땅인 파주 자유로변.
1998년 1월 정부에 의해
총 48만평 규모의 우리나라 유일의
문화 관련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21세기
첫 해를 여는 2001년에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보진재 착공에 이어 시범지구
출판사 사옥 10여채가 착공의
첫 삽을 뜨고 70여개 사가 설계를
완료함으로써 세계적인 출판문화도시를
향한 대장정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출판인과 이 땅의 의식있는
건축가들이 맺은 '위대한 계약서'
정신에 의해 설계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기록할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섬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21세기 지식정보 인프라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희망을 안게
되었다. 여기 12월 15일 제2차
건축전시회에 참여하는 출판 관련
입주사, 건축가들의 면면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제2차 건축전시회 참가 입주사 (가나다순) publishers & related companies/대표자

경세원 kyungsewon publishing/김영준
교문사 kyo moon sa/유제동
국재전신교구 kukje stationery/장주열
기한재 kihanjae publishing/김형근
김영사 gimmyoung publishers/박은주
김형윤편집회사 kimhyungyoon editing/김형윤
대신문화사 deashin publishing/권만택
도봉글장 dobong guilding/홍원식
도서출판 마야 maya publishing/임동주
돌베개 dolbegae publishing/한철희
동그라미교육 donggueram publishing/형인숙
동녘 dongnyok publishers/이건복
동명사 dongmyeongsa/최국주
두비 doobee/서정권
돌녘 deul nyuk/이정원
디자인하우스 design house/이영혜
말과창조사 language & creation publishing/
이돈환
모퉁이돌 cornerstone publishing/김상영
문학수첩 moon hak soo chup publishing/강봉자
바른손 barunson.com/김문열
박영사 pakyoungsa/안종만
범우사 bum woo sa/윤형두
보진재 po chin chai publishing/김정선
비전북 visionbook publishing/이원우
사계절 sakyajul publishing/강왕실
삼호뮤직 samho music publishing/김정태

새한문화사 saehan publishing/윤문상
샘터사 samtoh/김성구
서강출판사 seokang publishing/남상진
서광사 seokwangsa publishing/김신혁
서울지류유통 seoul paper/홍성일
서해문집 seohaemoonjib publishing/이영선
성안당 seong an dang publishing/이종춘
세종대학교 출판부 sejong university press/
김철수
신광종합출판 shin-kwang publishing/김인호
신원에이전시 shinwon agency/김순웅
신일문화 shinil process/이기래
신흥인쇄 shinheung printing/박종일
근린생활상가-쌍지 ssamzie/천호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asia publication-culture
& information center/이기웅
안그라픽스 ahn graphics/김옥철
약업신문 the yakup shin moon/함용현
양서원 yangseowon/박철웅
연약 eon yak publishing/최원자
업투 upto publishing/최한숙
에스피티 spt/조한식
열화당 youl hwa dang publisher/이기웅
영창인쇄 youngchang printing/이남경
웅진닷컴 woongjin.com/문석금
은하출판사 eun ha publishing/이종소
음악세계 eumaksekye/전재국
자유아카데미 freedom academy/주정희
전광출판 jeonkwang printing information/고수근
지경사 jigyungsa publishers/김병준



술판도시 전경

지식산업사 jisik sanupsa/김경희
 집문당 jip moon dang/임경환
 창작과비평사 changbi/고세현
 청문각 cheong moon gak/김용석
 청알미디어 chungahm media/안종만
 태평양그랜드 tpygrand/이길원
 포토피아 photopia/김택
 푸른나무 purun namu/유동환
 하산문화사 hasan publishing/박범수
 한국출판유통 korean publication distribution/
 홍승대
 한길사 hangilsa publishing/김언호
 한신문화사 hanshin publishing/박태근
 홍익문화사 hongik publishing/서석호
 화성문화인쇄 hwasung moonhwa printing/
 허강무
 효형출판사 hyo hyung publishing/송영만

전시회 참가건축가 architects (가나다순)

권문성 kwon moon-sung/아틀리에17 atelier17
 김광수 kim kwang-soo/팀반건축 team bahn
 o.u.r.a.d.
 김강현 kim kwang-hyun/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병윤+안희상 kim byung-yoon+ahn hee-sang/
 시명건축 simyung architects
 김봉렬 kim bong-ryul/한국예술종합학교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김석철 kim suk-chul/아키반 archiban
 김승회 kim seung-hoi/경영위치 kywc architects
 김영섭 kim young-sub/건축문화 kunchook
 moonhwa
 김영준 kim young-joon/이로재 iroje
 김원 kim won/광장건축 kwangjang
 김인철 kim in-cheul/아르키움 archium
 김종규 kim jong-kyu/엠.에이.알.유. m.a.r.u.
 김현 kim hun/예디건축 yed'a architects
 민현식 min hyun-sik/기오현 kihun
 서현+변희협 seo hyun+byun hee hyub/
 시몽건축 cemong architect & engineers
 세지마 카즈요+니시자와 류에 kazuyo
 sejima+ryue nishizawa/sanaa
 스탠 앨런 stan t. allen
 송효상 seung h-sang/이로재 iroje
 악타르 아키텍투라 actar architectura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파시드 무싸비
 alejandro zaera polo+farshid
 moussavi/foa
 우경국 woo kyung kook/예공건축 yekong art
 space group
 이일훈 e il-hoon/후리 studio free media
 이종호 yi jong-ho/스튜디오메타 studio metaa
 이항배 lee hang-bae/단우모람건축 danu
 moram
 창용허 chang yung-ho/atelier fcjz
 자비르 데 고위터 xaveer de geyter
 정기용 chung guyon/기용건축 guyon architects
 associates
 정성원 jung sung-won/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조건영 cho kun-young/건축사사무소 기산
 kisan architects
 조병수 cho byoung-soo/조병수건축연구소
 inter architecture
 조성룡 joh sung-yong/조성룡도시건축+최수익
 johsunnyong a.o.+choi soo-ik
 최문규 choi moon-gyu/가아건축 ga.a architects
 최욱 choi wook/스튜디오 최욱 studio choiwook
 키시 와로 waro kishi/키시 와로 건축설계사무소
 waro kishi+k. architect & associates
 플로리안 베이젤 florian beigel/a.r.u.

출판도시 현장 스케치

파주출판도시는 현재 출판단지 조합이 한국토지공사에 발주한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6월 15일 역사적인 건축착공식을 가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보진재 건축공사가 출판도시 건축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주요 시설별 공사현황을 살펴보면 출판도시 갈대셋강을 가로지르는 교량공사는 폭 25m의 단지내 중앙대로를 이어주는 길이 80m의 제2교량을 비롯해 제 3, 4, 5교량은 설치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교량난간 등 마무리 공사만을 남겨 두고 있다. 제1교량과 6교량은 현재 기초 파일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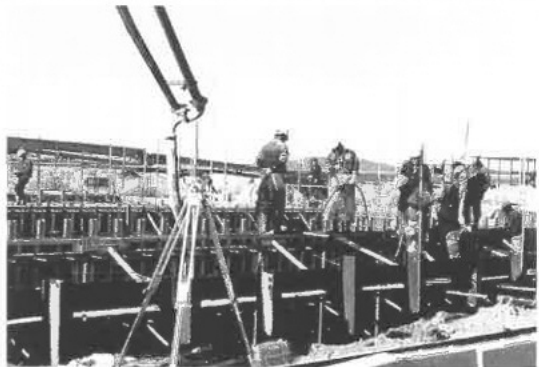
또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판로매설 공사는 인입부분의 마무리공사만 남겨두고 있으며 보차도(歩車道) 경계석 설치공사, 도로 흙다짐공사, 조경공사 등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출판도시는 이제 입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시범지구 중심에 위치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기초공사에 이어 지하주차장, 기계실, 1층 바닥공사가 12월 동결기 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보진재는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건물 골격의 기본이 되는 철골구조물 설치공사가 완료단계에 있다. 보진재에 인접한 화성문화인쇄도 파일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초공사에 돌입하는 등 예정된 공기를 순조롭게 맞춰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범지구 제 2, 3차 건축공사 공동발주를 통해 상기 3개 공사를 포함해 국제전산교구, 도봉급장, 동넉, 열화당, 한길사 등 8개사가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으며 말과창조사, 자유아카데미, 기한재, 동명사 등 4개사가 입찰 절차를 거쳐 착공을 앞두고 최종 네고 단계에 있다.

이와 병행하여 조합 집행부에서는 공동성 실현을 통해 입주사의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인근 부지 건축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설계가 완료된 입주사를 대상으로 공동파일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이같은 순조로운 시범지구 건축일정에 발맞춰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제반 기반시설이 적기에 인입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경기도, 파주시, 한국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이고 밀도있는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1.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공사 전경.
2.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둥 및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현장.
3. 철골 구조물 설치가 완료되어 방화페인트 도색작업에 돌입한 보진재 공사 전경.
4. 화성문화인쇄 기초공사 진행 중.

시범지구 상업용지 2,400평에 패션 및 근린생활상가 금년내 착공 섬지, 데코 등 패션을 중심으로 명품브랜드 대거 입점

시범지구 2,396평의 상업지구에 데코, 섬지 등 유명패션을 중심으로 한 패션 및 근린생활상가가 들어선다. 상가는 4개동의 건물에 연면적 4,300~5,000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새로운 시대의 도시개념을 적용한 쇼핑, 휴식, 문화생활의 기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주민과 생활인의 교류를 촉진하는 도시공간 구성 등 패션, 환경, 문화의 새로운 복합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금년에 착공한 시범지구 입주사 편의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이 금년 12월중 착공되어 내년도에 함께 완공될 예정이다.

· 사업개요

대지 2,396평

규모 지하1층/지상3층 철골+철근 콘크리트

연면적 4,300~5,000평

· 개발방향

패션, 환경, 문화의 새로운 복합타운 개발

휴식과 쇼핑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개발
Fashion & Living & Food의 복합 전원형 쇼핑몰
아울렛 비즈니스의 새로운 컨셉 모델 제시

· 입점 브랜드

구분	Fasion	Living(5)	Food & Cafe(11)	근린생활 시설(16)
브랜드	데코, 베네통, 델레그라프, 구호, 사슬리, 아나카프리, 지지매, WWS, 엑스아이엑스, MHouse, 디아, 엘르스프즈, 타임, 레노마 스포츠, 마인, 농, 시스템, 모조, 스포츠리플레이, 에스제이, 콤포, 나이스클럽, 소다, 블루페퍼, 오브제, 오즈세컨드, 써씨클럽, 람지, 디키스, 아이삭, 도어스, 질리, 시스터, 톱보이, 스파이더, 코모도, 슈베리어, 레노마 골프, 빔스아웃피티스, 톱키드, 서얼즈데이아일랜드	Room & Deco, 카사미아, 카사미아키즈, 공, 한국도자기	커피미학, 알레, 클로라, 플라스틱, 일머레, 이닝, 강가, 일크바, 안나비니, 본카스, 맥도날드	음식점(10), 약국(1), 7eleven(1), 은행(1), 중국집(1), 호프집(1), 베이커리(1)
면적	1,026평	780평	1,138평	486평

출판단지 2차지구 5,800평에 대규모 종합쇼핑타운 들어선다 영화관 8개관, 세계음식전문점, 해외명품 아울렛 등

출판단지 2차지구 상업시설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2차지구 상업시설 개발업체인 (주)파팩은 개발계획 수립, 건축계획, 입점브랜드 선정, 상업시설 활성화방안 등 구체적인 개발방침을 확정하여 최근 발표했다.

(주)파팩은 상업시설 투자자들이 설립한 상업시설개발을 위한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로, 확정된 개발계획은 컨설팅 업체인 CI&D에 의해 작성했으며 현재 「임대건축」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가 진행중에 있다.

· 사업개요

대지 5,793평

규모 지하2~3층/지상3~4층 철골+철근 콘크리트

연면적 22,277평

· 개발방향

광역적 수요와 지역적 수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상업시설 개발

주변관광객을 흡인할 수 있는 상업시설 개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업시설 개발

독특한 아이템의 도입으로 화제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시설 개발

· 개발컨셉

쇼핑고객이 하루종일 보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있는 소매형 쇼핑센터

해외명품 Factory Outlet, 영화관(8개관), 세계음식전문점

중심으로 한 Shoppertainment 구축

· 유치업종

구분	Block-1	Block-2	Block-3	Block-4
유치업종	브랜드아울렛, 은행, 헬스, 스쿼시, 사우나, 당구장, 볼링장, 근린생활시설	브랜드아울렛, 카페, 크리닉, 편의점, 호프집, 주점, 세탁/수선, 부동산	음식백화점, 브랜드아울렛, 인테리어, 소품점+브랜드아울렛	복합영화관, 테마카페, 카페, 은행, 패스트푸드, 캐리커스
면적	1,026평	780평	1,138평	486평

파주출판단지 이기웅 이사장은 12월 7일 서상원 고양전화국장과 고양전화국 회의실에서 조함 임원들과 전화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드림타운 협정서에 서명하고 출판단지들 21세기 지식정보화를 선도하는 사이버드림타운으로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초고속 광케이블 인터넷이 가동될 사이버드림타운 주요장비는 내년 6월까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3층에 설치된다.

구내통신·사이버드림타운 협정 체결에 참석한 출판단지조합 임원진과 한국통신 고양전화국 관계자들. (조합 임원진 : 이기웅 이사장, 김경희·김정선·심만수·이건복·한철희 이사, 유도열 상무이사, 신기섭 기획위원)

단지내에 광통신망을 이용한 최첨단 통신시설을 구축하여 음성 통화서비스인 구내통신,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인 사이버드림타운을 제공함으로써 단지내에서 문화, 정보, 업무 등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회사와 회사간, 회사와 대외의 모든 매체를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형성이 가능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할 구내통신 및 사이버드림타운 서비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구내통신서비스는 한국통신이 단지내에 최첨단 전화교환기를 설치하여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일반전화보다 가입비가 저렴하고 무료로 단지내 내부통화는 물론, 대표번호, 통화중대기, 지정시간통보, 착신통화전환, 직통전화, 3인통화 등 편리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통신시설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통신의 정보통신 전문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전화국의 모든 업무를 단지내 구내통신지점에서 처리하며 통신시설 장애발생시 즉시 수리가 가능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내통신서비스는 출판단지의 통신시설 투자비 및 통신비용 절감, 업무효율의 향상 등은 물론, 대외적으로 단지의 부가가치 상승에도 커다란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드림타운 서비스는 한국통신의 광인터넷회선과 LAN장비를 통하여 초고속인터넷 접속은 물론 인터넷응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지내 건물별 가입자간 네트워크로 「사이버 공동체」구축을 가능케 하는 미래형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놀라운 전송속도를 보장하면서도 속도에 비



해 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일 업종간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경우가 빈번한 출판단지 입주사들에게 단방향인 ADSL보다는 양방향인 사이버드림타운이 효율적이며 특히 화상회의, 영상회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용에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출판단지에 제공되는 인터넷응용서비스는 단지 홈페이지구축 및 운용관리, 지역뉴스, 상가정보 제공 등 지역 정보서비스를 비롯, 단지 안내 등 단지내 정보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동호회 등 정보교류 서비스, 뉴스, 취업 등 사이트연결서비스 등의 기본서비스는 물론 향후 사이버회의, 관리비 고지 및 납부, 원격검침, 원격방범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이용이 편리한 사이버드림타운 서비스는 컴퓨터만 켜면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서비스로 세계적으로 검증된 한국통신의 기술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끝으로 파주출판단지 조성을 계기로 우리 출판정보산업이 한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대역사에 지희 한국통신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기웅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판도시 10kw 풍력발전기 가동 출판단지 인포룸과 한옥에 전력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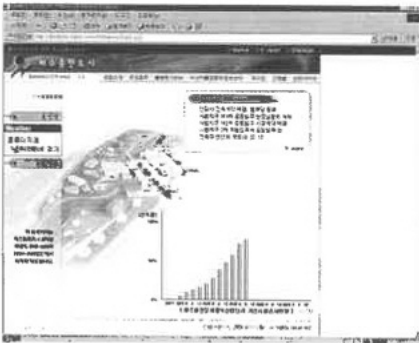
세계 최초의 환경친화적인 파주출판도시에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고 있다.

파주출판단지조합은 환경연합 에너지대안센터와 공동으로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앞 녹지에 10kw 용량의 풍력발전기를 시범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인포룸과 한옥에 공급하고 있다.

이 풍력발전기는 독일에서 생산된 것으로 타워 높이는 25m, 날개 지름은 7.13m, 날개 수는 3개로 주변 건물에 지장없이 바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조합에서는 10kw 풍력발전기를 세우기까지 2년여에 걸쳐 계획과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및 에너지대안센터에서 기술자문을 받아 설치했다.

출판단지조합은 환경친화형 설계, 생물의 다양성 증진, 에너지 효율 추구 등을 설계자침에 반영하여 말로만 하는 환경운동이나 생태건축이 아닌 구체적 대안으로서의 풍력발전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조합에서는 출판도시에 무공해 자연에너지인 풍력발전기를 가동함으로써 천연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활용을 증대시키고, 출판도시가 지향하는 환경, 생태도시의 정체성을 재확인해 나가는 출판인들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풍력발전기 설치에 서울과 수도권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민간이 최초로 건립, 운영한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출판도시 홈페이지 공식 개통 www.bookcity.org

출판도시 홈페이지 www.bookcity.org 가 공식적으로 개통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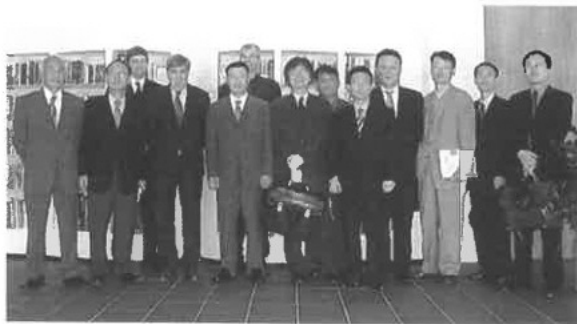
홈페이지에는 조합의 기본적인 업무를 비롯, 출판단지 설계 건축,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계시판, 간행물 등 우리 조합에서 추진하는 출판도시 건설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아울러 평소 출판단지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각 사이트마다 세분하여 조합소개와 CM조직, 출판도시사이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공지사항 계시판, 간행물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심있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기용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출판단지가 인간과 자연,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생태도시, 책의 도시, 문화의 도시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고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일주사는 물론 건축에 관계되는 모든 이들이 지닌 다양한 사고를 수렴하여 공동성 실현이라는 도시적 목표를 향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단지조합은 단계적으로 홈페이지 내용을 보완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출판문화정보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한국출판유통(주), 네덜란드·독일 주요 유통회사 벤치마킹

한국출판유통(대표 홍승대)은 파주출판단지 2만2천평 부지에 들어설 출판유통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유통시스템 설계와 건축 설계 파트너인 삼성테크윈과 기오현 설계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유럽의 주요 유통회사인 네덜란드 센트럴 북하우스(Centraal Boekhuis)와 독일의 베텔스만, 리브리사를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방문해 주요 출판유통 시설물과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벤치마킹을 했다. 출판단지 신기설 기획위원은 선진 출판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위해 함께 합류했다. 네덜란드의 최대 출판유통회사인 센트럴 북하우스(Centraal Boekhuis) 벤치마킹을 마친 후(2001. 9. 5.) (좌로부터) Henk Geer(Logistic director), 신기설 출판단지 기획위원, Cees Pronk(Senior manager), C.J.Hagenbeck CEO, 홍승대 한국출판유통(주) 사장, 민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기오현 대표), 삼성테크윈 관계자.



pajubookcity

파주출판도시

지난 해 열린 시범지구 8개섹터의 건축전시회에 이어 2001년 21개 섹터의 담당 건축가를 선정하고 현재 35명의 국내 외 건축가가 60여 출판사의 사옥과 출판 관련 산업시설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지구의 건축은 이미 착공되었거나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준비 중에 있습니다. 21세기의 첫해가 저무는 12월에 다음과 같이 2차 건축전시회 '공동성의 가치'를 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개전 행사에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전 2001 12 15 토 오후2시

장소 파주출판도시 인포룸(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전화 031 942 0016)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 이기웅

invitation

on behalf of the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i would like to request the honour of your presence at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ethics of communality*

on saturday, december 15, 2001 at 2:00 pm

at the inforoom of paju book city, paju, kyongki-do, korea (telephone 031 942 0016)

yi ki-ung, chairman,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공동성의 가치

파주출판도시 2차 건축전시회

ethics of communality

architectural exhibition, phase-2, paju book city, korea

일시 2001 12 15 토요일 - 2002 01 15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파주출판도시 인포룸 paju book city inforoom(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전화 031 942 0016)

심포지움 symposium - 공동성의 가치

일시 2001 12 14 금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연세대학교 연세공학관 대회의실 (공학관 b1)

발표자 yung-ho chang(beijing) waro kishi(kyoto) xaveer de geyter(brussels)

actar architectura(barcelona) alejandro zaera polo(london)

토론자 강혁(경성대학교) 이일훈(건축집단 후리) 김광수(팀반)

후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시회 참가건축가 architects

김광수 kim kwang-soo 김광현 kim kwang-hyun 김병윤+안희상 kim byung-yoon+ahn hee-sang

김병현 kim byung-hyun 김봉렬 kim bong-ryul 김석철 kim suk-chul 김영섭 kim young-sub 김영준 kim young-joon

김원 kim won 김인철 kim in-cheul 김종규 kim jong-kyu 김현 kim hun 민현식 min hyun-sik

서현+변희철 seo hyun+byun hee hyub 세지마 카즈요+니시자와 류에 kazuyo sejima+ryue nishizawa

스텐 알렌 stan t. allen 송효상 seung h-sang 악타르 아키텍투라 actar architectura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파시드 무싸비 alejandro zaera polo+farshid moussavi 키시 와로 waro kishi

우경국 woo kyung kook 이일훈 e il-hoon 이종호 yi jong-ho 이항배 lee hang-bae 장영호 chang yung-ho

자비르 데 고위터 xaveer de geyter 정기용 chung guyon 정성원 jung sung-won 조건영 cho kun-young

조병수 cho byoung-soo 조성룡+최수익 joh sung-yong+choi soo-ik 최두남 choi du-nam 최문규 choi moon-gyu

최욱 choi wook 플로리안 베이겔 florian beigel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출판단지조합 : 제2001-05호
수 신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회장
제 목 : 조합원(회원) 변동보고서 제출

2001. 1. 8

1. 귀 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4)분기 조합원 변동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분기별 조합원 변동현황

(단위: 천원)

구분	조합원수			출자자수			출자금액			총입원수		
	전기분	금기분	증감	전기분	금기분	증감	전기분	금기분	증감	전기분	금기분	증감
현황	206	207	1	6,835	6,839	4	6,835,000	6,839,000	4,000	10,304	10,310	6

나. 지역별 조합원 분포상황

(단위: 천원)

구분	조합원수	출자자수	출자금액	총입원수	비고
지역					
서울	194	6,601	6,601,000	10,163	
인천	1	3	3,000	5	
경기	9	226	226,000	90	
기타	3	9	9,000	52	
계	207	6,839	6,839,000	10,310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24호
수신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제목 : 출판단지 상업지구내 생활대책용지 건축설계 촉진 관련 건

2001. 2. 8

본 조합은 지난 2000. 6. 1. 공문 2000-78호로 귀 공사가 공급한 파주출판단지 상업용지 중 일부를 본 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현지 영농인들에게 보상조치 예정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로 인해 출판단지 사업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공동성'의 가치가 훼손되고 집단 계획도시 개념에 지장을 초래하여 난개발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을 상기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물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합은 급변 불 본적적인 건축공사 착공을 앞두고 시범지구 건축주들과 함께 상업지구를 분할받은 관련회사에서도 활발히 설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구 생활대책용지 관련 주체들은 본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산업공단을 조성하고 분할 책임을 지고 있는 귀 공사는 파주출판단지개발에 기여하는 도시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일관된 현안 과제로 다루 권 상업지구 생활대책 용지 개발문제를 조합에게 병행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제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 공사에서는 본 조합의 입장과 시기의 촉박성을 깊이 인지하시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건과 관련해 귀 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22호
수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조 : 문화산업국장
제목 : 파주출판단지 건축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협조 요청

2001. 2. 9

귀 부의 진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단지는 현재 급변 불 건축공공을 위한 개발 입주사 사옥 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관할 군부대의 건축고도 제한이 산업시설로서 소정의 생산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지정되어 사옥 설계는 물론 건축공공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가 진행중인 산업시설이 소정의 생산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군 관제기관에서 포괄적으로 지정한 건축고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입주하는 산업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절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귀 부에서 파주출판단지 건축고도제한을 입주 산업시설의 여건에 맞게 완화, 조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는 영조 공문을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공문내용에 등 건과 관련하여 관련 예하부대에 입주사 대표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용)과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하는 내용을 꼭 삽입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파주출판단지 조성공사가 국익 차원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일정에 맞춰, 2002년 5월 일주 목표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귀 부의 격렬한 관심과 배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출판단지조합 : 제2001-25호
수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참조 : 개발부상
제목 : 파주출판단지 입주시별 필지 실면적 통보의 건

2001. 02. 13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전락하는 귀사업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상업용지 입주시별 필지의 위치와 실면적표를 분입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허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1. 입주시별 필지 실면적표 1부
2. 입주시별 필지 현황도면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 ① - 조합원(회원) 변동보고서 제출
- ② - 출판단지 상업지구내 생활대책용지 건축설계 촉진 관련 건
- ③ - 파주출판단지 건축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협조 요청
- ④ - 파주출판단지 입주시별 필지 실면적 통보의 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5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0 코오롱인더스트리빌딩 511-0505 E-mail: PAJUCOOP@PAJU.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1-27호
수신: 파주시청
참조: 건설과장
제목: 파주출판단지 내 가로등, 교량난간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건

2001. 2. 19.

1. 귀 시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파주시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발송한 2001년 2월6일자 공문 전설 58710-259호 '파주출판단지 내 교량난간, 가로등주, 보도포장 설치협의 회차' 와 관련하여 지난 2월14일 파주시청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국장 등 식관계자들과의 업무 협의 결과 가로등, 교량난간을 포함한 단지 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파주시에 있음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동 건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의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파주시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공문을 본 조합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회의시 합의 및 토의한 내용이 담긴 회의록에 대해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빠른 기일 내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출판단지를 세계적인 문화산업단지로 만들고자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제 건에 대해 사려깊은 이해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숭달용 시장님과 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바입니다.

별첨: 회의록 사본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5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0 코오롱인더스트리빌딩 511-0505 E-mail: PAJUCOOP@PAJU.CO.KR

문서번호: 제 2001-28호
수신: 한국토지공사 파주시임단장
참조: 개발부장
제목: 파주출판단지 내 가로등, 교량난간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책임 소재 및 공사 관련 파주시와의 협의내용

2001. 2. 19.

귀 공사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토제 건과 관련, 지난 2월14일 파주시와의 합의 및 협의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출판단지 공사 업무 추진 시 참고자료로서 건히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된 귀 공사의 깊은 이해와 파주시와의 긴밀한 조치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파주시에 보낸 관련 공문 및 관계자 회의록 사본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5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0 코오롱인더스트리빌딩 511-0505 E-mail: PAJUCOOP@PAJU.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1-31호
수신: 한국통신공사 경기본부장
참조: 운영국 교환부장
제목: 파주출판단지내 통신서비스 시스템 설치 업무협조 및 계약 체결 건

2001. 2. 20.

1. 귀 공사의 건승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본 조합은 지난 2000. 4. 19. 파주출판단지 내 공공시설물 건축과 관련, 물입과 같이 귀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파주출판단지는 그간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기반조성공사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끝낸 4월경 시범지구 건축공사 착공을 앞두고 파주시에 건축허가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한 본격적인 설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건축공사 착공 계획에는 귀 공사의 통신 서비스 시설이 설치될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 건축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본 조합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설계 제하에 귀 공사의 일반전화 서비스 시스템을 채택할 예정인 바, 귀 공사에서는 설치에 필요한 경유광주와 설치 환경 및 특수 조건(있을 시)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 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지내 통신 서비스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본 조합과 귀 공사간에 장소 제공과 관련한 장기임대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계약에 대한 귀 공사의 입장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이 파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하시어 가급적 빠른 기일 내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관련 공문 사본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5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0 코오롱인더스트리빌딩 511-0505 E-mail: PAJUCOOP@PAJU.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1-35호
수신: 제9사단장
참조: 작전참모·군보실장
제목: 파주출판단지 건축고도제한 완화 요청

2001. 2. 26.

국토방위를 위해 준엄주야 노고를 이기지 않는 귀하와 귀 부대 장병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파주출판단지는 현재 국방부 당국을 포함한 군부대의 절대적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어려운 제한 여건을 극복하고 기반조성공사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끝낸 후 본격적인 건축공사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단지는 21세기 국제정보화와 지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국가산업공단으로 지정되어 국방부를 비롯한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파주시 등 국가적으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착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업무에 정밀제출은 국가산업 육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건축고도제한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2월 15일 국방부로 원조요청한 공문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청토를 부탁드립니다. 깊은 이해와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의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으실 줄 아오나, 국가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원대한 차원에서 본 사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유념하시어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재상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귀하와 귀 부대의 무운(武運)을 빌어 늘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첨부자료: 1. 파주출판단지 건축고도제한 완화
2. 고도제한 완화 관련 위치도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5 - 파주출판단지 내 가로등, 교량난간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건

6 - 파주출판단지 내 가로등, 교량난간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책임 소재 및 공사 관련 파주시와의 협의내용

7 - 파주출판단지내 통신서비스 시스템 설치 업무협조 및 계약 체결 건

8 - 파주출판단지 건축고도제한 완화 요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1-132 서울 강북구 신원로 508 (신원동) 508호
TEL 011-9599-4 FAX 011-9599 E-mail : PAJUPCC@NATEL.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1 - 37 호
수신 :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참조 : 경주지방
제목 : 파주출판단지 교통, 방범, 치안 등 안전교육 실시 협조 요청의 건

2001. 2. 27.

1. 민생치안 유지에 이념이 없으시는 서장님 이하 일선 경찰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국가발전의 핵심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지로 개발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신교로 고시 제1997-953)입니다. 본 단지는 문화산업단지로서, 단지기반시설공사가 7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출판문화 산업단지에 맞는 시설의 유치를 위해 우리 조합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각종 사업추진에 성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봄부터는 개별 입주사 사육이 본격적으로 착공되어 내년 월드컵 경기 이전에 시범지구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본체 공사 착공에 앞서, 출판단지 내 교통안전 대책을 비롯, 일민인 진출입시 교통안전 대책, 치안, 방범 대책, 교통표지판 설치문제 등 입주주체들을 위한 치안·안전 대책이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조합에서는 서장님께 아래와 같이 입주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우리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과 향후 민생치안 방법에 대한 교육 을 요청하오니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정일정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리오니 가급적 허락해 주시고 불거피할 경우 연락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1년 3월 7일(수) 14:00
- 장 소 : 출판단지 인포룸
- 내 용 : 출판단지 안전 및 민생치안 교육
- 대 상 : 출판단지 입주사 대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이 기 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1-132 서울 강북구 신원로 508 (신원동) 508호
TEL 011-9599-4 FAX 011-9599 E-mail : PAJUPCC@NATEL.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1 - 38 호
수신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참조 : 중소기업진흥공단 의정부지부장
제목 : 파주출판단지 고도제한 완화 협조 요청

2001. 3.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사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의 새로운 모델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국가산업공단으로 지정된 저희 파주출판단지가 성공적으로 세계적인 출판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나치게 규제된 현재의 고도제한 조치가 부분적으로 완화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파주출판도시의 관리부처인 문화관광부장관도 국방부의 고도제한 조치행위와 편면적 불협과 같이 최근 국방부장관 앞으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조치로서, 저희 파주출판단지 사업협동조합은 귀 공단이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적 강화를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국방부장관과 1군단장, 9사단장 앞으로 각각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출판단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용과 협조 등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 공단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건에 대한 귀 공단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치를 기대해 바입니다.

- 본 일 : 1. 협조 요청 문안 1부.
- 2. 문화관광부장관 편면 공문 사본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1-132 서울 강북구 신원로 508 (신원동) 508호
TEL 011-9599-4 FAX 011-9599 E-mail : PAJUPCC@NATEL.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1 - 39 호
수신 : 토지공사 파주시업단지
제목 : 출판단지 인포룸 진입로 성토 협조 요청

2001. 3. 2.

유래없는 폭설 등 어려운 공사여건 가운데서도 출판단지 기반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 사업단에 감사드립니다.

파주출판단지 입주사들은 금년도 건축공을 위한 사육설계, 건축허가 등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 여건속에서도 토지대금의 격기 납부 등 원활한 단지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판단지 인포룸에서는 각종 회의, 입주사 연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회의, 전시회 등 출판단지 조성과 관련된 각종 주요업무가 간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길기에 일었던 도로가 녹으면서 인포룸 진입로가 진흙탕길에 되어 차량 및 사람이 빠지는 등 진출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진입로 보수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바쁘실 줄 아오나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귀 사업단에서 진입로 부분에 대한 심도작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서 공사관계자들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1-132 서울 강북구 신원로 508 (신원동) 508호
TEL 011-9599-4 FAX 011-9599 E-mail : PAJUPCC@NATEL.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1 - 41 호
수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조 : 조경부장 / 파주시업단지
제목 : 녹지수로 끝부분 연결 나무데크 설치 건

2001. 3. 2.

유래없는 폭설로 인한 어려운 공사환경에도 불구하고 파주출판단지의 성공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고들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와 공사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31일 귀 공사의 조경 책임자 등 공사관계자와 본인을 포함한 조합관계자 및 건축코디네이터 간에 논의되었던 셋강 진입 녹지수로 끝부분의 처리와 관련된 연결부분은 나무데크를 설치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기술적 처리문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안은 귀 공사에서 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토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어 연락 드리오니 귀 공사에서 등 건과 관련된 검토결과를 토대로 본 조합을 대신한 송효상 건축코디네이터와 기술적 검토 및 최종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시 논의되었던 조경 관련 회의내용을 붙임과 같이 함께 송부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본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귀 공사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해 바입니다.

- 본 일 : 관련 회의록 사본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 9 - 파주출판단지 교통, 방범, 치안 등 안전교육 실시 협조 요청의 건
- 10 - 파주출판단지 고도제한 완화 협조 요청
- 11 - 출판단지 인포룸 진입로 성토 협조 요청
- 12 - 녹지수로 끝부분 연결 나무데크 설치 건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1 - 46호 2001. 3. 13.
수신 : 한국통신공사 경기본부장
참조 : 운영국 교환부 마케팅 부장
제목 : 파주출판단지내 통신서비스 시스템 설치 업무 협조 건

1 귀 공사의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로제 건과 관련해 본 조합은 지난 2월 20일 공문 제2001-31호를 통해 오는 4월 착공 예정인 아시아출판문화센터 내에 귀 공사의 통신서비스 시설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결하고 귀 공사에 본 조합의 통신 서비스 시스템 설치장소 제공과 관련된 사전 장기입대계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귀 공사의 입장을 알려 주시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오나, 20여일이 지난 현 시점까지 귀 공사로부터 회신이 없어 다시금 귀 공사의 입장을 알려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 건이 파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설계상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귀 공사의 조속한 회신을 기대합니다.

동 건에 대한 귀 공사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
이사장 이기웅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1 - 48호 2001. 3. 14.
수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조 : 시설설계처장
제목 : 녹지수로 최하단부 데크형 목교 설치 요청

새봄을 맞이하여 속도감있게 기반조성공사를 진척시켜 나가는 귀 공사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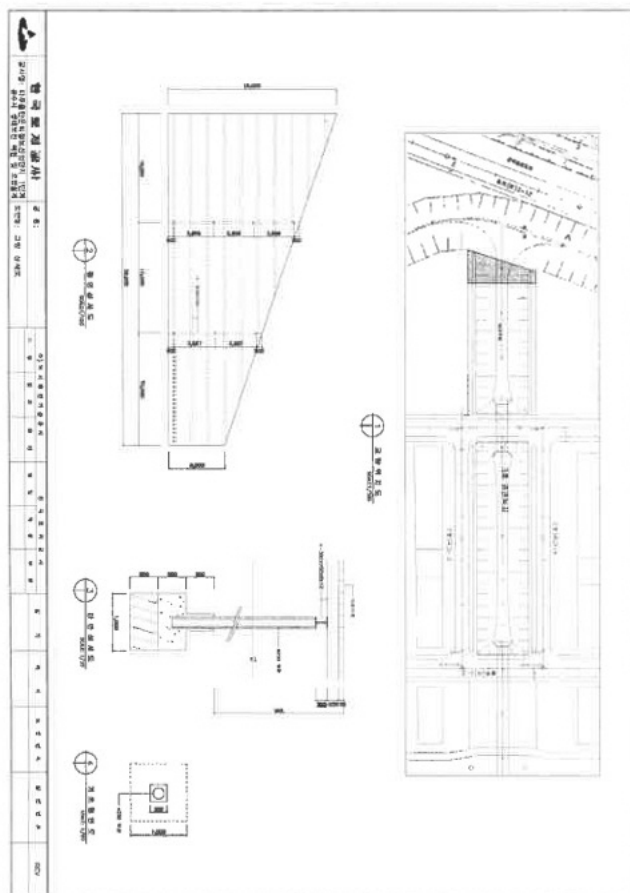
본 조합은 이상적인 환경친화적 문화산업도시 건설을 위해 타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유례가 없는 건축설계지침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단지전체 건축설계지침장 단지내 녹지수로(1) 최하단부는 양측 건축부지가 시가지, 경관적으로 일체화된 공간으로서 양측간의 정면성을 부여하여 보행자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단지개념을 수렴하였으나, 현재의 조성상황은 제각각 같은 수로가 개설됨으로 공간이 양분되어 단지 전체의 건축개념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구간은 예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나 현재의 시공여건상 예법이 불가함을 감안하여 조정 차원에서 봉인과 같이 데크형 목교를 설치 요청하오니 제확성있는 단지계획을 위하여 조정 설계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목세데크 설치위치 및 계획도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
이사장 이기웅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1 - 54호 2001. 3. 22.
수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조 : 문화산업국장
제목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기본계획서 및 운영계획(안) 제출

1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파주출판단지 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 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 부의 출신86000-3134호(2000.12.11.) 및 우리 조합의 출판단지조항 제2000-221호(2000.12.19.)와 관련하여 귀 부의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기본계획서 및 운영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권력적 차원에서 지정된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단지가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성원하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는 2002년 신년도 정부예산 계획에 반드시 관철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 1.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기본계획서 1부.
2.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운영계획(안)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
이사장 이기웅



- 13 - 파주출판단지내 통신서비스 시스템 설치 업무 협조 건
- 14 - 녹지수로 최하단부 데크형 목교 설치 요청
- 15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기본계획서 및 운영계획(안) 제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9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9-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011-6558-8 팩스 011-6558 E-mail : PAJUPCO@NATE.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 - 57호

2001. 3. 24.

수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조 : 파주시업단지장

제목 : 파주출판단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정화조 설치 건

1. 토제 견과 관련해 파주시장 앞으로 발송한 공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갈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산업단지 조성 초기에는 출판단지 내에 설치기로 귀 공사에 의해 계획되었으나, 파주시와 귀 공사가 협의 과정을 거쳐 파주시가 인근시설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본 조합은 이에 맞춰 모든 공사 및 설계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으나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및 현재 파주시의 진행사항에 비추볼 때 시범지구 사육 및 인쇄시설 입주가능 예정시점인 2002년 5월까지 과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가능할지 우려되는 바 같습니다. 동 건에 대해 귀 공사가 파주시와의 협의 당사자인 만큼 결과에 따라 차원에서 파주시와 조속히 협의 절차를 진행시켜 그 결과를 본 조합에 알려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붙임 : 공문 사본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9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9-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011-6558-8 팩스 011-6558 E-mail : PAJUPCO@NATE.CO.KR

출판단지조합 : 제2001 - 62호

2001. 03. 28.

수신 : 파주시장

참조 : 건설국장

제목 : 풍력발전기 시험설치 동의 요청

1. 귀 시의 이점없는 자원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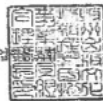
2. 우리 조합에서는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향후 출판단지 주변에 태양광의 풍력발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의 협조 지원을 받아 지난 2000년 5월부터 풍력발전기 시험설치를 설치하여 풍력자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대안센터와 우리 조합이 공동으로 출판단지 조성부지 녹지내에 풍력발전기와 같이 미관상으로 관경거리가 될 수 있는 시범풍력발전기(10kw)를 설치하고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향후 공공시설인수자인 파주시와의 협의 동의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여 귀 시에 풍력발전기 설치 동의 요청을 하오니 동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설치 위치도 1부.

2. 풍력발전기 설치 Photo 도면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9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9-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011-6558-8 팩스 011-6558 E-mail : PAJUPCO@NATE.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 - 68호

2001. 3. 30.

수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시업단지장

참조 : 개발부감

제목 : 가로등공사 재 협의 추가 회신

1. 새봄을 맞이하여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파주 (7동) 제 667-260호 (2001.2.9), 출판단지 제 2001-43호(2001.3.12)의 관련입니다.

2. 실무자 협의시 귀 공사에서 가로등 설치구간과 형태에 있어 10m이하 도로구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재 협의 추가 회신하오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가로등 설치구간 및 형태

가로등 형태는 공원형Type으로 하고, 인도 구분 없는 도로폭 10m이하의 가로등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도로 동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양면에 Zig-Zag 형태로 간격 조정을 하여 설치하고, 녹지수로(1) 양면에 위치한 8m도로는 녹지부분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할 것을 요청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9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9-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011-6558-8 팩스 011-6558 E-mail : PAJUPCO@NATE.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 - 69호

2001. 4. 2.

수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조 : 문화산업국장

제목 : 2002년도 예산 사업계획 제출

1. 출신 41110-766(2001. 3. 29.)의 관련입니다.

2.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문화시설부지에 건립할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에 필요한 2002년도 국고 지원예산 요청자료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필히 국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16 - 파주출판단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정화조 설치 건

17 - 풍력발전기 시험설치 동의 요청

18 - 가로등공사 재 협의 추가 회신

19 - 2002년도 예산 사업계획 제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U BOOK CITY

125-125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8-20000000000
전화 011-9502-8450/011-9502-8450 E-mail: PAUBOOKCITY.COOP

문 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 - 72호
수 신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참 조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사장
제 목 :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특약사항 및 추가 약정 내용

귀 공단의 건설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1세기 지식경쟁 시대를 맞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조성 중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와의 입주 계약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타 산업단지와는 달리 출판문화 지식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업관리 주체가 문화관광부인 점을 고려하고 또한 단지조성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부지 계약을 맺을 시 개별 계약자를 대표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을 계약당사자로 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제4(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및 제5(조(산업용지의 환수)와 관련된 사항이 발생시에는 개별계약자인 "을"을 대표한 입주자 협의체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과 사전 협의토록 한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웅



붙 임 1)공장 건축허가 신청계획표 1부
2)출판단지 제2000-220호(2000. 12. 19.) 공문 사본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U BOOK CITY

125-125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8-20000000000
전화 011-9502-8450/011-9502-8450 E-mail: PAUBOOKCITY.COOP

문 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 - 87호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허가과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축허가 신청계획서 제출

1. 주민 복지증진과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1997년 3월 31일 전교부 고시 제1997-95호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어 1998년 1월 8일 전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997-283호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동년 11월 20일 기반시설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단지 조성공사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3. 2002년 6월 월드컵 대회일정에 맞춰 자유로 문화페스티벌의 중심축으로서 세계인에게 우리나라 출판문화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2002년 5월까지 시범지구 입주자는 월터 입주를 해야하는 것이 정부와 조합이 함께 추진하는 목표이자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우리 조합에서는 귀 시가 출판단지 내 공장 건축허가 업무를 추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 총 허용량의 불명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에 대비하여 불합과 같이 출판단지 제2000-220호(2000. 12. 19.) 공문으로 우리 출판단지의 규모를 경기도지사에 게 알리 드린 바 있습니다.

4. 현재 출판단지 산업용지는 우리 조합에서 전량 매입하여 조합원에게 위치와 면적을 확정하고 단계별로 건축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아래와 같이 귀 시에 건축허가 신청계획을 제출하오니 본 조합의 소요량을 파악하시어 향후 건축허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축허가 신청계획표

신청예정일	업체수	대지면적(㎡)	공정면적(㎡)	비고
2001. 4.	31	82,243	75,515	
2001. 6.	9	24,551	40,889	
2001. 9.	32	55,546	75,024	
2002. 3.	29	61,407	65,539	
2002. 9.	34	148,412	122,229	
계	135	372,159	379,196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U BOOK CITY

125-125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8-20000000000
전화 011-9502-8450/011-9502-8450 E-mail: PAUBOOKCITY.COOP

문 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 - 83호
수 신 : 경기도지사
참 조 : 건설국장
제 목 : 56호 국지선 도로 확보장 공사 파주시 금촌 문발리 지역 인터체인지 공사 활성화 촉구

먼저 21세기 새로운 지역개발의 비전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국토계획을 선도해 나가는 귀 도의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구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국가산업공단으로 지정된 제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지정받은 68만평 중 1단계 24만평을 신분양 완료하고 현재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활발한 기반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1단계 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5월 30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포함한 출판사 사옥과 인쇄공장에 대한 건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함으로써 내년 5월이면 출판단지에 상당 규모의 출판 및 인쇄 생산시설이 입주,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건축공사 스케줄에 맞춰 귀 도에서 건설하고 있는 56호 국지선 도로 확보장 공사 구간에 포함된 파주시 금촌 문발리 지역의 인터체인지 공사는 우리 출판문화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동 공사를 주관하는 문화관광부 동 정부부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사 진척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에는 계획된 공정보다는 달리 가시적인 진척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인터체인지 공사가 내년도까지는 완공되어야만 자유로로 연결되는 출판단지 접근로가 확보되어 내년 5월 출판단지 입주사들과 출판단지를 찾는 국민들과 관광객들이 간접 활용할 수 있는 까닭에 저의 출판단지 조합은 동 인터체인지 완공시기에 비대한 관심을 갖고 동 공사기간을 앞당겨 주실 것을 적극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문학어진 속에서 출판문화산업을 적극 개혁해 나가는 이 땅의 출판문화인들이 13년간 집념어린 활동과 사임의 결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파주출판문화도시 2002년 6월 개최되는 월드컵 행사에 맞춰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1차 준공을 앞두고 있는

- 20 -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특약사항 및 추가 약정 내용
- 21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축허가 신청계획서 제출
- 22 - 56호 국지선 도로 확보장 공사 파주시 금촌 문발리 지역 인터체인지 공사 활성화 촉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2-135 서울 251-7 전화 031-9552-5252 팩스 031-9552-5253 E-mail: PAJUCO@PAJUCITY.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 - 96호

2001. 5. 21.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건설국장

제 목 : 「출판도시 시범지구 건축착공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 일정 안내

녹음이 길어가는 5월을 맞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신진 지방자치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 이하,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조합에서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과 관련, 지난 5월 17일, 13개 지명경쟁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 착공절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범지구 34개 출판 및 인쇄사육에 대한 허가절차도 위시의 아낌없는 협조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같은 진행에 따라 우리조합에서는 오는 6월 15일(금) 오후 2시 출판단지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에서 입주시 대표 및 1,000여명의 내외 관계자 및 지명인사, 언론인들을 모시고 「출판도시 건축공사 착공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을 거행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진행계획을 알려드리고 동시에 이날 시장님을 비롯, 시 관계관들을 초청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판단지 인도증에 불발판권이 실지를 진행중인 바, 오는 5월 30일(수) 오전 11시 「출판도시 통발판권기 준공식」을 황정운동원합 에너지대안센터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공식 초청장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착공이 있기까지 보내주신 민망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건축공사의 성공적 착공을 계기로 공동성 실행을 통해 건설되는 출판도시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출판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덧붙여 귀 시에서 중 기공식에 행사현장과 의자 등 행사에 필요한 용품의 지원이 가능하시다면 협조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2-135 서울 251-7 전화 031-9552-5252 팩스 031-9552-5253 E-mail: PAJUCO@PAJUCITY.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 2001 - 97 호

2001. 5. 21.

수 신 : 한국도자공사 파주사업담당

참 조 : 파주출판단지 개발사업소 소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 관공사관련 회의 및 자료요청

1. 친원정적인 개발과 세계적인 출판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애간하시는 귀 공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단지조성공사의 공정과 각 필지 특히 앞으로 있을 시범지구 입주시의 건축공사 착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한 회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전 기초 자료의 준비를 위해 관련서류가 필요하여 신청하오니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1) 상수도 관로 관련 사항 : 입입관의 크기 및 위치 등 / 공급압력
- 2) 우수 관로 관련 사항 : 분기관관의 크기 및 위치 등
- 3) 우수 관로 관련 사항 : 분기관관의 크기 및 위치 등
- 4) 통신 관로 관련 사항 : 시스템배정 및 작업시점 등
- 5) 전기 관로 관련 사항 : 소요량 파악 방법 / 기가설치 위치 및 방법 등
- 6) 도시가스 관련사항 : 작업시점, 필지별 소요량, 분기관 위치 / 후발 공사 예정 필지 대책 / 공급압력
- 7) 진입로 부근의 경계선 낮추기 : 진입로 위치조정 / 후발 공사예정 필지 대책 / 단지조성사업인사 인경 / 건축가사를 위한 사전협의

〈요청서류〉

- ① 기반시설(상수도, 우수, 우수, 통신, 전기, 도시가스 등)의 관로공사 서공도면 및 CAD 파일
- ② 단지조성공사 변경 상세공정표(PERT 또는 CPM공정표) - 각 공사의 편인 자료 필요 사항 및 공사 개시 시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2-135 서울 251-7 전화 031-9552-5252 팩스 031-9552-5253 E-mail: PAJUCO@PAJUCITY.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 - 100호

2001. 5. 24.

수 신 : 김근태 최고위원/민주당

참 조 : 동정담당 비서관

제 목 : 「출판도시 시범지구 건축착공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 참석 및 축하 요망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민생현안과 직결된 입법활동 등 연일 국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이하 관계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국가발전의 핵심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지식산업과 국가산업단지로서 우리조합에서는 오는 6월 15일(금) 오후 2시 출판단지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에서 입주시 대표 및 1,000여명의 내외 관계자 및 지명인사, 언론인들을 모시고 「출판도시 건축공사 착공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을 거행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13년동안 준비해온 출판단지를 가시화하는 뜻깊은 의미를 지닌 기공식 행사에 의원님을 초청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신후 아오나 반드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할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출판단지 인도증에 불발판권이 실지를 진행중인 바, 오는 5월 30일(수) 오전 11시 「출판도시 통발판권기 준공식」을 황정운동원합 에너지대안센터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공식 초청장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판도시 착공이 있기까지 보내주신 민망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성공적인 건축착공을 계기로 공동성 실행을 통해 건설되는 출판도시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출판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2-135 서울 251-7 전화 031-9552-5252 팩스 031-9552-5253 E-mail: PAJUCO@PAJUCITY.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 - 104호

2001. 5. 29.

수 신 : 지명경쟁 입찰사 대표이사

참 조 :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입찰 담당 일원

제 목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입찰가격 네고에 관한 건

귀사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5월28일 11:00 파주출판단지 인포룸(Information Room)에서 개최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입찰과정에서 보여주신 귀사의 노고와 적극적인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조합은 동 개찰시 함께 공개한 조달예정가격인 44억원에 8개 입찰참여업체 공이 상회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정가격 공개 시 부대조정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동 입찰이 유찰될 수도 있는 조건이었으나, 동 입찰이 파주출판단지의 건축공사 착공을 앞서는 첫 입찰이며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명경쟁 입찰인 점을 고려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5월17일 행한 현장설명회와 입찰시 공지해 드린 기준에 엄격히 적용하여 불입과 같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적용기준에 의해 선정된 진수에 의거, 1차 우선협상 대상을 배점 90점 이상을 획득한 삼환기업, 동원건설, 장학건설 순위로 정하여 협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입찰가격에서 3rd lowest를 차지한 신구종합건설은 불입의 종합평점에서 기타 사항을 고려해 평가한 결과 4위를 차지해 삼기 3개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시 후순위 협상 가능회사로 고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내역서 검토후 결정적 학자가 발견 시 재차 재고 및 협상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입찰에 참여해 주신 8개 지명경쟁입찰 회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이번 입찰 참여가 향후 출판도시에 대한 디딤돌은 관심과 참여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 25 - 「출판도시 시범지구 건축착공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 일정 안내
- 26 - 파주출판단지 관공사관련 회의 및 자료요청
- 27 - 「출판도시 시범지구 건축착공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 참석 및 축하 요망
- 28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입찰가격 네고에 관한 건

붙임: 1)입찰결과 우선 협상대상 순위
2)입찰서 개찰 결과표
3)조항 예정가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입찰결과 우선 협상대상 순위

(단위:원)

최종 순위	업체명	낙찰 순위	입찰금액	가격점수	신용평가 점수	가산점수 (수용공사공법)	총 계
1	상원기업	2	5,097,400,000	84.72	9.00	1.00	94.72
2	동원건설	1	4,939,000,000	90.00	2.00	2.00	94.00
3	장학건설	4	5,160,100,000	82.63	7.00	1.50	91.13
4	신구종합건설	3	5,150,000,000	82.97	4.00	0.50	87.47

파주출판단지 건축공사 추진계획(조정)

1. 건축공사 추진 일정(안)

구분	1차 입주	2차 입주	3차 입주
건축설계	2000. 4 / 2001. 3	2000. 10 / 2001. 9	2001. 4 / 2002. 3
건축협의	2001. 4 / 2001. 5	2001. 9 / 2001. 10	2002. 3 / 2002. 9
건축공사	2001. 6 / 2002. 4	2001. 10 / 2002. 9	2002. 10 / 2003. 9
이전공사	2002. 4 / 2002. 5	2002. 10 / 2002. 12	2003. 10 / 2003. 12
업무개시	2002. 5	2002. 12	2003. 12

2. 입주단계별 건축계획(안)

단위: 평

구분	1차 입주		2차 입주		3차 입주	
	필지	건축면적	필지	건축면적	필지	건축면적
유통시설	-	-	-	-	1	14,000
인쇄·저류시설	5	7,070	11	5,400	15	16,930
출판시설	34	25,590	21	15,700	52	33,900
산업시설 소계	39	32,660	32	21,100	68	64,830
주거시설	-	-	-	-	1	4,800
상업시설	-	-	1	2,400	1	14,000
문화시설	1	1,860	-	-	(1)	2,140
합 계	40	34,520	33	23,500	70	85,770

입찰서 개찰 결과표

- ▶ 공사명: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신축공사(1단계-Phase2)
▶ 개찰일시: 2001년 5월 28일 오전 11시
▶ 개찰결과 비교표

점수	회사명	입찰금액	낙찰순위	확인	비고
1	동원건설(주)	₩ 4,939,000,000	7		
2	상원기업(주)	₩ 5,097,400,000	2		
3	전백건설	₩ 5,211,000,000	5		
4	동원건설	₩ 4,939,000,000	1		
5	신구종합건설	₩ 5,150,000,000	3		
6	명지건설	₩ 5,319,000,000	6		
7	상원종합건설	₩ 5,190,000,000	8		
8	장학건설(주)	₩ 5,160,100,000	4		
9					
10					
11					
12					
13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신축공사(1단계-Phase2)

▶ 예정가격 :  四拾四億 원정
(₩ 4,400,000,000.00)

1. 최저가가 예정가격 이상이면 流札 수 있습니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七拾% 이하면 멸품으로 간주. 탈락

2001년 5월 26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29 서울 강서구 강서로 389 강서출판문화단지
389-311 0508-8-0000 011-0508 E-MAIL: PAJUBOOKCITY@NATE.COM

문 시 번 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1 - 112호

2001. 6. 4.

수 신 : 문예진흥원장

참 조 : 비서실장

제 목 : 「출판도시 시범지구 건축착공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 참석 요청 및 축하 의뢰

만물이 생동하는 6월을 맞아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본 단지는 문화산업단지로서, 현재 디지털만사설공사가 7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출판문화산업단지에 걸맞는 시설의 유지를 위해 우리 조합에서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건설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부터는 개별 입주사 사유이 본격적으로 착공되어 내년 월드빌 경기 이전에 시범지구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출판단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조합에서는 오는 6월 15일 (금) 오후 2시 출판단지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에서 입주사 대표 및 1,000여명의 내외 관계자 및 제명인사, 언론인들을 모시고 「출판도시 건축착공식」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을 거행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기공식은 지난 13년동안 준비해온 출판단지 일체화의 의미가 물려지는, 우리조합 최대의 희대인 자리로,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 원장님을 초청하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함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착공이 있기까지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이런 건축공사의 성공적 착공을 계기로 공동선 실현을 통해 건설되는 출판도시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출판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력을 살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초청장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이사항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29 서울 강서구 강서로 389 강서출판문화단지
389-311 0508-8-0000 011-0508 E-MAIL: PAJUBOOKCITY@NATE.COM

문 시 번 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1 - 114호

2001. 6. 4.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건

21세기 수도권 지역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귀 시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귀 시 공문 상하 58450-1289호(5.15) 및 58450-1370호(5.25)와 관련된 본 조합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알려 드리오니 출판단지의 성공적인 입주수행을 위해 격의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본 조합은 지난 2월 14일 귀 시 시장실에서 시장님과 사회산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2002년12월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전 일부 출판단지 사전 입주 시 필요한 임시처리수단으로 시장님의 제안에 따라 탱크로미 이동처리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 귀 시의 요청에 따라 파주시 시청 회의실에서 건설국장 주권 하에 상하수도과장 허가과장 환경보호과장 등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들과 한국토지공사 및 본 조합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12월이전에 사전 입주하는 시범지구 일부 입주사들에 대해서는 준공을 2002년 12월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완공 시점과 일치시키기로 하고 파주출판단지를 파주시 하수종말처리 지역으로 고시하고 파주시에서 조치키로 함으로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 시와 한국토지공사, 파주출판단지 3자간의 합의 및 검토 도출에도 불구하고 귀 시 환경보호과 실무실에서 상기 합의사항을 도의시하면서 계속 임시 공동오수처리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로 인해 건축허가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산업단지로서 거점만이 범국민적 차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처우는 6월15일 건축공사 착공식 일정이 성대한 개최가 어려워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본 조합은 시범지구 건축물이 선행 2002.12. 이전 완공되더라도 입주를 2002년 12월 이후로 늦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입주, 가동해야 할 보전제 인쇄소에 대해

시는 6개월 정도 선입주기간에 필요로 하는 자체 임시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조합에서 2002년 5월 입주를 서두르는 것은 2002년 6월 월드빌 행사에 맞춰 파주출판단지 시범지구를 준공해야 한다는 정부의 권유와 독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시점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그 이전에 입주하는 업체에게 별도로 공동하수처리시설을 할 것을 의무화한다면 조합으로서의 입주시점을 2002년 12월로 늦출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조합의 입장은 파주시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동시에, 불과 6개월 정도의 임시 하수처리를 위해 불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 내린 조합의 결정이오니 이 점 용납하시어 귀 시 공문 상하 58450-1289호(5.15)에서 제시한 2002년 12월 1단계 준공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전의 협조 및 지도관함을 당부 드립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이사항 이기용



29 - 「출판도시 시범지구 건축착공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 참석 요청 및 축하 의뢰

30 - 파주출판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건



2001. 6. 4.

제 목 : 파주출판단지 입주사 지방세감면신청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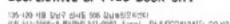
2. 질 약시는 마와 같이 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국가 발전의 핵심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지로 개발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건교부고시 제1997-95호)입니다. 현재 단지개발시행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2001년 6월부터 입주업체들이 사옥 건축을 시작하여 2002년 상반기에 1단계 개발지구(약 21만평)에 1차로 60여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3.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지조성공사 준공시점은 2002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에서는 2002년 6월 월드컵 행사에 맞춰 파주출판단지 시민지구와 관공해야 하는 역사의 사명 완수를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난 5월 16일 우선 입주하게 될 34개사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입주준체들의 사옥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피추출판문정보보안담당자가 지방세법 제276조(산입
담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
231조(감면신청)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토지공사에서 지난 5월 16일
종결자건 토지사용승인서를 받은 34기 입주자를 대신하여 우리 조합이 일괄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로 승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한국토지공사의 준공인가전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웅



2001. 6. 28.

제 목 : 자유로 지표수 처리 대책 회신 요청

귀 공사의 변함없는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귀 공사의 헌신적인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파주출판단지 기반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6월 15일 5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출판단지 전속공공 작업 및 아시아출판문화센터 기공식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공무로 분담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해 좌공식 행사를 빛내 주신 귀 공사의 전직 김윤기 사장과 서울지사장, 파주사업단장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파주출판단지 프로젝트는 단순히 출판문화인들이 책마음을 조상하는 단계를 뛰어 넘어 21세기 우리나라 지식경제 산업을 선도할 국가전략적 자원의 인프라 구축 전진기지인 동시에 문화산업도시를 건설하는 환경친화적 사업으로서 각계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40여명의 국민의 명암이는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계획도시로서 셋값의 수
질보조 기능이 무엇보다 증시된다는 점에서 저회 조합은 그간 조경공사를 주관하는 귀
공사 조경부를 통해 실제 단지 조경사업을 수행하는 도회종합개발자 셋값으로 유제되는
요인된 지로수가 사선에 적절한 결구정식 등을 통해 정화·치리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그 계획서를 세세히 검토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유로에서 유입되는 지표수 처리와 관련해 다수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저유로를 통행하는 수돗물 청량수로 인한 아스팔트 분진과 타이어 조각, 고수차도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오염물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질오염의 잠재점을 안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각별한 대책 수립으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귀 공사에서는 출판단지 내 셋방으로의 유입이 우려되는 오염된 자유로 지표수 처리와 관련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실제 설계와 시공 상에



2001. 6. 11.

귀 공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시범지구 건축공사의 착공식을
2001년 6월 15일 14:00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 기념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과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등 귀빈을 모시고 성대한 착공식을 준비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지원사항이 긴히 필요하여 요청하오니 본임의 도면자료에 의거,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1) 행사장 진입 기존 가설도로의 보수
- 2) 행사장 진입에 필요한 추가 가설도로의 조성
- 3)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 정지 작업
- 4) 행사를 위한 가설 화장실 3조
- 5) 살수차 지원

행사장 진입 가설도로 현황 1부

이 사장 이 기 용



서 이러한 불세접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출판단지는 갈대밭강을 환경친화적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건에 대한 귀 공사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리며 빠른 회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 이가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0-120 서울 중랑구 가락동 300-2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0568-3 팩스 511-0568 E-mail : PAJUCO@NATE.COM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 2001 - 136 호 2001. 7. 5.
수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참조 : 파주출판단지 개발사업소 소장
제목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38-1) 및 보진재(11-1) 부지 인도 요청

1. 파주출판단지 조성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는 귀 공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6월 22일 보진재 시공자인 동원건설에서 입수한 11블럭 1로트의 좌표점과 6월 29일 귀 공사에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시공자인 장학건설에서 전달한 38블럭 1로트의 좌표점에 의하여 별첨 공문 내용처럼 각 필지의 현장에 경계점을 측량하여 표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귀 공사에 상기 필지의 경계점과 기준점에 대한 확인과 부지의 인도를 요청하오니 사안의 중요성과 화급함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두 부지에 대한 좌표값과 레벨값 및 측량의 기준점을 동시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또한 지난 6월 29일 귀 공사와의 건축공사관련 업무 협의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귀 공사의 측량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 측량점 확인식 본 조항과 각 부지의 건축공사 감리자 그리고 시공사가 임의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예정 일정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공사 시공사의 경제현황 자료제출 공문 4 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0-120 서울 중랑구 가락동 300-2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0568-3 팩스 511-0568 E-mail : PAJUCO@NATE.COM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1 - 146호 2001. 7. 25.
수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조 : 파주사업단장 / 조경부장
제목 : 조경 총괄도 송부 요청

출판단지의 성공적인 기반조성공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 공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공사에서 도화종합공사를 통해 입안되어 제출된 조경설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별 필지 조경 등 단지 전체의 세부적인 조경계획 수립을 위해 전체 조경 총괄도가 긴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괄도 크기는 1/200 또는 1/300 로 확대하여 도화종합공사에서 작업한 CD를 통해 등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도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등 총괄도의 시급성을 인지하시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0-120 서울 중랑구 가락동 300-2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0568-3 팩스 511-0568 E-mail : PAJUCO@NATE.COM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1 - 151호 2001. 7. 30.
수신 : 건축허가 취득 입주사 대표
제목 : 건축착공을 위한 건축주 회의 개최 안내

『공동성 정신』에 의해 입지단결되어 순환하고 있는 출판단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집행부가 제시한 건축일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3일자 출판단지조항 제2001-145호 공문을 통해 알려 드린 바와 같이 우리조합에서는 지난 7월 19일 정기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건축일정 및 사육건축 진행방법, 건축착공 분담금 확정 등 출판도시의 원활한 건축공사 일정 추진을 위한 방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축허가를 취득한 시범지구 건축착공 예정입주사를 대상으로 8월 4일까지 제출되는 설계내역서를 검토 후 실질적인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세부 공사진행방법과 자금운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건축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건축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공사담당하시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실시일제되면, 지방시, 전격시 등을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건축주에서는 설계자와 협의하시어 조속한 시일(8월 4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1년 8월 10일(금) 14:00시
- 장 소 : 출판단지 인포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0-120 서울 중랑구 가락동 300-2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0568-3 팩스 511-0568 E-mail : PAJUCO@NATE.COM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1 - 156호 2001. 8. 4.
수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조 : 파주사업단장
제목 : 시범지구 입주에 필요한 기반시설공사 촉구

1. 지리시설 복구를 동반하였던 지루한 장마도 끝나고 섬세 30도를 웃도는 폭염하에서도 파주출판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하시는 귀 공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조합 공문 제2000 - 144호(2000. 8. 26), 제2000 - 161호(2000. 9. 30), 제2001 - 99호(2001. 5. 22)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시범지구 1차 입주(40개 입주사)는 2002년 5월말, 2차 입주(33개사)는 2002년 12월, 3차 입주(70개사)는 2003년 12월로 입주할 계획임을 알려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정에 따라 예정대로 우리 조합에서는 1차로 2002년 5월 입주를 목표로 시범지구내 입주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출판사, 인쇄사 등 30개사는 지난 5월 29일 파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중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보진재 인쇄사는 지난 6월 15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나머지 입주사들도 9월 15일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공사입찰 등 착공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입주사들의 이전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며 인쇄사인 경우 이전에 앞서 시운전기기간이 2개월 이상 필요한 까닭에 입주사들로부터 확실한 기반시설 완공 일정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해 귀 공사에서 1998년에 발주하여 공사계약된 출판단지 내 지하매설(전기·상수도·오수관·우수관)공사와 통신·도시가스공사는 귀 현장의 공정상 2002년 5월말 입주사 사용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외부로부터 출판단지까지 연결되는 인입공사 추진과 관련 귀 공사로부터 아직 명확한 일정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과 공사완료 예정시기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오니, 등 전에 대한 귀 공사의 각별한 협조와 회신을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 가. 동축전선로 공사(학공일, 준공예정일)
- 나. 전기인입 공사(최대공급용량, 공급가능시기)
- 다. 상수도·도시가스·통신시설 인입공사(공급가능시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34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38-1) 및 보진재(11-1) 부지 인도 요청

35 - 조경 총괄도 송부 요청

36 - 건축착공을 위한 건축주 회의 개최 안내

37 - 시범지구 입주에 필요한 기반시설공사 촉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128 4층 2호기 (파주) 091-9558-5111 FAX 091-9558-5112 E-mail: PAJUBOOKCITY@NATE.COM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1-157호

2001. 8. 7

수신: 문화관광부장관

참조: 문화산업국장

제목: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활용 및 운영에 관한 건**

지식정보와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귀 부에서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출판문화 관련 산업인들은 파주출판단지 건설계획 수립시 열색한 출판문화의 한계성과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출판·인쇄·유통·제본·편집 디자인 기능의 집적화(集積化)를 통해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아울러 우리나라 출판문화 증진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을 적극 추진기로 한 바 있습니다.

출판·문화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정보제공과 전시·집회 및 연구·교육 기능을 담당하게 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97년 7월 18일 출판문화예술 관련 37개 단체장이 별첨과 같이 건의서를 통해 공공 목적을 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의 중차대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시설의 성격상 민사(民資) 건립에 한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제적 문화정보 교육·전시 및 한국전통문화의 공익에 어우러지는 '통일한국시대의 문화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국고보조 요청을 할 바 있습니다.

동 건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국고 보조를 받아 완공 시에는 건의서 서명단체의 하나인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해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제본공업협회, 서울시지류도매업협동조합, 저작권협회, 한국출판문화진흥회, 한국국악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화예술진흥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잡지협회 등 37개 단체가 동 센터의 전시·집회·정보·교육연수 시설을 함께 활용하기로 방향을 잡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건의서에 서명 기회를 갖지 못한 출판도시에 깊은 연관성을 가진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최근 귀 부에 등록된 출판인 회의 등의 유관단체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출판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그들의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깊이와 넓이를 확대시켜 나가는 장(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운영비전에 따라 출판 관련 각계에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시설은 무한 개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128 4층 2호기 (파주) 091-9558-5111 FAX 091-9558-5112 E-mail: PAJUBOOKCITY@NATE.COM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1-162호

2001. 8. 11

수신: 건축허가 취득 임우사 대표

제목: **건축착공을 위한 건축주 연찬회 개최 안내**

출판단지 건축일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에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0일 시범지구 건축주 회의는 공동성 실현이라는 도시적 목표 달성에 남다른 열의를 보이시는 여러 임우사 대표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실행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위원회의 구성을 비롯, 임우사 건축 진행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대표분들께서 사옥 건축과 관련하여 핵심화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축주 연찬회 일정을 마련하여 알려 드리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회가 개최될 예정이시고교육원은 시범지구에 임우하는 말과장조사 이원환 대표가 운영하는 곳으로 자연림으로 우거진 숲과 시원한 계곡이 어우러진 편안한 힐링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성이 가득한 맛깔스런 전통 음식을 비롯, 주변 일월재복물만 관망, 자연의 보고와 불리우는 동강의 아름다운 경경 등을 볼 수 있어 잠시나마 세상시름을 잊고 자연과 벗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조로 시원한 숲과 계곡을 빙하에 이웃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친목도 도모하고 나아가 임우사들의 건설한 예가와 건축에 따른 예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불만이 없도록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일 시: 2001년 8월 18(토)~19(일) (1박2일)
- 장 소: 예림미술교육원(강원도 영월군 수유면 무릉의 소계)
- 참석범위: 건축허가 취득 임우사 대표 전원
- 주요내용: 1. 시범지구 건축실행위원회 구성(위원장, 집행위원 선출)
2. 시범지구 건축공사 시행에 관한 협의
- 교통편의: 8월 18일 오후 2시 임우정 현대택시점 공동주차장에서
전세 버스로 출발하여 19일 12시까지 상경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128 4층 2호기 (파주) 091-9558-5111 FAX 091-9558-5112 E-mail: PAJUBOOKCITY@NATE.COM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1-166호

2001. 8. 20

수신: 문화관광부 장관

참조: 문화산업국장

제목: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운영에 관한 조합의 입장**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귀 부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토제 건과 관련된 지난 8월7일 출판단지조합 제2001-157호 및 8월 17일 귀 부 출판신문과에서 출판신문과장과 본 조합 상무이사·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간에 가진 회의 시제기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운영에 관한 합의를 초안에 대해 본 조합의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기 합의문 초안에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출판계에 국한된 공동시설로서 규정하고 한 실행 및 운영 주체인 조합과는 별도의 건립운영 주체를 출판계의 주요 단체장들로 구성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기 공문에서 상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1세기 지식정보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출판문화 관련 기업(興業)간 협동화사업을 이행할 목적으로 97년 3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그 필수 핵심시설이 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역시 그 지정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본 조합 상기 공문에 첨부된 37개 출판문화예술 관련 단체장의 건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판계를 포함한 인쇄·유통·제본·저작권 중개·학술·문학예술·편집 디자인 기능 등 다면적인 분야를 기획, 생산하는 연구와 교육, 문화전시의 장(場)으로서 동 분야의 유관단체 및 국민들에게 무한개량되어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건립운영 주체는 13년 전 출판문화 관련 기업들이 결합되어 실질적으로 동 시설을 건립 중이며 운영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작년 4월 20일 귀 부 문화산업국장에 의해 본 조합이 주체가 되어 동 시설의 건립을 추진할 것을 확정지은 바 있음을 자제에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출판계에 국한된 몇몇 단체와 한 시점에서 별도의 합의를 작성한다는 것은 당초 조합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설립 목적에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부지 확보 및 건설중인 Phase 2 건축공사는 조합의 자금으로 이미 상당액 투자되어 건립이 진행 중임도 아울러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동 센터 운영계획과 관련된 운영 규정 및 내규(內規)은 기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집행부의 의정을 거쳐 확정, 등 조전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 센터의 건립 추진 당시 협 출판문화계가 공동 서명한 건립, 운영에 대한 기본 취지가 본 출판문화계의 합의에 의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동 센터의 실질적인 활용과 운영 역시 이와 같은 기본정선에 의해 이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귀 부의 적극적인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 일: 동 센터 건립 추진 초기 관련 단체장 건의서 서명부 사본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용

- 36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활용 및 운영에 관한 건
- 39 - 건축착공을 위한 건축주 연찬회 개최 안내
- 40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운영에 관한 조합의 입장

또한 향후 이 시설을 활용할 다양한 출판관련 분야의 단체들과 재계들도 이미 이 시설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조합은 이러한 다양한 출판 관련 분야의 협력이나 이업종(異業種)간의 결합이라는 조합의 성격을 감안하여 입차적으로 자력강화(自力更生)의 의지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동 시설이 참여 입주사와 출판문화예술, 학술 관련기관 및 저자작과 독자 등 국민 모두에게 개방되는 공익적 목적에 쓰인다는 연유로 국가예산 보조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동 시설이 현상된 연후에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현 조합이 주관하는 현재의 체계를 별도의 법인체로 발전시킬 여지는 폭넓은 참여와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친다는 전제 하에 협상 협의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운영자금 모금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 지분 참여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낙후된 출판문화예술 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으로 13년 간 초지일관 출판단지 사업을 이끌어온 조합의 주체와 무자본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출판계를 포함한 모든 참여 문화예술 및 유관 단체들에게도 이업종간 협동화사업이라는 기본정신에 따라 출판계와 등용한 자격으로 본회가 책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부는 이러한 지회 조합의 설립 배경이 갖는 독특한 성격과 연계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설립 취지 및 운영 방향을 심본 이래하시어 이번 지회 조합이 신청한 예산에 대한 지원 절차가 유관단체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편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경쟁 차원에서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
이사장 이 기 용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 - 171호
수 신 : 9사단 강안대대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오수 무단 방류 시정 요청

2001. 9. 5.

한치의 오차 없는 철도경계라는 사명 완수를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귀 대대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우리조합에서는 지난해 출판단지조합 제2000-30호(2000. 3. 7), 2000-172호(2000. 10. 17) 공문과 수차례의 방문, 구두요청 등을 통해 귀 대대와 두 개의 조소에서 배출하는 오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귀 대대에서 시정을 하지 않아 심각한 악취까지 풍기는 해로운 오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 다시 한번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치는 마와 같이 우리 조합에서는 파주출판단지를 환경친화적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갈대밭강의 생태계 보전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대대에서 이같은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오수의 무단 방류를 즉시 중지해 주시고 정확한 하수가 방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만약 즉각 조치되지 않을 시 청와대,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나아가 환경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론화할 방침임을 알려 드리오니 귀 대대의 성의 있는 조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몸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군부대에서 오히려 나라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저도 귀 대대에서 방류하는 오수로 인해 온갖 동식물의 인식치인 갈대밭강의 오염도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는 한번 오염되면 복구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철물관계에 맞지 않게 나라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도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을 감안하시어 오수의 무단 방류를 즉시 중지해 주시고 정확한 하수가 방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만약 즉각 조치되지 않을 시 청와대,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나아가 환경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론화할 방침임을 알려 드리오니 귀 대대의 성의 있는 조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용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 2001 - 175 호
수 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참 조 : 개발부장/출판단지 개발사업소장
제 목 : 개별필지에 대한 우수분기관 설치요청

2001. 9. 8.

1. 파주출판단지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 사업단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단지내 개별필지의 우수처리와 관련하여, 검토해본 결과 필지별 분기전의 미설치는 준공 후 우수처리에 무리가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필지별 우수분기관 설치를 요청하오니 공사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필지의 크기에 관계없이 데 2,500㎡마다 1개소의 비율로 설치
- 2) 가능하면 필지의 경계에 맨홀을 위치시켜 양쪽에서 용도로 사용토록 설치
- 3) 수로에 우수를 직접 내보낼 수 있는 필지는 직접 연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용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 2001 - 184호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 조 : 파주사업단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용도지역 통일 요청

2001. 9. 25.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조성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는 귀 공사 임직원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보제 건과 관련된 지회 조합은 지난 99년 9월30일자 조합공문 제1999-125호와 2000년 8월1일자 공문 제2000-129호를 통해 귀 공사가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21세기 지식정보사업을 선도해 나갈 출판문화산업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된 현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귀 공사로부터 조치사항에 대한 관련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상업인쇄 및 출판유통시설, 지원용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출판용지, 영상산업용지, 공공지원시설, 문화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2차례에 걸쳐 귀 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업지역으로 분류된 인쇄사의 경우, 보진재 등 대규모 인쇄사 중 상당수가 출판업을 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공장 개념과는 달리 정보화 오피스 개념이 도입된 최첨단 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수지 인근에는 동일 필지가 2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인쇄사와 출판사가 함께 입주하는 모습을 조려하고 있어 입종간에 형평성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다수의 입주사로부터 불만이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출판유통시설을 주관할 (주)한국출판유통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 컴퓨터 제어, 바 코드 분류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분류시스템 설치와 출판사의 위락 보관이 주 기능이 될 것인 바, 이러한 첨단 자동화 분류시스템 시설은 기존의 공장시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과거와 같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단지 중 하나의 산업단지에

- 41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오수 무단 방류 시정 요청
- 42 - 개별필지에 대한 우수분기관 설치요청
- 43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용도지역 통일 요청

공급지역이 2개의 용도로 구분된 사례가 없고, 특히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식정보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지원부가 아닌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토록 하고 있는 지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라는 특성이 강한 점을 심본 고려하시어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를 공급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하나의 준공업지역으로 통일시켜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환경친화적 출판문화도시를 출판 관련 산업인들이 열과 정성을 모아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의 모범 사례로 건설되고 있는 출판문화 고유의 특성을 심본 고려하시어 동 건에 대한 사례 검토와 적극적인 검토에 따른 귀 공사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동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도시가스관 연계공사가 늦어져 뜨거운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2002년 말에 완공이 되지 않을 경우, 이는 출판단지 공사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입주사들에게 해어질 수 없는 재산적 피해와 영업상 차질을 빚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동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시어 귀 공사에서는 동축 진입로 조기 확충과 관련된 행정 및 보상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는 한편, 출판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이 2002년 말에 반드시 완공, 가동될 수 있도록 파주시당국과 적극적인 확인과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조속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에 출판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애초 출판단지 내에 귀 공사가 많이 설치되어 되어 있었으나 이를 파주시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주시에서 본 조합의 입주 스케줄을 맞추지 못한데 따라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125 서울 중구 248 306 2248800000
011-311-9000-8 팩스 011-311-9000 E-MAIL PAJUPCC@NATE.COM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207호
수신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제목 : 파주출판단지 임시하수처리시설 관련 건

2001. 10. 23.

상공적인 출판단지 기반조성공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귀 공사 임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귀 공사 공문 파주(가)6531-2901호(2001.10.11)에 대한 회신입니다.

본 조합이 파주시와 귀사와 함께 그간 협의 진행해 온 임시처리시설은 애초 파주시 본 세사의 추정되는 날리 처리 용량에 따른 엄청난 비용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 임시처리시설의 사용기간이 파주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파주출판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시점인 2002년 말인 점을 감안하면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아 동 기간 동안의 사용을 위해 조합이 그러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조합은 출판단지 시범지구 입주를 앞둔 행사 이전에 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적 권유에 의해 내년 5월 입주를 위해 그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시처리시설 비용이 지난 봄 동 건에 대한 협의 당시 파주시에서 주장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경제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일부 인쇄공장 등 초기가동이 불가피한 입주사에 한해 별도의 자체 우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여 가동기로 하고 2002년 말 이전 사육이 완공되는 나머지 일부 시범지구 입주사는 건물이 완성되더라도 2002년 말까지 입주자들을 늦추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그간 본 조합에서 파주시 관계자들과 접촉해 본 결과, 파주시에서 약속한 2002년 말 출판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일정을 확실히 보장해 달라는 조합의 요구에 대해 실무 책임자와 담당자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연 파주시가 2002년 말 하수종말처리장 약속일정을 지킬 수 있는지 일발의 위구심을 갖게 되며 이 사안은 조합 집행부뿐만 아니라 개별 입주사들의 불안요인으로 계속 내재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기치 못한 동축 진입로 공사 지연요인의 발생으로 인해 공장 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125 서울 중구 248 306 2248800000
011-311-9000-8 팩스 011-311-9000 E-MAIL PAJUPCC@NATE.COM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215호
수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조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제목 : 교량 무늬거푸집 사용에 따른 부조화 대책 수립 요구

2001. 11. 5.

파주출판단지의 기반조성공사 공정(工程)이 80%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활발한 단지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귀 공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단지가 수도(水源)를 중심으로 형성됨에 따라 1단계 사업구간에 6개의 교량이 설치되고 있으며 본 조합은 동 교량이 갖는 경관의 중요성을 감안해 출판단지에 참여한 건축가들과 함께 교량 난간과 교량에 일부 설치될 기호등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귀 공사가 그간 교량 설계과정에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귀사가 수행하고 있는 2, 3, 4, 5교량의 시공과정에서 교량의 난간벽 부력 무늬거푸집 사용에 따른 난간과의 부조화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교량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들과 논의한 결과, 동 무늬가 최양상 교량 전체 디자인과 일관된 무늬화를 이루고 있어 현 시점에서 반드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이미 시공한 부분은 표면용 grinding치리로 즉시 수정조치해 주시고 아직 시공에 들어가지 않은 제1교량과 제6교량은 무늬거푸집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평면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합은 동 무늬거푸집과 관련, 제2교량 착공 시점에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귀사 현장 소장 등에게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동 사항은 귀사와 본 조합과의 교량 난간 설계 협의 시에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을 차세에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적인 출판도시 건설을 위해 건축설계 자질을 정하고 단지내와 주변 조경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본 조합 집행부와 건축가들의 충정을 심본 이해하시어 동 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과 조치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 건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와 회신을 기대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 44 - 파주출판단지 임시하수처리시설 관련 건
- 45 - 교량 무늬거푸집 사용에 따른 부조화 대책 수립 요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0-120 서울 강남구 한남동 506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311-9566 팩시밀리 311-9569 E-mail : pajucoop@nate.com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 - 227호

2001. 11. 17.

수 신 : 문화관광부장관

참 조 : 문화산업국장

제 목 : 파주출판도시 2차 건축 전시회 개최 축하 요청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필소 저회 조합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귀 부에 성원에 힘입어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는 본격적인 건축공사 작공에 돌입하여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은 작년 12월16일 제1차 시범지구 건축전시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2월14일과 15일에는 '공동성의 가치'를 주제로 건축 심포지엄 및 제2차 건축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조합은 파주출판단지 인포룸에서 12월 15일(토)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2차 건축전시회에 문화관광부 장관님을 모시고 추사를 돈고자 하오니 공사담당하신 줄 여으나 제 개적인 출판문화산업단지를 만들려는 출판문화인들의 여망을 적극 수렴하시어 반드시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21세기 지식정보기반산업의 주역이 될 출판문화인들이 국내외 위시있는 건축가들과 함께 공동 개최하는 이번 2차 건축전시회는 출판단지에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착공할 40여 개 출판사, 인쇄공장 사옥 및 한국출판유통(주)의 도림과 설계도가 전시됨으로써 출판계뿐만 아니라 국내외 건축계와 문화예술계에도 특정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은 별첨과 같이 자세한 일정은 조정장과 함께 추후 귀 부에 보내드릴 예정임을 청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제2차 건축 심포지엄 및 건축전시회 내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도시 제2차 심포지엄 및 건축 전시회

- 주제 : 공동성의 가치 Ethics of Community

파주출판도시 2001년 제2차 건축전시회 심포지엄

파주출판도시 2001년 제2차 건축전시회

일 시 : 2001년 12월 14일(금) 오후 7시~9시
장 소 : 연세대학교 연세동학관 대회의실(공학관 B1)

일 시 : 2001년 12월 15일(토) 오후 2시~4시
장 소 :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발표자 : 파주출판도시 참여 건축가(외국) 5개팀

Yang Ho Chang(Beijing)
Waro Kishi(Kyoto)
Xavier de Geyer(Brussels)
Azar Group(Barcelona)
Alejandro Zaera Polo(London)

회 순

1. 개최인사 및 경과 보고 : 송보성 건축코디네이터
2. 인사말 :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3. 내빈축사 : 문화관광부 장관
4. 건축설명 : 제2차 심포지엄 및 해당 건축가
5. 작품 관람
6. 다과회 (15:30 이후)

토론자 : 장 학(서울대 교수)
이일훈(건축집단 우리 대표)
김영수(탐반 대표)

진 행 : 19:00 - 개회
19:05 - 인사말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19:10 - 발표 20분 X 5인 = 100분
20:50 - break
21:00 - 폐회
21:20 - 다과회

준공인가전 토지사용 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이 기 용	사업자등록번호	128-82-02734
	임대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전 화 번 호	02)511-9566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54-25		
사업명칭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선업단지 개발사업(1단계)		시행기간	1998.10.21.~2002.2.20.
시행면적	873,341㎡		사업진도	
신 청 내 용				
사용신청 대상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파주시 교하면 산남리 일원		1736목 - 10	1,033.0	재원시설용지
사용신청용도		공사현장 식당 및 현장관리 사무실 일부		
<p>신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2001년 11월 일</p> <p>신청인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p> <p>이 사 장 이 기</p> <p>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귀하</p>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0-120 서울 강남구 한남동 506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311-9566 팩시밀리 311-9569 E-mail : pajucoop@nate.com

출판단지조합 : 제2001 - 227호

2001. 11. 19.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참 조 : 고객지원부장

제 목 : 토지사용 허가 신청의 건

1. 파주출판단지 조성공사에 여념이 없으신 귀 공사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5월 16일 귀 공사로부터 준공인가전 토지사용신청서를 받은 34개 필지에 대하여 파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주)보전채를 필두로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파주출판단지 공사현장 인근에 식당이 없어 많은 공사관련자들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래와 같이 귀 공사 소유의 지원시설용지(파출소)에 공사현장을 식당 및 현장관리 사무실 일부로 쓸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토지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에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 용 용 도 : 공사현장 식당용 가설건축물 신축
- 위 치 : 파주시교하면 산남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736목 - 10
- 토지사용 면적 : 1,033.0㎡
- 토지사용 기간 : 2001. 11. 23. ~ 2003. 12. 31.

첨 부 : 1. 준공인가전 토지사용신청서 1부

2. 지원시설용지(파출소) 위치도 1부 붙.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



5. 귀 부에서 이미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회 파주출판단지는 자력생성의 의지로 출판인 지회 활성화와 출판문화진흥의 구상책이 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를 입주사들이 십시일반으로 각출한 문화시설분담금으로 매입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 예산이 책정될지 이전에 신착공(新着工)함으로써 체계적인 출판문화도시를 건설하려는 출판문화인들의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판문화인들의 의지가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정책에 힘입어 21세기 새로운 출판문화의 비전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모록 이밖에 제출하는 별첨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국고지원 예산 집행계획이 귀 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국회에서 소경의 심의결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진의 협조와 지도관람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국고지원예산 집행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획지분할계획도(1단계)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 - 230호
수 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 조 : 문화산업국장 / 출판신문국장
제 목 : 2002년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국고지원예산 집행계획 제출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귀 부 공문 86100-2425호(2001.10.09)에 대한 회신입니다.

3.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귀 부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지는 지난 6월 15일 시범지구 착공식에 이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보신채 인쇄공장을 확충한 것을 필두로 금년도에 10여개의 사옥 신축에 이어 시범지구 상업지역도 우선적으로 근린생활 시설을 금년 중에 착공하게 됩니다. 출판단지지는 현재 29개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은 데 이어 24개 사가 금년 중 건축허가를 받을 예정으로 있어 내년도 월도점이 개회되는 6월이면 파주출판단지지는 기반 시설이 완성된 가운데 시범지구 출판사 및 인쇄사의 연모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4. 귀 부의 헌신적인 노고에 힘입어 2002년도 국고 예산 지원이 예정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교육연수 센터인 phase 2 건축공사는 현재 20%의 건축 공정을 보이는 가운데 오는 12월15일까지 지하 및 지상 1층 기초부분까지 마감하는 공정을 목표로 시공회사인 삼학건설에 의해 순조로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내년 6월이면 완성된 건축물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조합은 내년도에 예정된 정부 예산 25억원을 우선적으로 등 공사의 건축비로 투입하고 나머지 60억원은 2003년 초에 착공 예정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전시 및 정보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phase 1 공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및 출판단지의 필수 지원시설로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 내에 2002년 후반기에 호수를 인조로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실사시키기 위해 일부 지명도 높은 호텔업체와 접촉 중에 있음을 알드립니다.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 - 247호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참 조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 임시하수처리시설 관련 회신 촉구

파주출판단지 기반조성공사를 위해 애쓰시는 귀 공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23일 출판단지조합 공문 제2001-207호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본 조합은 경제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인쇄공장 등 초기 가동이 불가피한 입주사에 한해 별도의 자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여 가동기로 하고, 2002년말 이전 사옥이 완공되는 나머지 일부 시범지구 입주사는 파주시에서 약속한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점인 2002년 말까지 입주를 늦추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조합의 결정사항을 귀 공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판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이 2002년 말에 반드시 완공, 가동될 수 있도록 귀 공사가 파주시와 적극적인 확인과 진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후 그 결과를 본 조합에 통보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동 건과 관련하여 본 조합은 귀 공사 파주시사업단의 요청에 의해 11월 19일 파주시사업단 공사개발과장과 본 조합 상무이사·기획위원이 파주시 하수도과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장과 논의한 결과, 파주시는 파주시가 약속한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점인 2002년 12월말에서 다소 지연 완공될 가능성을 비추면서 임시하수처리시설 재할용 등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임시하수시설 설치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1주일 이내에 본 조합에 알려주시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합의와는 달리 12월 중순이 지난 현 시점까지 파주시나 한국토지공사 파주시사업단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어 본 조합은 부득이 다시 한번 귀 공사에 상기 사항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귀 공사가 파주시와 함께 강구기로 한 임시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본 조합에 알려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보진채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갖춰 착공했으며, 현재 기초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화성문화인쇄도 귀 공사로부터 회신

이 늦어진 경우, 부득이 자체 정화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 전에 대한 귀 공사의 회신 지연으로 현실적으로 상기와 같이 관련 포복 공사 일정이 지체되고 또한 전체 입주 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점을 깊이 인지하시어 귀 공사는 약속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파주시와 등 전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업무팀의를 한 후 명확히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 공사의 빠른 회신을 기대합니다.

※ 사본 : 파주시 하수과장/하수처리팀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팀
이사장 이기철



**"꿈을 이루는 세상-새천년의 한국"
건설교통부**

위급
우 427-712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02-500-4096,7 / 전송 02-500-7306
수도원계획과 과장 임성환 사무원 지용철 담당자 정태화 j1w1807@act.go.kr

문서번호 수도권58200-5
시행일자 2001.01.08 (5년)
공개여부 (공 개)
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장
참조
제목 결의사항에 대한 회신

신	지
합	시
집	결
일	제
사	공
간	합
수	합
번	합
호	합
처	합
리	합
과	합
담	합
당	합
자	합
심	합
사	합
자	합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파주출판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이러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과 분리하여 공장총량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나. 출판업 공장은 일반사무실 건물과 동일한 형태인데도 규제대상인지?

2. 답변내용

가. 우리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설정함에 있어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계획입지)과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건축하는 공장(개별입지)을 각각 구분하여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장건축물이 일반 사무실 건물과 동일한 형태일지라도 그 공장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종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종 바닥면적 합계)이 200㎡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총량제도에 의한 규제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건설교통부장

전결 과장 임성환



문화관광부

우 110-703 / 서울 중로구 세종로 82-1 / 전화 02)3704-9624 / 전송 02)3704-9629
출판진흥과 과장 신유연 서기관 최관선 담당자 최금주(choi0302@act.go.kr)

문서번호 출판86000-74

시행일자 2001.01.12 (3년)

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문

참조

제목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계획에 관한 회신

1. 출판단지조항 2000-22(2000. 12. 19)의 관례입니다.

2.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부가 2000년도 및 2001년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당국에서 제시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립규모 축소에 관한 사항 : 당초 건립규모를 4,000평으로 협의하였는 데, 규모를 축소(구두 : 2000평 이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나. 민간자본의 50%이상 투자에 관한사항 : 건립규모를 2,000평 이하로 한다는 건제하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상을 민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다. 건립후 운영대략에 관한 사항 : 센터의 건립후 운영비 지원은 정부재정 형편상 국고지원이 어려우므로 정부 재정부담 등을 고려, 향후 자체 운영능력을 판단하여 예산지원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운영대략을 건구해서 제출해 줄것을 요청하였음. 끝.



문화관광부장



**"파주발전, 향토사랑, 살기좋은 으뜸파주"
파주시**

우 413-000 경기도 파주시 아동부 215번지 / ☎ 45-4532 (031) 940-4532 / FAX 945-1919
가림지원과 과장 이한원 / 담당자 조경희 E-mail: hanchoon.paju.kyonggi.kr

문서번호 기업 57343-548

시행일자 2001. 3. 30 (1년)

(정유)

발문 받는곳참조

참조

제목 154KV문발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관련 회의개최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154KV문발분기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1. 4. 6. (금) 11:00

2. 장 소 : 파주시청 사회산업국장실

3. 음식별위

가. 파주시청 : 사회산업국장, 건설공사, 기업지원과장, 도시과장(공영개발담당)

나. 한국 서울전력관리처 : 송변전건설부장

다. 한국파주지사 서울지역본부 : 개발부장

라.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 개발부장

마.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 사무이사

※ 참석대상은 기관별로 자체 조정하여 참석 가능합니다.

4. 내 용 : 154KV 문발분기 송전선로 건설관련 업무협의

가. 지중화에 따른 사업시행자 부담 방안

나.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원 공급계획

다. 기타.

붙임 1. 중점 브리핑 1부.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서류(당일배부) 1부. 끝.

파주시

발문처 건설과, 도시과,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관리처,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 한국파주지사 서울지역본부,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문화시대 문화한국"

문화관광부

우 110-703 / 서울 중로구 세종로 82-1 / 전화 02)3704-9624 / 전송 02)3704-9629
출판진흥과 과장 박광우 서기관 최관선 담당자 최금주(choi0302@act.go.kr)

문서번호 출판 86000-1032

시행일자 2001.04.27 (3년)

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문

참조

제목 파주출판단지 건축고도제한 완화 협조요청에 대한 국방부 회신내용 통보

1. 출판단지조항 제 2001-22(2001. 2. 9) 및 출판 86000-348(2001. 2. 15)의 관례입니다.

2. 위 조 관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축고도제한 완화 협조요청에 대한 국방부로부터 회신한 내용을 발령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방부 회신문서 1부(4호발령). 끝.



문화관광부장



"문화는 행복이고 국력입니다"

- 1 -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 2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계획에 관한 회신
- 3 - 154kv문발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관련 회의개최
- 4 - 파주출판단지 건축고도제한 완화 협조요청에 대한 국방부 회신내용 통보

『오름파주·일등경기·일류한국』
파 주 시

우 413-020 / 경기도 파주시 아농동 215 / 전화 031-940-4832(팩) 4832FAX 943-9114
상하수도과 파장 김홍식 담당 장 근 희 담당자 김 제 연

문서번호 상하 58450-1379

시행일자 2001. 5. 23. (년)

(경유)
발 용 받는곳 창조

참 조

선 결	지 시
결 정 일 자	결 정 시 간
수 번 호	처 리 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파주출판단지 조성에 따른 자료 협조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상하 58450-1289(2001.5.15)호와 관련입니다.
3. 위대화와 관련하여 우리시와 당초 협회원 2002.12 하수처리 사업에 대하여 파주출판단지사업이 2002.5월부터 조기 입주예정에 따라 7개월간 임시하수처리시설을 이 발생하게 되므로
4. 상기 임시하수처리 비용의 분담계획을 한국토지공사와 파주출판단지사업 조합과 협의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파주출판단지 임시하수처리비용의 산정 및 최소화를 위하여 단계별 준공에 따른 입주업체 현황 및 하수발생 물량 자료로 요청하오니 동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구 분	1단계 2002.5월	2단계 2002.12	3단계 2003.12	비 고
입주업체수				
하수발생량				



파 주 시

전 결 상하수도과장 김홍식

"나라는 세계중심, 국민은 세계일류"

받는곳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조합의사업장

『오름파주·일등경기·일류한국』
파 주 시

우 413-020 / 경기도 파주시 아농동 215 / 전화 031-940-4832(팩) 4832FAX 943-9114
상하수도과 파장 김홍식 담당 장 근 희 담당자 김 제 연

문서번호 상하 58450-1922

시행일자 2001. 7. 23. (년)

(경유)
발 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장 귀하

참 조

선 결	지 시
결 정 일 자	결 정 시 간
수 번 호	처 리 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파주출판단지 공동오수처리장 설치에 진행일정 통보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귀조합에서 출판단지 제2001-133(2001.7.2)호로 파주출판단지 공동오수처리장 설치 시기에 대하여 협의 하신 것은,
3.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에서 (개)6111-1092(2001.5.29)호의 내용과 같이 비용을 납부하게되면 2002년초에 설계를 확정하여 공사시행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4. 당초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은 1,600m³/일 건축하수를 신장한 12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하수량 260톤 이었으나, 추가로 증가되는 하수량에 대하여는 설계확정 전에 우리시와 협의 하신 가능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상수도에 대하여는 현재 교하면 분발리 분발로 앞까지 배설이 완료되었으나 도지공사에서 분발로→출판단지까지 도로기반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상수도 공사를 완료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전기,도시가스는 전기통신공사와 서울도시가스에 문의하여 출판단지조성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팩) 40-4832 담당자 김제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 주 시

"나라는 세계중심, 국민은 세계일류"

문 화 관 광 부
(www.mct.go.kr)

우 110-70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 전화 02) 3704-9620 / 전속 02) 3704-9629
문화관광과 과장 박광우 사무관 박철용 담당자 최금주

문서번호 출신 86610-1962

시행일자 2001.08.09 (년)

수 신 수신처 협조

참 조

선 결	지 시
결 정 일 자	결 정 시 간
수 번 호	처 리 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공동활용 및 운영에 관한 의견조회

1. 출판단지조항 2001-157(2001.8.7)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종)에서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단지내에 건립을 추진중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활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에서는 총 선의와 국고예산 편성률 심의 검토함에 있어 출판계가 참여하는 공동의 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출판계의 합의와 의견을 수렴해 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는 열심 자료와 같이 총 선의가 건립될 경우 출판계 공동의 시설로서 개장되고 운영하게 활용 운영될 계획임을 밝히면서 '97년 총 선의 건립에 국고지원을 건의하는 출판계 및 문화예술관련 단체장 연명의 건의서를 첨부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귀 단체에서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의 이와같은 시설 공동활용계획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시고 귀 단체의 의견을 우리부로 2001.8.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제출문서 사본 1부, 끝.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수신처 (사)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사)한국출판인회의 회장

"문화는 행복이고 국력입니다"

문 화 관 광 부
(www.mct.go.kr)

우 110-70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 전화 02) 3704-9620 / 전속 02) 3704-9629
문화관광과 과장 박광우 사무관 박철용 담당자 정희영

문서번호 출신 86610-3251

시행일자 2001. 12. 31 (년)

수 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참 조

선 결	지 시
결 정 일 자	결 정 시 간
수 번 호	처 리 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2002 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회신

1. 출판단지조항 제2001-245호(2001.12.24)와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에서 2002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수정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출판비 및 사업대역 등이 당초 기획예산처의 예산심의 편성일시 확정된 사업계획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계획 변경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동 사업은 당초계획된 입지부담계획 이행여부의 확인을 사유로 기획예산처의 수시비정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증액교부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당시의 사업계획이행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출판비 및 자체 민자조달계획 변경, 연도별 예산변경의 변경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귀조합이 제출한 수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수시비정사업 검토시 기획예산처와 사전에 재협상이 이루어져야하는 사항이므로 필요한 합의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문화는 행복이고 국력입니다"

- 5 - 파주출판단지 조성에 따른 자료 협조 요청
- 6 - 파주출판단지 공동오수처리장 설치에 진행일정 통보
- 7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공동활용 및 운영에 관한 의견조회
- 8 - 2002 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회신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140여 출판사가 한곳에

파주출판도시 건설 초읽기

7월 건물착공... 2003년 완료

인근 풍력발전기도 곧 준공

국내 출판계의 숙원인 '출판 도시' 건설이 눈앞에 다가왔다. 140여개 출판사로 구성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李起雄, 열화당 대표)은 7월 15일 1차 입주업체 32개의 건물 공사에 착공한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도 이날 같이 착공된다. 1차 입주업체가 예정대로 내년 5월 입주하게 되면 파주출판단지는 89년 출판인들이 출판도시의 뜻을 세운지 13년만에 첫 입주기가 이뤄지게 된다.

경기 파주시 자유로 인근 50만평 부지에 들어설 파주출판단지의 상·하수도 등 전체 토목공사 공정은 현재 75% 정도 진척됐다. 이진복 건설본부 상담역(동원 대표)은 "출판 도시의 건설은 공공성에 기초한 환경친화적 건축에 최우선점을 두었다"며 "출판단지 가운데로는 샛강이 흐르게 하고 앞뒤에 있는 자유로와 심학산을 단절시키지 않고 자연적인 교류가 이뤄지도록 설계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1차 입주할 출판사는 한길사·열화당·웅진미디어·범우사·샘터사·교문사·푸른숲·열린책들·시공사·법문사·박영사·디자인하우스·동녘·효형출판 등과 인쇄업체 보진재 등이다. 협동조합은 9월에 2차 입주업체들을 위한 건설공사에 착공하며 2003년 12월까지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140여개 업체의 입주준비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출판도시의 환경·생태 친화적 성격의 상징으로 건설될 풍력발전기도 곧 준공될 예정이다. 풍력발전기는 타워 높이 25m, 날개 지름 7m, 날개 수 3개의 10kwp 용량으로

주변 건물에 지장 없이 바람을 받아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생산 전력은 출판단지 인프라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에 이 전될 한옥 등에서 사용된다. 발전기는 2년여 동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및 에너지대안센터의 기술자문을 거쳐 독일에서 수입했다. 수도권 시 많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민간이 최초로 건립한 풍력발전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당초 30일 오전 풍력발전기 준공식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어장치의 이상으로 재점검을 위해 준공식은 미뤄졌다.

이기웅·협동조합 이사장은 "문화와 정보·교육의 핵심적 매체인 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출판문화의 손에 전달되도록 시설과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출판인들의 열심에서 출판도시 건설이 구상됐다"며 "13년이 걸려 계획이 실현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파주출판단지는 '대지' 위에 편지하는 거대한 한 편의 책'으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책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터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종모기자 joha@hk.co.kr

출판인 염원담은 '문발(文發) 신도시'로

사람이 갖고 있는 평생의 꿈 중 하나가 자기 집을 자기가 지어보는 것이라고 한다.

도서출판 열화당 이기웅 대표의 꿈은 훨씬 크고 야무졌다. 12년 전 그는 '도시'를 하나 지어보겠다고 마음 먹었다. 서울 근교에 멋진 출판도시 하나를 건설해보자고 동료 출판인들을 꼬였다. 사업조합을 만들어 조합이사장이 된 지 어언 12년. 마침내 그 소원이 이뤄졌다. 지난 15일 경기 파주에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라는 이름의 출판단지 착공식을 가진 것이다.

북쪽으로 자유로를 달려 일산신도시 입구를 막 지나치면 도로 오른편 방판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를 한 글자씩 떼어 써놓은 입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 내년 5월 한일 월드컵 개막에 맞춰 한길사 열화당 등진미

디어 범우사 샘터사 교문사 푸른숲 열린책들 시공사 법문사 박영사 디자인하우스 동녘 효형출판사와 인쇄업체인 보진재 등 33개 출판사가 1차로 입주하게 된다.

"정확한 주소가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입니다. 문발리(文發里)라는 지명이 범상치 않아요. '글을 문, 즉 문화가 발원하는 곳'이라는 뜻 아닙니까. 국가가 50%의 예산을 지원한 문화사업단지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48만평입니다. 이 정도면 신도시라고 이름 붙여 손색 없겠지요"

국내 최초의 출판 인프라가 구축되는 '문발 신도시'(이기웅 이사장의 용어)에는 단지 조성도 되기 전에 100%가 선분양되는 등 출판인들의 염원과 열정을 집약해 한다. 이들은 개인 소유지분을 최소화해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공유지분을 최대화하는 계획에도 기꺼이 동의했다. 토지공사가 "4개 종류 중에 고르게 돼있다"고 한 구역화된 가로등 구분다리 등도 거부하고 새로 디자인했다.

이곳에는 조경수 없이 들꽃이 그 역할을 하는 환경 친화적 야생의 도시다. 담도 없고 경계도 없다. 입주 출판사들이 갖게 될 건물의 평수는 200~500평. 건물마다 독신자 숙소가 몇 개씩 들어가 있고 또 별도로 출판 종사자들을 위한 4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도 건설된다.

건축가 40명 중 10명은 일본·미국·스페인 영국 등에서 왔다. 이들은 권역을 나눠 각각 설계를 맡았고 다시 모여 전체적인 구도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작업에 기꺼이 응했다. 코디네이터 송효상씨(49·이로재 대표)는 "여러 건축가들이 협력해 단일 건물을 지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동작업하는 일은 세계 건축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출판조합 140개 업체가 모두 입주를 완료하는 것은 2004년 12월이다.

김현덕기자 hdkim@kmib.co.kr

2002년

입주의 해, 출판도시 시대의 문을 열다

'출판도시 입주의 해'로 정한 2002년은 보진재, 화성프린원, 태평양그랜드, 도봉금장, 희망 등 인쇄사 다섯 곳과 한길사, 동그라미교육, 서울지류유통 등이 차례로 입주를 시작했다. 한강변에 버려졌던 황무지가 사람이 사는, 아니 새로운 출판문화를 창조하는 출판도시 시대의 문을 여는 의미있는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조합은 입주사들의 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발주, 시공회사 선정, 건축공사 관리 등 입주사들의 사옥건축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사옥건축 진행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파주시와 건축코디네이터,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파주출판도시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건축이 완료되어 입주한 회사들을 위해 셔틀버스 시범운영과, 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적기 인입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또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교육연구동 건축이 완공, KT통신센터가 입주하여 다양한 최첨단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한 해 동안 진행된 각 사업들은 출판도시 완공 후 도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02년

2002년 주요행사

01.01	공동 파일 향타 현장설명회
01.29	제12차 정기총회
02.06	영국 북런던대 플로리안 베이젤 교수 방문
03.27	출판도시 셔틀버스 관련 간담회
06.01	출판도시 셔틀버스 시범운영
07.25	제5차 공동발주 현장설명회
08.01	제6차 공동발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전시정보동 현장설명회
08.14	보진재 창립 90주년 및 출판도시 신공장 준공식
09.11	화성프린원 준공 기념행사
10.04	손학규 경기도지사, 부지사, 파주시장 등 경기도청 간부 방문
11.12	이채 건축착공 행사
11.27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내 KT통신센터 준공식 행사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❶ 2002. 01. 29 출판단지 인포룸 회의실에서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❷ 2002. 08. 14 보진재 입주



③ 2002. 10. 04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 방문



④ 2002. 10. 23 파주출판단지 건축설계 회의 개최, 건축심의 등 현안 논의




⑤ 2002. 12. 20 한길사 입주

인쇄 발간된 자료

제12차 정기총회 서류


2002년 1월 29일(화) 오후 2시
과주출판단지 인포룸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❶ 제12차 정기총회 서류 (2002. 01. 29)

제12차 정기총회 서류

2002년 1월 29일(화) 오후 2시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목 차

1. 정기 총회 회순	3
2. 2001년도 사업보고서	5
3. 2001년도 결산보고서	23
4. 2001년도 잉여금 처분(안)	55
5. 감사보고서	59
6. 정관변경에 관한 건	63
7. 2002년도 사업계획서(안)	69
8. 2002년도 수지예산서(안)	83
9. 2002년도 조합비 책정의 건	99
10.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103
11. 2002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107
12.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111
13. 임원 선출의 건	115

제12차 정기총회 회순

- | | |
|-----------------------|--------------------------|
| — 성원보고 | — 의안심의 |
| — 개회선언 | 1. 2001년도 결산 승인의 건 |
| — 국민의례 | 2.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 — 개 회 사 | 3. 정관변경에 관한 건 |
| — 축 사 | 4. 2002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
| — 의사록 서명이사 및 서기 감찰 지명 | 5. 2002년도 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
| — 제11차 정기총회 의사록 승인 | 6. 2002년도 조합비 책정의 건 |
| — 보고사항 | 7.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
| 1. 2001년도 사업보고 | 8. 2002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
| 2. 감사보고 | 9.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
| | 10. 임원 선출의 건 |
| | — 기 타 |
| | — 폐 회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전화 511-9566~8, 팩시밀리 511-9539
 paju@pcubookcity.co.kr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출판도시뉴스」는 부설개 건물공로
 조현을 비롯하여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 추진에 관계되는 사제 각자에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 제보는 발행 이기호, 편집주신 신기호, 편집
 김근성, 디자인 기영내에 책임으로 맡았을뿐
 재물 디자인 / 안상수

출판도시뉴스

PAJU BOOK CITY NEWS

제26호
 2002. 8. 14.

보진재 신공장, 파주출판도시 첫 입주 우리민족의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 한 보진재 창립 90주년 · 신공장 준공



파주출판도시 첫 입주후 함께 오인 보진재 임직원들의 활기찬 모습.

2001년 6월15일 파주출판도시의 상징물이 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함께 착공식을 가진 30개 입주사 중 첫 입주사로 지난 6월 신공장 가동에 들어간 보진재가
 2002년 8월 14일 창립 90주년 및 파주출판도시 신공장 준공식을 갖는다.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전기 · 통신 · 상수도 · 도시가스 · 오수처리장 등 모든 인프라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할에도 한국토지공사와 파주시에서 책
 임지고 설치해야 할 일부 시설이 토지 특수 자연으로 다소 늦어져 정상적인 공장 가동 여부가 우려되기도 했으나, 조합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임
 시 관로(管路)를 통해 상수도 · 도시가스를 끌어 물이고 임시오수처리시설을 단지 내에 갖추었으며 대망의 파주출판도시 첫 입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게 된 것이다.

지금부터 90년전인 1912년 8월 15일 김진현(金振顯) 창업자에 의해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보진재는 인의(仁義)를 기업정신으로 실천해 온, 우리 나라 기업으로는 보
 기 드물게 4대째 가업을 승계한 코스닥 상장 공개기업으로서 우리 나라 출판인쇄 역사의 산 역사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진재 파주출판도시 신공장은 대지 면적 4,300평에 총 건물 4,308평, 외부 주차장 369평, 지상 2층 지하 1층, 별관 2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쾌적한 공장내부에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최첨단 인쇄시설로서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사의 「하이델 M-600 46판 4도/4도 상업용 윤전 인쇄기」와 「고모
 리 L-240SP 2도/2도 양면 전용 매입 인쇄기」를 설치함으로써 21세기 지식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도시의 성과(聲價)를 드높여주고 있
 다. 특히 이번엔 독일에서 직수입한 「하이델 M-600 윤전기」는 출판도시 신공장 건축가격과 맞먹는 고가(高價)여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보진재와 인접한 화성프린트 인쇄사(대표 허강우)도 같은 시기에 완공되어 현재 활발히 가동 중에 있다.

서화의 꿈 석판에 갈아 일군 90년 보진재(寶晉齋)

우리 인쇄문화사의 산 증인 보진재의 역사를 말함

천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항부로 다갈 수 없는 높고 깊은 큰 산의 경치를 느끼며 깊이 탄식하는 조선화단의 거장 심전 안중식(安心 安中植), 「미법산수(米法山水)」라는 새로운 화법을 탄생시킨 미물(米芾)의 「운산도(雲山圖)」를 화첩에서 보며 극찬한다. 그의 감격에 자운 김진환(子雲 金鎭煥)도 동참하였다. 심전의 가르침을 받은 그 또한 미물의 서화를 좋아하여, 창업하는 석판인쇄업체의 이름을 「보진재(寶晉齋)」라고 지었다.

천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진나라 시대의 보배로운 묵적(墨跡)을 자신이 수집해 소장하고 있다는 뜻의 보진재, 소식(蘇軾)·채양(蔡襄)·황정건(黃庭堅)과 더불어 북송(北宋) 4대 서화가로 꼽히던 미물이 그의 서재명과 별호로 쓴 이름이다.

그는 「보진재(寶晉齋)」라는 당호(堂號)를 성당 김돈화(愼堂 金敦和)에게 쓰게 했다. 성당은 백씨인 김석환의 심우(心友)로 아주 자운과도 막역한 사이였다. 성당은 송나라 황정건의 행서체에 능하여 대가라는 칭송을 듣고 있었다.

보진재 창업

1874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진환은 어려서 학업을 배우고 시문을 익혔는데 특히 서화에 천부적 재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대한제국 학부의 국립교육협회 교관으로 발탁되어 교과서 편찬과 영예 십년간 총사하다가 당국의 비운을 겪게 된다.

김진환은 뜻한 바 있어 우선 양재관(梁在觀)의 문인장인쇄소(文雅堂印刷所) 석판부에 몸을 담는다. 석판미술인쇄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실려보리라는 마음에서였다.

가업을 일으키는 것은 조상을 사랑함이고,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며, 나아가 민족혼을 일깨워 키우는 것이다. 정신이 살아 있는 민족은 발전해 나아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민족의 길은 어두우리라. 그 문화, 풍속, 제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고, 세상에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석판으로 가업을 일으킬이 김진환의 길이었다.

1912년 임자년 8월 15일 김진환은 보진재석판인쇄소(寶晉齋石版印刷所)를 창업한다. 수동 석판인쇄기 석 대와 종업원 여섯 명이었다. 그 여섯 명 중에는 김진환 자신과 종질인 김성훈이 포함 되어 있었다.

김진환은 1912년 8월 1일장을 시작으로 2일자, 7일자, 15일자 도합 4회, 그때 한성(서울)에서 유일하게 한글로 발행된 신문인 「해일신보」에 개업광고를 게재하고 인쇄소 문을 연다. 보진재의 개업광고는 다음과 같았다.

석판 출판 미술 인쇄 개업

본인이 누년을 문인장석판인쇄소에서 서화(書畵)를 전담하다가 이번에 좌기(左記) 처소(處所)에서 석판인쇄소를 개업하고 명칭을 「보진재(寶晉齋)」라 했습니다. 각항(各項) 인쇄를 정일히 신속 수용하오니 청위(淸慰)는 조광(照光)하셔서 연속 주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방(外方)은 인환대금으로 수용합니다. 개업기념으로 1식내에는 각항 인쇄비를 할인해 드립니다.

한성 중부 서관방 광화문우편국 동면 8동 5호

보진재석판인쇄소 주인 김진환 백

가업을 계승하라

보진재가 문을 열자 인쇄 주문이 잇달았다. 그 많은 인쇄물을 찍어 내기 위해 종업원들과 기계는 쉬지 않고 작업했다. 인쇄를 가운데 사립보성학교에서 의뢰한 수업, 졸업증서, 학적부, 성적고사표가 있었는데, 그중 외아들 낙훈이 보성학교에서 수석자리를 하고 있었다. 김낙훈은 사립보성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서 아버지의 보진재석판인쇄소에서 배운 졸업증서와 수석 수업증서를 받는다. 그 증서들은 지금도 보진재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인쇄소의 변성은 김낙훈이 꿈꾸던 의학전문학교 진학의 꿈을 좌절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업의 창세에 실패를 가물리는 김진환은 아들이 석판인쇄업을 맡아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낙훈아, 우리 조선은 문화민족이지만 일제에 의해 그 문화정신이 켜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왕국(亡國)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 새로운 약술을 개척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조선왕실 문화를 되찾는 기업을 세우는 일도 뜻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절절한 말씀에 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피울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깊은 뜻 잘 알겠습니다. 세상을 겪어 보고 돌아 오겠습니다.”

김낙훈은 1913년 5월 부모의 슬하를 떠나 강원도 인제의 군청서기로 부임한다.

1대 김진환 창업주.
2대 김낙훈 / 3대 김준기
4대 김정선(오른쪽).



아무리 큰 인쇄물이라도 “안돼”

조선총독부는 1913년 10월 부제(府制)를 공고하고 520여년 한성(漢城)으로 불려온 조선의 왕도를 경성(京城)이라 개칭했다. 그해 11월에 보진재석판인쇄소 주소는 한성 중부 서관방 8동 5호에서 경성부 종로 일점목 85번지로 옮겨진다. 스무평이던 인쇄소는 개업 1년 2개월이 만에 마흔여 평으로 두 배나 확장했다.

김진환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보진재인쇄소를 보여 주고 자신의 사업실무를 전수에 주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빗물 훑날라듯 내리는 함박눈이었다. 거리마다 슬퍼대는 분위기로 사뭇 저무는 한해를 느끼게 한다. 김진환은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 생각을 하면서 사무실 이진 안내를 겸한 송구영신 인사장을 쓰고 있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편대를 움직이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다. 그때 공장장 김성훈이 원고 하나를 가지고 왔다.

“사장님, 3도쇄(度刷) 2만장을 찍어 달라는 주문입니다.” 김진환은 쓰던 손을 멈추고는, 원고내용을 대충 훑어 보았다. 그것은 1912년 말에 창립한 신평국단 문수성(文秀成)이 활각사에서 창립 기념공연으로 조중환(趙重煥)이 쓴 「불여귀(不如歸)」를 공연한다는 선전전단이었다. 그때로서는 엄청난 몰람의 주문이었지만 김진환은 번가을보다는 이내 실기가 튼튼해진 얼굴이 되더니 대답을 기다리는 공장장에게 딱 잘라 말한다.

“이보게, 공장장! 주문량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이 일은 할 수가 없네. 먼저 많은 인쇄물이 밀려 기일 안에 일을 해낼 수 없다고 거절하게.”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좋은 일거리를 거절하시나요? 보진재인쇄소를 열고 처음으로

않는 큰 주운 아님니까?”

“이유는 나중에 말해 주겠네. 지금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김상훈은 영문도 모른 채 거절의 뜻을 전했다. 조선문화를 숭상하고 전통의 계승을 중요시하는 김진환은 조종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조종환은 한일합방 이전부터 소위 신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여, 일본작가들이 쓴 통속소설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대중들로부터 인기작가로 부상하고 있었다. 그런 알락한 상술로 대중을 선동하는 조종환이었기 때문에 주운을 받을 수 없었다. “그따위 천박한 통속소설이나 신파극은 결국 조선 민중의 정신과 사상을 썩을 띠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김진환은 가지고 있었다.

치림(樺林)의 거성(巨星)을 ‘수당하술(隨堂賀述)’

1919년 7월 21일 고평왕제에서 돌아왔다. 보진재는 국상 소식에 전해지자 일주일 전에 안중식의 소개로 보진재 창업 이후 최대 회고 되는 인쇄출판물을 받게 된다. 그것은 ‘수당하술(隨堂賀述)’이라는 큰 책이었다.

수당하술은 발행인이 조병택의 아들 조영희, 인쇄인 김진환, 인쇄소 보진재판인쇄소, 사목해 판으로 상재되었다. 조선인보다 석판인쇄술이 앞선 일본인조차 이 책을 보고는 뛰어난 보진재의 석판인쇄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1920년 2월 보진재판인쇄소는 종로 1가 20번지에서 관철동 217번지로 두 번째 이전을 했다. 종전보다 다섯 배나 넓은 곳이었다. 일본에 발주한 최신 풍차식 국판점 석판인쇄기 한 대와 사육지 알루미늄 평판인쇄기 한 대가 4월에 도착해 공장을 확장한 것이다. 새로 들여온 인쇄기는 조선인으로서의 최초로 도입한 최신 석판인쇄기였다. 새 기계들을 들여놓자 돌아다니는 1920년 4월 창간 축하에 부쳐 보진재판인쇄소를 전국적으로 홍보해 주었다. 그 뒤 김진환은 거의 돌아다니며만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문안에는 반드시 ‘전기동력 인쇄,라는 선전문구를 내걸었다. 이 여섯 글자는 보진재의 발전을 표현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평판인쇄소(平版印刷所)의 발전단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

울셋 사대를 열다.

1923년 3월 보진재판인쇄소에 일본 스키모토제 국전(國產) 형태(平體) 울셋 인쇄기 한 대가 수입되었다. 조선인쇄소로서는 최초로 설치한 최신 울셋인쇄기였다. 이때 보진재가 울셋 인쇄기를 도입한 것은 평판인쇄의 발전에 의한 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독교교회와 성서공회

가 발간하는 성서와 찬송가 책의 인쇄를 보다 신속하게 작업하기 위해서였다. 1923년 개벽사는 조선 최초로 ‘신여성,이라는 여성 종합교양지를 창간했는데 그 제판·인쇄를 보진재가 담당했다. 그밖에도 ‘심현’, ‘신동아’, ‘산가경’, ‘조광’, ‘여성’, ‘문장’, 등 1930년대 출판잡지들의 원색화 표지와 최보도 보진재가 맡아 했다. 그해 10월 보진재는 ‘열성여합(烈聲御筆)’을 제판·인쇄했는데, 보진재는 창업 이후 이 열성여합까지 합쳐 모두 12권의 원문과 국문의 분공비, 한글비 책들 제판·인쇄한다.

2대 김낙훈 사장시대, 프로세스 제판술 도입.

1930년에 이르러 김진환은 인쇄소 경영을 모두 아들 김낙훈에게 맡기고, 오전 종업원의 숙원이던 후계 조수(秋秀)의 문집인 ‘후재집, 발간권찬에 착수한다. ‘후재집, 전 6권 4책은 1939년 8월 30일에 상재되었는데, 애석하게도 김진환은 그 책을 만져보지도 못한 채 1939년 5월 31일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특히 이 ‘후재집,은 경성제국대학이 주최한 조선어문서적 전시회에 출품되어, 국문학자 김태준(金台俊)에게서 보진재의 대표적 출판이라는 격찬을 받는다. 보진재의 2대 경영주 김낙훈은 1935년 가을 도쿄로 건너가 광화방과 제휴하여 최초로 프로세스 제판술을 도입한다. 광화방 사장은 일본에서 프로세스 제판의 원조로서 1918년 무렵 미국에 인쇄유학하여 기술을 배워왔다.

보진재는 처음 한동안 원색으로 그려진 원고를 광화방으로 보내어 프로세스 카메라로 색분해해 제판한 아연판을 가져와 인쇄하다가 색분해 필름을 들여와 자체에서 제판·인쇄를 하게 되었



보진재 최초의 발행도서 ‘후재집, (1939. 8. 30.).



우리나라 최초로 가동한 서독제 울셋 인쇄기 (위) 고모리 L-2403P 2도/2도 양면 전용 대평 인쇄기 (아래)

다. 보진재가 광화방에 보낸 최초의 원색분해 원고는 조선일보가 1935년 11월에 창간한 종합교양지 ‘조광,의 표지그림 정현웅(鄭玄雄)의 유화였다.

조선어사전 사건

1941년 보진재 창업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어느 날 김낙훈의 보성학교 은사인 이충후(李忠厚)가 이극로(李克魯), 장인승(鄭仁承)과 함께 왔다. 그동안 힘겹게 편찬해 온 ‘조선어사전,을 조선인들을 위해 서둘러 펴내야 하는데 출판자금이 없으니 보진재에서 조판과 인쇄를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조선어사전은 보진재 창업이념에 맞는 출판물이었다. 김낙훈은 그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한글말살정책에 의해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 이충후(李忠厚)·한정(韓定)·장지영(張志英)·이극로·최현배(崔鉉培)·정열모(鄭烈模)·이희승(李熙昇)·이중화 등 편찬위원들을 잡아 붙이자, 보진재는 그들의 피압이 어떤 귀중한 원고와 몇 원도 모두 김락후가 숨겨 놓았다. 그 후 2년이 지나 1945년 해방이 되자 김낙훈은 소송죄 보편해 두었던 것과 원고를 조선어사전 편찬위원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준다.

1948년 7월 하순 안송 이기봉(李起鳳, 號 國議의장이 보진재를 찾아 보성학교 선배인 김낙훈에게 일본인 사이로 고치기가 경영하다 귀속재산으로 처리된 조선상공신포 운영을 관장하던 정경해 사당한 일이 있었다. 그는 평소 존경해 온 선배 김낙훈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한 우정에서 신문사 하나를 선사하려 했던 것이다. 안송은 청심과목(淸心幕)과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을 신조로 삼아 오직 인쇄출판 한길을 가는 선배 김낙훈의 인생관에 감복하며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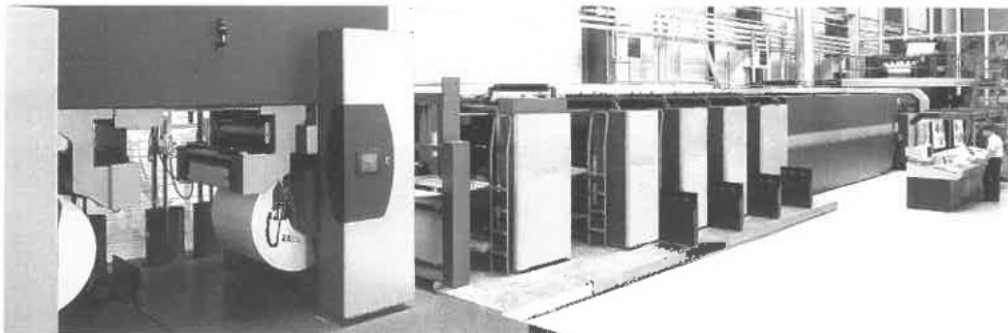
서화의 꿈 석판에 갈아 일구다

3대 사장으로 보진재를 이어 받은 김준기 사장(任 회장도 1970년대 한국인쇄출판계가 떠나 할 것 없이 직원을 월급조차 때맞추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와식주의 각을 문화표현의 하나라고 한다면 그 바탕자료가 출판인쇄라는 생각에 자금심을 갖는다’며 오직 한 신념을 갖고 전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보진재 3대 김준기 사장이 저술한 ‘인쇄관리입문,에도 드러나듯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출신답게 그가 할아버지께서 일으킨 보진재 기업 사상을 진심하게 이어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김준기 사장이 교과서와 대학교재를 출판하여 한편으로 펴내는 해를 보낸 자은 김진환의 보진재 조선전통문화 전승사업이 면면히 호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진재 서화의 꿈 석판에 갈아 일군 90년 전통, 그 가치를 느끼며 숙연해하던 기억이 30년이 흐른 지금 보진재는 1992년 이후로 제4대 김장선 사장이 기업체를 계승하여 최첨단 인쇄시설을 갖춘 파주출판도시 신공장을 준공하고 창업 100년을 향한 역작한 꿈을 펼쳐 나가고 있다.

고정일 작가 출판인



보진테크 산공장에 도입한 독일 하이델베르크사의 하이밀 M-600 45만 4도/초도 상압을 운전 인제기. 이 운전 인제기는 세계 최고인 인제물질을 자랑하는 혁신 상압용 윤전기로서 시간당 40,000부의 인제속도와 자동 편향장치, 자동 세척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보진테크는 8월 14일 준공기념행사에서 내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설치한 하이밀 M-600 45만 4도/초도 윤전기와 고모리 L-240SP 광면선용기 시연회를 갖는다.

지금 출판도시에서는...

파주출판도시 입주사 사옥 건축 활기찬 진행 보여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한길사 등 14개 입주사 사옥 입주 임박. 민음사, 시범지구 상업시설 착공 돌입

48만평 규모로 계획된 파주출판도시는 1단계로 26만평 규모의 출판·인쇄·출판유통 및 출판관련 입주사와 출판단지 내 복합문화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들어 서게 된다. 현재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Phase 2 건축물인 교육연수센터와 한길사·열화당·박영사·청암미디어·통원·자유아카데미·통그라미교육 등의 출판사와 도 통금장·태평양그랜드·회암사·에스피티·서울지류유통·국제전산교구 등 인쇄 및 출판관련 입주사들이 올 가을부터 속속 입주할 계획으로 활발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과 음식점·카페 등이 들어설 시범지구 상가(병지·대곡)와 민음사 사옥이 지난 8월 7일 지명입찰을 거쳐 조만간 시공회사가 결정되는 대로 8월 중 착공하게 된다. (주)파텍이 추진하는 5,800여평의 중심상업지역 부지에 들어서게 될 '에듀테인먼트 소풍물' '이채(異彩)'는 2003년 12월 개장을 목표로 구체적인 설계 및 분양 단계에 있다. 아울러 올 가을에는 출판단지 입구에 위치한 2만2천평의 방대한 부지에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갖춘 1만5천평 규모의 출판유통센터가 발주되어 효형출판사·사계절·창작과비평사·김영사·마아·대신문화사·청구지업·삼흥지업·신원메이전사·양서원 등의 사옥도 본격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파주출판도시 1단계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5년경 본격적으로 개발될 출판단지 2단계 22만평 부지에는 영상매체와 애니메이션 등 미래 출판문화산업을 선도해 나갈 첨단 영상 매체를 중심으로 한 복합미디어산업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파주출판도시 셔틀버스 출퇴근 운행 개시

파주출판도시에 셔틀버스가 도입되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파주출판단지조함은 지난 6월, 최신 모델의 35인승 중형버스를 구입하여 파주출판도시 고유의 디자인으로 단장하여 선입주한 보진테크, 화성프린팅 임직원들의 출퇴근 전용 셔틀버스로 임시 운영중에 있다. 이 셔틀버스는 출판단지 내 기반시설을 비롯 대중교통 등 각종 편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건축이 완료되어 선입주하는 입주사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사들의 건축축전분담금으로 구입, 운영되고 있다.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셔틀버스는 아침 7시 30분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출발하여 8시 5분 지하철 3호선 대화역을 경유, 8시 20분에 출판단지에 도착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6시 15분 출판단지를 출발하여 대화역까지 입주사 종사원들을 퇴근시키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출판단지를 방문하는 입주사 대표 및 내방객들의 출판단지 내 기반시설 및 건축현장 등의 견학에도 자주 이용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 입주업체들이 늘어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뿐 아니라 출판단지에서 대화역까지 시간대별로 정기적으로 운행될 계획이다.



현장 공동식당 8월 개장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 중

인프를 염 부지에 입주사 종사원들과 건설관계자 및 내방객들을 위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 공동식당이 8월 개장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파주출판도시 송효상 건축코디네이터가 직접 설계한 71평 규모의 식당과 주방, 창고 등 총 105평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외벽을 출판단지 주 건축재료인 내후성강으로 마감하여 물격을 높였다. 고품격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동식당 외벽에는 출판도시 지도를 벽화형식으로 도안해 안내판 기능을 겸부시켰다. 조합에서는 이 공동식당을 임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U BOOK CITY

130-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0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02-511-9589-9 팩스 02-511-9589 E-mail : PAUCCOOPER@PAU.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 - 12호

2002. 1. 15.

수 신 : 토지공사 서울지사장

참 조 : 고개저철부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 상업용지 토지사용승낙자 관련 협조 요청

1. 선행을 맞아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출판단지 조성에 보내주시는 변함 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업무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저희 조합은 출판단지 내 상업시설 건축을 위해 지난 12월 17일 귀 공사에 상업용지에 대한 부거준공 전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한 바 있으나 귀 공사에서 상업용지 토지대금을 완납해야만 토지사용승낙서 발부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방침을 알려주어 따라 출판단지 전체 건축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 귀 공사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출판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용지 입주사의 건축과 입주여 못지 않게 상업시설의 입주와 활성화가 선행 조건입니다. 출판단지 상업시설은 일반 상업시설과는 달리 입주사들의 건축이 작음에도 초창기에 필수적인 편의시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기간 수익성과는 상관없는 운영을 감수해야 하는 등 사실상 조합이 개발을 주관해야 하는 특수성을 깊이 고려하시어 상업용지도 산업용지에 준해 기본방침을 적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저희 조합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출판단지 입주사 사옥 건축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이를 지원할 상업시설 등 지원시설에 대한 계획된 건축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이 간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귀 공사에서 기 약속한 산업용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방침을 상업용지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여 준공인가 전 토지사용승낙서를 발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귀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조합 명의로 각서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점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U BOOK CITY

130-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0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02-511-9589-9 팩스 02-511-9589 E-mail : PAUCCOOPER@PAU.CO.KR

출판단지조항 : 2002 - 24호

2002. 2. 5.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허가과장

제 목 : 민원서류 보완기간 연기 요청의 건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드립니다.

2. 지난 2001년 12월 1일 귀 시에 접수(번호 : 2001-4060000-21488)한 세종대학교(대표 김철수) 건축여가와 관련하여 공동오수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건축여가진행이 지연되고 있는바, 귀 시에서 1월 15일까지 공동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보완책을 갖을 요청하여 출판단지조항 공문(2002-11호)으로 2월 8일까지 보완기간을 연기하였으나,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조합에서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귀 시 상하수도과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므로 보완희망일자를 2월 28일까지 연기하고자 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U BOOK CITY

130-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0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02-511-9589-9 팩스 02-511-9589 E-mail : PAUCCOOPER@PAU.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 - 26호

2002. 2. 7.

수 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 조 : 문화산업국장

제 목 : 2002년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국고지원 예산 조기 집행 요청

1. 귀 부의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에 힘입어 파주출판단지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2월 17일 출판단지조항 공문 제2001-245호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국고 지원 예산 집행계획서 제출 시 요청한 바와 같이 저희 조합은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Phase 2 교육연수센터 건축비의 일부인 국고 지원 예산 25억원이 계획된 공정에 맞춰 1/4분기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귀 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최근 보완 수정제책서와 관련해 귀 부의 요청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협의, 확인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1/4분기에 예정, 집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등 예산이 귀 부에 의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2/4분기에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귀 부에서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조합은 출판단지의 활성화를 선도하는 21세기 지식 인프라 구축의 필수적인 공익시설이 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선(先) 착공을 위해 제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 뿐 아니라 40%에 가까운 건축 공평금을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까지 오로지 자력생성의 의지로 건축 기성고를 전액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합이 금년 1/4분기에 집행계획을 세웠던 25억원의 국고 보조예산이 2/4분기에 책정되었다는 것은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을 빚는 결과를 가져와 자금 계획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귀 부에서는 이와 같은 저희 조합의 입장을 심한 이해하시어, 아시아출판문화

정보센터 건축비로 확정된 예산이 가능하더라도 1/4분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반부속이 2/4분기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4월초에는 반드시 건축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적인 제반 조치를 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4. 아울러 상기 공문에서 함에 요청한 바와 같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Phase 2와 연계공사로 착공할 예정인 Phase 1 전시정보센터 건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1/4분기에 60억 전액 건축비로 Phase 1 공사에 알맞 투입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성패를 좌우할 등 예산 집행 시기 전과 관련된 귀 부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 ① - 파주출판단지 상업용지 토지사용승낙과 관련 협조 요청
- ② - 민원서류 보완기간 연기 요청의 건
- ③ - 2002년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국고지원 예산 조기 집행 요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0-120 서울 강북구 신원동 228-2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2888-8 팩스 511-2888 E-mail : PAJUCOOP@NATE.COM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2 - 32호

2002. 2. 21.

수신: 문화관광부장관

참조: 문화산업국장

제목: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2002년도 사업계획(민자유치 부분) 일부 수정 사유

1. 귀 부 공문 제86610-3251호(2001.12.31.)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지난 12월 17일자 조합공문 제2001-245호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국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저희 조합에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제출한 동 사업 집행계획서는 저희 조합의 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였음을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 일부 수정사유(민자유치 부분)

지난 해 저희 조합이 신청한 FFE(Finishing Furniture & Equipment)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최종적으로 기확예산치 상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FFE 부분에 대한 민자 유치가 의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속이 FFE 민자 동원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대안으로 건축비 400만원/매달 중 불기피하게 필요한 일부 FFE 부분만 추가해 건축하기로 계획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단계 공사 중 phase 2(교육연수 센터)와 phase 1(정보·전시 지원 센터)은 건축규모는 축소하지 않고 제출된 규모대로 건설할 것입니다.

호텔 건축공사는 성곡상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2단계 공사로서 동 센터 건립에 따른 부속 속 박시설인 까닭에 민자유치 사업계획에 추가로 포함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나) FFE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

FFE 설치비용이 최소화되는 데 대비하여 저희 조합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운영 프로그램 확립과 계획을 최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계획을 발취해 나가면서 자체 수익 예산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점차적으로 FFE 설치비용을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적인 조정을 불가피하게 한 사유는 민자유치를 책임 있게 체결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예산 거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으므로 동 건에 대한 결의인 이해와 협조를 제삼 당부드립니다.

3. 귀 부에서는 이와 같은 2002년도 사업계획의 민자유치 부분 일부 예산 집행에 대한 수정정위를 이해하시어 최근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출판문화산업인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경제의 의지로 21세기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주출판단지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는데 구성원이 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 대한 귀 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0-120 서울 강북구 신원동 228-2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2888-8 팩스 511-2888 E-mail : PAJUCOOP@NATE.COM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2 - 34호

2002. 2. 22.

수신: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참조: 개발부장

제목: 사업지구 명칭 변경 관련 의견 회신

1. 파주(제)6631-610(2002.2.22)로 요청하신 파주출판단지 사업지구 명칭 변경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출판」이라는 고유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파주출판단지는 출판문화산업인들이 1990.11.16. 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1991.1.8.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을 경기도로부터 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을 하였으며, 1995.10.20.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명명식 행사를 하여 대외에 널리 홍보한 바 있으며, 1997.3.31. 정부로부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지정고시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이와 같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공식적 절차와 단계를 거쳐 확정된 명칭으로서 출판단지의 성격을 쉽고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공인된 명칭이므로 우리 조합에서는 현 명칭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로, 영문표기는 「PAJU BOOK CITY」로 사용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출판단지가 도시적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춰갈 시점이 되면 장기 명칭은 그대로 두면서 약칭으로 「파주출판도시」로 사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0-120 서울 강북구 신원동 228-2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2888-8 팩스 511-2888 E-mail : PAJUCOOP@NATE.COM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 2002 - 38호

2002. 2. 23.

수신: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참조: 개발부장 / 파주출판단지 개발사업소 소장

제목: 단지조성공사 공사완료시점 점검 및 단축 요청

1. 파주출판단지 조성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는 귀 공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공사와 현대산업개발(주) 간에 계약된 파주출판단지 조성공사는 당초 계약에 준공예정일이 2002. 2. 2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인자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87%로, 공사기간도 6월말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지구의 입주자들의 입주에 따른 여러 가지 간섭이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 특히 공사기간의 연장이 제1교량과 제2교량의 추가일주에 따라 불가피했을 경우에도 다른 공사는 당초계획대로 완료했어야 입주에 따른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본 조합에 정확하고 상세한 일정을 통보하여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3. 특히, 기반시설의 단지인입 등로인 동축전입로가 적기에 개설될 경우에도 제6교량의 공사가 지연되면 가스, 통신, 전기 등의 통과가 불가능하게 되어 섣달지구 조기 입주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현장의 지질여건 등이 좋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으나 3월말까지 제6교량의 구조체공사가 마무리를 지음으로써 가스, 통신, 전기 등의 인입선로가 4월말까지는 원만히 구성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공사일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④ -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2002년도 사업계획(민자유치 부분) 일부 수정 사유

⑤ - 사업지구 명칭 변경 관련 의견 회신

⑥ - 단지조성공사 공사완료시점 점검 및 단축 요청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 - 52호 2002. 3. 8.
수 신 : 배마부대장
참 조 : 군보실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 건축 고도제한 부분 조정 요청에 관한 건

국가 안위를 위해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와 귀 부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1세기 출판문화정보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현대 한 국가적 목표에 따라 199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건설되고 있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에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와 귀 부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지난 별 제 1차 시범지구 건축공사에 이어 제2차도 급년 봄 건축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범지구 및 2차 지구 일부 인쇄공장 및 출판사 사옥이 최첨단 인쇄 기기 및 설비 설치, 출판사 사옥 편집공간 확대·특수숙소의 부분적 설치에 따라 귀 부대의 입부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의 고도제한 완화가 불가피하여 관련 근거자료를 병행과 같이 첨부하여 부분적인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요청하오니 각별히 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판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직원 및 근로자 복리 차원에서 건설될 주거 시설과 현재 건설 중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phase 1(전시·정보지원 센터) 연계공사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국익 차원에서 깊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 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대하오며 귀 부대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 별첨 : 관련 자료 1건.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
이사장 이기용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 - 73호 2002. 4. 3.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제 목 : 동측 진입로 자연에 따른 상수도·가스 가배관 공사 촉구

파주출판단지 기반조성공사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귀 공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 공사에서 출판단지 시범지구 입주업체가 5월 입주식 공장 및 시설물 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인입되어야 할 상수도·도시가스 연결관로가 동측 진입로 환경 지연으로 인해 착질을 맞게 된 데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비상 조치로서 강구되고 있는 우회 진입 도로 가배관 공사와 관련하여 본 조합은 '동측 진입로가 한국토지공사와의 계약조건대로 급년말에 완공된다는 조건부'로 동 공사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일 귀 공사가 본 조합과의 계약대로 급년말까지 동측진입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동 가배관 공사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귀 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을 아울러 밝히 두는 바입니다.

동 사안의 해결을 감안하여 최대한 가배관 공사 기간을 단축해 주시되, 상수도와 가스 배관 터파기를 토지공사에서 동시에 시행해 줌으로써 공사비 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
이사장 이기용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 - 77호 2002. 4. 8.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 조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 주거시설용지 및 유통시설용지 분양 협조 요청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우리조합 공문 제2001-182호(2001. 9. 21), 제2002-59호(2002. 3. 14) 관련입니다.

지난 두차례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드린 바와 같이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입주사 종사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거근접 시설로서 「공인배치 및 공장선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중립된 아파트 공급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주거시설 확보가 출판도시가 사급히 해결해야할 선결과제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인대시설과 함께 추진 중인 출판유통현대와 시업 역시 파주출판도시 기능의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계획중인 한국출판유통(주)과 함께 귀 공사에서 분양예정인 유통시설부지 간에 1필지를 우리 조합에 공급하여 주셔야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해온 선진화된 출판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이 착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은 다시 한번 귀 공사에 입주사 근로자들을 위한 필수시설인 출판단지 내 주거시설용지와 출판유통시설용지를 출판단지 전체 건축입찰 및 입주계획과 연계시켜 계획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에 기금적 배분 시일내에 공급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귀 공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
이사장 이기용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 - 78호 2002. 4. 9.
수 신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제 목 : 풍력발전기 정상 가동에 관한 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파주출판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파주출판단지 인포를 앞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기는 환경친화적 출판도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상징물로서 설치 후 수 개월여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아 출판단지를 찾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또 할당할 답변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해 그간 심적인 어려움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항후 이와 같은 현상이 더 이상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식적으로 문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전기가 제대로 생산되어 풍력발전기가 명실상부하게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이며 또 어떠한 생산과정을 거쳐는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너지대안센터 측에서 오는 6월말, 7월초로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 수정은 어떠한 장치를 어떠한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인지? 아울러 그러한 시스템을 가동시킬 경우, 효율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풍력발전기가 착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에너지대안센터측에서 주관해서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 본 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조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후 풍력발전기가 더 이상의 시행착오 없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
이사장 이기용



- ⑦ - 파주출판단지 건축 고도제한 부분 조정 요청에 관한 건
- ⑧ - 동측 진입로 자연에 따른 상수도, 가스 가배관 공사 촉구
- ⑨ - 파주출판단지 주거시설용지 및 유통시설용지 분양 협조 요청
- ⑩ - 풍력발전기 정상 가동에 관한 건



출판단지조합 : 제2002-2호

2002. 4. 10.

수 신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회장

제 목 : 조합원(회원) 변동보고서 제출

1. 귀 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4)분기 조합원 변동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분기별 조합원 변동현황

(단위: 원천)

구분	조합원수			출자자수			출자금액			종업원수		
	전기분	금기분	증감	전기분	금기분	증감	전기분	금기분	증감	전기분	금기분	증감
현황	196	188	▲8	1,980	1,910	▲70	1,980,000	1,910,000	▲70,000	10,382	10,487	105

나. 지역별 조합원 분포상황

(단위: 천원)

구분	조합원수	출자자수	출자금액	종업원수	비고
서울	173	1,852	1,852,000	10,307	
인천	1	3	3,000	5	
경기	11	46	46,000	123	
기타	3	9	9,000	52	
계	188	1,910	1,910,000	10,487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가음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2-82호

2002. 4. 15.

수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조 : 문화산업국장

제목 : 2003년 5월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문화축제」 개최에 따른 2003년도 정부 예산 요청 사업계획(신규) 제출

1. 귀 부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파주출판단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깊이 감사 드리며 귀 부의 출신[86000-883호(2002.4.8일자)] 관련입니다.

2. 지회 조합에서는 2003년 5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완공을 기념하고 건축미학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출판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린이 도서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어린이 도시와 함께 책과 관련된 놀이, 공연, 체험 등을 통해 어린이들 교육의 문화를 제공하고 새로운 어린이 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2003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문화축제」를 매년 5월 1일부터 한달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3. 동 행사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자라나는 세박들에게 우리 출판 문화의 우수성을 각인시키는 한편, 파주출판도시에서 책을 기획, 편집, 생산, 유통하는 전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책문화를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체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어린이 도서의 수출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4. 출판산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2003년 5월 어린이 문화축제 행사를 위해 붙임 자료와 같이 2003년도 예산요구 사업계획(신규)을 제출하오니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2003년 어린이 문화축제 개최 신규 사업계획서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가음



파주출판단지 기반시설 조기 인입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

1. 일시 : 02. 4. 17. 14:00-16:00

2. 장소 :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3. 참석자 : 파주출판단지 이가음 이사장 / 유도영 상무이사 / 신기섭 기획위원
보건계 김장선 사장 / 화성문화산업 회장부 사장
한국토지공사 양규정 개발부장 / 김재근 개발과장 / 최상규 개발사업소 소장
파주시 서상호 하수처리장장 및 담당 임성범 /
기업지원과 노정배 과장 / 가스담당 이명곤 / 상수도담당 이정훈

4. 주요 협의 및 합의 내용

4.1. 임시오수처리시설 설치가동 전

1) 규모 및 설치·가동 시기

한국토지공사/파주시는 보건계·화성문화가 5월초로 예정된 시합가동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50톤 규모 폐기물 재사용 5월초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300톤 규모의 임시오수처리시설은 8월중, 늦어도 9월에는 설치·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 것을 위해 파주시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안으로 관련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케로 내부절차를 취하는 중이라는 진행사항을 듣고 필요시 조정이 필요한 등의 지원할 조 조치를 하기로 함.

2) 임시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청 승인문제

폐수를 수거 처리할 경우 보건계는 월1천만원의 비용이 들어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함. 조합이사장은 임시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바로 파수종말처리장 기능을 대체하는 것인데 현 시점에서 별도로 폐수처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토지공사측에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임시오수처리시설 기능과 기존 정식 파수종말처리장 기능에 부합되므로 폐수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 다만 환경청에서 이와 같은 전제가 없다고 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필요한 승인 절차 조처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토지공사측에서 설명함.

3) 급속 파수종말처리장 완공 시기

금년 8월초 작공 2004년 12월말 준공 예정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출판단지의 필요상 2003년말 부분 완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파주시가 확약함.

4.2. 도시가스 상수도 임시판로 설치

판로 설치의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진행 조치되어야 할 6교량 주 변 지반 성토는 토지공사 5월중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완료토록 약속함(현장상황 및 개발부장)→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상수도 도시가스는 시기적으로 문제없이 설치가 완료될 것임을 확인함.

4.3. 전기 인입

기존전로를 이용해 공장가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며 향후 조처로서 교차 지구에 변전소를 세워 해결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13개월 소요로 예상된다고 토지공사 김재근 과장이 답변.

4.4. 동축 전입로 활용 시기

출판단지는 동축 전입로 공사가 토지공사의 약속대로 금년 말 완공 시기를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는 현재 토지 평가액이 나와 소유자에게 통보된 상태로서 협의 보상이 윤건이 되고 있다고 답변. 협의 보상에 2개월, 만일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도 수용 절차에 들어갈 경우 3개월이 소요됨. 이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공 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답.

(사회·정비 신기섭 기획위원)

11 - 조합원(회원) 변동보고서 제출

12 - 2003년도 5월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문화축제」 개최에 따른 2003년도 정부 예산 요청 사업계획(신규) 제출

13 - 파주출판단지 기반시설 조기 인입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2-135 4층 247호 (파주시 파주읍 파주1로 132-135) / PAJOCORP@PAJU.CO.KR
031-944-8100 / 031-944-8101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 - 84호

2002. 4. 18.

수신 : 파주시장

참조 : 기업지원과장

제목 : 파주출판단지 도시가스 임시가설공사에 따른 협조 요청

파주출판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 시에 깊은 감사와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파주출판단지는 현재 한국토지공사의 출판단지 기반시설공급 계획에 맞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비롯, 보건재, 화성문화인재, 프린트, 한길사, 열화당 등 다수의 입주사가 입주할 위해 활발하게 공장 및 사무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쇄업체인 보건재, 화성문화인재, 프린트 등 3개 입주사는 오는 5월초부터 공장가동을 위한 시운전에 들어가 늦어도 6월초부터는 정상가동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인쇄업체의 정상가동에 맞추기 위해 공장가동을 위한 필수 시설인 도시가스 임시가설공사를 긴급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도시가스 임시가설 공사 추진은 토지공사에서 당초 출판단지 기반시설 인입을 위한 동축전입도로 개설사업 실시승인을 지난해 9월까지 받기로 하였으나 승인 절차의 지연, 관계기관 의견 조율 문제 등으로 금년 3월에 실시승인을 받게 되어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공급시기가 6개월이 지연될때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특히 입주를 한달 앞둔 보건재, 화성문화인재 등 인쇄공장은 토지공사의 기반시설공급 계획을 믿고 예정대로 입주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을 추진하였으나 토지공사의 도시가스 등 당초 계획한 기반시설 인입시설 설치가 지연됨으로써 공장가동이 불가능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현지점에서 도시가스 임시가설공사 추진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하루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건박한 현상사정을 고려하여 도시가스 임시가설 공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제반 조치를 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토지공사의 파주출판단지 기반시설공급 계획 홍보 공문 사본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용



교통철서는 약속, 나무의 지킴이다.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우 413-84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상동리 637 / 전화 031-940-3805 / 전승 031-944-8089
인터넷주소 www.koland.co.kr / 부장 임규형 / 과장 김재근 / 담당자 이광호

문서번호 파주(기)6631-2469

시행일자 2001.09.04

경유

수신 파주출판단지조항 이사장

참조

선	지
결	시
결	결
수	계
번	공
호	관
지	리
리	과
담	당
자	자

제목 파주출판단지 기반시설 공급일정 관련 회신

1. 우리공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출판단지조항 제 2001-150호('01.08.04)와 관련합니다.

2. 귀 조합에서 문의하신 단지내 기반시설 공급가능시기 등에 대하여는 불협과 같이 추진계획을 통보하였으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반시설이 인입토록 계획되어 있는 동축전입도로 개설사업 시행기간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서 협의보상이 지연하여 사업시행시기가 지극히 불투명한 실정으로 일부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적기 공급이 지연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연시 임시관로 설치방안 검토 등 공장일수에 따른 기반시설의 적기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귀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출판단지 기반시설공급 추진계획 1부, 끝.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파주출판단지 기반시설공급 추진계획

□ 기반시설 공급계획

파주출판단지내 기반시설(상수, 전기, 통신, 도시가스)은 지구 동축에 개설 예정인 동축전입도로 구간내 인입관로를 매설하여 단지내로의 공급계획임.

□ 동축전입도로 개설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 파주출판단지 동축전입도로 개설사업
- 위치 : 파주시 교하면 서패리 일원
- 사업목적 : 파주출판단지와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 사업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 - 2002.12
- 사업면적 : 25,252㎡(7,339평)
- 도로제원 : 연장 887.2m, 폭원 18.5m (4차선)

△ 사업추진계획

- '01.06 : 동축전입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 '01.07 : 동축전입도로 실시계획 승인관련 보완자료 요청 (환경부 요구사항 : 환경성검토자료 요청)
- '01.09 : 동축전입도로 실시계획 승인 예정
- '01.10 : 보상작수
- '01.11 : 관사착수(보상완료구간에 대하여 구간별 공사시행)
- '02.05 : 노반공사 완료구간 관로매설 착수 (구간별 관로매설 가능구간 인입관로공사 착수)
- '02.09 : 동축전입도로공사 준공
- '02.12 : 사업준공

※ 위 일정은 관련 인허가 및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적기 도로노반공사 시행할 경우의 추진계획이나 사업시행기간이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서 협의보상이 지연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경우 일정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임.

□ 기반시설 공급 검토

△ 상수도

파주출판단지 상수도공급은 '99.7.30 파주시와 토지공사간에 출판단지 상수도공급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공급키로 계획수립되어 현재 파주시 상수도화장공사가 진행되어 출판단지 동축에 있는 시도1호선을 따라 동축전입도로 입구까지 관로가 가설되어 있으며,

동축전입도로에 매설예정인 인입관로공사에 대하여도 적기 공사를 시행하여 2002. 5. 상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나, 사업시행기간이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서 협의보상이 지연하여 적기 관로공사시행이 극히 불투명한 실정인 바,

적기 관로공사매설이 불가할 경우 파주시와 협의하여 별도 구간내 임시 관로를 매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범단지 입주 이전에 공급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임.

△ 전력

한국전력으로부터 2002. 5 및 2002.12 일주에 대비하여 급전 및 송전 변전소에서 소요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인입노선에 대하여는 동축전입도로개설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시도1호선 연결도로 등을 통한 인입 등 별도방안을 검토하여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협의완료.

※ 한국전력공사측의 출판단지 전력공급 방안 참조

△ 도시가스

당초 출판단지는 사업착수전 도시가스 공급관련 협의시 관련업체인 서울 도시가스(주)로부터 사업성 지하 등의 사유로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조합측의 요구에 따라 공급토록 제철의힘에 따라,

현제 출판단지내 정압시설부처, 관로매설계획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 완료하여 단지내 관로설치공사가 진행중이며, 단지 동축에 위치할 시도1호선을 따라 동축전입도로 입구까지 관로가 가설되어 있음.

상수도의 경우와 같이 인입관으로 동축전임도료를 통하여 공급로측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시행기간 대부분이 농업전공구역으로서 협의보상이 지연하여 적기 관로공사시행이 극히 불투명한 실정이며, 상수도와는 달리 사업시행주체가 서울도시가스(주)로서 출판단지 사업비로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동축전입도로 개설 지연시 조합측에서 서울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임시 판로설치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불가피함.

△ 통신시설

동축전입도로 일정과 연계하여 공급가능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현황조사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참고 문헌 : 김기현, 『한국의 정치개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년
*참고 문헌 : 김기현, 『한국의 정치개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년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한 제2002-88호

수 신 : 과주시장

목 : 파주시장 면담 주제

2002. 4. 20.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파주출판단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는 4월 22일 오전 10:30 과주시장실에서 예정된 단합식 논의할 의제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동 의제와 관련된 책임자와 담당자들의 바쁘시어 현안회 논의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파주출판단지 경관지구 조기 지정에 관한 건
2. 공익적 문화선언시설로서 건립되는 '아식아출판문화정보센터' 취득세·등록세 감면 요청 건
3. (주)파워(출판단지 내 종합상가시설을 건립하고자 출판사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법인체) 상업시설 지하주차장 개발 허용 및 관련 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철동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U BOOK CITY

120-130 서울 강남구 신사동 908 강남구청문화센터
Tel: 511-0500 ~ 0509 Fax: 511-2509 E-mail: Pk@PCCOIL.COM, CIL@PCCOIL.COM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2-90호

2002. 4. 23.

수 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관련 수요 요청에 대한 회신

귀 사업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파주(개)6631-1089호(2002. 4. 16.) 관련입니다.

귀 사업단의 출원내지 내 품종식용용도 용도변경 권한 수로 요청에 대해 우리 조 합은 실수요자로부터 매우 뜨거운 화성진 전신전국, 우체국, 변전소 부지를 귀 사업단에서 산 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연후에 매우할 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우체국용지의 경우 귀공사가 지난 1월 22일 전국전국관리사무실 및 공사현장용지등으로 준공인가권 토지사용승인권 과출소부 지와 변경되어 공표되어서 사합니다.

또한 변전소 부지는 산업용지로서 입주사 사육 건축이 어려운 지형의 부지이므로 사전에 귀 공사에서 주변 사육지를 수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육 건축이 가능하도록 부지 형태를 조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사장 이 기 응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126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삼성출판문화센터
전화 311-9502 ~ 9504 팩스 311-9503 E-mail : PASTCC@NATE.CO.KR

별 호 : 출판디자인학 제 2002 - 9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 2002 - 95호

2002. 4. 26.

수 선 : 한국토지공사 과주사업단장

참 조 : 퇴주출권단지 개발사업소 소장

著者：田嶋 國雄 堀 紀 岡田 誠 岡田 隆 渡辺 孝典

[illegible]

1. 파주출판단지 조성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귀 공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단지 안의 각 교량에 대한 교량판과 교량설명판의 설치방법에 대한 도면이 확정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공사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내용은 철골물과 컴퓨터파일 형태로 이미 전달드린 전집안과 같게 사공하여 출판단지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제5교량의 난간 돌출부위에 손스침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명세서에 공사에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령설명관 설치상세도(오토캐드 파일/기송부) 1부

2. 내용 편집(출력물 및 컴퓨터파일/기송부) 1부

이 사장 이 기 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 1차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6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PAJU 5-1 2508-8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PAJUCOOPERATIVE CO. LTD

문 시 번 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 - 93호

2002. 4. 29.

수 신 : 문화관광부 장관

형 조 : 문화산업국장

제 목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1.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의 예카로 자리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귀 부의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시설비 예산 중 2002년도 국고 예산
으로 책정된 국고보조금을 붙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고자 교부신청하오니 조속
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용



[서식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신 청 자	주 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404				
	기 관 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전화번호	02)511 - 9556		
	대표자명	이 기 용				
교부신청금액	일금 이십오억원정(W25,000,000,000)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국고보조금	지원비	기 금	자부담	기타
	17,185,000	8,500,000			8,686,000	
사 업 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출판·문화·예술에 관한 정보·전시공간 제공 및 연구와 교육기능 등을 수행하는 복합문화산업시설을 건립하여 단지 활성화 및 출판 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02. 1. ~ 2003. 12. ○ 사업내용 : 출판문화전시·정보지원센터 동(Phase 1) 2,066평 교육연수센터 및 사무국 등(Phase 2) 1,770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2 년 4 월 29 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용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21세기 지식경쟁 벤처산업단지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에 출판·문화에
편한 정보제공 및 전시·경회, 국제도서·문화교류, 출판문화인재육성 연구와 교육
기능 등을 수행하는 출판문화산업시설을 건립·운영하여 책문화 보급 및 창달을
통한 지식산업 기반의 활성화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키 위함임.

○ 필요성 : 출판관련 산업은 문화산업으로서 21세기 지식강국을 지향하는 국가적 과업 완수차원
에서 출판문화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은 필수적
임. 동 센터는 출판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선도하는 구심체로서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임.

3. 사업 개요

○ 기 간 : 2001. 1. ~ 2003. 12.

○ 장 소 :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일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 부지면적 : 5,423평

○ 건축규모 : 3,836평

- 출판문화전시·정보지원센터 동(Phase 1) 2,066평

- 교육연수센터 및 사무국 등(Phase 2) 1,770평

○ 건축비규모 : 17,186,000,000원

4. 월별자금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	2001 년까지	2002년								2003년
			1/4	2/4			3/4			4/4	
				4	5	6	7	8	9		
건축비	15,344	1,088	798	2,421	882	891	830	830	830	784	5,990
부대시설비	1,842	295	42	356	68	59	120	120	120	166	496
계	17,186	1,383	840	2,777	950	950	950	950	950	950	6,486
국고	8,500	-	-	2,500	-	-	-	-	-	-	6,000
민자	8,686	1,383	840	277	950	950	950	950	950	950	486

5. 월별별 사업 추진 계획

- 1998. 11. 24.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 매입
- 2000. 5. 2.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 설계 공모
- 2000. 11. 11. 현상 설계 최종 당선자 확정
- 2000. 12. 30. 기본·실시 설계 용역 계약 체결(김병준 교수+시범종합건축사사무소)
- 2001. 5. 28.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축공사 발주
- 2001. 6. 15. phase2(교육연수센터 및 사무국) 건축공사 착공
- 2002. 4. Phase 1 (출판문화 전시·정보지원센터) 착공
- 2002. 8. phase2 건축공사 준공
- 2003. 4. Phase 1 (출판문화 전시·정보지원센터) 완공예정

6.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지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 경비부담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 부담 금액 : 8,686,000,000원
- 부담 방법 : 인자유치(인주사 공동부담 및 회사금)

7.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액의 처리 방법

- 국고보조금 전액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전속비로 투입할 예정으로 예상수익금 없음.

8.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금 액	산 출 기 초	자 금			
			국비	지방비	기금	자부담
아시아출판 문화정보센 터 건립	17,185,000	○ 건축비 - phase1(출판문화전시· 정보지원센터) 2,066×4,000=8,264,000 - phase2(교육연수센터) 1,770×4,000=7,080,000 ○ 시설부대비 15,344,000×12% = 1,842,000 계 17,186,000	8,500,000			8,686,000

9. 기대 효과

"새로운 세기의 '책의 문화', '지식산업 기반'의 확산"으로 출판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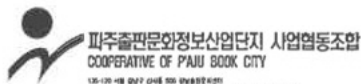
- 1)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책의 문화가 풍부하고 있는 출판, 문화, 예술, 학술정보, 인쇄영역의 확산 무대가 될 것임. '책의 문화'는 글 교육·전통 계승·과학기술 진흥·정보보존화·문화산업의 근간이라는 연계성상에서 이들 영역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공간을 창출.
- 2) 국제 수준의 전문지식, 영상물 전시·판매·교류 및 동북아를 대표하는 북센터로서의 학술·문화·예술 분야 정보지원센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식산업의 전진기지 구축.
- 3) 공연, 전시, 기획마당 제정으로 민족의 주체성 확립 ⇒ 한국 민족문화의 세계화 ⇒ 지식산업 현상의 관광자원화(관광·문화특구 추진)로 새로운 형태의 관광산업 활성화
- 4)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상임동원드림센터·행주산성·통일동산·헤이리 아트벨리·일전마을 등을 '자유로 문화벨트'의 중심기지로써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의 명소화
- 5) 지역적 공간상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공산권간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됨

10. 보조사업자 개요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산 및 부채 내역
- 법인 결산

계약현황

1. 계약명: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신축공사(1단계-Phase2)
공사기간: 2001. 6. 15. ~ 2002. 4. 30.
계약금액: 일금 사십칠억육천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자: 장학건설 주식회사
2. 계약명: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설비용역(Phase 2)
계약기간: 2000. 12. 29 ~ 2001. 5. 13
계약금액: 일금 이억육천사백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자: 김병윤 + 주식회사 시명종합건축사사무소
3. 계약명: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Phase1 전사정보지원센터)신축공사 실시계획용역
계약기간: 2002. 3. 22 ~ 2002. 4. 23(1단계 기초공사 도면)
~ 2002. 7. 23(2단계 건축공사 도면)
계약금액: 일억구천육백구십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자: 김병윤 + 주식회사 시명종합건축사사무소
4. 계약명: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전사정보지원센터 건설비용 용역
계약기간: 해당공사의 약정 건설공정기간 이내
계약금액: 삼십삼백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자: 조형예술연구소 + (주)건축사사무소 이지
5. 계약명: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신축공사(1단계-Phase2) 감리
계약기간: 2001. 7. 15 ~ 2002. 4. 30
계약금액: 육천육백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자: 건축사 사무소 성안
6. 계약명: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소방설비공사 감리용역
계약기간: 2001. 12. 1 ~ 2002. 7. 31
계약금액: 이천팔백만원정(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자: 한일엔지니어



문서번호: 출판단지조약 제 2002 - 105호

2002. 5. 14.

수신: 파주경향신문
참조: 경향신문과장
제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제한속도의 하향조정 요청

1. 적인확보와 대인업무에 여념이 없는 귀 경찰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의 국가정책의 목표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출판문화산업도시인 저희 파주출판단지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북시티', 도시의 공동체 정신에 의해 현대화 단지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부와 출판·언론계 및 국민적 관심과 지혜 속에서 현안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지 조성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기반시설이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기존에 단지 내 교통안전 표시한 설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 단지는 특성상 '나눔과 느림'의 공동체 정신을 지향하고 우수한 건축가들과 파드나일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며, 전체 단지 설계 및 건축지침 상의 주요 주제가 '느림'을 지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친화적이고 건축설계적 요소와 출판문화정신이 기본이 되는 출판문화도시의 특성을 심볼 고려하여 단지 내 제한속도를 25m 대로의 경우는 40km/hr, 기타 15, 10m 등의 도로의 경우는 20km/hr로 하향 조정하여 속도표시판 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사항은 도로공사가 완공되어 완비하게 될 주체인 파주시 건설관계 책임자가 공동 참여하는 '파주출판단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출판단지의 특성을 배려한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이 이루어져 출판단지의 개발과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정책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조이사장 이기용



사본: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참조: 개발부강)



문서번호: 출판단지조약 제2002 - 117호

2002. 6. 3.

수신: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조: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제목: 파주출판단지 유통시설용지 분양 협조 요청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우리조합 공문 제2002-77호(2002.4.8)과 제정 방문하여 협의한 유통시설 분양공고와 관련입니다.

출판유통발전과 사업은 파주출판도시 거점의 핵심시설로서 현재 개발계획중인 한국출판유통(주)과 함께 귀 공사에서 분양예정인 유통시설부지 잔여 1필지를 우리 조합에 우선 또는 수익계약으로 공급하여 주셔야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해온 선진화된 출판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귀 공사에서 한국출판유통과 무관한 업체에게 동부지를 공급할 경우 파주출판도시 전체 개발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물론 이로 인해 한국출판유통의 장기발전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공사에서는 98년 8월 25일 출판단지 용지 공급 공고시 시행한 대로 입주자를 대표 주관하는 단체인 조합에게 우선 분양권을 우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출판단지 토지분양이 거의 완료된 현 사업에서 초기의 출판단지 부지공급과 연계하여 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가운데 귀 공사에서 유통시설 용지 분양계획을 추진해 주셔야 할 것임을 일깨워 드리며 다시 한번 유통시설 용지 공급계획에 대해 재검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조이사장 이기용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 - 123호 2002. 6. 11.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 조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 파주사업담당
제 목 : **남측 진입로 임시 도로 개설·복측 진입로 조기 정상화 및 남측 진입로 완공 촉구**

귀 공사의 민영과 발전을 빌미 파주출판단지 기반시설 확충과정에서 발생한 귀 공사 공문 파주(개)6631-1117호(02.04.18) 및 파주(술)6631-77호(02.06.03)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파주출판단지 기반시설공사 중 단지 내 기반시설은 완공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파주출판단지에 접근할 진입로 공사가 초기 계획과는 달리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입주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보진재·화성문화인쇄를 비롯한 파주 출판단지 시범지구 입주사들과 금년 9월 입주예정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고 대내외 행사를 치르는데 큰 자질이 될것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단지 기반시설 완공과 관련된 진입로 공사 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남측 임시 진입로 개설 문제

자유로에서 출판단지로 진입하는 남측 임시 진입로를 파주사업단에서 금년 5월 15일까지 해 주기로 현장협의에서 약속하였으나 이마져 늦어지고 있어 지금 남측 진입로는 통제수 공사현장 담 모서리를 돌아 열악한 임시도로를 통해 진입해야 하는 실정에 있어 임시 진입로 개설이 하루가 아쉬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귀 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늦어도 오는 6월 30일까지 남측 임시 진입로를 개설하여 최소한의 교통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고 교통안전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복측(분발리) 출구 포장 및 성지작업 요청

출판단지 복측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분발리 출구가 포장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뿐 아니라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

고가 크게 우려되어 복측 진입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복측 진입로 출구를 제대로 포장해 주고 급격한 경사도를 완만히 조정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공사에서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남측 진입로 조속 완공 촉구

실기 남측 임시 진입로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조치에 불과한 만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명실상부하게 국가산업단지로서의 기반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당초 계획한 남측 진입로를 조속 완공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완공 시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측 진입로 일반 완공 약속 이행 촉구

동측 진입로도 귀 공사에서 약속한 금년 말 기한 내에 완공됨으로써 현재 임시조치로 가설한 도시가스의 상수도가 동측 진입로를 따라 정상 원로를 통해 출판단지에 진입될 수 있도록 작금 관련 내면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통신망 진입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판단지가 정상 작동하기 위한 필수기반시설인 전기 진입로 개설 공사에 대한 서급성과 중요성을 귀 공사에서 진히 인지하시어 동 진에 대한 귀 공사의 적극적인 조치와 최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 - 126호 2002. 6. 14.
수 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 출판단지개발사업소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 교량명칭 관련 협의 회신**

1. 파주출판단지 기반시설공사 마무리에 애쓰시는 귀 사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파주(출)6631-78호(2002. 6. 3) 관련입니다.

2. 귀 사업소에서 요청하신 파주출판단지 내 교량 명칭 재협의에 대해 우리 조합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반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량명칭은 북향문으로 기술하여 주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연세교량명	제1교	제2교	제3교	제4교	제5교	제6교
조탑의전교량명	隱石橋 (은석교)	應七橋 (응칠교)	茶山橋 (다산교)	黑石橋 (이석교)	蘆蔭橋 (노안교)	文賢橋 (문반교)
비고	출판지의 은강산은 원로이신 총독문화사 정인숙 회장이 마로	독립운동가 이시와 출판단지 건설에 정신적 힘과 이시안운동의 의사	다산 정약용 선생	출판단지 창이 건축가 그룹의 스승이신 고 유수근 건축가 마로	출판단지의 편집자인 신정호는 강대노(파기리(한))	지명유래 반영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 - 132호 2002. 6. 24.
수 신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참 조 : 산업단지공단 파주지부장 / 토지공사 파주사업담당
제 목 : **파주출판단지 출판유통시설 입주 자격에 관한 건**

국가산업단지를 개발·관리하시는 귀 공단과 한국토지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지식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귀 공단과 한국토지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계획된 출판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단지는 출판, 인쇄, 출판유통에 종사하는 출판관련 출판인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이업종(果業種)간의 협동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출판단지가 조성 목적에 맞게 상공을 거주기 위해서인 특히 IMF사태 이후 취약점으로 드러난 출판유통 분야의 경쟁력 보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파주출판단지는 별도로 출판유통부처를 마련하여 실적과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출판유통업체인 '에스 이십사(주)'를 적격업체로 판단하여 조합이 에스 이십사(주)의 분업업무를 위하여 지난 6월 21일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와 공동 시행한 출판유통시설 입찰에 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시 출판유통업과는 전혀 상관이 있는 3개의 인쇄업체와 1개 세분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그 입찰자격 여부에 대해 본 조합 실무자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점에서 한국산업단지 관계자가 출판유통업종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입찰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6월 27일로 입찰일시를 연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파주출판단지가 명실상부한 국가산업단지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출판, 인쇄, 출판유통뿐 아니라 출판유통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출판유통 관련 업체가 입주하여야 함에도 출판유통업종에 종사한 적도 없고, 단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등록부가 형식으로 그 자격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국가를 대신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할 책무를 지닌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토지공사가 스스로의 공적 기능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 24 - 남측 진입로 임시 도로 개설, 복측 진입로 조기 정상화 및 남측 진입로 완공 촉구
- 22 - 파주출판단지 교량명칭 관련 협의 회신
- 23 - 파주출판단지 출판유통시설 입주 자격에 관한 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125 서울 강남구 선릉 2동 255-1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TEL 511-0551~5 FAX 511-0552 E-mail : PAJUCO@NATE.COM

문 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2 - 154호

2002. 7. 12.

수 신 : 감사원 국가산업단지 담당관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출판유통시설 부지 무자격에 대한 입찰 참여 자격부여 및 추첨 진행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시정 요청

1. 귀 원의 변경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산업단지 공단과 한국토지공사는 전설교통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출판유통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를 출판단지의 특성과 적법성 및 건교부의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무시하고 임의로 법적 해석을 확대하여 출판유통시설을 영위하고 있지만 무자격자인 인쇄 및 출판업자에게 분양 자격을 부여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하였기에 본 조합과 산단 및 토지공사와 오고간 관련 검토서류를 첨부하여 간곡히 이의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3. 감사원의 올바른 법적 해석으로 국가경쟁력을 갖출 목적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에 맞는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하셔서 한국토지공사와 산업단지공단이 적법하게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관련자료 사본 1부 붙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125 서울 강남구 선릉 2동 255-1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TEL 511-0551~5 FAX 511-0552 E-mail : PAJUCO@NATE.COM

문 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2 - 155호

2002. 7. 13.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 조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시임단장

사 본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시부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유통시설 부지 입찰 공고절차 진행에 관한 건

1. 귀 공사 공문 서울(국)5511-5114호(2002.07.12.)와 관련된 건입니다.

2. 본 조합은 귀 공사 서울지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보내온 매수 희망업체가 입주 가능하다는 회신을 근거로 본 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7월 16일 오후 3시 파주토지공사 파주시임단 상임실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대상자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에 대해 본 조합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3. 등 전과 관련해 본 조합은 7월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본 조합 이사장간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실에서 관계자들의 배석 하에 장시간 회의를 갖고 별첨 3)와 같이 경리한 출판유통시설에 대한 정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등 법제도적 근거 및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입주자격 우선 순위 등 조합의 주장을 최종 경리한 자료를 제시하여 산업단지 이사장으로부터 등 전에 대해 산업단지가 자체적으로 법제도적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는 동시에 귀 공사와 등 전에 대해 재협의 의키로 약속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등 전과 관련, 감사원에 별첨 2)와 같이 건담히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출판유통시설 부지 입찰 자격 여부에 대해 감사원을 방문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감사원 담당관으로부터 6월 21일 입찰공고 시점에서 출판유통시설 출판유통시설을 영위하고 있어 입찰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입찰일을 연기하여 입찰을 추가한 업체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5. 따라서 본 조합은 7월 16일 출판유통시설에 대해 추첨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귀 공사의 부당한 입찰절차 진행을 즉각 중지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본 조합은 귀 공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출판단지의 기본설계와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실시계획 등 제반 법제도적 근거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유권해석에 근거해 진행시키고자 하는 입찰공고 절차를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

백히 하면서, 다시 한번 귀 공사에 입찰공고 상에 명시한 입찰시점인 6월 21일 현재 출판유통시설에 입주할 자격이 구비된 적격업체에 한해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해 입찰절차를 진행시켜 주실 것을 재상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6. 만일 귀 공사가 이러한 조합의 법제도적 합리성과 합법성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주장을 간파하고 일방적으로 7월 16일 부적격자에게까지 입찰자격을 주어 추첨을 강행할 경우, 정부 관련 부처의 시정조치, 책임 문제 등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행정적,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귀 공사와 산업단지공단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통보드립니다.

등 전에 대한 귀 공사의 책임 있는 정책적 판단과 제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7. 10. 산업단지에 제시한 자격요건 관련 법적 근거 사본 1부.

2) 감사원에 의뢰한 적격업체 관련 결의공문 사본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24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출판유통시설 부지 무자격에 대한 입찰 참여 자격부여 및 추첨 진행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시정 요청

25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유통시설 부지 입찰 공고절차 진행에 관한 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0-1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8 2층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호 511-6588-8 팩스 511-6589 E-mail : PAJUCO@NATE.COM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2 - 158호

2002. 7. 16. 오전 10:40

수신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제목 : <긴급> 출판단지 출판유통시설 입찰공고 절차 준수 촉구 및 입주자격 업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절차 진행을 위한 추천 일시 연기 요청

1. 귀사의 변명을 기원합니다.

2. 출판단지 내 출판유통시설에 입주할 유자격업체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는 입주업종확인서는 입찰공고 시 귀사에서 공지했던 절차적 필수 사항으로서 이는 입주 희망 업체에 대한 자격 심사를 대신하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반드시 입찰참여업체에 대해 입주업종확인서 발급절차를 밟아 공정한 입찰절차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명시한 공고절차를 스스로 무시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송부한 공문만을 근거로 추월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본 조합에서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간주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서는 귀 공단에서 다수금 융찰 업체에 대한 추천 자격 부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귀 공단에서 추천 일시를 연기하도록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에 건급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0-1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8 2층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호 511-6588-8 팩스 511-6589 E-mail : PAJUCO@NATE.COM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2 - 165호

2002. 7. 22.

수신 : 9사단 강안대대장

제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오수 무단 방류 시정 촉구

1.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으신 귀 대대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친환경적인 21세기 문화산업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파주 출판단지에 귀 대대에서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함에 대해 지난해 출판단지조합 공문 제 2000-30호(2000. 3. 7), 제2000-172호(2000. 10. 17), 제2001-171호(2001. 9. 5) 등 수차례 공문과 출판단지 직원의 방문을 통한 구두요청으로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러한 조합의 노력과 군부대의 필요성에 의해 귀 대대로부터 지난 2001년 12월경 유선협의를 통해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 받은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전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귀 대대를 비롯한 여하 출판단지 인접 두 개의 소초에 대해 정화시설 설치 등 시정조치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 19일 현재까지 귀 대대에서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함으로써 불임 현황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갖 동식물의 보고인 갈대밭상의 수질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저하시는 바와 같이 300여 출판산업인들이 13년간 생활을 기울여 한국 유일의 지식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조성되는 파주출판도시는 제1의 목표로 생태환경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단지 갈대밭상의 오염과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건설에 역행하는 귀 대대의 오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실 것과 하루 빨리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악취가 풍기는 검은 오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5. 이러한 조합의 간곡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번에도 별다른 조치가 가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단체를 비롯, 언론·정부기관, 유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귀 대대의 오폐수 무단 방류에 따른 환경파괴행위를 공론화시킬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동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귀 대대의 즉각적이고 성의있는 조치와 구체적인 회신을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현황 사진 4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27 - <긴급>출판단지 출판유통시설 입찰공고 절차 준수 촉구 및 입주자격 업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절차 진행을 위한 추천 일시 연기 요청

28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오수 무단 방류 시정 촉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U BOOK CITY
125-125 서울 중구 동대문로 308 2층 204호
TEL 011-8588-8 FAX 011-8588-8 E-mail : PAUBOOKCITY@PAU.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167호

2002. 7. 24.

수신 : 한국전자통신공사 서울지사장

참조 : 고재자원부장

제목 : 출판단지내 필지분할 및 전하국에정부지 매각요청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1999년 6월 30일 귀 공사와 2차지구 부지 58,401.5㎡에 대한 매지제약을 체결하고 각 입주사들은 사옥 건축을 위해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2분력 1의 입주사인 서울음반과 시사영어사에서는 사옥신축계획에 따라 변경과 같이 필지 분할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는 같은 제1차지구인 별도 필지로 현재 부지대금도 각기 따로 납부하고 있으며 주주 부지 및 건물의 등기도 별도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필지 분할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같은 필지내에 있는 전하국 부지(2,003㎡)를 포함시켜 설계를 하고자 매각 여부를 재확인 해온 바, 이에 대한 귀 공사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합니다. 동 사항은 귀 공사 파주시입단에서 공문(문서번호 파주(제)6631-1089, 2002년 4월 16일)으로 출판단지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관련 수요 요청시 우리 조합이 시사영어사에 매수희사를 구두로 이미 확인하여 귀 공사에 전하국부지의 2필지에 대한 매수희사공문(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90호)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귀 공사의 명확한 답변을 근거로 입주사에 회신하고자 하오니 상기 필지 분할 및 부지매각에 대한 사항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용지 중 파출소 부지는 단지개발을 위한 공동검독사무실 부지로 활용코자 하오니 조합에 알도도록 조치해 주시고, 파출소 부지는 우체국 부지로 위치를 변경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매설공사가 적기에 시행되어안 급년에 완공 예정으로 모든 인프라사업이 진행 중인 사입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게 됩니다.

파주출판단지 조성이 자본력이 빈곤한 중소기업 협동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정책사업임을 고려하시고 아울러 동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귀 도의 공평적 회신을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별첨 : 관련 공사 구간 계획도 사본 1부 붙.

사본 : 한국전력 경기북부 지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U BOOK CITY
125-125 서울 중구 동대문로 308 2층 204호
TEL 011-8588-8 FAX 011-8588-8 E-mail : PAUBOOKCITY@PAU.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168호

2002. 7. 26.

수신 : 경기도 건설본부장

제목 : 교하-조리간 공사구간 전력관로 매설 협의에 관한 건

1. 귀 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전력 공문 85302-20690105(2002.3.6) 및 귀 도 공문 건설일 58710-822호(2002.5.28) 관련입니다.

3. 저희 조합은 귀 도가 시행 중인 국지선 56호선 교하-조리간 도로화 도장 공사 구간 일부에 지중 매설을 통해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를 운영해 나갈 주체로서 이미 모전제, 화상문화인의 등 일부 대규모 공장이 지난 6월 이후 가동에 들어갔으며 현재 건축 공사 중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출판사, 인쇄사, 원의·지원시설 등 20여 업체가 급년 중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임시조치로서 한전으로부터 기공전력 1회선을 통해 임시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나, 향후 속속 들어설 200여 입주사들의 전력 수요를 고려해 볼 때 한국전력으로부터 탈조 계획된 대로 안정적 전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첨의 국지선 56호선 공사 구간에 대한 지하매설 공사를 통해 전력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입주 제책에 큰 차질을 빚게 되며 파주출판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귀 도에서는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할 200여 출판·인쇄·유동 및 문화센터·상업 지원시설에 소요될 전력의 정상적인 공급을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출판단지가 한국전력과 협의·계획한 대로 적기에 정상적인 전력공급이 지중 전력 관로를 통해 출판단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파주출판단지 내 부지는 지중 전력 관로 매설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에 있으므로 국지선 56호선 교하-조리간 일부 구간에 계획되어 있는 지중 전력 관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U BOOK CITY
125-125 서울 중구 동대문로 308 2층 204호
TEL 011-8588-8 FAX 011-8588-8 E-mail : PAUBOOKCITY@PAU.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169호

2002. 7. 27.

수신 :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사장

참조 : 한국전력 경기북부지사 배전부 자중배전과장

제목 : 교하-조리간 공사구간 전력 관로 매설에 관한 건

1. 파주출판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프로젝트 관련, 귀 공사 경기북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별첨과 같이 경기도 건설본부장 앞으로 파주출판단지에 인입될 전력 관로 매설에 적극 협의를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귀 공사가 경기도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관련 공문 사본 1부 붙.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 29 - 출판단지내 필지분할 및 전하국에정부지 매각요청
- 30 - 교하-조리간 공사구간 전력관로 매설 협의에 관한 건
- 31 - 교하-조리간 공사구간 전력 관로 매설에 관한 건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185호

2002. 8. 27.

수신 : 파주시청 공무과장

제목 : 파주출판단지 공동식당 임대 계약 조건

귀하의 건설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오는 10월초 파주출판단지 조항이 전역 투자하여 준공될 예정인 파주출판단지 공동식당 임대와 관련된 계약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조건을 검토하신 후, 조항이 제안한 공동식당 임대 운영에 동의할 시에는 9월15일까지 최신의 주시면 감사하셨습니다. 미려하고 품격 있는 단층 형태의 중식당 설계자는 출판단지 코디네이터인 송효상 씨이며 그는 최근 미국 건축가협회 명예이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으며 경수근 문화상, 현대미술관 건축대상을 수상한 한국 건축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 다 음 -

- 임대 가능 일시 : 2002년 10월 초순 이후 연간 계약 또는 3년 이상 장기 계약(상호 협의 후 결정)
- 임대료는 1차 년도에는 전체 매출액의 15%를 매월 포함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며 2차 년도에는 1년간의 실적을 참고하여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임대보증금 : 3천만원)
매출액 규모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이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임대 계약자가 개별 매출액에 대한 전산 처리 등 분명한 근거를 남겨 조항 측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임대 조건 : 주방 설비 및 제반 주방 기기는 선착에서 지비로 구입하고 석상, 디자인 등을 고려해 사전에 조항과 상호 협의하여 구입한다.
- 설치 후 철거가 어려운 주방 설비 기기(2000여만원 추정)는 단기(1년 분)계약 후 계약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매년 25% 적용)를 적용하여 조항에서 구입한 기기에서 그 시설 투자비의 감가상각 비율만큼 삭감하고 보충한 후 조항 소유로 한다.
단 3년 이상 장기계약할 경우에는 감가상각 보충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별칭 : 공동식당 설계도면 사본 1부(전체 건물면적 105평 : 식당 71.6평-권유포식당 36.6평(35평 추가 가능) · 창고 12.2평 · 화장실 5.2평)
- 아시아랜드 레스토랑, 비즈니스 홀의 경우 보증금 별도협의. 나머지 조건은 대동소이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186호

2002. 8. 27.

수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참조 : 파주출판단지 조경현상 소장

제목 : 파주출판단지 조경공사 설계변경 요청

1. 귀 공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파주출판단지의 조경공사가 이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경공사도 현장 진행중인데, 9호 경관녹지 · 10호 경관녹지 · 근린공원의 공사와 관련하여 귀 사업단의 조경현상소장과 현상을 확인하면서 지적하였듯이 다음과 같은 공사의 변경을 요청하오니 공사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9호 경관녹지

- 대형 PC 콘크리트 판을 3줄로 시공
- 대형 PC 콘크리트 판들 중간에 임의로 설치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 나무(교목류)를 식재

나. 10호 경관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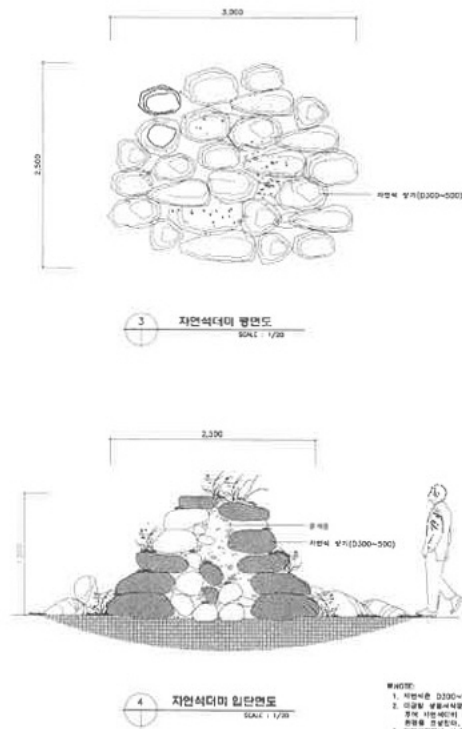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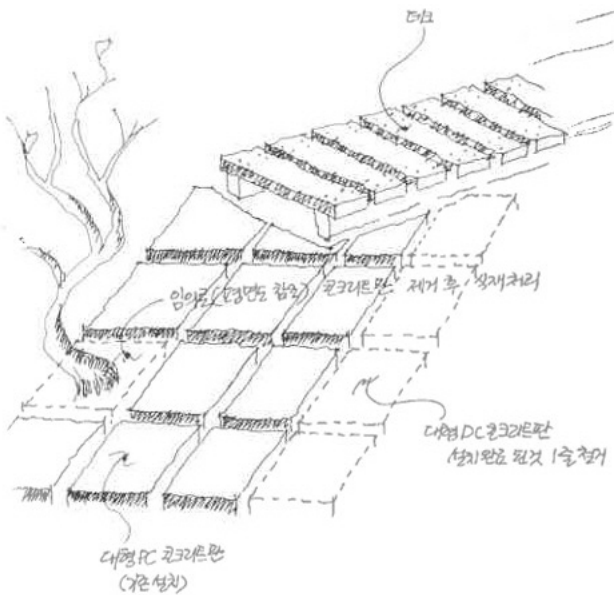
- 검은색 석색대칭 구간의 축소
- 대형 PC 콘크리트 판의 설치 취소
- 석색구간에 자연스러운 교목류 추가식재

다. 근린공원

- 자연석 더미는 자연스럽게 바닥에 호트르트림
- 수로
- 대크 역압 제도에 요청(전본 711번)

첨부 : 관련 스케치 도면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홍



※NOTE
1. 자연석은 2330~5000에 나무를 식재한다.
2. 인공형, 방목식물간이 동화 및 그 식물과 동화시켜
3. 자연석더미나 식물은 자연석더미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129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9-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011-9598-8 팩스 011-9598 E-mail : PAJUCO@PAJU.CO.KR

문서 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2 - 190호

2002. 8. 29.

수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시업단장

참조 : 개발부장

제목 : 지적확정측량에 관한 회신

1. 출판단지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리며, 파주(출판) 6631-5799호(2002.7.30.)와 관련입니다.

2. 출판단지내 공공용지 조성은 실시계획 승인 사항과 같이 성토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나, 파주출판단지는 당초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살리는 목적하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귀 공사에서도 기피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수로변에 집한 부지조성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로변 법면 성토 유보를 요청한 우리조합에서는 향후 건축설계시에도 애초 계획대로 수로변 경관을 고려하고 자연 생태계 훼손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수도 법면 부분의 미성토로 인한 확정측량상 문제점에 관하여는 관계 당국과 협의한 바 당초 계획된 경계로 확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파주출판단지 계획수립과 대지조성 배경을 근거로 우리조합에서는 부지내 미성토에 관련하여 귀사와 토지매매계약 당사자로서 별첨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오니 귀사의 필요시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붙임 : 확인서 1부 붙.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화 약 서

파주출판단지 수로변 지적확정측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수로변 지적확정측량과 관련하여 수로변 갈대보호를 위하여 미성토된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가 지적경계표석을 설치하여 지적을 확정토록 함.
2. 향후 건축시 계획홍수위를 감안하여 건축토목하여 침수피해에 대비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계획임.
3. 수로변 건축시 추가될 수 있는 수로법면부 및 훼손될 수 있는 수로법면부에 대하여는 개별건축시 시공 또는 복구할 계획임.
4. 동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입주자에게 통지하고, 개별 토지 중 수로에 접한 법면 부근의 미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성토 작업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

2002. 8.

확인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129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9-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011-9598-8 팩스 011-9598 E-mail : PAJUCO@PAJU.CO.KR

문서 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2 - 192호

2002. 8. 30.

수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시업단장

참조 : 개발부장

제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공동오수처리 관리 요청

1. 출판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리며, 한산수 제 파주02-02호(2002.8.20.)의 관련입니다.

2.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판단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지연에 대비하여 파주시에서 설치한 공동오수처리시설(50톤)과 귀사에서 시공중인 공동오수처리시설(300톤/350톤) 운영과 관련해서는 붙임 공문과 같이 출판단지조합 제2001-107호(2001.5.29.)로 파주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오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귀 공사에서 파주시와 협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출판단지조합 제2001-107호 공문 사본 1부 붙.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129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9-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011-9598-8 팩스 011-9598 E-mail : PAJUCO@PAJU.CO.KR

문서 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 - 107호

2001. 5. 29.

수신 : 파주시장

참조 : 건설국장 / 상하수도과장

제목 : 위험하수처리 비용 부담 조건 및 건축공사 자료 제출

1. 파주출판단지의 성공적인 입주시행을 위해 제반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 이하 시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귀사의 공문 상하58450-1289호(2001. 5. 15), 58450-1370호(2001. 5. 25) 관련입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2002년 월드컵대회 일정에 맞춰 출판단지 시범지구(의 일부분을 완공해야 하는 국가경쟁력 목적에 부응하고자 2002년 5월 입주목 목표 취선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사의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지연과 월드컵 일정에 맞춰 일부 입주목에 하는 저희 조합의 일정이 맞물리 불가피하게 위약처리해야 하는 하수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조합에서 건축준공 후 하수처리에 대한 재검을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조건일 경우, 입주자들이 귀사의 위약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단계별 입주계획과 건축계획을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파주출판단지 건축공사 추진계획 1부. 붙.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129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6 삼성생명빌딩
TEL 511-9500-8 FAX 511-9509 E-mail : PAJFCC@UNSEL.CO.KR

문 시 번 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2 - 195호
수 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참 조 : 개발부장
제 목 : 출판단지내 필지분할 요청

2002. 9. 5.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1999년 6월 30일 귀 공사와 2차지구 부지 58,401.5㎡에 대한 매
여계약을 체결하고 각 입주자들은 사옥 건축을 위해 실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2월말 1의 입주사인 서울음반과 시사영어사에서는 사옥신축계획에 따라 별청과 같이 필지 분할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는 같은 거점사이지만 별도 법인으로 현재 부지대금도 각각 따로 납부하고 있으며 추후 부지 및 건물의 등기도 별도로 등재해야 하기 때문에 필지 분할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필지분할을 요청하오니 이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이기용



귀하와 귀 부대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빌며 상송 백마의 영원한 승리를 기원 드립니다.

참 부 : 1. 고도제한 완화 관련 위치 도면 및 관련 자료 각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1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6 강남벤처센터
 전화 02-5568-1 팩스 02-5568 E-mail: PLS@CCS@NOL.CO.KR

출판단지조합 : 제2002-212호

2002. 10. 2.

수 신 : 제9시단장
참 조 : 직전참모·군보실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 건축고도제한 부분 완화 요청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최일선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귀하와 귀 부대 장병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주출판단지는 귀 부대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지역적 특수성으로 빚어지는 제반 어려운 이견을 극복하며 기반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순조로이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과학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우리나라 21세기 지식 기반 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199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래 당국과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경기도, 파주시 등 관계기관과 빈 국가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귀 부대의 고도제한 완화 조처에 힘입어 시범지구 건축공사가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최근에는 2차 지구 건축공사 설계가 완료되어 다수의 출원사와 인허사 그리고 주거시설 지역이 건축공사 착공에 들어가야 할 현 상황에서 이르렀으니, 현 고도제한으로 인해 관련 입주사들의 건축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2일에 걸쳐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고도안전 협력을 진행시켜 온 지회 조합의 임정숙이 고도제원에 관한 한 귀 부대가 심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는 자세를 취해 왔으나, 비후 추가시설에 입주할 종원인들의 복지와 2차 지구 출신자와 인사상의 간추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확보와 집단인사실적을 철저히 위한 부분적인 고도제단 완화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리 조항은 군 작전제 지장이 없는 사계(私界)와 사계(射界)의 범위 내에서 철단살상시설인 특수인쇄사상 시설을 위한 최소한의 넓이와 단지 내 필수시설인 상업현들의 수속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넓이를 반영한 범위의 도면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으나 국가핵심기술을 실용하는 한때만 차원에서만 사안이 추진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 부내에서 원만 한 해결을 제치기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바칩니다.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LL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해운관빌딩2층
Tel: 511-0606 ~ 6 061191 Fax: 511-0506 E-mail: bs@bscc.co.kr www.bscc.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2 - 218호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문화체육과장
제 목 : 자유로변 파주시 안내판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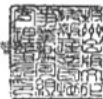
2002. 10. 8.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과주출판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 시의 변함 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귀 시와 우리 조합원 협력된 자유로운 파주시 초입 부분 안내판 디자인(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신 후 결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건이 파주시가 21세기 지식문화산업의 전진기지로 새롭게 거듭남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감사 합니다.

붙임 : 안내관 디자인 제1안 및 제2안 각 1부, 끝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
이사장 이 기 용



수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5. 특히 현재 한국토지공사와 남측전입로 개설계획이 출판단지 진출입을 위한 일체교차로 설치와 아닌 자유로에서 출판단지로 진입하는 것으로만 계획되고 있어 출판단지에서 자유로로 진출할 경우 수km를 돌아 U턴해야하는 비효율적, 비경제적인 교통 체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출판단지조성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귀 부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관련 공문 사본 각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현
이사항 이 기 용



⑤ 심의 의견에 따라 의박을 유려적으로 바꿀 수 있음.

2) 12월 7일 아침 「가치와 사람」 축에서 1)항 ②와 관련하여 전체 건물의 길이 28.35m 중 1.35m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례 함.

3) 출판도시 시범지구 상가 블록과 제6구역 담당 조성용 벡터 아키텍트의 의견

1)항 ①에 대하여

- 데크+상지에서 공사중인 근린상가 외벽에서 4.5m 확보하면 보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경우 지면에서 현관으로 올라가는 경사가모가 물줄되어 있는 부분과 2개소의 드라이 에리어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대나 조정되어야 함.
- 거의 개구부가 없는 건물의 코어벽(계단, 승강기, 설비시설)이 보행로에 면하여 있어 상가 블록의 통풍기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설계상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1)항 ②에 대하여

- ②의 제안대로 「가치와 사람」 상가의 길이를 1.35m 줄인다면 이미 공사중인 데크+상지와 근린상가의 외벽을 조정하여 맞출 수 있는 범위임.

1)항 ③에 대하여

- 건물높이에 대한 규정 때문에 옥상 난간은 투시형으로 변경하여야 함.
- 옥상에 사람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여 계단설치를 삭제할 수 있었으나 비상식을 위하여 별도의 장치(사다리 등)가 필요한 것임.
- 승강기는 옥상식으로 변경할 때 필요한 오버헤드 유무(물줄부분)를 확인하여야 함.
- 물탱크실은 옥상에 물줄하지 않고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지 검토 필요함.

1)항 ④, ⑤에 대하여

-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파주출판도시의 성격상 도심지역에 나타나는 형식적인 옥상조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해당 사업의 용역을 확보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음.
- 대상건물에는 약 30여개의 다양한 경사가 임주하게 되어 건담, 냉난방기에 관련된 옥외기, 주방설비와 관련된 장치들이 외벽에 부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유려화된 옥외 변경할 경우, 비인격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대책(외관 디자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축심의위원회

공용위원장이 기 용 홍영호/도 승효상 {16}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50-150 서울 강남구 강남동 508 코오롱빌딩 511호 E-mail : PAJUBOOKCITY@NATEL.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2 - 275호

2002. 12. 16.

수신 : 파주시청

참조 : 건설국장

제목 : 파주출판단지 시범지구 근린상가 설계 조정회의 결과 및 의견 제출

1.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선진지방자치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로 파주출판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미래 도시의 향기로 오시게 된 파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02년 12월 6일 파주시청에서 개최된 파주출판단지 시범지구 근린상가인 「가치와 사람」 설계도면 검토 조정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니 결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은 출판단지 개발을 위한 건축설계지침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조성용 제6구역 아키텍트(시범지구 상가블록 담당)가 회의 참석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시한 의견이므로 귀 사에서는 동 의견을 반영하여 「가치와 사람」 축에서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특히 종합적인 의견이 근린생활시설은 파주출판도시에 거주하는 조합원과 인근도시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와 쾌적한 상업공간의 일부로서(같은 블록 내에 들어설 미팅, 캐션, 쇼룸스트리트와 함께 조성 등) 전체적인 도시경관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충분히 반영하시어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가치와 사람」의 설의 후 마련한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 내용

- ① 서쪽방향 25m 도로변의 건축선을 인근 데크+상지 상가에 맞추고 두 건물사이 보행로를 4.2m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음.
- ② 그리고 건물은 길이 방향으로 28.35m로서 데크+상지의 26.00m보다 2.35m 길이 도로측 건축선을 벗어날 수 밖에 없음.
- ③ 기본적으로 지상 15m로 제한되어 있는 이 지역의 건물 높이에 맞추어 구조체(3m 중공×5개층)이 되어 있음. 그러나 1층 바닥이 지면에서 0.5m 올라가 있고 건물옥상에 옥탑층의 일부(물탱크실, 승강기 오버헤드 등)가 물줄되어 결국 15m가 초과됨.
- ④ 옥상 정원을 없앨 수 없음(지상부분에 녹지 면적이 모자라 상부를 이용한 것)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50-150 서울 강남구 강남동 508 코오롱빌딩 511호 E-mail : PAJUBOOKCITY@NATEL.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2 - 288호

2002. 12. 26.

수신 : 문화관광부장관

참조 : 문화산업국장(출판신문과장)

제목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국고보조 사업 1차(phase 2) 완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

1. 일요년의 골격하에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해례에도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계속)과 관련하여 1차로 지난 2001년 6월 15일 착공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phase 2 건축사업이 2002년 12월 30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설계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오니 검토하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phase 2 건축 설계보고서 1부.

2) 2002년도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42 - 파주출판단지 시범지구 근린상가 설계 조정회의 결과 및 의견 제출

43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국고보조 사업 1차(phase2) 완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

파 주 시

우 413-020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 전화 940-4744(행)4744 FAX 031)940-4749
허가파 과장 여성구 / 담당자 오인택

문서번호 허가58550 - 992

시행일자 2002. 3. 16. () (공개)

반응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506번지
강남출판문화센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용 귀하
참조

선발	일자	지시
점수	시간	결과
번호	번호	번호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목 업무협조사항 통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파주시 지역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출판단지 조합 제2002-45호(2002.3.5)와 관련하여 귀 조합에서 업무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가. 출판조합의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취지에 맞게끔 필요한 행정지도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 출판조합의 건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건축법 및 우리시의 건축조례상에 위임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경관지구 지정 등 지구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출판단지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현재 도시계획, 상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귀 조합에서 마련한 설계지침 등에 의한 별도의 건축심의 등은 어려운 실정이나
- 귀 조합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출판조합의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에 부합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지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경관지구 요청사항에 대하여
-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관지구 지정 사항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파 주 시



파 주 시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 ☎ 940-4721 (행) 4721 FAX 940-4709
도시과 과장 우범관 담당자 정용언 jyn@provin.kyonggi.kr

문서번호 도시 58350-1388

시행일자 2002. 5. 16 (5년)

공개여부 (공개)

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참조 사업협동조합장

선발	일자	지시
점수	시간	결과
번호	번호	번호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목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협의

1. 항상 우리시정발전엔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조합에서 요청한 경관지구지정에 대하여 검토한 바 본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계획, 건물용도, 건축물, 용적율에 따라 추진중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3.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수립시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는 법안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세부용도를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이 있으나, 사업시행기간의 의견전송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파 주 시

"기초질서 지키기에 우리모두 앞장서"



한국 산업 단지 공 단

우) 413-841 / 경기도 파주시 만현동 성동리637 / 전화 949-0213 / FAX 949-0214
경인지역본부 파주시부 / 팀장 방인혁 / 담당 송연옥(syoll128@kicox.or.kr)

문서번호 파주(경인)35002-36

시행일자 2002. 5. 20.

경 유

수 신 파주출판사업협동조합이사장

참 조 총무(관리)실장

제 목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관리절차 협조요청

선발	일자	지시
점수	시간	결과
번호	번호	번호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단에서는 우기철에 대비하여 출판단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귀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주사들의 시설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협조를 요청 합니다.

— 아 래 —

가. 점검기간 : 2002. 5. 20 ~ 2002. 5. 31

나. 점검 반 : 회사별 자체점검반구성

다. 점검내용

- 전기시설물(외동)에 대한 누전점검
- 배수로 및 맨홀주변 청소(토사제거)
- 자체 배수펌프시설 점검철거
- 신축공사장 지하층 배수철거 및 토사붕괴 대비 철저한 계획 수립
- 우기철 기습폭우대비 지체해방대책 수립·시행 철저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이 사 장



파 주 시

우 413-020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 전화 940-4744(행)4744 FAX 031)940-4749
허가파 과장 여성구 / 담당자 오인택

문서번호 허가58550 - 2749

시행일자 2002. 9. 27 () (공개)

반응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6번지

강남출판문화센터 내

참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용 귀하

선발	일자	지시
점수	시간	결과
번호	번호	번호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목 건축심의 재 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

1. 파주시 지역발전 및 건축행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리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교하읍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건축물에 대한 귀 조합의 건축 자체심의 협조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2002. 9. 18. 비 조합원(3개 업체), 출판사업협동조합, 파주시청과 의회결과 출판단지내 건축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건축심의의 받을 수 있도록 건축행정지도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비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통한 건축심의가 이루어져 친환경적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파 주 시



- ① - 업무협조사항 통보
- ②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협의
- ③ -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관리절차 협조요청
- ④ - 건축심의 재 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

한국산업단지공단

(우)413-840 /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37 / 전화(031)949-0212 / 전송(031)949-0214
파주시부 / 팀장 방인혁 / 담당 최홍용

문서번호 파주(경인) 32000-106
시행일자 2002. 10. 21.

(경유)

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참조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각	결 재
	번호	공 람
처리과		
담당자		

제목 파주출판단지 입주계약 안내 협조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단지(출판단지)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배법"이라 함)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며,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에는 관리기관인 우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귀 출판조합의 많은 회원사가 출판단지 부지를 취득 후 기간이 상당히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주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어 출판단지 관리기관인 우리공단은 공배법 등 관련법률에 의거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예의를 권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공배법에서 정한 입주계약, 입주계약내용의 변경, 공장등의 임대 및 처분, 공장등록 등 공장설립 절차를 본임과 같이 「공배법 주요내용 및 공장등록 절차」를 안내하오니 귀조합 회원사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시일내에 공장설립 인·허가(입주계약)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 입주계약 등 제반서류 1부.

나. 공배법 주요내용 및 공장등록 절차안내 1부. 끝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공배법 주요내용 및 공장등록 절차》

□ 공배법 주요내용

신고(신청)명	대상자	신고(신청)시기	관련 법 조항	벌칙 및 과태료
① 처분신고	양도자	○ 공장등록을 필하고 양도할 때매계약후 소유권 이전권 비리 신고	법 제39조제2항	5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55조제1항제2호)
	양수자	○ 소유권 이전권 (처분신고와 동시)	법 제38조제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법 제52조제7호)
② 취득	취득자 (경매, 공매, 취득자 등)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계약 체결 (단, 6개월이내 입주계약 미체결시 취득일로부터 1년6월 이내 제3자에게 양도)	법 제40조제1항	○ 1년이하 제3자에게 양도 5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55조제1항제3호)
	취득자 (제3자)	○ 매매계약체결후 소유권 이전권(입주권)	법 제38조제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법 제52조 제7호)
③ 임대(신고)	임대자 (건물주)	○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차와 입주권	법 제38조제2항	1,5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53조 제4호)
	임차자 (세입자)	○ 임대신고와 동시 (입주권)	법 제38조제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법 제52조제7호)
④ 임대사업자 입주계약체결	취득입주자	○ 임대사업자로 취득 입주권 -경매권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 -양수권득: 소유권 이전 전	법 제38조제2항 법 제38조의2	1500만원이하 벌금 (법 제53조제4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55조제1항제1호)
	입주계약 (공장등록) 변경신청	○ 상호 대표자, 임종 변경 또는 추가 ○ 건물 또는 용지 면적 변경시 ○ 법인전환 (현물출자, 상속, 합병) ○ 임대사업으로 변경시	법 제38조제2항	1,500만원이하 벌금 (법 제53조제4호)

한국산업단지공단

(우)413-840 /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37 / 전화(031)949-0212 / 전송(031)949-0214
파주시부 / 팀장 방인혁 / 담당 최홍용

문서번호 파주(경인) 32000-105

시행일자 2002. 10. 21.

(경유)

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참조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각	결 재
	번호	공 람
처리과		
담당자		

제목 파주출판단지 관리기관 사무소 개소(이전) 건

1. 파주출판단지 입주·관리에 협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출판단지 입주·가동 및 공장건물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단지내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 민원업무의 밀착지원 및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지원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실정임

3. 이에 우리공단은 귀 조합에서 건축중인 출판문화정보센터내에 관리기관(산단공) 사무소를 이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귀 조합의 협조를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명 : 관리기관(산단공) 사무소 이전 건

나. 협의내용

- 사무소 이전가능 장소(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내)
- 사무소 면적(20평 정도)
- 이전가능 시기 및 기간, 임대료, 관리비 등. 끝.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신고(신청)명	대상자	신고(신청)시기	관련 법 조항	벌칙 및 과태료
⑥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등록)	입주 계약자	○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기계, 장치 설치후 2개월 이내	법 제15조	2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55조제2항제1호)
⑦ 처분신청 (나대지, 건축 중인 건물 등)	입주 계약자	○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 용지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	법 제39조제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법 제52조제8호)

○ 취득 및 임대료 부과부에 관계없이 산업단지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변경)체결을 하지 아니하고 제2종업 또는 그 외 사업영위시 상기와 같은 불이익(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폐업시 또는 재가동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라며, 휴·폐업제를 양수 또는 경매취득 할 경우에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①, ②항 참조)

○ 제출 서류등 사본 제출시에도 반드시 원본대조필 난인을 하여야 합니다.

□ 공장등록 절차

공 장 등록 절차	주 요 내 용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신청 및 입주유형(제2종업, 임대업)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 처리
공장등록	- 기계장치 설치후 2개월 이내 신고 - 신고서 접수후 7일 이내 처리 - 공장등록증명서 즉시 발급(도장 지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파주시부 (☎ 031)949-0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 파주출판단지 입주계약 안내 협조

6 - 파주출판단지 관리기관 사무소 개소(이전) 건

파 주 시

주 415-080 경기도 파주시 어동동 215 /전화(031)940-4741 행정4741 /FAX 940-4749
 허가과 과장 여승구 /담당자 : 오민택

문서번호 허가58551 - 4251

시행일자 2002. 10. 25 () (공개)

받은 고임시 덕양구 토당동 454-25 번지
 파주시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응 귀하
 참조

신청인	주 소	지
정	일자	지
수	번호	지
처리과	결	지
담당자	공	지
심사자	합	지
	심사일	

제1회 지방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1. 항상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건축허가사립변경허가 신청서에 대한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심의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와 소방 협의(필요시)도서를 2002.10.30일한 허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건축심의결과통보서 1부, 끝.



파 주 시



건축심의 결과 통보서

신청인	대표자	이 기 응 (이사장)	상 호	파주시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54-25 번지			
건축규모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 용 도 : 문화및집회시설 ○ 연면적 : 12,964 ㎡			
대지조건	위 치	파주시 교하읍 신남리 파주시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8-1 별책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지목, 면적	17,926 ㎡
건물의배치 및 층수	건축면적	7,535.4 ㎡	연 면 적	12,964.86 ㎡
	용 적 율	57.30 %	건 제 율	42.34 %
	건물의 최고높이	22.4 M	층 수	지하1,지상4층
건축심의 사항	조건부 기결 "별 첨"			
<p>파주시 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 결과통보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p> <p>2002 년 10월 일</p> <p>파 주 시</p>				



별첨내용

1. 보행동선 보완
 - 계단 부문에 계단참 설치 요망
 - visual effect를 위한 설계 적용의 타당성
 - 가. 내부사용자
 - 나. 외부지역사회 거류자
 - 환경 design concept 적용
 - 가. 사용의 활성화
 - 장애자용 휴게시설과 elev 위치 및 사용자에 대한 합리적 이용 방안 검토
 - 강한 intention 적용의 전시공간의 technical한 기술적 해결의 필요성
 - 가. 사용자 편의성 추구 필요
 - 장애자 분리가 아닌 universal design concept (일반인과 동일)적용
2. 주차장 계획 보완
 - 상시 상주인원과 이용자에 비례한 주차대수 재검토(전입로 중복 등)



파주시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0-418 011-940-4741 FAX 011-940-4749 E-mail: PAJUBOOKCITY@PAJU.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1 - 107호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건설국장 / 상하수도과장
 제 목 : 위탁하수처리 비용 부담 조건 및 건축공사 자료 제출

2001. 5. 29.

1. 파주시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상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제반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 이하 시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귀시의 공문 상하58450-1289호(2001. 5. 15.), 58450-1370호(2001. 5. 25.) 관련입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2002년 월드컵대회 일정에 맞춰 출판단지 시범지구의 일부분을 완공해야 하는 국가정책적 목적에 부응하고자 2002년 5월 일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지연과 월드컵 일정에 맞춰 일부 입주해야 하는 저희 조합의 일정이 맞물려 불가피하게 위탁처리해야 하는 하수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조합에서 건축준공 후 하수처리에 대한 세금을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조건인 경우, 입주자들이 귀시의 위탁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단계별 입주계획과 건축계획을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파주시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축공사 추진계획 1부, 끝.

파주시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응



7 - 지방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8 - 작성성 검토 협조 요청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환경·자율 숨쉬는 '문화-지성타운'

서울서 자유로를 타고 통일전망대 쪽으로 가다보면 동쪽으로 파주 출판도시 건설현장이 보인다. 뒤로는 '학을 찾는다'(尋鶴)는 뜻의 심학산이 버티고 있다. 1998년 정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아 21세기 지식정보 인프라를 구축중인 파주출판도시(Paju Book City)는 현재 심학산 아래 갈대밭강을 가로지르는 교량공사를 완료하고 중앙대로와 연결되는 길이 80m의 제2교량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

입주 원년을 맞아 거의 매일 공사 현장을 찾는 이기중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열화당 대표)은 한 바람 속에서 갈대를 헤치며 풍광 얻어본은 수로를 따라 걸곤 한다.

"출판 공동체가 살아갈 땅과 환경의 숙성을 체크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브라질의 생태도시인 '브라질바'처럼 가꾸고 싶어요. 그러려면 먼저 자율도시가 돼야 합니다. 출판도시에 입주하는 출판인과 그 가족을 시민으로 하는 자율도시 말입니다"

출판조합 160개 업체의 입주 완료시점은 2004년 12월. 그는 2005년에는 유동인구까지 합쳐 모두 3만명이 출판도시의 시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먼저 입주하게 될 업체는 국내 최대 인쇄회사인 보진재. 8월로 다가온 창립 90주년 행사를 출판도시에서 치른다는 목표 아래 늦어도 5월까지의 첫 입주의 타이틀을 끊을 전망이다. 보진재측은 50억 원 규모의 최첨단 인쇄기계를 들여와 인쇄의 질을 한 차원 끌어올린 계획. 박영사도 10월 창립 50주년 행사를 출판도시에서 가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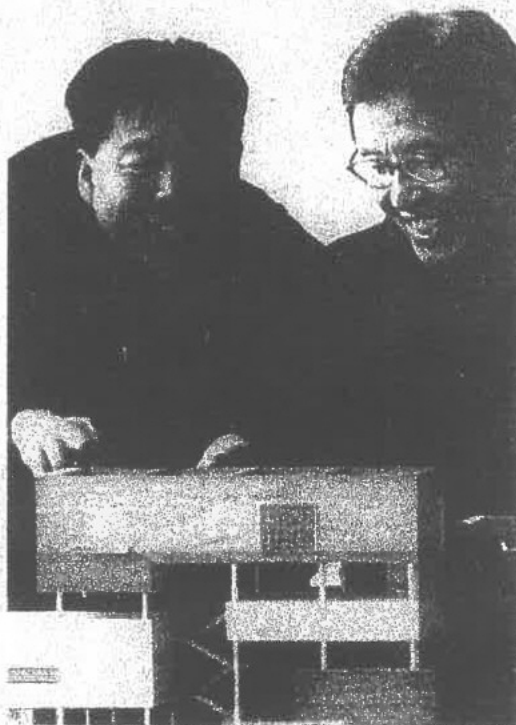
6월부터는 며칠 간격으로 열화당 한길사 동녘 문화수첩·창작과비평사 호형출판사 풀베개 등 20여 출판사는 물론 도봉금강국제전산교구 효성문화인쇄 중앙미디어 신원에 아전서 등 관련업체가 차례로 입주하게 된다.

"원래 이곳은 한강 유역이 폐전된 습지였습니다. 그래서 웨트랜드(wet land)를 출판도시의 건설 컨셉으로 했어요. 전체 면적 440만평을 흘러가는 총 연장 4km의 수로를 보존하기 위해 6개의 다리를 만들고 자유로변에 들어설 인쇄공장의 지붕엔 잔디를 심을 계획입니다"

출판도시에 들어올 업체는 모두 700여개. 건물을 짓고 들어오는 출판사가 150여 업체인데다 건물마다 2~6개씩의 소규모 출판사가 임대 입주하게 된다.

"자유로와 수로의 장점을 살린 환경친화적 도시가 될 것입니다. 갈대와 풀꽃을 살려야 되는데 건설과정에서 자꾸 훼손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꽃씨, 풀씨가 날아오면 머지않아 생태도시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시범지구에 위치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도 지난해말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기초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중 준공된다. 지



이기중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오른쪽)이 이기복·동녘출판사 사장과 함께 출판도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범주기자

보진재·박영사·열화당등

5월부터 속속 '집들이'

모두 700여업체 입주예정

"사이버공동체" 인프라 구축

난해 10월말 착공한 화성 문화인쇄도 현재 기초공사를 마무리한 상태. 특히 파주출판도시측은 15일까지 '공동체의 가치'를 주제로 제2차 건축전시회를 개최. 설계가 완료된 70여 입주시의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종합쇼핑타운에는 8개의 영화관이 들어서고 세계음식전문점 등도 자리잡을 전망이다.

"출판도시에는 입주자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버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한국통신 고양전화국과 '사이버 드림타운' 조성 협정을 체결하고 초고속 광케이블 구축에 들어갔어요. 세계 인쇄시장의 활기가 상하이를 비롯, 중국으로 흘러 드는 추세지만 출판도시가 완공되면 해외와 인쇄 수요를 주축해 세계인쇄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학은 예로부터 선비정신의 한 상징이었다. 파주가 화(선비)이 모여드는 문화와 지성의 땅으로 거듭날 때도 머지않았다. 정철호기자

세계 최대 '출판도시' 꿈꾼다

총 48만평에 출판·문화·쇼핑센터 입주

자유로를 타고 문산 방향으로 가다보면 고양시와 파주시 경계 지점 우측에 대형 건설현장이 눈에 들어온다. 지난 90년대 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부지 조성 작업을 마치고 최근 건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다.

이 단지에는 1백10개 출판 및 인쇄업체들이 올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고 내년 말에는 각종 문화활동 및 쇼핑까지 가능한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세계 최대 '출판도시(Book city)'가 완성되는 셈이다.

파주출판문화단지는 총 48만평 규모로 박영사 보진재 등 출판사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한국출판진흥원 출판상업시설 등 관련시설을 수용하게 된다.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출판'을 메개로 한 문화장소로 꾸민다는 게 파주출판문화조합의 방침이다. 온가족이 방문해 즐길 수 있는 대표적 '에듀테인먼트(Eduainment)' 현장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조합은 교육과 문화의 장소로 가꾸기 위해 설계부터 건축을 하니까 세심한 배려를 했다. 단지 내 한강지류를 문화생태환경으로 가꾸기 위해 갈대숲을 그대로 보존했다. 1백10여개 인쇄 및 출판업체 사옥은 설계사가 모두 다르다. 국내 유일의 기념비적 건축물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

내와 아를리에 설계사들의 작품으로만 구성된다.

상업시설로는 연극 영화 등의 문화공간과 쇼핑공간이 마련된다. 이달말 분양예정인 상업지구에는 8백여개 유명 브랜드 재고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브랜드 아울렛'이 입점할 예정이다. 재즈연습장 난타극장을 비롯 4개관 규모의 복합영화관도 입점한다.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로 20분 밖에 걸리지 않아 쇼핑과 관광을

즐기려는 외국인의 발길도 잦아질 전망이다. 단지 내 주거시설로는 30평형대 4백가구 규모의 연립주택이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출판문화단지는 자유로 일대에서 추진 중인 10여개 대형 개발사업장과 함께 이른바 '산업·문화예술·주거·레저벨트'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자유로 일대는 판문점 인근 각 평화생태공원(정단반도) 개발사업단지(파주 단원면) 통일동산 등이 인접해 있다. 또 일산 잠룡동 일대에 대형수족관 고양 국제전시장 판광속박문화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광벨트화 될 전망이다.

출판문화단지는 배후주거지인 파주 운정·교하지구와 앞산 대화지구까지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건축공사가 한창인 파주 출판문화단지는 총 48만평 규모로 내년 말까지 1백10여개 출판업체가 들어서 '출판문화의 메카'로 자리잡게 된다.

파주 출판문화단지-헤이리아트밸리

한국 건축문화 새역사를 쓴다

건축주-건축가 함께
설계-도시구조-환경
건축 전과정에 참여

출판과 예술의 도시를 지향하는 경기 파주시 교하면 출판문화단지 및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 아트밸리에서 한국 건축의 새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

건축주와 건축가들이 의기투합해 건물 설계는 물론 도시의 구조와 환경 조성 등 건축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한국 초유의 실험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11월 3일까지 열리는 제8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출판문화단지 및 헤이리 아트밸리 건축물 4점이 선정됐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성곡미술관에선 10월 27일까지 '헤이리 아트밸리 건축전'도 열리고 있다.

출판문화단지 국내 160여 출판사와 인쇄소 건물과 출판 관련 건물이 들어서고 헤이리 아트밸리엔 각종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극장 공연장 갤러리 서점 예술가스튜디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파주 출판문화단지와 헤이리 아트밸리인간.

건축가들이 건축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이 우선 의의가 있다. 국내외 정상급 건축가 1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의 건축철학 숭고상 민원식 조성용 이원훈 우경국 서현, 미국의 스펀 앨런, 영국의 콜로리언



김영준의 '파주출판단지 공동주거 계획' 드로잉, 제8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출품작이다.

베이즐 등.

서현 한양대 교수는 "지금까지 건축가는 건물만 설계하고 도시계획은 엔지니어들이 맡았다. 그 뒤는 개발논리에 맡겨져 인간과 문화와 자연이 하나되는 도시 공간으로 발전하기 어려웠다"며 "파주의 건축 프로젝트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한국 건축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건축주와 건축가가 한마음이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스스로 문화도시 생태도시를 위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 면적을 50% 수준으로 높여 공동체 정신을 살리거나 건물 고도를 제

한하는 것 등이다. 담을 치지 않고 길을 곡선으로 만들어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며 간편은 최소한의 크기로 설치한다. 관계자들은 이를 '위대한 계약'이라 부른다. 건축물도 정상급 건축가들이 건물을 설계해 수준급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주출판문화단지 건축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파주출판문화단지는 공동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해 건물마다 주차장을 뚫어서 주차장 진입로로 인해 인도가 좁아지고 건물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광도기자 kptee@donga.com

며칠 전 나는 영국 런던의 한 뒷골목에 자리잡은 고서점 '프랜시스 에드워드'에 들렀다. 이 고서점은 우리가 지금 경기 과천시 교하면에 건설하고 있는 출판도시의 모델이 되었던 웨일스의 '해이온 와이'에도 지점을 갖고 있어 꽤 친근감을 가진 터였다. 이 서점에서 그날 나는 1904년 런던에서 발행한 '코리아'라는 책 한 권을 사 들고는 기쁘기 그지없었다. 서지학적(書誌學的)으로도 이름 있는 책이라 언젠가는 구입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었다. 이 책의 필자인 앙구스 해밀턴은 1900년 무렵 영국의 기자로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지방에 머물면서 이 책을 집필했는데 그 당시의 조선의 풍물과 생활상 그리고 교역과 산업, 자원 등의 문제를 풍부한 사진자료로 보여주면서 설명한 귀중한 문헌이다.

다보탑 기울었다고 호들갑

어떻게 이 책이 발행한 지 1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수집가인 나 같은 이들의 구매충동을 불러일으키면서 소중하게 책방에 꽂혀 있던 말인가. 이런 책을 접할 때마다 나는 그 신기함에 놀라면서, 또한 이를 즐긴다. 이 즐거움은 마치 박물관에서 귀중한 유물을 감상하거나 한 유적지를 방문해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고서(古書)의 낡은 종이에서 피어오르는 역사의 향기나 박물관 유물의 편린에서 느껴지는 과거의 추억은 인간 존재만

문화칼럼

이 기 웅 출판사 열화당 대표



모로 누운 '문화재 인식'

이 느끼고 깨닫는 그 어떤 품격이라고 생각한다. 죽지 않는 역사의 유물들, 아니 죽어서는 안 될 인류사의 흔적들을 가리켜 우리는 '문화재'라고 부른다.

외국을 넘나들면서 이를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뜻있는 많은 이들은 우리 문화재의 보존 관리 상태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며칠 전의 일이다. 국보 문화재인 다보탑 석가탑 같은 시지서탑 동이 0.6~1도기량 기울어지고 그들 탑의 석재 여러 곳이 균열 부식돼 훼손이 심각하다는 자료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와 매스컴을 들쭉서 놓았다. 국민은 우리의 소중한 국보인 다보탑과 석가탑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려

앉는 게 아닌가 놀랐다. "다보탑이 0.6도 기울었다고? 큰일이네." 내 이웃의 한 유식자는 전화를 걸어 걱정 어린 수다를 늘어놓는 것이었다.

내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0.6도의 기울기를 여쭙자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예기할 것인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했더니 같은 그런 기울기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으며 심측 기울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체 수리한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덧붙여서 우리 문화재 현실의 심각성에 비하면 이런 기울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내 생각이 옳았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다보탑이 0.6도 기울었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할 만큼 정교한 나라였

던가. 국보인 경주의 나원리(羅原里) 5층 석탑은 보수를 잘못해 그 기울기가 다보탑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심각하다고 한다. 그밖에도 방기대 있는 우리 문화재가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손꼽기 힘들다. 0.6도가 아니라 수십도 기울어진 문화재 정책의 안목이나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한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석굴암 경내에 석굴암 모형관을 건립하겠다는 안을 불국사와 문화재청이 냈고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것이 알려지자 학계와 사회단체가 들고일어났다. 가장 공식적인 문화재 기구들이 여쭙지 않았던 인위적으로 문화재를 훼손하려는지,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에겐 어찌 우리 문화재를 맡길 것인가의 의아심이 짙어질 만다.

끝없이 파괴되는 문화재

석조(石造) 문화재는 그렇다 치고, 목조(木造)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 복원의 현장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아마 모두 놀랄 것이다. 건축재료의 선택에서부터 시공업체의 수준, 기술자들, 그리고 감리 체계는 내가 알기로는 절망적이다. 전적(典籍) 문화재의 지정과 관리 역시 그렇다. 더 넓게는, 끝없이 파괴되고 있는 자연 문화재는 어떠한가.

이번 기회에 문화재 전반에 대한 정책과 문화재 인식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계측하고 그 대책을 숙고했으면 한다.

2003년

문화예술행사, 책의 도시 탄생을 알리다

2003년은 출판도시 건축의 활성화, 입주 출판사들에 대한 지원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특히 완공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교육연구동의 운영 활성화와 전시정보지원동의 내실있는 건축진행 등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국고지원 60억원을 적기에 지원받아 건축비에 투입했으며, 전체 완공 후 기본 운영방향에 대한 기틀을 잡는 한 해였다.

10월에는 「2003 파주어린이책한마당」을 개최, 출판도시의 대외적인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6만여 명이 관람해 각계의 성원 속에서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 행사를 통해 책의 도시 탄생을 알리고, 출판도시 건설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출판도시 읽기의 안목을 넓혀 주는 계기가 되었다. 12월에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 실현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복합문화연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과 운영 등을 전담할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에서는 출판문화 및 지식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보급 사업을 비롯, 출판문화 및 지식정보산업의 국제교류협력사업, 국내외 도서전, 공연, 세미나, 전시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03년

2003년 주요행사

01.24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기공식
01.28	제13차 정기총회
02.04	조합 사무국,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로 이전
02.22	강안대대 방문, 도서 기증
03.22	일본 문화통신 호시노 와다루 기자 출판도시 방문
03.29	갈대셋강 및 출판단지 현장 환경정화운동
04.01	파주시장, 출판도시 방문
04.02	한국출판유통진흥원 창립총회
04.03	라우리 코르피넨 주한핀란드 대사 방문
04.19	한길사 입주기념식
05.02	출판도시 도로 및 갈대셋강 집중 대청소
06.03	파주북시티 도시건축 한마당 '다시 파주북시티를 말한다'
07.03	입주사 토론회
07.13	해외 건축답사
08.19	임시총회
09.02	파주어린이책한마당 관련 기자설명회
09.15	파주어린이책한마당 관련 설명회
09.26	창비 입주기념식
10.08	파주어린이책한마당 기자간담회
10.09	2003파주어린이책한마당 전야제 겸 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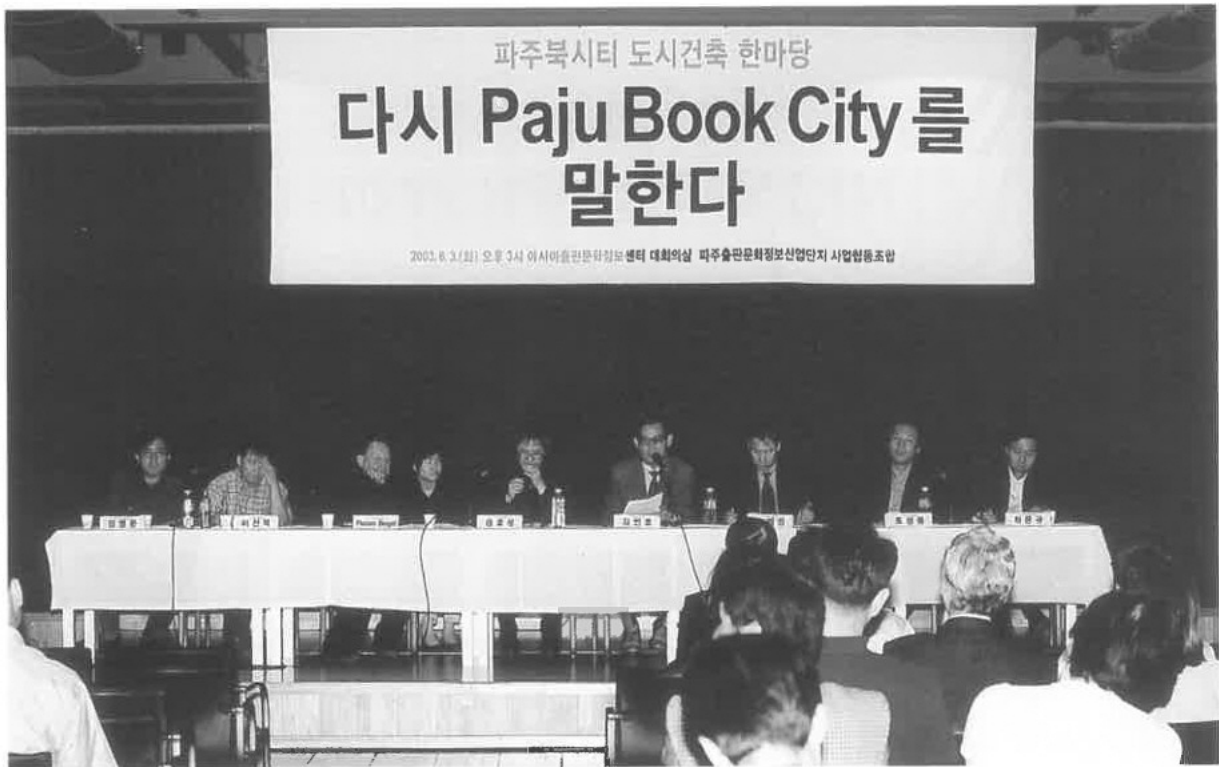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❶ 2003. 01. 24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기공식 행사(한국출판유통)



❷ 2003. 04. 09 2003 출판유통 국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③ 2003. 06. 03 '다시 파주북시티를 말한다'를 주제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④ 2003. 10. 09 어린이책잔치2003 개막식



⑤ 2003. 10. 12 어린이책잔치 도서전시장




⑥ 2003. 12. 11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 정기이사회 개최

인쇄 발간된 자료

제13차 정기총회 서류

2003년 1월 28일(화) 오후 2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① 13차 정기총회 서류 (2003. 01. 28)

목 차

1. 정기 총회 회순	3
2. 2002년도 사업보고서	5
3. 2002년도 결산보고서	23
4. 2002년도 잉여금(결손) 처분(안)	67
5. 감사보고서	71
6.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의 건.....	77
7. 2003년도 사업계획서(안).....	83
8. 2003년도 수지예산서(안).....	101
9. 2003년도 조합비 및 건설사업분담금 책정의 건	119
10.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123
11. 2003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127
12.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131

제13차 정기총회 회순

一. 성원보고

一. 개회선언

一. 국민의례

一. 개 회 사

一. 축 사

一. 의사록 서명이사 및 서기 감찰 지명 5. 2003년도 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一. 제12차 정기총회 의사록 승인 6. 2003년도 조합비 및 건설사업분담금 책정의 건

一. 보고사항 7.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1. 2002년도 사업보고 8. 2003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2. 감사보고 9.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一. 기 타

一. 폐 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단지 30-1
전화 031-955-0301, 팩시밀리 031-955-0304
pay-acc@artnet.co.kr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출판도시뉴스」는 편집과 간행으로
조판위원 비롯하여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 추진에 관계되는 사회 각계와
무관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판지는 발행 매거진, 편집위원, 편집장
한길 김근삼의 차임으로 발행합니다.
제호 디자인 : 안상수

출판도시뉴스

PAJU BOOK CITY NEWS

제27호
2003. 1. 28.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기공식 성대히 거행

한국출판유통(주) 사옥 및 물류센터 2004년 4월 완공 목표



출판물종합유통센터 조감도.(위) 기공식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아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 선진화를 이끌 출판물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된다. 한국출판유통(주)(대표 홍승대)은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 파주 출판도시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물종합유통센터의 첫 삽질을 대내외에 알리는 성대한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파주출판단지의 핵심문화시설로 완공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최신 정보화시설을 활용하여 경과보고 및 현황보고가 디지털 영상들을 통해 진행됐으며, 대회의실과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를 잇는 이원생중계 방송으로 출판유통현대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기공식 행사 취지에 걸맞는 웅장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발파식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2층 야외행사장에 마련된 발파대에서 내외 귀빈 20여명이 터치버튼을 눌러 온라인으로 출판물종합유통센터 부지에 설치된 오색발파대를 발파하는 장관이 연출되어, 이를 대회의실에서 어원생방송으로 지켜보던 참석자들로부터 우렁찬 박수와 함성을 자아냈다. 행사에서 한국출판유통(주) 홍승대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출판물종합유통센터의 건립으로 문화 국가로서의 긍지와 출판계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출판업체들에게 최고 수준의 물류 및 정보 서비스 등을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이어 이준원 파주시장, 이기용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윤석균 출판진흥회 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기공식 본 행사 이후 참석자 전원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이벤트홀에 마련된 다과회장에서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기공의 의미를 새롭게 다졌다.

출판물종합유통센터는 민원식 교수팀(기오현)이 건축설계, 삼성테크윈이 설비설계, 한미파슨스가 건축감리, 생산성본부가 설비감리, 두산건설이 건축시공을 각각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설비시공은 내용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출판계 원로인 정연숙 을유문화사 회장을 비롯, 이기용 출판단지 이사장, 윤석균 한국출판유통(주) 회장, 송효상 출판단지 건축코디네이터, 설계자인 민원식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진복 출판단지건설본부장, 강문항 두산건설대표, 이준원 파주시장, 김연호 한국출판진흥회 회장, 이장일 대한출판문화협회장,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장, 김경희 전자출판협회장, 문화관광부 박광우 출판진흥과장, 윤형두 한국출판학회, 김종수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안종만 파평 대표, 주영건 세종대 이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출판물종합유통센터 첫 삽질을 축하했다.

출판업계에 최고 수준의 물류 및 정보 서비스 제공할 터

홍승대 한국출판유통(주) 대표이사



한국출판유통(주)은 낙후된 출판유통 구조를 합리화, 정보화 하고자 1995년 출판협동조합의 장기발전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발기위원회 등 추진 단계별로 필요

한 기구를 설치, 운영하면서 출판사 및 서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범 출판계의 중저를 모아 창립되었습니다. 본 지면을 빌어 한국출판유통의 창립과정에서부터 출판유통 업계의 선도업체로 우뚝 선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조합 이기웅 이사장님과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님, 출판 관련업체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한국출판유통은 2003년 1월 25일자로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우수 중견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창립이후 두 차례의 관련업체 인수 합병을 통해 영업 기반과 조직을 확충하며 사업을 본격화하였고 특히, IMF 시절에는 많은 출판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한국출판유통은 오히려 정부의 출판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업체로 인정을 받는 등 국내 최대의 도서유통 회사로서의 기반을 다진 바 있습니다. 이제 한국출판유통은 출판도시의 심장, 그 박동의 시작이 현실로 다가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현장에서 출판계의 오랜 숙원이던 한국출판유통의 건립 목표인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기공식을 실시함으로써 새롭게 웅비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건립될 출판물종합유통센터는 '파주출판도시 건립'이라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건립 취지에 맞게, 국가 지식기반 산업인 출판 산업의 대동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미가 조화되도록 건설될 것입니다. 한국출판유통은 출판물종합유통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을 초석으로 하여, 2007년경에는 한국출판유통이 매출 4,039억, 경상이익 358억을 실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출판물 종합유통회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출판 관계자들에게서는 한국출판유통의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출판계의 새 장을 여는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직원들도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미학과 설비의 기능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물류센터가 되기를

이기웅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1989년 출판단지 건설을 입안했던 당시부터 14년 동안 출판단지의 염원을 이뤄내기 위해 한길만을 걸어온 저로서, 오늘 한국출판유통(주)의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기공식

에 서니 남다른 감회에 젖습니다.

한국출판유통의 출판물종합유통센터는 파주출판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결정적 핵심시설로서, 이는 출판산업이 국민 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전략산업이라는 국가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1996년 우리는 '출판산업이 처한 안락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출판유통구조 혁신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출판·서점업계의 역량을 결집시켜 21세기의 우리 출판유통을 책임질 대표적이고 중추적인 기구로서 한국출판유통을 창립한다'라고 창립배경을 선언문을 통해 천명한 바 있습니다. 창립당시 출판유통을 바로 세우는 일이 우리 출판업계의 절박하고도 핵심적인 과제라 되고 있었으며, 그 상황은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창립식에서, 우리나라의 출판유통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파주출판단지의 핵심시설인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건설 추진, 유통업무의 표준화, 정보화·전문화·합리화를 추구함으로써 변화된 시대의 생산·유통·소비구조에 주체적 대응, 출판사와 서점의 경영합리화 지원, 출판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안정·정확하게 공급하는 대독자 서비스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인수합병 등의 진동을 겪으면서 독자기업으로 거듭난 한국출판유통의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건립 기공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출판유통 구조를 바로 세우는 실질적인 일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출판유통의 경영진은 건축과 첨단설비가 기능면에서나, 건축 미학에 있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출판단지 핵심시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분발과 정진을 다해왔습니다.

출판물종합유통센터의 건설이 성공될 수 있도록 업계와 관련전문가들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의 첫 삽을 뜨며

윤석금 한국출판유통(주) 회장



국내 출판 유통의 중심이 될 파주 출판물종합유통센터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진적인 출판 유통 시스템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기억될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기공

식의 기쁨을 우리 출판인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현대화된 설비와 과학적인 물류·유통 시스템을 갖춘 파주 출판도시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 출판인들의 큰 자랑입니다. 출판물종합유통센터는 파주출판도시의 핵심 시설로, 이번 건립은 국내 출판산업 발전의 기초 공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판 유통의 선진화는 국내 출판·서점인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이었지만 국내 출판산업의 구조 개선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출판유통(주)이 설립되었습니다.

저 또한 지배주주로서 투자를 결정하고 실행하기까지 난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출판인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한국출판유통(주)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물류와 유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 물류 서비스에 비해 두 배 가까운 물류비를 쓰고 있습니다.

출판물종합유통센터는 이러한 물류·유통의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하여 우리 출판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며 이는 국내 출판문화 발전의 탄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출판유통의 주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홍승대 대표를 비롯, 한국출판유통 임직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한국출판유통의 설립을 권유해서 출판문화 발전의 큰 뜻을 헌신하실 계기를 마련한 이기웅 이사장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파주 출판도시 조성에 출판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기공식 행사 현장



통센터 기공식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파주출판도시에서 출판물종합유통센터의 위상

민현식 출판물종합유통센터 설계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01년 봄, 네덜란드에 있는 선전물류유통센터 '센트럴 북하우스(Centraal Boekhuis)' 답사로 부터 시작한 여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비가시적인 영역의 작업들이 가시화되려는 것이다. 정보가 보이지 않는 전산망을 통하여 빛의 속도로 개인에게 전달되고 있는 시기에, 가시적인 '출판물'은 어떤 위상에 놓여져야 할 것인가. 물질은 자체가 가진 문화 가치로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며, 시대를 뛰어

넘는 영속성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통구조의 전근대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전산망을 통한 정보의 양과 속도에 밀려 그 자리를 내어줄지도 모른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출판물종합유통센터가 파주출판도시에 건립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파주출판도시는 공동성을 바탕으로 문화의 시대, 정보화 시대의 주역으로 태어나려 하고 있다. 이 도시가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새로운 시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시가 만들어내는 문화적 가치를 모두에게 공유하고 전달해야 하는 유통이 가장 근본적인 중심축이 된다. 이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더불어 출판물종합유통센터가 이 도시의 인프라로서,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공동성 가치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한다.

출판물종합유통센터는 파주출판도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일 건물로서, 도시의 성격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파주출판도시 설계자팀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가장 위험한 건물이 될 수 있으며, 역으로 도시의 정신을 주도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도 있다. 파주출판도시는 도시이며 동시에 랜드스케이프라는 두 성격을 모두 가진 'urban landscape'이다. 한강과 심학산 사이 배수로가 있는 매립지에 새로운 건축을 더할 때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를 동시에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침은 '건축물이 모여 하나의 특별한 환경을 만든다'는 일반화된 생각에서부터 '환경 또는 땅의 조건들에서 건축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건축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이 속에서 유통센터는 건축으로서 땅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곧 땅으로, 'architectural landscape'으로서 도시의 배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대지가 연속되어 인공적인 언덕(artificial hill)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은 주어진 유통센터의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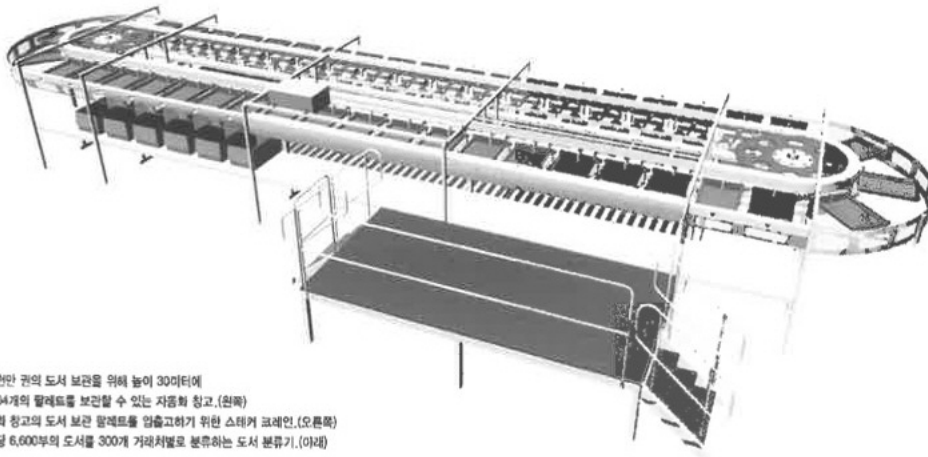
유통센터 프로그램은 '물류'를 위한 설비시스템 자체가 지닌 절대적 수직으로 인하여 거대함으로 해석된다. 어쩌면 기능이 가장 크게 부각되어야 할 건물이기에도 건축의 존재는 미약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은 대지적 한계, 실제성 한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물류설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판으로서 유통센터의 모든 기능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지원시설은 물류센터와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는 동시에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무동과 물류동은 자연으로 열린 개방된 공간을 사이에 두고 적절하게 거리를 둔다. 이 사이에서 각자의 역할은 강화되는 동시에 상호관련성을 맺고 하나로 통합된다.

이제 시간을 미래로 옮겨 보자. 비가 내리면, 지붕으로 떨어지는 물은 지붕면을 타고 흘러내려 연못에 모인다. 물은 자갈로 다져진 작은 수로를 통해 대지 내부까지 들어온 갈대밭으로 흘러나간다. 이 갈대밭은 파주출판도시를 관통하는 수로가 시작하는 지점에 펼쳐져 있다. 갈대밭 위로 가볍게 들어 올려진 테크 위를 걸어간다... 이를 향하여 시계가 열린 이 집에서 우리는 한강과 그 너머 산의 수평선이 만들어내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건축은 시계절 모습을 바꾸는 자연의 변화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배경이다. 이 장소에서 수로와 습지가 만들어내는 야생 생태계와 출판물종합유통센터는 자연과 인공이라는 대립항을 뛰어넘어 서로 아우러져 이 시대가 추구하는 환경친화의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다.

미리 본 출판물종합유통센터

최첨단 출판유통 혁신 인프라 구축

3천만 부 도서 보관 자동화 창고, 1일 출하 물량 4십4만 부 처리 도서분류기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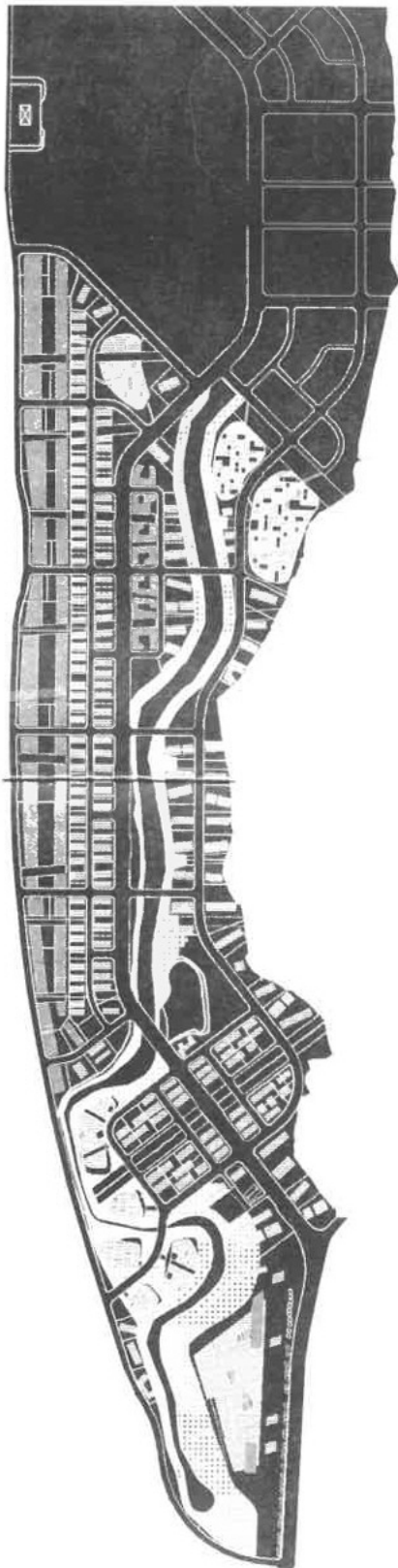
총 3천만 권의 도서 보관을 위해 높이 30미터에
13,804개의 팔레트를 보관할 수 있는 자동화 창고.(왼쪽)
자동화 창고의 도서 보관 팔레트를 입출고하기 위한 스택커 크레인.(오른쪽)
시간당 8,600부의 도서를 300개 거래처별로 분류하는 도서 분류기.(아래)

한국출판유통(주)은 2001년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삼성테크윈(주)에서 유럽의 선진유통업체인 센트럴북하우스의 업무 자문을 받아 물류 컨설팅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내용은 첫째, 사업 방향과 유통/물류 전략 수립, 둘째, 유통 센터의 규모, 기능, 유통량 분석을 통한 최적의 하드웨어 설계, 셋째, 센터 최적 운영을 위한 물류 기본 설계, 넷째, 유럽(센트럴 북하우스/리브리/베텔스만/KNO) 및 일본(일판/TOHAN/구리다) 출판물 해외 선진유통업체 벤치마킹 실시, 다섯째, 경제적·기술적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이다.

한국출판유통이 새롭게 건립할 '출판물종합유통센터'는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전 출판계와 서점계를 위한 출판유통 혁신 인프라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주요 보관 설비로는 30m 높이의 자동화 창고(13,804 Pallets 보관), 스택커크레인 7기, 팔레트 랙(720 Pallets 보관), 플로우 랙(348 Set) 등이 있으며, 이를 설비는 약 3천 만부의 도서를 보관할 능력이 있다. 집책 및 출고 설비로는 향후 5년 후인 2008년 기준의 일 출하 물량 439,000부를 처리하기 위해 도서 분류기(150 Shuts 2기), 박스 분류기(35 Shuts), DPS(Digital Picking System, 13,818개), RF 터미널 등의 첨단 물류 설비를 도입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출판물종합유통센터 전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영정보시스템과는 별도로 물류 전용의 독립 시스템인 물류정보시스템(WMS)을 구축 및 운영할 예정이다. 새롭게 구축될 물류정보시스템은 약 20만 종(SKU)의 위치 정보(Location) 관리와 도서 3천만 부의 재고 관리, 집책(Picking) 관리, 각 종의 입고·출고 빈도 관리, 부피(Volume) 관리, DPS와 RF 터미널 등의 통신 처리, 각 위치 코드(Location Code)와 라벨 등 장표 관리, 물류 생산성 지표 관리, 작업 인원 관리 등 출판물종합유통센터내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물류 관련 데이터의 처리 및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출판유통은 앞에서 설명한 첨단물류 설비와 물류정보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고객에게 빠르고 정확한 물류 정보,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출판사는 제작에 전념, 서점은 판매 및 매장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3 파주북시티 도시건축 한마당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다시 파주북시티를 말한다—파주북시티 도시건축 한마당

일시 2003년 6월 3일(화) 15:00~20:00

장소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및 이벤트를

주제 파주출판도시 조성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

사회자 : 송효상 건축코디네이터

발표자 : 김영준 협력코디네이터(이로재 소장), 이진복(출판단지 건설본부장),
플로리안 베이겔(북런던대 교수)

토론자 : 김연호(한길사), 송영민(요형출판), 조성봉(조성봉도시건축), 최문규(가이건축)

자유토론 : 주요 참석자

새 세기 우리 출판문화의 거점

이 동 파주출판도시가 최초로 발의된 이래 15년이 흘렀고, 우리는 이 땅 위에, 이 도시가 우리의 시대정신을 표상하리라는 기대를 받아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인포통신시대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도도히 흘러온 한강과 양진강이 드디어 항수(항수)하여 아득히 넓은 물의 발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큰 역사(歷史)가 조용히 흘러오다가 거대한 변신을 도모하면서 하나로 묶여 거대하게 탄생하는 또다른 시간을 보는 듯합니다. 동면으로 고개를 올라니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심학산의 등그스름한 프로필이 드러납니다. 그 앞 우리의 대지 위로는 사행(蛇行) 형상의 긴 강대(강대)가 부드럽게 물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즘 일과처럼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풍경은 이처럼 아름답고 또한 독특한 성격의 땅입니다. 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슴 뿌듯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정성을 쏟은 이 땅이 자칫 살수로 흥망을 일거나 비활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리란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해 왔던 바, 우리시대에 미연히 있는 건축의 힘으로 출판문화의 불산을 벗어날 수 있는 토양이 이곳에서 과연 마련되고 있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일이 상당히 진행되고, 또 앞으로 이어서 벌어질 수많은 건축공사와 조경공사, 그리고 여러 도시적 요소들을 채워 나가는 일들을 염두에 두면서 미리 참여하여 할 일들을 점검하고자 오늘 이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도시조성의 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이 도시가 어떻게 영위될 것인가에 대해 각계 각층의 고견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건축주와 건축가는 물론 행정기관, 문화예술계와 학계, 언론계 인사 그리고 건설회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가용 파주출판도시 이사장

좋은 건축은 좋은 삶을 만든다

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도시가 좋은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도시 조직에서 기원한 것만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도시들은 너무 계획적 근거리에서 만들어져서 너무 기능적으로 혹은 너무 계급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효율과 물성에 대한 원인으로 만들어진 까닭에 우리의 삶은 어느의 우리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실함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파주출판도시의 과거와 잘못된 도시구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공동체(공동체) 개념입니다. 도시를 지어보다 바꾸는 것에 더 가치를 두었고, 거지는 공간보다 나누는 공간을 우선하였으며, 자연을 지배하기보다 공존하는 실재를 추구했습니다. 그 꿈을 꾸는 동안 우리의 사회가 가진 수많은 부조리 앞에 화답하기도 하고 더러는 뉘그러기도 했지만, 그 꿈의 열 줄기는 우리 앞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갈수록 불신주의에 발치는 이때에 새롭게 탄생하는 이 도시는 작은 기적입니다. 이제 다시 이 도시의 정신을 반복하여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완성될 때 시작보다 더욱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도시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들 삶의 방식을 새롭게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셔서 이 도시의 정신을 다시 이야기하시고 이 신탁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송효상 건축코디네이터

파주북시티 도시건축 한마당 세부 진행 계획

1부 계획식 15:00~15:30

(사회: 송영만)

개식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아사장 인사

내빈 축하 인사

세미나 진행 사항 및 발표자 소개

2부 주제 발표 및 토론 15:35~18:00

(사회: 송효성 건축코디네이터)

사회자 인사(5분)

토론자 소개 및 진행방식 설명(5분, 사회자)

주제 발표(60분, 발표자당 20분)

지정 토론(40분, 토론자당 10분 이내)

자유 토론(35분, 각 2분 이내)

토론내용 정리 및 폐식선언(사회자)

3부 만찬 및 달소 18:00~20:00

축하공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색소폰 앙상블의 연주

영화음악 메들리(한국 김대우), 탕고,

라틴음악 메들리(한국 김대우)

초청·참석자 (가나다순) 강기태 KT 고양지사장 김태희 한도건축 김원일 사계종합건축 김형준 에이스종합건축 김형선 문희건축 김재호 문학수설
김승희 가와건축 김우석 영화감독 김준수 사진작가 김형환 진진건축 대표 김해학 기문원 김형규 J-a 고석 이태준서신 고영석 한가계신문 기자
고석익 동아일보 차장 고재현 창과비행 교수권 전경남세정보 교명수 침림종합건축 고영석 팀아임건축 대표 고종욱 두성PNC 대표 고종철 국회의원
권경현 고교교과 권민혁 대신문화 권문순 아모리애 권성욱 두성PNC 현장소장 권종택 보합종합건축 김철 경장건축 김태 포도포에 김현 ASYLUM건축
김정섭 프리셀트 김정희 한국전지출판협회장 김광선 경기도의원 김광수 임관건축 김광현 사육대 교수 김근태 국회의원 김기태 동덕여자대
김기철 경인방송 기자 김남철 파주경찰서장 김대현 한국토지공사 파주시업단장 김대현 건물건설 현장소장 김대현 전 문화복지관 김동훈 진영지업
김동규 교육과학사 김동규 영동건설 대표 김동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동근 국립중앙극장장 김동규 가치와미래 김무길 정책건설 현장소장
김민규 C.A.건설 대표 김병은 박지애대 교수 김병은 지경사 김병현 성조건축 김병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성남 오종이동 김성욱 허서출판사
김석길 파주시청수도사업소장 김석현 밝은세상 김석현 아가네 김성규 생다시 김성철 문현종합건설 대표 김성석 아이건축 김성철 상록건설 현장소장
김성호 국회의원 김세종 파주시 건설국장 김순용 신한에이전시 김승희 경영우치 김선혁 서강사 김연호 헤이마르브러 이사장 김명준 복이산업
김명주 파주시 도시과장 김명기 파주시의회 송우보사위원장 김명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김명섭 건축문화 김명수 전 문화부장관 김명수 중소기업진흥위원장
김명준 경제원 김명준 파주시청연구소 김명호 경배대 교수 김명희 성원 김옥주 청구메이커 김옥철 안그라픽스 김용현 오우종합건설 대표
김종호 성공회대 교수 김우성 고려대 명예교수 김윤기 전 교보증권 김민철 아르카움 김민호 바다출판사 김민호 신광종합건설 김경선 보진재
김경태 삼우유지 김경규 한국개발연구원장 김경규 M.A.R.U. 김경수 한국은행총합 이사장 김용철 금융건설 현장소장 김용희 성자사
김준성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준희 사이메이디어 김진철 삼성증권 현장소장 김진호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성환 삼성증권 대표 김성환 상학건설 대표
김현식 서울문화 김철수 세종예술단부 김철환 인공사원 김태현 다스주 김창국 서울대 교수 김형근 기원사 김형준 연합뉴스 지장 김형준 경원종합건설사
김병경 무문출 김홍규 두산건설 대표 김홍석 청문각 김홍석 파주시 상하수도과장 김홍신 국회의원 나산하 KBS 기자 남상현 서강출판사
남재현 타임스현장소장 노광태 타임스현장 대표 노성태 한국건설문화연구원장 노성철 문화일보 기자 노영희 동아일보 대표 노태환 김대현이탈
도재기 경향신문 차장 도정철 경희대 교수 류태종 고은사 류용영 성하비니루연구소 문주연 나리원 한영호 진진건축 현장소장 민규철 토대건축
민선주 유가건축 민재기 대한건설문화협회장 민종식 한국전력공사 파주시장장 민현식 기호전 박광우 문화관광부 출판문화정책 연구소 소
박노현 에버랜드건설 대표 박노현 시인 박대현 영월책박물관 관장 박동환 중앙건축 박영호 인공사 박영수 하신문화사 박영철 길우 박성태 우문주재 대표
박영호 다산연구기 박성규 KT 파주시장장 박성훈 재능교육 박세근 세경종합건설 현장소장 박용철 이화지업 박용준 천원건설 현장소장 박원순 연호사
박은주 김경사 박은주 한국일보 차장 박은태 경안사 박익선 신상강 박익선 한국토지공사 파주시업단장 윤지영 박익태 공민사 박희태 한세산업신보 발행인
박철용 임시원 박철원 신원문화 박대근 한신문화사 박형동 문화관광부 사무관 박은호 세계일보 기자 방민혁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시부장
방민혁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방철원 안원건축 박정운 서울도시가스 사장 배기선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배현성 문화일보 부장
배영복 서울도시가스 경기지역과장배영복 배영주 산업건설 대표 배태선 법문사 박대현 서울대 명예교수 박순식 화기 박형철 시도종합건설 대표
변재용 한성교육 서현 한양대학교 서현 에코랜드 현장소장 서희용 화합 서성봉 건물건설 대표 서일호 조선일보 기자 서정국 세신종합건축
서정원 두비 서해원 한아 순속 연극인 송병주 전경원 삼일고문 송봉숙 한국여성재단연구소 이사장 손수호 국민일보 문화부장 송준환 안화대 교수

파주출판도시는 단순히 지식산업을 구축하는 출판문화산업단지 개념을 넘어 인간과 자연, 문화와 산업이 살아 있는 위대한 책의 도시, 창조한 건축설계지침에 따라 조성되는 건축도시,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다양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비룡과 나비의 문화자주도시로 손조르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출판도시 진행과정을 국내외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주시하고 있으며, 건축과 입주로 날마다 변화하는 출판도시의 모습에 각계 각층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다시 파주북시티를 말한다'는 파주출판도시를 중간점검하고 앞으로의 문명, 관리 방식에 대해 출판도시 조성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고견을 듣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기대가 큼니다.



행사장 위치는 달
지하철을 따라 달린 달변으로 향하세요. 기점 17Km 지점에 위치한
파주출판도시로 도착하면 달변으로 향하는 열차가 기다립니다.

순취경 경기도지사 송철호 명예연도건설 현장소장 송영만 호형출판사 송진실 KTV 기자 송태호 경기문화재단 대표 송민태 조선일보 차장 송효성 이로지
신출 권호건설 대표 신명준 한국토지공사 파주시업단장 김명길 산업출 한가계신문 미디어본부장 신현출 글로벌 신원출 제이미디어에 심양수 실업출판사
심성태 현대교육이더에 연영애 이더리스트 안영규 KT 고양지사장 영일출 안영환 박영사 대표 태태 연희상 사강건축 양승우 서울시립대 교수
양철우 교회사 양태종 경기도청 문화복지국장 양병은 단영사 여성규 파주시 건축과장 양영철 동아일보 문화복지관 오형철 한경과 조정 우경국 여경건축
우재호 문현종합건설 현장소장 유영환 무문나루 유방근 사강건축 유성현 범문사 유순녀 상구바인재 유진환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유종준 양지대 교수
윤무부 경희대 교수 윤문성 새한문화사 윤석규 양진각집 회장 윤성민 경원건설 현장소장 윤성철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윤형우 범우사 여현 이순건축
이상 헤이마르브러 사무국장 이상 한국잡지협회장 이철 정지사회개혁연대 대표 이광민 예스이십사(주) 이연태 동배 이연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이정재 서울시립대 교수 이광주 인제대 명예교수 이국철 중소기업진흥회 경기지회장 이국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국철 국회의원의 이기태 신원출판사
이기를 열화당 이갑철 태평양그랜드 이남경 열화당 이병환 알과장소 이병철 지현출판 이병철 파월테크 대표 이문철 영안당 이병철 남양 대표
이석철 다산인쇄공사 이성철 한문출 이숙을 파주시의회 사무국장 이숙을 팀아임건축 현장소장 이숙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이형재 유사단장
이형재 국민일보 기자 이형선 서해문집 이형배 디자인하우스 이은희 동일출판사 이원우 바전출판사 이원재 경기도의원 이우숙 국민서관
이우송 와이에이비지출판사 이원호 이로·주리건축 이재성 대표 이재철 파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재철 국회의원 이정환 동서 이정환 대한문화진흥회
이정호 중앙서관 이종수 문화출판사 이종훈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장 이종호 해라건축 이준구 파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준철 파주시장
이현환 한국토지공사 파주시업단장 출판단지개발사업소장 이현희 파주시의회위원장 이현종 문화관광부장관 이현종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 이현구 대경출판
이현철 한국방송대 교수 이현철 현대고사 이현배 단우종합건축 이현구 카사바 이현수 경순건축 이경환 집문당 임종우 마이
임영규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처장 임옥상 화기 임재훈 OCA건축 임재훈 문공사 임재훈 오우종합건설 현장소장 임종철 경기도청 문화체육과장
장기철 영화감독 장용환 지이이더 장우철 국제전선교장 장민혁 종진P8M 장태철 S&D건축 전태수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이사장 전태우 파주시청 현장소장
전성철 동국건축 전수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전태국 음악세계 전태국 해람출판사 장정성 토문건축 대표 정기용 기문원 김태복 보리 정필규 국회의원
정성현 세종대 교학부장 정재희 장학건설 대표 정승우 경기도 행정부지사 정연근 토원건축 정영선 서진조각 대표 정영선 시사경이서
정우용 동화교육회 정은수 제이비비스 정일교 M.A.R.U. 정종모 열림원 정진국 한양대 교수 정진숙 출판문화사 최장 권효섭 다목적 최정환 열림원
조현기 기신건축 조경숙 김메이디어 조병수 조병수건축연구소 조병철 한국특서지도회 조성복 나남출판사 조성복 조선노동당지도회 조성태 전 국방부장관
조희태 소설가 조순형 국회의원 조우석 중앙일보 부장 조운상 영고 조재훈 한양사 조한석 예스퍼리 주영택 사진작가 주영우 지문문화사
주정희 자유아카데미 지원구 대학사 차봉희 한신대 교수 천호균 생지 화필 환경문화연합 대표 최욱 STUDIO Chokwook 화필 생활정밀인쇄
최광수 C.A.건설 현장소장 최국주 동경사 최두남 DCA건축 최현민 서울대 명예교수 최문규 가이건축 최현호 제계사 최현진 파주시의회 부의장
최정철 TS종합건축 최정철 대한사이대 대표 최복록 여이종합건축 최현자 연이 최학수 파주시 청우국장 최정환 경원대 교수 최현숙 입부 최현진 국민회계사
최광규 성지문화사 최형석 성도문화재 프라스한 불로리안 베이클 파란연대 교수 최성호 서울대학교스프링 단장 최수진 세경종합건설 대표
최순철 국회의원 한기호 한국출판가계연구소장 한영희 서울시립대 교수 한철희 음바게 한영우 스페이언 한영환 약업신문 하광우 화성포럼
현철민 경기도건축위원회 현태국 국회의원 현기섭 원희재 현민호 동그라미교육 총사령 전일출판사 홍성욱 대경지업 홍성철 서울지류유용
홍순주 에코랜드 대표 홍순재 복선 홍형식 도봉공정 홍자룡 한국출판연구소 회장 홍기원 서울대 교수 황보선 YTN 기자 황범식 한국일보 문화부장
황태호 시도종합건설 현장소장 황태학 세계일보 문화부장

book city 가을내신보강

1

2003. 7. 15. 화
발행인 이기웅 편집인 유도영 편집책임 김근상
본지는 파주출판도시의 홍보 소식지로써
수시로 발행되어 조합원은 물론 관련인사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부정기 간행물입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413-8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 전화 (031) 955-0001 팩시밀리 (031) 955-0003 http://www.pajubookcity.org E-mail:pajucd@naver.com



갈대셋강은 곧 출판도시를 의미한다. 때문에 무려 이 갈대셋강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2003년 여름, 무성하게 자란 자연 그대로의 갈대숲이 너무도 아름답다.

출판도시 완공시기 빨라질 듯

금년 봄을 지나면서 파주출판도시 입주사들의 사옥 설계 및 건축착공 등이 발빠른 진행을 보임으로써 출판도시의 완성된 일정이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은 당초 출판도시를 시범지구와 이차지구로 단계적으로 건축을 진행시켰으나, 2003년 7월 현재, 시범지구보다 훨씬 앞질러 2차지구 입주사들의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국민서관을 비롯, 상지사, 밝은세상, 문학동네, 케이디미디어, 한국독서지도회, 말과창조사, 청구페이퍼 등이 출판도시 건축을 선도하는 입주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사옥 설계를 비롯, 건축착공 등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주요 입주사들의 사옥 건축현황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2-3면 계속)

입주사 건축착공 활발하게 전개돼

국민서관, 상지사, 밝은세상, 문학동네, 케이디미디어,
말과창조사, 청구페이퍼, 한국독서지도회, 등

국민서관

국민서관(대표 이윅숙)은 지난 6월 21일 건축을 착공하여 현재 과일향타를 완료하고, 흙막이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800평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국민서관 사옥은 김영섭 건축가가 설계물, (주)미조건설(현장소장 이기송)이 시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옥의 주요시설로는 사무실을 비롯, 물류창고, 로비, 기숙사, 주차장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특히 국민서관은 2층 로비를 향후 그림책에 삽입되는 원화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과, 유치원 교사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말과창조사

지난 5월 중순 착공한 말과창조사(대표 이돈환)는 (주)화남종합건설(대표 윤진택)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00평 규모의 사옥을 건축중에 있다. 현재 공정은 지하층 옹벽 및 1층 바닥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사옥에는 사무실, 집필실, 창고, 직원숙소, 식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말과창조사는 사옥이 갈대샛강과 인접하여 갈대샛강의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학동네

문학동네(대표 강병선)는 예림건설(현장소장 이병욱)을 시공사로 선정, 지난 6월 25일 건축을 착공하여 오는 10월 31일 완공 예정으로 현재 기초공사를 마치고 1층 바닥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있다. 문학동네는 500평 부지에 지상4층 연면적 750평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밝은세상

밝은 세상(대표 김석원)은 지난 5월 26일 착공하여 오는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511평의 대지에 지상2층, 연면적 300평 규모의 쾌적한 사옥을 건축하고 있다. 리나건설(현장소장 허윤구)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상지사

지난 4월 15일 착공한 상지사(대표 김종하)는 지하1층 지상2층의 인쇄공장으로 연면적이 총 1028평 규모로 오는

위로부터 국민서관, 문학동네, 상지사, 청구페이퍼의 건축 현장.

탈서울(脫首都)의 새 도시를 꿈꾸며

이기웅 출판도시 이사장

11월말 완공예정도로 건축을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상지사는 현재 지하층 터파기를 완료하고 지하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을 비롯, 식당, 숙소, 주차장, 선릉가든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특히 일반적인 인쇄공장과는 달리 사옥 외부를 노출콘크리트와 판넬로 마감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시공사는 (주)에코프랜드(현장소장 서강덕)이다.

청구페이퍼

청구페이퍼(대표 김옥주)는 4월 1일 착공하여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로운 공사진행을 보이고 있다. 현재 1, 2층 철골공사가 진행중이며, 곧바로 외부 판넬작업이 예정되어 있다. 공정률은 67%. 연면적 500평 규모의 사옥에는 사무실, 기숙사, 공장, 창고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시공은 상록건설(현장소장 김성택)에서 진행하고 있다.

케이디미디어

케이디미디어(대표 신호인)는 타임건설(현장소장 남재열)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지난 5월 10일 착공, 내년 3월 중순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지하터파기를 완료하고 기초지중보 타설, 지하층 바닥 철근배근 완료 및 바닥콘크리트 타설이 예정되어 있다. 이 사옥은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2,211평 규모로 업무시설을 비롯, 생산시설, 크린룸, 직원 휴식공간, 옥상정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국독서지도회

한국독서지도회(대표 조병철)는 팀이십일건설(현장소장 이승용)을 통해 지난 4월 9일 착공하여 금년 10월이면 완공된다. 지상2층 연면적 300평 규모의 사옥에는 사무실을 비롯, 창고 등 기본시설 외에 어린이들이 책의 제작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벽면에 전시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book city 갈대샛강』 창간

『book city 갈대샛강』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할 각종 문제를 비롯,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제보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이를 통해 『book city 갈대샛강』은 우리가 꿈꾸는 위대한 책의 도시 파주 북시리의 성공적 조성과 이의 실현과정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반성하는 갈잡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대샛강에 온갖 새들이 지저귀니다. 비 온 뒤라, 물고기들이 펄쩍펄쩍 물 위로 뛰어 오릅니다. 지금 한창 건물 지어 올리는 소리가 이 자연의 아름다운 교향곡과 한데 어울려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울려 퍼집니다.

출판도시 현장에선 지금 많은 복잡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일들이 서로 얽히거나 꼬이지 않도록 이곳에 모여 일하는 모든 이들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분야 여러 계층의 일꾼들이 서로 소통하며 의견을 교환하거나 소식을 전하는 마당으로서 한 매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출판도시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하는 소식지 『book city 갈대샛강』을 발행키로 했습니다. 모두가 애호하며 이용하는 의사소통의 장(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파주에 우리나라 도시문화의 새 이정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삶을 발목잡고 있는 파행적인 서울의 도시생활을 벗어나, 쾌적하고 아름다우며, 진실로 계몽된 책의 테마도시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활을 꿈꿉니다. 또한 건강하고 능률적인 새로운 노동의 양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곳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펼쳐질 수많은 축제(祝祭)들을 머리속에 그려 봅니다. 중국에 가서 우리는 좋은 책을 값싸게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우선 충족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자족성(自足性)임을 알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 역시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자족성의 확립,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3. 7. 15.

입주사 사옥건축 서둘러야

일부 입주사 사옥 설계, 건축진행 무소식에 따라 일정에 차질 우려,
건축 늦어질수록 입주사에 불이익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 일부 입주사는 건축 발령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파주출판도시 대부분의 입주사가 집행부의 건축일정에 동참하여 사옥설계 및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설계 진행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일부 입주사들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약속된 출판도시 전체 건축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파주출판도시는 지난해 보진재를 시작으로 한길사 등 17개 회사가 입주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는 총 80여개 회사가 입주를 완료하여 생동감 넘치는 출판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순조로운 건축진행에 반하여 일부 입주사가 건축설계는 고사하고 건축추진 일정마저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건축이 늦어질 경우 출판도시의 대외적인 공신력과 입주사가 감내해야 하는 각종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주출판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입주사들의 입주계약 및 공장착공이 지연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들 입주사의 건축이 계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항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 통보 등)항 등 관련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집행부에서도 입주가 지연될 경우 이러한 대외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조합 내적으로도 건축촉진분담금 부담은 물론 시범지구의 경우 오는 8월에 토지대금 잔금을 납부하게 될 예정으로 건축계획이 없으면 본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의 더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여지가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설계 및 건축일정을 정하지 못한 입주사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설계 및 건축절차를 진행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설계추진 시 집행부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출판도시 내, 규정속도 준수 생활화 시급

과속질주 다반사, 도로변 무단주차도 근절돼야

입주사 사옥 건축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파주출판도시에 과속 질주를 일삼는 차량들로 인해 대형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파주출판도시 내 자동차 운행 규정속도는 도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25m 주도로는 70km, 주변 간선도로는 50km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도시를 운행하는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 규정속도를 무시하고 과속질주를 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출판도시 내 도로에는 자동차끼리 접촉사고를 일으켜 그 처리를 위해 도로위에 하얀 페인트로 사고를 표시한 부분을 여러 곳 볼 수 있다.

그만큼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자기 갈 곳을 향해 무작정 내달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입주사 임직원들이 좁은 간선도로 양쪽에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도로변 무단주차는 교통사고의 위험요소가

될 뿐 아니라 자칫 자기 편한대로 목적지 가까운 도로변에 습관적으로 주차를 일삼는 잘못된 주차문화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출판도시 입주사 관계자들은 물론, 공사 현장차량, 내방객 등 출판도시를 왕래하는 관계자들의 규정속도를 지켜 운행하는 교통안전의식 정착과 이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출판도시 내 속도 제한 표지판.



출판도시 내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파주출판도시

단정하고 세련된 기둥형(pole)으로 통일, 기존간판도 곧 철거예정



파주출판도시의 개별입주사 간판이 단정하고 세련된 기둥형(pole)으로 통일되어 설치됨으로써 계획도시로서의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출판도시 집행부는 도시 내 교통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정류장, 개별입주사 간판 등을 포함한 스트리트퍼니처의 형태와 설치위치 등이 출판도시의 얼굴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입주사 간판디자인을 기둥형으로 통일시켜 설치하고 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된 입주사를 비롯, 입주를 앞두고 있는 회사 사옥에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분위기로 디자인되어 설치된 간판은 출판도시 내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집행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이다.

사인디자인 전문업체인 KDA에서 디자인 및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개별 입주사 간판은 건축코디네이터를 비롯, 입주사 대표, 그리고 건축가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한 간판 및 도시사인 기준이다.

그러나 이처럼 입주사 대표와 건축가, 그리고 집행부가 합의하여 마련한 간판설치 기준디자인 통일 방침에도 불구하고 입주사 간판 디자인이 확정되기 전 입주한 일부 입주사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한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부착시켜 놓음으로써 출판도시를 방문하는 각계 인사들로부터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

집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출판도시를 인간과 자연, 문화와

산업이 살아 있는 위대한 책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건축설계 지침 및 간판 디자인, 조정 설계 지침의 준수와 이를 실천하는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기존 간판도 곧 철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실별 안내판 설치

출판도시 내 복합문화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실별 안내판 및 유도안내판(사진 참조)이 출판도시 간판 및 사인 지침에 의해 디자인되어 설치 완료됨으로써 세련미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실명안내판은 설계자의 건축의도와 특징 등을 토대로 KDA 박기태 대표가 직접, 현장에서 디자인 개념을 스케치하여 확정, 설치한 작품이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독특한 시설인 물의 공원을 비롯, 빛의 정원, 오아시스 룸, 저녁노을의 루 등은 간단 명료하게 디자인된 그림을 함께 삽입시킴으로써 시설의 용도 및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기금 4천만원 기탁

소담출판사 이태권 사장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열망하는 뜻있는 독지가가 위대한 책의 도시, 파주출판도시 내 핵심문화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기금으로 4천만원을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창사 19년을 맞은 중견 출판사인 도서출판 소담을 운영하고 있는 이태권 사장. 이 사장은 지난 3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파주출판도시 이기용 이사장, 이진복 동네통출판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기금에 보태달라며 사채 4천만원을 흔쾌히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이사장이 평소 우리나라 출판문화발전의 걸림돌로 여겨왔던 낙후된 출판유통 구조의 혁신과 현대화를 비롯, 체계화되지 못한 출판·학술 정보의 난립 등 출판계에 만연한 각종 불합리성 대해 남다른 고민을 하던 중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출판계의 염원을 담아 공익적 목적의 복합문화산업시설로 건립되는데 출판계의 한사람으로서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 사장의 이번 기부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 출판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또한 업계 발전을 위한 공익시설 건립에 기부문화화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 사장이 이끄는 소담출판사는 창사 이래 소설, 에세이, 만화에세이, 경제경영, 외국어, 교육서 등 700종 이상을 꾸준히 출간해 온 대표적인 종합출판사로 널리 알려졌다.



지난 3월 8일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이태권 사장이 파주출판도시 이기용 이사장에게 기부금 4천만원을 건립한 후 악수하고 있다.

버려진 양심...

출판도시가 쓰레기 야적장인가?
공공시설물, 벌써 도처에서 수난



출판도시 곳곳에 쌓여 있는
쓰레기들(위)
공사 중 장비에 의해 훼손된
가로등 조명시스템(아래)

파주출판도시 내 입주사 부지 곳곳이 쌓이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버려지는 쓰레기 대부분이 생활쓰레기이다. 이는 누군가 일부러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는 반증이다. 입주를 완료한 입주사에서는 비용을 들여 회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전량을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입주사 배출 쓰레기는 아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아무곳에나 버리는 쓰레기는 개인의 양심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각성하고 서로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우리를 생각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다. 또한 건축 중장비와 대형펌프카, 덤프트럭, 대형화물차 등 각종 건축공사 장비 출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들 공사장비의 운행으로 말끔하게 정리된 출판도시 내 공공기반시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될 뿐 아니라 행여 기반시설을 훼손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복구하는 양심적 장인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파주출판도시 환경친화활동 전개구역 지정 운영

입주사 및 건설회사 주변 위주, 갈대셋강 생태계보전에 주력

파주출판도시 집행부에서는 환경생태도시이자, 문화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출판도시의 환경보전을 위해 현재 입주를 완료한 회사를 비롯, 입주사육 시공업체 등 총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친화활동 전개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집행부의 이같은 환경정화활동 전개구역 지정 운영은 일회성 대청소로는 도시 내 환경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주사 및 건설회사 공사장 주변을 위주로 구역을 지정하여 상시 환경정화활동체제를 갖추으로써 환경보호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집행부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입주사 및 건설회사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



정화활동을 통해 수거한 쓰레기를 자원용과 폐기물로 분리하는 모습.

내 도로, 공사현장 주변 입주사 부지, 갈대셋강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출판도시의 상시적인 환경정화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집행부는 특히 출판도시를 가로지르는 갈대셋강의 생태계 보호, 보전이 출판도시 성패를 좌우하는 최대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갈대셋강의 환경보전을 역점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집행부는 출판도시 기반시설공사에서부터 입주사 건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행위에 있어서도 설계지침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금번 상시 정화활동이 출판도시를 생태환경도시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계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틀버스 노선 연장운행

입주사 증가로 임직원 출퇴근 편의 위해, 퇴근길 마두역 경유, 합정역까지 3회 연장

지난 6월 기한제, 창작과비평사가 입주를 완료하여 입주사 종사원들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입주사 임직원 출퇴근 및 출판도시 방문자들을 위해 운행중이던 서틀버스 노선을 대폭 연장하여 운행하고 있다. 집행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기존 퇴근시간대에 출판단지를 출발하여 마두역까지 운행했던 오후 6시 10분, 7시 10분 서틀버스를 합정역까지 연장운행하고 저녁 8시 30분 운행하는 심야버스도 마두역을 거쳐, 합정역까지 연장 운행토록 했다. 이번 노선 연장운행에 따라 오후 6시 30분, 7시 30분 두차례 마두역에서 출판단지로 운행했던 노선은 자동으로 합정역에서 출판도시로 운행된다. 집행부는 출판도시 내 서틀버스 운행코스도 함께 마련했으며, 운행코스에 따라 신일문화, 약업신문, 태평양그랜드, 김영사, 음악세계, 한옥, 기한제, 서울지류유통 등 사옥 및 부지앞에 8개소의 승하차 지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출근	운행횟수	출판도시	합정역 (3번출구)	마두역 (2번출구)	마두역 (4번출구)	출판도시
평일	1		07:45	08:00		08:20
	2	08:20		08:35		08:55
	3	11:10			11:30	12:00
주말 (토요일)	4		07:45	08:00		08:20
	5	08:20		08:35		08:55

퇴근	운행횟수	출판도시	마두역 (4번출구)	합정역 (3번출구)	출판도시
평일	1	14:10	14:30		15:00
	2	17:10	17:30		18:00
	3	18:10	18:30	18:50	19:25
	4	19:10	19:30	19:50	
	5	20:30	20:50	21:15	21:40
주말 (토요일)	1	14:10	14:30		15:00

출판도시 건설촉진을 향한 다짐의 대회

임시총회 서류

2003년 8월 19일(화) 오후 2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목 차

1. 임시 총회 회순	3
2. 보고 사항	4
3. 개별입주사 사옥 건축촉진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	6
4. 출판도시 간판 및 옥외홍보물 설치 기준에 관한 「다짐의 말」 채택의 건	8
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과 비영리공익법인 설립의 건	10
6. 10월 어린이 책 한마당 추진의 건	12
7. 시범지구 산업용지 개별취득에 관한 건	16

임시 총회 회순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개 회 사

—. 의사록 서명이사 및 서기, 감찰 지명

—. 보고사항

1. 임시총회 개최 취지

2. 조합원사 입주 및 건축진행현황

—. 의안심의

1. 개별입주사 사옥 건축촉진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

2. 출판도시 간판 및 옥외홍보물 설치 기준에 관한 「다짐의 말」 채택의 건

3.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과 비영리공익법인 설립의 건

4. 10월 어린이 책 한마당 추진의 건

5. 시범지구 산업용지 개별취득에 관한 건

—. 기 타

—. 폐 회

1. 임시총회 개최 취지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도시는 이미 한길사, 창작과비평사, 보진재 등 17개 회사가 입주하였고, 곧이어 10여개사가 입주할 예정이며 20여사가 사옥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이와는 별도로 금년에 40여개 입주사가 사옥 건축을 착공하여 건축완료와 동시에 입주 예정이어서 2004년 상반기까지는 총 80여개 회사가 입주를 완료할 예정임.

이렇듯 대다수의 입주사가 집행부의 건축일정에 동참하여 설계 및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설계 진행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일부 입주사들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약속된 출판도시 전체 건축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특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예외없이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목적에 맞게 건축을 착공하여 입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항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 통보 등)항 등 관련법에 의거 조치될 우려가 있음.

입주가 계속 지연될 경우 이러한 대외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건축촉진분담금 부담은 물론 시범지구의 경우 오는 8월에 토지대금 잔금을 납부하게되어 건축계획이 없으면 본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오늘 임시총회를 통해 출판도시 전체 건축일정에 맞추어 입주사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촉진에 관한 결의문 채택 및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 등 현안문제들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임.

2. 파주출판도시 입주 및 건축진행 현황

구분	업체수	출판사	인쇄사	유통/지류/상업/기타
총 조합원	193	142	26	25
출판단지 입주조합원	155	110	23	유통 2, 지류 6 상업 12, 기타 2
입주완료사	15	한길사, 동그라미교육 창작과비평사, 기한재(4)	보진재, 화성프린원, 태평양그랜드, 도봉금강, 희망, 에스피티, 신일문화 대신문화 (8)	서울지류유통, 지지아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교 육연수동)(3)
공사중인 입주사	31	박영사, 청암미디어, 한국독서지도회, 문학동네 자유아카데미, 동녘, 말과창조사, 열화당, 미아, 민음사, 동명사, 양서원, 밝은세상, 국민서관, 신원에이전시, 말과창조사, 돌베개, 효형출판사, 사계절, 서강출판사(20)	천일문화사, 상지사 케이디미디어, 진영지업 (4)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전 시정보지원동), 국제전산교구, 샘지상가, 파퓰, 청구페이퍼 북센, 가치와사람(7)
허가될 입주사	14	경세원, 디자인하우스, 지경사, 음악세계, 샘터사, 은하출판사, 성안당, 업투, 교문사, 두비, 푸른나무, 김영사, 세종대(13)		삼화비닐 (1)
설계중인 입주사	21	10개사	3개사	8개사
기타	74	63개사	8개사	3개사

book city

갈대셋강

어린이
책한마당
특집호

2003. 10. 9. 목

발행인 이기웅 편집인 유도열 편집책임 김근상

본지는 파주출판도시의 홍보 소식지로서 수시로 발행되어 조합원은 물론
관련인사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부정기 간행물입니다.

어린이 책한마당에 오신 분들에게 출판도시를 안내합니다.

파주출판도시 413-8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 전화 (031) 955-0001 팩시밀리 (031) 955-0004 <http://www.pajubookcity.org> E-mail: pajupcc@unitel.co.kr



*2003 파주어린이 책 한마당, 을 품어안은 파주출판도시. 10월, 청명한 가을하늘이 흐드러진 코스모스와 어울려 건축공사가 한창인 출판도시의 장엄을 보여주고 있다.

책과 건축이 만나는 도시 왜 북시티를 건설하는가

북시티는 약속의 땅 파주에서도 자유로변에 세워지는 문화공동체로서, 책과 관련된 공간, 즉 책을 기획하여 생산하고 이를 유통하는 산업도시로서 기획되었다.

출판도시를 추진해 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왜 이 도시를 기획했으며 어떤 목표로 도시를 만드느냐는 것이었다. 우리의 답변은 간단하고도 명료하다.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서 이 도시를 만든다. 그러므로 이 도시는 인간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도시나 건축을 가리켜 '시대의 거울'이라 한다. 인간의 삶, 특히 도회적 삶이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 것이 도시요 건축물이라는 뜻이겠다. 서울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서나 목격되는 부조화의 도시계획, 불균형한 도로체계, 너절한 건물, 어지러운

간판들의 집합체인 거리는 왜곡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뜻이다. 이같은 왜곡된 도시 풍경은 다시금 곤고한 우리의 삶을 더욱 옥죄어 오는 것이니, 한번 왜곡된 도시나 건축은 끊임 없이 악순환의 고리로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런 도시 형태가 왜 생겨났는가.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이렇듯 바람직하지 못한 도시와 건축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었는가. 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자 한다. '공동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각자 개인의 욕구만을 추구할 뿐 공동의 선을 마련해서 그것을 굳건히 세우는 데는 소홀했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을 두지 않은 결과였다. 공동성의 상실이나 삶의 왜곡됨은 질곡으로 점철된 우리 근현대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일제 삼십육년과 그에 이어진 혼란스런 해방공간, 그리고는 서구문화의 부분별한 유입, 전국 이후 광복년대에 이르도록 독재정치로 경직된 우리 사회는 산업화로 치달는 세계경제질서에 편입되면서 감피를 잠을 수 없는 정신적인 혼란,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왔고,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는 모든 우리네 삶의 형국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오늘날 까지 이어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을 때가 된 것이다. 우리가 이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북시티에서 찾으려고 했다면 다소 과장으로 들릴까. 아니다. 출판에 종사해 왔던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은 공동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데 좋은 책을 만드는 좋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인들이 추구했던 향약(鄕約)을 오늘의 형태로 되살리는 일이었다.

북시티 추진에서 가장 가치를 둔 것은 바로 이 '공동성의 실현'이었다. 부분별한 자기탐욕을 억제하며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한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구현하는 일이었다. 우리 모두에게 가치있고 유익한 최선의 것이라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에는 매우 전문적인 연구와 식견과 지혜가 필요했으므로, 우리는 가장 뛰어난 전문성과 식견과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아 이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가고자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었다.



출판도시를 계획한 지 15년이 지난 현재, 출판도시는 입주자들의 사옥건축과 입주주도 할기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왼편에 열화당, 한길사 사옥, 멀리 우측에 참배, 신원아이전사 사옥)



출판도시의 북향문화연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노을의 누에서의 밑자.

나는 북시티를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출판의 일상에서 늘 적용해 왔던 책만들기의 원칙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었다.

1984년 무렵 건축가 김중업 선생의 책을 만들 때였다. 선생이 그의 책 출간일자를 매우 서두르시는 것이었다. 책을 만들에 있어 함부로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가져 왔던 나로서는 그분의 뜻을 그냥 좇을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분께 편지를 썼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다. 즉 책만드는 일도 당신께서 하고 계신 건축일과 마찬가지로 힘들어 설계하고, 그 설계가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설계를 할 때만 해도 그렇다, 그 건축물이 세워지려고 하는 곳의 환경과 풍토, 그 안에서 살게 될 사람의 성격, 직업, 가족수 등과 집을 지을 때에 조달될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연구 없이 가치있는 설계가 이루어질 수 없듯이, 책만들기의 설계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듯 지루한 설계작업이 끝나고 나면, 자재를 조달하여 설계도에 맞추어 건물을 세우는 책만들기의 힘든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니 책만드는 일도 건축 못지 않게, 아니 때로는 건축보다 훨씬 힘들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난다. 이것은 책만드는 자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에 찬 발언이었던 것이며,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곧 책만드는 일이야말로 건축하는 일과 흡사하다는 나의 생각이 비유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다. 책의 도시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대의 뛰어난 건축가와 나누었던 이러한 대화를 생각하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북시티를 기획하고 추진해 온 그 기저에는 책만들기의 정신이 깔려 있었으며, 출판과 건축의 만남 또는 책과 도시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심학산 중턱에서 바라본 출판도시, 저 멀리 한강과 그 너머로 보이는 길고평이 손에 잡힐 듯하다.

출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의 기획을 이끌어내었다. 국가의 정책적 배려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출판물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형식으로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것이다. 정책적·산업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 가면서 우리는 '산업단지'라는 무기력하고 건조하게 될 성격적 결함을 '도시'의 성격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우리에게 거대한 대지 위애다가 복시타라고 하는 한 권의 크고 아름다운 책을 편집하는 셈이 되었다.

어반 디자인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황기원 교수팀이 맡았다. 책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그것을 유통해 독자에 전달하는 온 산업시스템을 새로이 판짜는 도시계획이었으므로, 우리가 황기원 교수팀에게 주문했던 것은 우리 출판산업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한 다음 산업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황교수팀은 힘든 수고를 수행하였다. 그 동안 우리 출판계의 양적 성장에 비하면 질적인 면에서나 또는 산업적인 자료의 준비에 있어서는 열악하기 그지없었으므로, 우리 출판산업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유용한 기획자료를 수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이 단지를 개발하는 법적 근거는 '산업입지 및 그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공배법) 그리고 그들 법의 시행령이었다. 법률이 갖고 있는 경직됨과 그 법해석을 하는 공무원행자들의 경직되기 그지없는 자세는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주곤 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일어섰다. 머리속에 꿈꾸고 있던 당초의 꿈을 잠시 버리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대응에 한치의 소홀함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

앞서에서도 말했지만, 산업단지가 불러올 수 있는 건조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 어반 디자인도 중요했지만, 그 다음 단계인 건축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우리시대의 뛰어난 건축가 민현식·송효상 두 분을 건축코디네이터로 발탁한다. 그 두 분은 영국의 건축가인 복런던대 플로리안 베이글 교수와 또다른 젊은 건축가 김종규, 김영준씨를 포함시켜, 이렇게 다섯 건축가가 출판도시 건축지침을 작성한다.

모든 건축은 엄격히 이 건축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고, 이 지침을 잘 따라 줄 건축가 그룹을 조직하였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건축가 약 서른 분과 외국 건축가 약 열 분, 도합 마흔 건축가의 명단을 작성하고, 도시를 섹터로 나누어 섹터 아키텍트를 정하는 등 치밀한 도시·건축의 계획을 준비한 다음 이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일에 익숙치 않은 입주자인 건축주들로 하여금 이 계획에 따르도록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 또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 동안 역사에 얼룩졌던 우리의 일그러진 초상을 올바르게 잡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 우리는 이곳에 인간의 도시를 만들고, 이 도시가 황폐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도시문화에 새 이정표를 만들어 우리 사회의 확대재생산을 도울 것이란 기대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복시타의 공간에서 참다운 책의 문화가 꽃피울 것이며, 새로운 이상형의 도시문화를 보게 되리라. —이기웅 파주출판도시 이사장

파주출판도시의 발자취 1989-2003

파주출판도시, 15년의 대역사, 완공 눈앞에

1989. 9. 5.

우리 출판인들은 책을 통해 민족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물론, 언론계, 문화계, 학계 등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 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1991. 1. 8.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범 출판계가 참여하여 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을 결성, 경기도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 받았다.

1991. 7. 10.

출판단지 조성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기본구상 자료를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를 완성시키다.

1994. 7. 1.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조찬간담회에서 이기웅 이사장이 대통령에게 출판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출판단지 건설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진언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부처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같은 날 오후 문화체육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부지인 파주시 문발리 폐천부지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1995. 10. 20.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명칭을 공식화하여 이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 명명식 행사를 정관계를 비롯한 언론계, 문화계, 학계 등 6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1997. 3. 31.

1996년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안) 공람에 이어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공업지역으로 심의의결을 받아 현 출판단지 48만평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를 받았다.

1998. 11. 20.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단지조성공사 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선정하여 당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공식을 기점으로써,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책의 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기원했다.



1999. 6. 30.

단지 기반시설공사의 진행과 더불어 별도로 파주출판단지조합에서 1998년 시범지구 산업용지 매입, 문화시설용지 매입, 상업용지 매입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어 2차지구 산업용지 매입을 완료함으로써, 일단계 개발사업 총 26만여평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1999. 9. 9.

출판도시의 건축관련 도서전 등 전시기능과 각종 이벤트기능, 회의기능, 사무국기능 등을 수행할 연면적 242평 규모의 전망대를 갖춘 파주출판도시 인포룸을 개관했다.

2001. 6. 15.

출판도시 건축을 위한 설계지침을 완성하고, 정부로부터 건축비 50% 국고보조금 지원을 획득하여 건립되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 시선 풍경 (p. 4 위)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파주출판도시 인프라 개관을 축하했다. (p. 4 아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조감도 (p. 5 위)
 출판도시의 파주시대를 알리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명명식 (p. 5 아래)

및 사옥건축의 첫 삽을 뜨는 착공식 행사를 가졌다.

2002. 12. 24.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교육연수동이 완공되었으며,
 이 센터대회의실과 이벤트홀에서 출판도시의 핵심시설인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2003. 6. 3.

출판도시를

계획했던 당초의 도시적 목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간점검하고, 도시가 완성된 후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다시 복시터를 말한다」를 개최했다.

산업시설과 함께 파주출판도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시설 문화연구·유통·상업시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출판도시 내 복합문화·연구시설로 금년 11월 완공예정

파주출판도시에 지식기반산업 확충과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문화·연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p.6 아래)가 건설되고 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지난 2001년 6월 15일 착공하여 현재까지 건축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 받아 연차적으로 건설중에 있으며 그중 1차로 교육연수동이 2002년 12월말 공사가 완료되었다.

현재 2차 공사인 전시정보동은 골조공사와 조적공사, 전기, 설비, 외부관내 공사 등이 진행되어 75%의 공정률을 보임으로써 예정대로 11월 완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으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완공되면 21세기 지식경영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도시 내에 출판·문화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전시·집회, 국제도서·문화교류, 출판문화인쇄관련 연구와 교육기능 등을 수행함으로써 책문화 보급 및 창달을 통한 지식산업 기반의 활성화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출판도시 전체에 출판, 학술, 문화예술분야의 정보제공 기능 뿐만 아니라 교육, 전시, 세미나, 국제회의 시설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능이 접목된 21세기형 새로운 출판 관련 복합 문화·연구시설이 될 전망이다.

출판물종합유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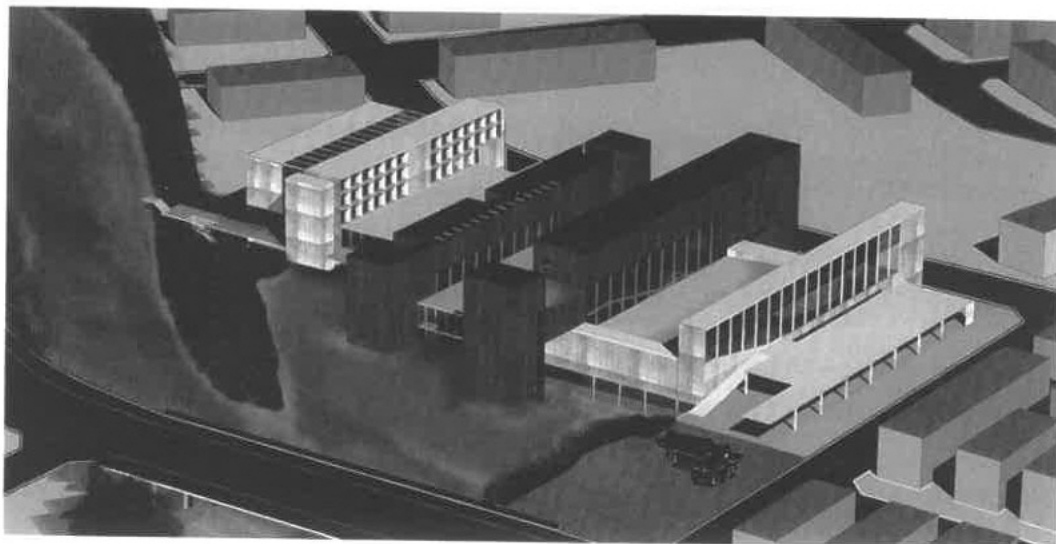
출판유통 현대화의 선봉, 1만5천평 규모로 내년 4월 완공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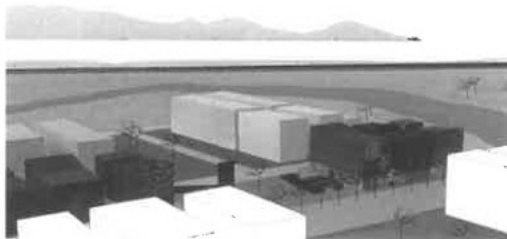
파주출판도시의 핵심시설중 하나인 (주)북센의 출판물종합유통센터(p.7 위)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 4월이던 완공을 앞두고 있다. 동 센터는 2만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5천여평 규모로 최신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초대형 물류기지로 건설되고 있다.

이 건물에는 AS/RS (자동화 보관랙), 파렛트 랙, 플로우 랙 등의 물류설비는 총 3천만 부의 도서 보관 능력을 갖추며, 일 출하량 43만9천부(2008년)를 처리하기 위해 Piece Sorter(도서 분류기), Parcel Sorter(박스 분류기), DPS(Digital Picking System), RF Terminal 등 최첨단 물류 설비를 갖추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고객(출판사, 서점)을 위한 출판물 등의 보관, 배송, 반품, 유통 정보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출판계와 서점계의 출판유통 혁신의 실현을 위한 Infra를 담당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센터가 완공될 경우 출판 및 서점계에 물류운영상의 유연성과 투자비용 절감은 물론, 수발주 시스템 구축으로 주문 권리 및 비용 절감, 주문 출판물을 신속, 정확하게 공급받는 등 출판유통의 합리화와 현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내 인프라





라 구축으로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유통업체에 경쟁우위 확보, 출판사와 서점간 결제 관련, 직접적인 접촉 불필요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물류 유통 정보의 DB화로 물류정보의 인프라 구축 실현 등 국가적으로도 큰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합 쇼핑몰 「이채」

연면적 1만 7천평 규모, 내년 4월 완공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도시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6천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짜리 4개 동으로 건립되고 있는 「이채」(p.7 아래)는 연면적만 1만 7천평에 달해 수도권 최대 규모이다.

한국 최초의 문화교육테마 쇼핑몰을 꿈꾸고 있는 「이채」는 교육과 문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몰'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이 곳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도록 「이채」라는 말의 의미처럼 색다른 테마를 가지고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적 이미지를 가지는 문화교육테마 쇼핑몰로 건설중에 있다.

출판도시가 서울과는 30분 인천국제공항과는 20분 거리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유통인

구가 연간 2천 5백만명이지만 파주신도시가 들어서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쇼핑몰로서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채」의 지상 1, 2층에는 국내외 명품 브랜드 아울렛을 비롯해 멀티플렉스 8개관과 세계적인 공연으로 자리 잡은 '난타' 전용 극장, 국제 제즈계의 거목 윤희정의 '윤희극장', 외에도 패밀리 레스토랑, 게임센터, 푸드코트, 건강랜드 등이 들어선다. 또한 24시간 개장하는 원스톱 쇼핑몰로 기존 백화점이나 일반 쇼핑몰과는 크게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패션 및 근린생활상가

쌈지, 데코 등 패션을 중심으로 명품브랜드 대거 입점

시범지구 2,396평의 상업지구에는 데코, 쌈지 등 유명패션을 중심으로 한 패션 및 근린생활상가(p.7 가운데)가 들어선다. 상가는 4개동의 건물에 연면적 5,000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새로운 시대의 도시개념을 적용한 쇼핑, 휴식, 문화생활의 기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주민과 생활인의 교류를 촉진하는 도시공간 구성 등 패션, 환경, 문화의 새로운 복합타운으로 개발되고 있다.

동 상가는 Fashion & Living & Food의 복합 전원형 쇼핑몰로서 아울렛 비즈니스의 새로운 컨셉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입점브랜드는 데코, 베네통, 텔레그라프, 시슬리, 아나카리, 구호, 지지배 등 40여개 패션브랜드를 비롯, Room&Deco, 까사미아, 까사미아키즈, 공 등 리빙브랜드, 커피미학, 알레, 플로라 등 푸드엔카페 등이 대거 입점할 예정이다.



“위대한 계약서”-책의 도시 건설을 위한 키워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업성과 중의 하나는 건축주인 출판인과 건축가가 출판도시 건설방식에 합의 서명한 위대한 계약서의 내용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입주자와 건축가가 공동성 실현의지를 담아 출판도시에 건강한 출판문화와 건축문화를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한 것으로,
출판도시 모든 건축행위의 기본이 된다. 이 위대한 계약서 전문을 다시 소개한다.

우리 출판인과 건축가는 열두 해 전, 매우 미래지향적인 뜻으로 발의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파주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를 존중하며, 이의 성공적인 완성을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여기 모였다.

우리는 우리시대에 미만해 있는 건축에의 혐오나 출판에의 불신을 씻어내고 이땅에 건강한 출판문화와 건축문화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려 한다. 다시 말해, 이땅의 민족과 국가 앞에 숭고한 책의 가치를 드높이며 자랑스런 우리 건축문화의 전통을 되살려, 우리의 도시가 추진·건설되는 과정이나 완공된 이후의 현장과 시설이 출판문화의 중흥과 국민교육의 마당으로 쓰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건축가의 건축방식이나 여러 입주자의 다양한 산업형태—시설양식이 존중되면서, 이들이 조화롭게 완성되도록 기법과 지혜를 성실히 짜낼 것이다. 즉, 건축에 있어서나 임주기업의 사업에 있어서 공동성과 협동성의 가치를 추구하되, 개체의 특장과 가치와 이윤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데 그 큰 뜻을 두자는 것이다.

일함에 있어서는 물자와 시간을 아끼며, 일하는 이들과의 건강과 우정을 두터이 하여, 거친 건설현장과 대규모 이주에 따른 위협이나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 꿈과 예결과 지혜가 넘쳐 흐르는 삶의 동네로 꾸미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이 도시는 생태도시로 설계되고 운영될 터이므로, 생태이념에 대한 설계자—시공자—입주자들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을 정중히 서약하면서 설계에 임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가와 출판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각기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둘째, 출판도시의 바탕은 하나의 건축이다. 공동성과 개체성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이 도시는 성공될 수 없다는 인식을 새로이 다짐한다.

셋째, 출판인은 이 기회를 스스로 좋은 건축주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로 삼는다. 참다운 건축가의 이상을 받들어야 위대한 책의 생산공간은 마련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임한다.

넷째, 건축가는 참다운 건축가로서의 소명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시대의 새로운 건축이 이곳에서 역사되어야 한다.

다섯째, 설계에 따르는 비용은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산출

되어, 건축가와 건축주 모두의 명예와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다만 그 실제의 문제를 잘 풀어 가기 위해 출판인 대표와 건축가 대표는 쌍방간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소명과 시대정신의 이름 아래 이 계약서를 “위대한 계약서”라 칭한다. 이 “위대한 계약서”는 출판도시의 모든 건축 행위의 기본적 계약이며 개별적 계약은 이와 더불어서만 유효하다. 이를 위하여, 출판인 대표 이기웅과 건축가 대표 송효상이 앞장서 서명하고, 모든 입주자와 건축가 가 연기명으로 서약한다.

2000년 겨울 파주출판도시 인포룸에서
출판인 대표 파주출판도시 이사장 이기웅
건축가 대표 건축코디네이터 송효상



위대한 계약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오직 출판도시에 있을 뿐...
이기웅 이사장과 송효상 건축코디네이터가 위대한 계약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모습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단지 30-1
전화 031-955-0001, 팩시밀리 031-955-0004
pajucc@unitel.co.kr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발간되는 「출판도시뉴스」는 부가기간행물로
조립함을 비롯하여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 추진에 관계되는 사적 강제에
무관하게 제공됩니다.

이 회보는 발행 이가용, 편집위원 위도영,
편집 김근성의 책임으로 만들어집니다.
제호 디자인 / 안상수

출판도시뉴스

PAJU BOOK CITY NEWS

제28호
2003. 11. 15.

‘2003 파주 어린이 책한마당’ 성공리에 마쳐

출판도시의 생태·문화적 환경 속에서 펼쳐진 어린이 책 축제
파주출판도시의 모습, 일반에 최초 공개 의미



“불거리, 놀거리, 색다른 형식의 체험 등을 다채롭게 한곳에 모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놀고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축제였다.”

지난 10월 8일 개막식 겸 전야제를 시작으로 문을 연 「2003 파주 어린이 책한마당」이 열흘간의 다채로운 행사를 마치고 19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을 때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은 결론이었다. 파주시와 파주출판도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3 파주 어린이 책한마당」은 500여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진정한 의미의 어린이 책 잔치를 펼침으로써, 출판도시의 희망찬 출발을 알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드넓은 공터가 있으며, 아름다운 건축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파주출판도시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15년 동안 출판계가 힘을 합쳐 온 공동성의 실현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또한 파주출판도시의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공개된다는 깊은 의미도 있었다. 아울러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출판도시가 지향하는 문화와 산업, 생태 그리고 건축문화라는 교육적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출판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도시원기의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2003 파주 어린이 책한마당 열흘간의 기록

출판도시에서 개최된 2003 파주 어린이 책한마당은 연인원 6만여명이 다녀가는 대 성황을 이루었다. 더욱이 출판도시가 건설중인 과정에서 개최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관심을 불러모은 것은 앞으로 책의 도시에 집중될 온국민의 관심도를 가늠케 하기에 충분했다. 열흘간의 행사 이모저모를 화보로 구성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열흘동안 일평균 6천여명의 참관인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입장권 구매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입장객들.

2. 도서전시와 책문화행이당이 펼쳐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연일 많은
어린이들도 붐볐다.

3. 책과 공연예술이 하나된 책은와 한미당
미당국 문예락에서는 배우와 다미들이
하나되어 흥겨운 잔치미당을 연출했다.

4. 캠퍼스내 화장실 외벽을 모두 통치석에 나오는 재미있는 그림들로 장식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재미와 친근감을 안겨줬다.

5. 코주부, 허꾸리와 잘다리, 홍길동, 허방이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작 영화 캐릭터들을
진시한 '만화속 주인공을 만나요'전.

6. 도서관시장은 전시장 책을 어린이들이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 카펫을 깔아놓은 빈티지한 한옥이 두었다. 전시장 곳곳에서 편안히 앉아 열심히 책을 읽는 어린이들의 모습.

7. 인포룸에서 진행한 '어린이 건축학교'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가들이 어린이들에게 '음과 공간', '비로와 피라미드', '재료와 공간', '건축과 도시' 등을 주제로 건축 워크숍을 가졌다.





1. '비밀게비'를 만들어요. 놀이한이집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지도 아래 비밀게비를 직접 만들고 있다.
2.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책의 탄생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3.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에서 출판사로부터 전집이 온다면 원고를 인쇄하기 위해 필름작업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
4. 책이 인쇄되는 과정을 견학하는 아이들이 인쇄기에 묻은 색소해지판, 신기하기만 하다. 80년의 전통을 가진 보진대인쇄사를 견학하는 어린이들.
5. 웹사이트 내내 사랑을 베풀 수도 없는 초등학교, 유치원, 사립학교 등 단체장들이 있을 것이다. 사진은 출판사에게 일주를 받은 결과창조사 이준원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체험학습 산내 유치원 선생님과 어린이들.
6. 어린이 견학학교,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건축가들의 지도 아래 다양한 공간 구성을 체험한다.



4

5



7. '대장장이와 놀아요,'는 핀란드, 러시아 등 유럽 대장장이들의 작품활동을 보여주는 관람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작품은 행사기간 동안 장의 서쪽 3층에 마련된 특별전시장에 전시되어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작품활동에 앞장선 외국 대장장이 아티스트의 작업공간을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8. '농이천마당'에서 나뭇잎책 만들기 위해 나무 잎지를 두드리는 아이들의 모습. 천에 비어 나오는 나뭇잎의 모습이 마냥 신기해하긴 하다.

9. '꽃과 함께 놀아요'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하나되어 꽃놀이를 하고 있다.

10. 울산도시 내 행사장에 세워진 해일갈과 옥수수밭 사이를 한가롭게 걷는 참관인들의 모습이 길어가는 거울정원과 어울려 장관을 더해주고 있다.

11. '옥수수밭에서 책을 읽어오,' 2만원에 조성된 옥수수밭 사이로 1km의 미로를 만들어, 미로를 따라 동최적 20여권을 전시했다. 사정은 조성된 미로를 따라 전시된 동최적을 읽고 있는 어린이들.



2003 파주 어린이 책 한마당 행사를 마치고

이 도시의 영원한 테마인 '책'을 통하여 어린이로 하여금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게 하고 지혜로운 힘을 주고자 했으며,
아울러 북시티가 건설되고 있는 현장의 초기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미래의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어린이와
그 동반자인 부모들이 함께 체험하도록 하는 데 뜻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어른과 함께 하는 '어린이의 도시읽기'인 셈이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흘 간의 행사를 치르는 동안 우리는 다소 초조함과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 여러 곳에서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단지의 기반공사조차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여서, 행사장의 분위기가 사뭇 삭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행사 내내 나를 불안케 했던 것입니다. 행사 요원들의 기면하고 성실한 임무 수행이 이같은



9일 개최된 개막식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시시마출판문화재단에서 노을의 누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각자의 소원을 쓴 편지를 예쁘고 사랑스러운 종이 비둘기에 담아 하늘로 날림으로써 개막식의 의미를 장식했다.

염려를 불식시켜 주었습니다. 행사 동안 애소신 강박실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창비의 고세현 사장, 돌베개 한철희 사장, 이견복 건설본부장, 그리고 유도열 단지 상무이사과 함께 예쁜 사무국의 요원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출판도시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인 만큼 모든 분들이 혼신을 다해 뛰었습니다. 이 행사의 주관을 맡았던 오픈키드의 김덕균 사장을 비롯한 진행요원들 역시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출판도시와 함께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던 파주시의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해 이찬희 파주시의회 의장님, 전태현 부시장님, 최익수 종무국장님 이하 파주시의 여러 부서 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또한 파주경찰서와 파주소방서, 파주시보건소, 파주시자원봉사센터 등 파주의 여러 단체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어린이를 담은 도시를 위하여

우리는 어린이의 진실됨과 순수함을 담은 도시를 이땅에 건설하고자 출판도시를 계획하였습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참된 도시공간, 건축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횡행하는 천박함과 오염됨을 씻어내고, 인간을 위한 인간의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 약속의 땅 파주에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조성된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다시금 미래를 짊어질 많은 어린이들이 이 도시를 보고 느끼고 배우면서 자라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로부터 배우는 도시' 그리고 다시금 '그 도시에서 배우고 자라는 어린이'를 희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와 '도시'라는 두 주제의 발전적 함수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꾸준히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발상에 뿌리를 두고, 그 구체적인 사업의 하나로 '어린이 책한마당'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 도시의 영원한 테마인 '책'을 통하여 어린이로 하여금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게 하고 지혜로운 힘을 주고자 했으며, 아울러 북시티가 건설되고 있는 현장의 초기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미래의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어린이와 그 동반자인 부모들이 함께 체험하도록 하는 데 뜻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어른과 함께 하는 '어린이의 도시읽기'인 셈이지요.

오늘의 어린이를 보면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내내 착잡했습니다. 어린이를 통해 밝은 우리의 미래를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시대의 어둠과

개막식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대신하여
오지환 문화관광부 차관을 비롯, 순창군 강기도지사,
어린이들을 대표하여 신희초등학교 무용단 어린이,
출판도시위원회장인 이준원 파주시장, 이기용 출판도시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2003 파주 어린이
책만들기, 책 읽기"를 열었다.



오염된 모습이 또한 어린이들을 통해 종종 발견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겠습니까만, 무질서하고, 거칠고, 예의없고, 그리고 인쇄없는 어린이들이 꽤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식은 말할 것 없고,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충동적인 행동, 그것을 그냥 방관만 하는 부모님들, 이런저런 풍경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인격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얼굴이지요.

이 도시에 왔으면, 이곳은 과연 어떤 땅인가, 출판도시란 무엇인가, 왜 이곳에 어린이들을 불러들였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던 안타까움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행사 때엔 어른과 더불어 어린이들의 '도시읽기'를 철저히 프로그램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성룡-서혜림 선생이 이끄는 '어린이 건축학교'는 이런 목표를 다소 충족시키면서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우리시대의 경쟁한 건축가 정기용, 조병수, 민현식, 김승희, 최문규, 김현, 민선주, 최욱, 김인철 등 여러분들이 함께 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좋은 건축체험을 갖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건축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건축체험을 하면서 출판도시 체험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린이 교육과 긴밀한 관련 아래 프로그램 진행해야

행사를 왜 하느냐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는 '행사를 위한 행사'는 단연코 지양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목적이 뚜렷치 않거나 기도했던 바와는 엉뚱하게 빗나가는 행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가까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해서 안 되지요. 더구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위험한 실험을 행해선 더욱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 행사를 한번 잘못 치용으로써 여러 면에서 어린이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래선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런 일이지요.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개성있게 성립시키되 그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적이고 오락적이며, 신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프로그램에는 차원높은 교육 내용이 깊숙이 개입돼야 합니다. 책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이어야 합니다. 책의 기획에서 제작-관리-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로 하여금 이 도시에 대해 알게 모르게 인문정신을 체득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은 예약에 의해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행사가 진행되기 바랍니다. 행사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미리 준비되고 연구된 가운데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행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람만 많이 동원되면 성공적이라는 진부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소수의 인원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알찬 행사를 치러내어 내용을 성공시킨 다음, 해를 거듭하면서 이를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저는 행사 내내 거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쓰레기 줍는 일이야말로 내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쓰레기는 누가 치웁니까. 청소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아니 예초부터 쓰레기를 버려선 안 되지요. 어른들은 어린이로 하여금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출판도시에는 참으로 소중한 갈대샐강이 길게 가로놓여 있습니다. 도로나 지표에 떨어지는 빗물들은 도로 표면이나 지표면에 묻어 있던 온갖 오염원들을 씻어서는 갈대샐강으로 흘러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큰 걱정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출판도시의 도로면과 지표면이 평소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곳에서 살며 활동하거나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공사 현장에서나 방문자들이 자동차를 세차하다가 우리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를 씻은 물이 곧바로 우수관을 통해 갈대샐강으로 흘러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은 비단 출판도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온 나라, 온 세상에 다 적용되는 일이겠지요. 인간의 도시, 인간을 위한 도시를 만든다면 우리는 도하나의 목적 잃은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마음으로 우리의 도시를 가꾸면서, 내년에 다시 열리게 될 두번째의 '어린이 책만들기' 행사를 준비합시다.

2003년 11월

출판도시 이사장 이기용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에 고품격 휴게공간 개점

Café

Infortheque

카페 인포테끄

파주출판도시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에 고품격 휴게공간 '카페 인포테끄'가 문을 열었다.

지난 10월 문을 연 인포테끄(대표 장기철)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설계자인 백제예술대 김병운 교수가 설계를 맡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축개념에 어울리는 독특한 인테리어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인포테끄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인포메이션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현관쪽에 개방된 주방을 설치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이용고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북카페 기능을 갖췄다.

카페 인포테끄는 '배려 있는 자유'를 간직하는 곳이다. 해질 무렵 저녁노을의 누를 쳐다보며 프랑스 시골풍의 포트커피와 1707년 이래 영국왕실 FORTNUM&MASON 홍차 한잔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 자유로움을 음미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전혀 소개되지 않은 NESPRESSO의 ESPRESSO도 신선함 그 자체이고 동양으로 눈을 돌려 여덟가지 귀한 약재로 만든 팔보처, 어린 장미 잎으로 만든 장미차, 국화차 그리고 자스민안에 천일홍을 넣어 차로 만든 '천일아화'가 이용객의 잔 앞에서 꽃을 피우면 카페 인포테끄는 살포시 헤그림자 뒤로 숨기 시작한다. 2~3만원대의 최고의 와인과 MIGO의 쿠키와 케익은 카페 인포테끄의 또 다른 배려이기도 하다. 한편, 인포테끄는 입주사 대표 및 임직원, 공사관계자, 방문객들의 만남의 장은 물론 연말을 맞아 임직원 파티, 단합대회, 회식 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예약전화 031-855-0099 담당매니저 정영섭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수 신 : 건설교통부 장관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이 시급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진입로 등 기반시설 완공에 대한 탄원서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우리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일대에 총 47만 4백평 규모로 건설되는 국내 유일의 국가문화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입주할 완공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출판 및 인쇄사 그리고 곧 입주를 앞둔 출판관련 회사들입니다. 우리 입주사들은 지난 1998년 11월 착공한 26만여평의 파주출판단지 1단계 사업지구에 입주한 중소기업에서 1단계 사업지구가 2003년 7월 현재 도로,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단지 내 기반시설공사가 상당한 공진으로 거의 완공되었다고는 하나, 전기, 가스 등은 임시 인입시설이며, 그나마 국가산업단지의 편만인 진입로를 비롯, 필수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처리시설 등이 한국토지공사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해 개설되지 못함으로써 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파주출판단지에는 우리 입주사들뿐 아니라 30개 회사가 사옥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40여개 입주사가 건축 작품을 준비중에 있는 등 사옥 건축 및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진입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3. 우리 입주사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문보받은 바대로 파주출판단지 1단계 사업지구의 모든 기반시설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다는 한국토지공사의 기반시설 완공계획에 맞춰 공장 및 사옥건축을 진행하였으며, 건축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장을 출판단지로 이전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토지공사에서 파주(제5631-2469(2001. 9. 4)호 공문을 통해 파주출판단지조항으로 통보한 기반시설 공급일정에도 동속전임으로 분명 2002년 12월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속전임으로 개설공사가 2002년 12월 2일 착공하여 2003년 9월 30일에 완공되며, 남측진입로는 2002년 11월 21일부터 2003년 11월 20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일정이 대폭적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처럼 일정이 계속적으로 늦어짐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일개 된 피해와 고충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와 직접 연결되어 출판단지 주 진입로가 된 남측진입로 개설공사가 또 다시 연기되어 2004년 5월 31일이나 완공된다는 사실을 절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 이처럼 한국토지공사의 공사지연으로 우리 입주사들은 직면 출퇴근 시간 지연

은 물론이고, 생산활동과 직결되어 시급을 요하는 원자재 수급 및 완성품의 납품 등 거래처와의 물류유통 지연으로 회사신용도가 실추되고 있으며, 또한 발주사 및 거래처 관계자가 회사 진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경쟁업체로 거래처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 회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단지 내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입주를 완료하여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쓰레기처리장의 설치에 물론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5. 이렇듯 입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 완공이 계속적으로 늦어진다면 출판문화산업 중흥을 통한 지식기반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수행을 위해 조성되고 있는 파주출판단지내 입주한 업체들의 산업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치가 가지 않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기반시설공사 완공일정을 밝힌 대로 최대한 일정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부족을 일일이 지연된다면 입주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며 후에도 오히려 무책임하게 공사기간이 지연되도록 방치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에 행·재정적 각종 지원은 못해준만큼 산업활동의 기본인 산속한 물류유통에 있어 필수적인 진입로 개설이 늦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6. 이에 우리 입주사들은 귀 부에 파주출판단지 개발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을 최대한 앞당기고,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등도 시급히 해결토록 적극적인 협정지도를 내려주시길 것을 탄원 드립니다. 부디 이처럼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의례적으로 학급 급등기 관에 이첩해버리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책임감 있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 7. 2.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30블럭3	기한재	대표 김 형 권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42블럭15	대신문학	대표 권 한 대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17블럭11	(주)도봉금강	대표 홍 현 세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36블럭2	동그리미교육	대표 형 인 숙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11블럭1	(주)보전지	대표 김 정 선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25블럭4	(주)서울지류유동	대표 홍 성 일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1블럭4	신일문화	대표 이 기 래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1블럭6	(주)에스피티	대표 조 한 석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25블럭3	지지아이	대표 장 용 환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42블럭3	(주)창작퍼비평사	대표 고 세 현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7블럭1	(주)태형알고랜드	대표 이 길 원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17블럭7	(주)한길사	대표 김 언 호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17블럭4	(주)확성프린터	대표 허 강 우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3블럭1	(주)희망	대표 서 석 호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41블럭1	(주)만음사	대표 박 명 호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37블럭5	동북	대표 이 건 복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22블럭4	양서원	대표 박 철 용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30블럭4	동명사	대표 최 주 구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22블럭2	자유아카데미	대표 주 정 희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42블럭4	(주)신원애이전시	대표 김 순 용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42블럭14	(주)미아	대표 김 동 주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25블럭2	국제전산교구	대표 장 주 영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4 김기호,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8블럭1호
전화 031-955-0001 팩시밀리 031-955-0004 pscu@nntel.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3 - 27호

2003. 2. 14.

수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조 : 문화산업국장

제목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1.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을 선도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 부의 성원과 협조가 깊이 감사 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중 2003년도 국고 예산으로 책정된 국고보조금을 불입의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고 교부신청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①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이 시급합니다」

②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신 청 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9동역-1				
	기 관 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전화번호	031)935-0001		
	대표자명	이 기 용				
교부신청금액	임금 육십억원정(W6,000,000,000)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국고보조금	지원비	기 금	자부담	기타
	17,186,000	8,500,000			8,686,000	
사 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의 목적 : 출판·문화·예술에 관한 정보·전시공간 제공 및 연구와 교육기능 등을 수행하는 복합문화산업시설을 건립하여 단지 활성화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02. 1 ~ 2003. 9. ○ 사업내용 : 출판문화전시·정보지원센터 등(Phase 1) 2,066평 교육연수센터 및 사무국 등(Phase 2) 1,770평 					
<p>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2003 년 2 월 14 일</p> <p>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p>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21세기 지식경쟁 편차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에 출판·문화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전시·집회, 국제도서·문화교류, 출판문화인쇄관련 연구와 교육기능 등을 수행하는 출판문화산업시설을 건립·운영하여 책문화 보급 및 창달을 통한 지식산업 기반의 활성화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키 위함임.
 - 필요성 : 출판관련 산업은 문화산업으로서 21세기 지식강국을 지향하는 국가적 과업 편수차원에서 출판문화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은 필수적임. 동 센터는 출판문화산업 동흥을 선도하는 구심체로서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임.
3. 사업 개요
 - 기 간 : 2001. 1 ~ 2003. 9.
 - 장 소 :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일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 부지면적 : 5,423평
 - 건축규모 : 3,836평
- 출판문화전시·정보지원센터 등(Phase 1) 2,066평
- 교육연수센터 및 사무국 등(Phase 2) 1,770평
 - 건축비규모 : 17,186,000,000원
4. 월별자금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	2001 년까지	2002년	2003년									2003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1	2	3	4	5	6	7	8	9	
건축비	15,344	1,088	5,800	-	1,673	1,938	981	981	981	625	626	631	8,456
부대시설비	1,842	295	732	5	103	103	103	103	103	103	103	89	815
계	17,186	1,383	6,532	5	1,776	2,061	1,084	1,084	1,084	728	729	720	9,271
국고	8,500	-	2,499	-	1,776	2,061	1,013	1,013	137	-	-	-	6,000
민자	8,686	1,383	4,033	5	-	-	71	71	947	728	729	720	3,271

5. 일정별 사업 추진 계획

- 1998. 11. 24.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 예입
- 2000. 5. 2.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 설계 공모
- 2000. 11. 11. 현상 설계 최종 당선작 확정
- 2000. 12. 30. 기본·실시 설계 용역 계약 체결(경쟁은 교수·시명중합건축사소)
- 2001. 5. 28.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축공사 발주
- 2001. 6. 15. phase2(교육연수센터 및 사무국) 건축공사 착공
- 2002. 7. Phase 1 (출판문화 전시·정보지원센터) 토공사 착공
- 2002. 11. Phase 1 (출판문화 전시·정보지원센터) 건축공사 계약 및 착공
- 2002. 12. 31. phase2 건축공사 완공
- 2003. 9. Phase 1 (출판문화 전시·정보지원센터) 완공예정

6.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 경비부담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 부담 금액 : 8,686,000,000원
- 부담 방법 : 민자유치(임주사 공동부담 및 회사금)

7.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액의 처리 방법

- 국고보조금 전액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축비로 투입할 예정으로 예상수익금 없음.

8.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금 액	산 출 기 초	자 금 별				
			국비	지원비	기금	자부담	기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17,18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비 - phase1(출판문화전시·정보지원센터) 2,066×4,000=8,264,000 - phase2(교육연수센터) 1,770×4,000=7,080,000 ○ 시설부대비 15,344,000×12% = 1,842,000 계 17,185,000 	8,500,000			8,686,000	

9. 기대 효과

- "새로운 세기의 '책의 문화', '지식산업 기반'의 확산"으로 출판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 이행
- 1)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책의 문화가 함축하고 있는 출판, 문화, 예술, 학술정보, 인쇄업력의 확산 무대가 될 것임. '책의 문화'는 곧 교육·전통 계승·과학기술 진흥·정보문화·문화산업의 근간이라는 현재산업에서 이를 영역의 제제적인 진흥을 위한 공간을 창출.
 - 2) 국제 수준의 전문지식, 명상을 전시·판매·교육 및 동북아를 대표하는 북센터로서의 학술·문화·예술 분야 정보지원센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식산업의 견인기 지 구축.
 - 3) 공연, 전시, 기획이달 제공으로 민족의 주체성 확립 ⇒ 한국 민족문화의 세계화 ⇒ 지식산업 현상의 관광자원화(관광·문화특구 추진)로 새로운 형태의 관광산업 활성화
 - 4)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과 상업동 협조협정결정·행주산업·불일동산·해이리 아파트·입진자를 잇는 '자유로 문화벨트'의 중심기거로서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의 명소가
 - 5) 저미적 공간상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공산권간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됨.

10. 보조사업자 개요

- 법인종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인 및 부채 내역
- 법인 정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층동지1호
전화 031)955-0001 팩시밀리 031)955-0054 e-mail: pajuacc@pajuacc.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3-28호

2003. 2. 14.

수신: 파주시청

참조: 도시과장

제목: 파주출판도시 가로등 인수인계 업무 조속 추진 협조 요청

1.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적개발자 구전에 매진하시는 귀 시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귀사에서 공문 도시 1366-3178호(2002. 12. 13.)를 통해 파주출판단지 내 가로등 작동 조치 계획을 통보한 바에 따르면 2002년 12월 20일경 시공을 실시하고 금년 1월 중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3월 중 시공을 인수인계하여 진구간을 견정할 계획임을 밝히 바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귀사에 이미 안전점검이 완료되어 시범 점등되고 있는 가로등 시설을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통해 관가로 인수하시어, 귀사의 책임하에 출판단지 내 전체 가로등이 정동,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동 건에 대한 귀사의 신속하고도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며 이를 통해 출판단지 입주사들의 애로사항인 단지 전체 야간 보안, 경비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24-3
전화 031)955-0001 팩시밀리 031)955-0054 e-mail: pajuacc@pajuacc.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3-77호

2003. 4. 15.

수신: 파주시청

참조: 건설국장

제목: 출판도시 주거시설 개발에 대한 업무 협조의 건

파주출판도시 건설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 시장님이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파주출판도시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출판, 인쇄, 출판유통에 종사하는 출판관련인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이업종(興業種)간의 협동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출판단지가 조성 목적에 맞게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출판도시가 별첨상부한 국가산업단지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입주사 종사원들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경제활동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출판단지 주거시설 건축 목적은 입주사 종사원들을 위한 지원시설로서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과 긴밀한 협의하에 입주사 종사원들의 주거생활을 위한 복지시설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주거시설 개발사업이 당초 실시계획에 따라 주거시설의 목적에 맞게 평형 및 세대수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공동주거시설로 건설하여 출판단지 종사원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분양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사안인 주거시설 개발을 위해 파주시에서는 심의를 소홀히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가산업단지내의 주거시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시에서는 공동주거시설이 차별화된 출판단지만의 건축설계심의를 받아 목적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업체와 우리조합이 긴밀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24-3
전화 031)955-0001 팩시밀리 031)955-0054 e-mail: pajuacc@pajuacc.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 2003-81호

2003. 4. 18.

수신: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파주사업담당

참조: 고재지원부장/개발부장

제목: 파주출판단지 지구계인접 필지관련 사항

1. 파주출판단지의 조성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는 귀 사업단에 감사드립니다.

2. 파주출판단지 내의 마야사육부지(42분획14및15)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귀 공사 파주시업단 공문 파주(개)616-4950(2003.4.10)로 회신하신 내용은 지회 조합이나 조합원사인 (주)마야무역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3. 마야사육부지의 경우, 귀 공시는 개발 착수 전 또는 토지분양계약 전에 조합이나 (주)마야무역에게 최종 토지높이가 주변 토지보다 2m이상의 단차이가 있어 변형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주지시키지 않았으며, 이 사실은 사육사육공사 착수를 위해 경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폭이사항을 통보받지 못해서 대비할 수 없었으며, 이주제해과 밀집한 사육사육공사 특성상 공사의 선 진행은 불가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귀 공사의 조합이 파주출판단지 토지매입을 일괄 계약했지만 사실상 귀 공사는 각 개별필지의 최종 입주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조합에서 최종 토지소유자인 입주자에게 각 필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필지특성을 고려하였어야 했다는 귀 공사 실무진의 주장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마야부지의 경우는 다른 필지에 비해 불리하여 가동토지면적의 감소라는 명백한 조건임을 고려하면 해당 입주사의 불이익을 귀 공사에서 조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조합의 강력한 의견입니다.

5. 아울러 마야사육부지 및 대신문화사육부지 등의 경우 주변 필지 또는 지구계 밖의 인접필지가 상당히 높고 토사로 형성된 면적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우천시 해당 지역의 우수가 당해 필지로 유입될 경우 불필요한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귀 공사는 구체적인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24-3
전화 031)955-0001 팩시밀리 031)955-0054 e-mail: pajuacc@pajuacc.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3-83호

2003. 4. 22.

수신: 파주시청

참조: 건설국장(도시과장)

제목: 파주출판도시 기반시설 준공 전 예비합동점검 요청

파주출판도시의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귀 시에 감사드립니다.

도시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다다른 지금 준공 준공과 관련하여 귀 시에 사전 합동점검을 공문 출판단지조합 제2003-47호(2003.3.8.)로 요청한 바 있고, 2003년 4월 1일 시장 현장방문 시 구두 및 서류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기반시설의 공사가 대규모 공사이므로 최종 준공시점임을 고려해서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철부와 같은 '단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준공준보사항'을 제안하오니 참고하시어 기반시설 준공 및 인수 전에 우리조합과 함께 예비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단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준공준보사항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③ - 파주출판도시 가로등 인수인계 업무 조속 추진 협조 요청
- ④ - 출판도시 주거시설 개발에 대한 업무 협조의 건
- ⑤ - 파주출판단지 지구계인접 필지관련 사항
- ⑥ - 파주출판도시 기반시설 준공 전 예비합동점검 요청

〈 단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준공검토사항 〉

- 가로등 관련사항
 - ① 가로등주 수직상태 점검
 - ② 내부성장 재료 부착된 이물질 제거(가로등주 균일한 녹발생 유도)
 - ③ 개폐기 및 연결기 부자 광고제거
- 유지관리 관련사항
 - ① 각필지의 쓰레기 처리 확인(필지에 적지된 쓰레기 처리 완료해야 함)
 - ②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 사용자 명단 및 감독주제 확인(방치된 제콘테이너 및 무단 점유한 콘테이너 처리제척 및 처리필요)
 - ③ 진입로 및 외곽도로 연결부(비포장구간 및 청소가 미흡한 도로로부터의 오염) 우천시 차랑통행으로 인한 오염대처
 - ④ 도로청소 방법 및 유지관리 계획(차랑통행으로 인한 우수관 내부로 유입된 흙먼지 처리대책 및 피적토사 손질 대책)
- 도로 관련사항
 - ① 차선도색 및 자선선형 적정성검토
 - ② 도로 침하 검토(아스팔트 및 투수콘크리트 경계석 이격발생/부분 함몰)
 - ③ 경계석 및 보도 시공 상태 점검 및 파손현황 파악 및 복구주제(재입한계) 확인
 - ④ 장애인용 점자블록 조립한 제품 사용
 - ⑤ 신호체계 점검
- 수로 관련사항
 - ① 수로부품 손실 및 쓰레기 청소
 - ② 수로 하상 정리(자연식생물 보호하며 하도 공사로 인해 유입된 적층토사 처리필요)
 - ③ 수로에 인입되는 오세수 처리대책(수로오염, 강안대대 및 초소)
 - ④ 수로 범면침하 및 우수로 인한 침식
- 교량 관련사항
 - ① 교량난간 내부성장 고정용 나사못 조임 상태
 - ② 교량명판 부착
 - ③ 내부성장 재료 부착된 이물질 제거(교량 난간 균일한 녹발생 유도)

- 녹지 관련사항
 - ① 가로수 식재 상태 및 수종 점검
 - ② 녹지 식재상태 점검
- 기타사항
 - ① 중계처리장 외관변경 및 담장 디자인 변경조정
 - ② 필지의 토사량 파부측 확인
 - ③ 마야 필지 외곽 지구제 단 차이 대책요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2-8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2
전화031-955-0001 팩시밀리031-955-1004 E-mail: paucoc@paucoc.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3-98호 2003. 4. 28.
수 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 조 : 문화산업국장
제 목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1.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을 선도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 부에 깊이 감사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중 2003년도 국고 예산으로 책정된 국고보조금을 붙임의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고자 교부신청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식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신 청 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8블록-1				
	가 관 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전화번호	031)955-0001		
	대표자명	이 기 용				
교부신청금액	일금 육십억원정(W6,000,000,000)					
총 사 액 비 (단위 : 천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기 금	자부담	기타
	17,186,000	8,500,000			8,686,000	
사 업 개 요	○ 보조사업의 목적 : 출판·문화·예술에 관한 정보·전시공간 제공 및 연구·교육기능 등을 수행하는 복합문화산업시설을 건립하여 단지 활성화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02. 1. ~ 2003. 9. ○ 사업내용 : 출판문화전시·정보지원동 2,066평 교육연수 및 사무동 1,770평					
	보조금의예산관리여권한법을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3년 4월 28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21세기 지식경제 변화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에 출판·문화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전시·집회, 국제도서·문화교류, 출판문화인쇄관련 연구와 교육 기능 등을 수행하는 출판문화산업시설을 건립·운영하여 책문화 보급 및 창달을 통한 지식산업 기반의 활성화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키 위함임.
- 필요성 : 출판관련 산업은 문화산업으로서 21세기 지식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적 과업 완수차원에서 출판문화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은 필수적임. 동 센터는 출판문화산업 중흥을 선도하는 구심체로서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임.

3. 사업 개요

- 기 간 : 2001. 1. ~ 2003. 9.
- 장 소 :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일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 부지면적 : 5,423평
- 건축규모 : 3,836평
 - 출판문화전시·정보지원동 2,066평
 - 교육연수 및 사무동 1,770평
- 건축비규모 : 17,186,000,000원(당초계획)

4. 월별자금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계획 금액	실정투자액	투자실적	2003년 계획									
				2001년		2002년							
				1	2	3	4	5	6	7	8	9	계
건축비	15,344	15,389	1,088	4,903	11	1,673	1,958	1,277	1,276	1,276	670	626	631
부대시설비	1,842	1,842	320	230	5	86	119	119	119	119	248	258	219
계	17,186	17,231	1,408	5,133	16	1,759	2,077	1,396	1,395	1,395	918	884	850
국고	8,500	8,499	-	2,499	-	966	1,582	1,151	1,151	1,150	-	-	-
민자	8,686	8,732	1,408	2,634	16	793	495	245	244	245	918	884	850

8. 산출내역

1) 전체 내역(당초)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금 액	산 출 기 초	자 금 별				
			국비	지방비	기금	자부담	기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17,186,000	○ 건축비 - 출판문화전시·정보지원동 2,066×4,000=8,264,000 - 교육연수동 1,770×4,000=7,080,000 ○ 시설부대비 15,344,000×12% = 1,842,000 계 17,186,000	8,500,000			8,686,000	

2) 공사부분별 산출내역(실정 투자 및 예정금액)

(단위 : 원)

구분	부문	시공회사	금 액	비 고
출판문화전시·정보지원동	건축공사 완료		6,888,900,400	2002. 12. 완공
	건축기초공사	장학건설	789,000,000	
	건축공사	장학건설	6,130,000,000	
	통신설비공사	KT	2,692,140,000	
	보안경비설비공사	에스원	57,150,000	
	음향설비공사	미정	350,000,000	
	시설부대비	시명건축, 성안, 한일메이커	324,775,000	
	소계		10,343,065,000	
합 계			17,231,965,400	

5. 일정별 사업 추진 계획

- 1998. 11. 24.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 매입
- 2000. 5. 2.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 설계 공모
- 2000. 11. 11. 현상 설계 최종 당선작 확정
- 2000. 12. 30. 기본·실시 설계 용역 계약 체결(김병문 교수·시명종합건축사사무소)
- 2001. 5. 28.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축공사 발주
- 2001. 6. 15. 교육연수 및 사무동 건축공사 착공
- 2002. 7. 출판문화전시·정보지원동 기초공사 착공
- 2002. 11. 출판문화전시·정보지원동 건축공사 계약 및 착공
- 2002. 12. 31. 교육연수 및 사무동 건축공사 완공(절정사진 붙임)
- 2002. 12. 출판문화전시·정보지원동 기초공사 완료 및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시작
- 2003. 3. 조경공사 및 미장공사
- 2003. 4. 방수공사
- 2003. 5. 창호/유리공사
- 2003. 6. 급수공사(내후상강 및 잠정물)
- 2003. 7. 도장공사 및 수장공사
- 2003. 8. 지붕공사 및 옥외부대공사, 사운전
- 2003. 9. 출판문화전시·정보지원동 완공예정

6.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 경비부담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임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 부담 금액 : 8,686,000,000원
- 부담 방법 : 민자유치(임차사 공동부담 및 회사금)

7.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액의 처리 방법

- 국고보조금 전액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축비로 투입할 예정으로 예상수익금 없음.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교육연수동) 전경



9. 기대 효과

"새로운 세기의 '책의 문화', '지식산업 기반'의 확충"으로 출판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 이행

- 1)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책의 문화가 함축하고 있는 출판, 문화, 예술, 학술정보, 인쇄영역의 확산 무대가 될 것임, '책의 문화'는 곧 교육·전통 계승·과학기술 진흥·정보문화·문화산업의 근간이라는 인식상에서 이들 영역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공간을 창출.
- 2) 국제 수준의 전문서적, 영상물 전시·판매·교육 및 동족아를 대표하는 북센터로서의 학술·문화·예술 분야 정보지원센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식산업의 전진기지 구축.
- 3) 공연, 전시, 기획마당 제공으로 민족의 주체성 확립 ⇒ 한국 민족문화의 세계화 ⇒ 지식산업 환경의 관광자원화(관광·문화복구 추진)로 새로운 형태의 관광산업 활성화
- 4)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과 삼남동 월드워킹가장 - 맹주상설 - 통일동산 - 데이리 아트벨리 - 임진각을 잇는 '자유로 문화벨트'의 중심기지로써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의 명소가
- 5) 저러려 공간상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공산권간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됨.

10. 보조사업자 개요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산 및 부채 내역
- 법인 정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4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관암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031-950-0001 팩스031-950-0004 E-mail: pajuco@paju.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3-113호
수신: 문화관광부 장관
참조: 출판진흥과장
제목: 파주출판도시 내 공공시설용지 공급 관련 협조 요청

2003. 5. 17.

1. 파주출판도시 건설에 보내주시는 귀 부의 성원과 협조를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단계 산업용지 중 지난 1998. 8. 31. 시범지구 부지와 1999. 6. 30. 2차지구 부지를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의거 현재까지 부지할부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입주사 사후건축도 활발하게 진행시킴으로써 출판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어 지식기반산업 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파주(가)6631-1089(2002. 4. 16.)호를 통해 파주출판도시의 공공지원시설인 전회국, 파출소, 변전소 시설부지가 해당기관의 미수표기로 우리 조합에 소요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단지조합 제2002-90(2002. 4. 23.)호로 실수요자로부터 매수 포기나 확정된 전산전환국, 파출소, 변전소 부지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연후에 미수한 계획임을 회신하였으며, 제2 출판단지조합 제2002-167호를 통해 동 공공시설용지 매수 취사를 확실히 밝히고 동 공공시설용지를 우리 조합으로 분양해 준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여 불합과 같이 다시 공문을 보내 바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파주출판도시 관리권자인 귀 부에 이미 공공시설 관계기관에서 매수할 포기한 전회국, 파출소, 변전소 부지가 우리 조합에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에게 공문을 통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출소 부지는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사용승낙에 따라 이미 공사현장관리사무실 및 공사현장을 식당 건물로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전회국부지는 토지 형태상 인접필지와 병행해서 건축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지하시어 출판단지 전체가 "공동성 실현"이라는 입관된 방침에 의해 조성되어 출판문화발전을 통한 지식기반산업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파주출판도시 내 공공시설용지 공급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4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관암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031-950-0001 팩스031-950-0004 E-mail: pajuco@paju.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3-202호
수신: 문화관광부 장관
참조: 출판진흥과장
제목: 2003년도 국고보조금 교부확정액 중 미교부금 조속 집행 요청

2003. 9. 8.

1.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귀 부에 출판단지조합 제2003-98호(2003. 4. 28.) 공문을 통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 중 2003년도 국고 예산으로 책정된 국고보조금 60억원에 대한 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난 5월 15일 그 중 30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3. 현재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축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에 따라 나머지 국고 보조금 30억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교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오니, 선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4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관암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031-950-0001 팩스031-950-0004 E-mail: pajuco@paju.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3-222호
수신: 토지공사 서울지사장
참조: 교계지원부장
제목: 할부이자 부리 및 사용대차계약 해지통보에 대한 회신

2003. 9. 30.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공사의 공문 서울(교)5511-13970호(2003.9.22.), 서울(교)5511-13823호(2003.9.17.)와 관련 우리 조합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신중히 검토하신 후 일부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할부이자 부리 안내에 대한 사항

1. 귀 공사와 우리조합간에 체결된 계약서상에는 조성공사 준공일을 기준으로 할부이자를 부리기로 되어 있으나 귀 공사에서 통보한 조성공사 준공일인 2003년 9월 30일에 대해 우리 조합에서는 전일로 및 쓰레기 처리시설 미설치 등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현재 입주자는 물론 건설회사 공사현장 등에서는 전일도로가 완공되지 않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성공사가 완공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리고 조성공사가 완공되었다고 할 경우에도 먼저 입주사별 정확한 면적, 정확한 조성비가 등을 제시한 후 할부이자 부리여부가 검토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2. 사용대차계약 해지통보에 대한 사항

1. 귀 공사와 우리조합간에 사용대차 계약한 17-10블럭의 용지는 출판단지의 친환경적인 개발차원에서 오수 및 쓰레기의 무단방출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각 공사장별 현장식당 개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사 및 건설회사 임직원들의 양질의 식사 제공을 위한 단지 전체공동식당으로 사용중에 있어, 여러 차례 공문과 실무자협의를 통해 우리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분량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때 귀 공사에서 시설물의 철거 등 토지의 원상회복 요청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 드리며, 반드시 우리 조합에 분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8 - 파주출판도시 내 공공시설용지 공급 관련 협조 요청
- 9 - 2003년도 국고보조금 교부확정액 중 미교부금 조속 집행 요청
- 10 - 할부이자 부리 및 사용대차계약 해지통보에 대한 회신

2) 아울러 전화국부지는 토지 형태상 인접필지와 병행해서 건축이 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우리 조합에서 분양 받아야 하며, 민전소 부지도 일관된 방침에 따라 개발될 수 있도록 조합에 분양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귀 공사에서는 출판단지 전체 입주 사원의 합의를 강요해야 할은 물론이고, 향후 어떠한 중대사태가 발생 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귀 공사의 책임임을 분명히 열려 드립니다. 부디 동 전의 중차대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2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신원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 031-950-0001 팩스 031-950-0004 E-mail: pajucoop@pajustel.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3-237호
수 신 : 경기도지사
장 조 : 문화체육관광
제 목 : 법인 설립 신청 철회의 건

2003. 10. 23.

1. 귀 도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 지난 10월 1일자로 귀 도에 접수한(접수번호 2003-4284호)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 설립 신청과 관련, 설립 신청절차 조정 및 신청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 신청서류도 반환하여 주실 것으로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2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신원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 031-950-0001 팩스 031-950-0004 E-mail: pajucoop@pajustel.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3-242호

2003. 10. 28.

수 신 : 문화관광부 장관
장 조 : 출판산업과장
제 목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수행 상황보고서 제출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리며, 출신86610-2624호(2003. 10. 23.) 관련입니다.

2.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 서식에 따라 2003년도 3/4분기까지의 사업수행 상황보고서를 붙임의 세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사업계약 내용 1부.
2) 사업추진 실적 1부.
3) 사업 저출제 및 저출현황 1부.
4) 인자 확보내역 및 조달계획 1부.
5) 관련 세부 증빙서류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식 2】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추진 상황 보고서

(문서분류기호)

2003. 9. 30.

수신 : 문화관광부장관
발신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2002년도 (3/4)분기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3년도 (3/4)분기 실적				차기 계획		비 고	
현수건 내 용	당해분기 수진계획 (%)	당해분기 계획대비 (%)	전체대비 (%)	다음분기 계획 (%)	전체 대비 (%)		
국 회 연 수 중	건축공사 A/V시스템 보안경비설비 교통의자 안내사인물자 물스캔인물자 휴게시설물자	기공시연료 기공시연료 기공시연료 기공시연료 기공시연료 기공시연료 기공시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2. 12. 31. 2002. 12. 31. 2002. 12. 31. 2002. 12. 31. 2003. 5. 30. 2003. 5. 31. 2003. 10. 3.
	건축공사(토목)	-	-	85	15	100	2003.12.31
	건축공사	25	20	70	30	100	2003.12.31
	보안경비설비(배급)	25	20	70	30	100	2003.12.31
	조경공사	-	-	-	-	-	2003.12.31
	A/V시스템 인물물보통 공사	연속내용 결로	연속시강도 결로	계개해결 및 공사시행			2003.12.31
	창조호수,실외기여전, 중용공사 보안설비공사						2003.12.31 2003.12.31

첨부 : 1. 현황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내역서 1부.
3. 사업부진지 사유 및 다음 분기 대책 1부.

11 - 법인 설립 신청 철회의 건

12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수행 상황보고서 제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04-3
전화 031-959-0921 팩스 031-959-0204 E-mail: pajucoop@pajuco.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3-267호

2003. 12. 11.

수신: 문화관광부 장관

참조: 출판신문국장

제목: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우리나라 출판관련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그 육성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출판물 비문해 지식, 정보산업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파주출판도시에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동 법인은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를 선도할 파주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 실현 및 도시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국제적 수준의 복합문화연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신 후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04-3
전화 031-959-0921 팩스 031-959-0204 E-mail: pajucoop@pajuco.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 2003-268호

2003. 11. 25.

수신: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단장

참조: 개발부상/파주출판단지 조성공사 조경 소장

제목: 갈대셋강 안내판 설치보류에 관한 건

파주출판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귀 사업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 사업단 공문 파주(개)6114-15438(2003.10.20)와 관련한 주가 사정입니다. 종합안내판, 학습안내판, 수목명패 등의 설치물 통하여 효과적인 홍보 및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좋으나, 단지 내에 독재 있는 건축물이 조성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위 여건이 상충되어지는 시점에서 가로의 특색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주위에 디자인하여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 사업단에서는 상기 시설물이 저급시점에서 설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04-3
전화 031-959-0921 팩스 031-959-0204 E-mail: pajucoop@pajuco.co.kr

출판단지조합: 제2003-268호

2003. 12. 15.

수신: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참조: 고령지원부장

제목: 면적정산결과 및 가격정산예정에 대한 조합 입장 통보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귀 공사의 공문 (서울(교)5511-18598호, 2003. 12. 5.)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요청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귀 공사와 개발계약을 체결할 실무자로부터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아 래 -

가. 선납금인 적용근거 자료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산업용지(1-1, 100-1-2)의 선납에 따른 선납할인금액 약 11억원에 대한 기간별 적용 선납할인율 및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조성원가 산출근거 자료

지난 '98년 8월 31일 계약체결한 1-1의 공급계약 금액은 해당 697,594원이었고, '99년 6월 30일 계약체결한 100-1-2의 공급계약 금액은 해당 615,325원이었습니다. 귀공사의 공문에 의하면 사업준공 후 가격정산시 확정조성원가가 782,000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는 평균단가에서 약 175,540원이 증액되는 금액으로 이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공급계약서 제 10조 제3항에 의거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할 경우 공인기관에 감사 등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입니다. 물론 사업준공 후 투입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하겠지만 총사업비액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타당한 토지금액이어야 하므로 이의 산출은 엄격하고도 객관적으로 실효적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조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04-3
전화 031-959-0921 팩스 031-959-0204 E-mail: pajucoop@pajuco.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3-307호

2003. 12. 19.

수신: 문화관광부 장관

참조: 출판신문국장

제목: 파주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회신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출판86610-2987호(2003. 12. 3.)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부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관련 서류 검토 요청에 대해 우리 조합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내용상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해와 같은 내용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오니,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출판단지 전체가 「공동성 실현」이라는 일관된 방침에 의해 조성되어 출판문화발전을 통한 지식기반산업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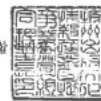
- 아 래 -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단계 개발 부지 전체를 1단계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우리 조합이 일관성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당초 지원용지였던 전화국 부지 2,090㎡와 변전소 부지 1,478㎡, 우체국 부지 840㎡는 우리 조합에서 공동성 실현을 통한 출판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일관된 방침에 따라 개발해야 하므로, 산업용지로서의 변경 승인시 우리 조합에서 분담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먼저 부지를 분양받은 조합원들 중, 지분받은 부지면적이 부족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화국 부지같은 경우, 형태 등으로 보아 인접희망인 와이비앤시사영에서 매입해야 할 형편임.

· 특히 우체국 부지 840㎡는 우리 조합에서 매입해야만 하는 특수한 여건에 처해 있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13 -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 14 - 갈대셋강 안내판 설치보류에 관한 건
- 15 - 면적정산결과 및 가격정산예정에 대한 조합 입장 통보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16 - 파주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회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521 송탄 파주시 교하동 10-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094-3
02030166-001 팩스0203088-004 E-mail: paju@pajubookcity.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3-308호

2003. 12. 18

수신: 문화관광부 장관

참조: 출판신문과장

제목: 2003년도 출판진흥유공단체 표창 대상자 추천서류 제출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리며, 출신 86610-3126호(2003. 12. 17.) 받들어합니다.

2. 귀 부의 2003년도 출판진흥유공단체 표창제도에 따라 우리 조합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을 선도할 출판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13년동안 헌신적으로 기여한 일원이 있어, 불임의 공적제 및 공적조서를 통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공적제 및 공적조서 각 1부. 끝.

공 적 제 요

순번	소속	직급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수용기간)	공 적 제 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사무이사	유도열(柳道烈)	1991.2.~ 현재 (13년)	우리나라 발전의 핵심인 '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기지'가 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13년동안 헌신함. - 이를 통해 21세기 국제화시대의 주체적 문화대중 능력 배양에 기여함. - 특히 파주출판단지를 국민문화교육의 현장으로서 통일한국 시대의 문화중심지로의 계단을 적극 유도하고, 첨단정보·영상산업의 고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선도함. -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전시가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문화 관광영소'로 개발에 앞장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공 적 조 서

(1)성명	유도열 (한자) 柳道烈										
(2)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4	3	0	7	2	6	-	(3)군번(주민의 경우)			
(4)본적	미 기 제										
(5)주소 (전화번호)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255 삼익신경아파트 2동 704호										
(6)직업	(7)소속										
회사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8)직위	(9)등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용기간)					
사무이사					13년						
(11)공적요지(50자 내외)											
- 우리나라 발전의 핵심인 '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기지'가 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13년동안 헌신함. - 이를 통해 21세기 국제화시대의 주체적 문화대중 능력 배양에 기여함. - 특히 파주출판단지를 국민문화교육의 현장으로서 통일한국 시대의 문화중심지로의 계단을 적극 유도하고, 첨단정보·영상산업의 고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선도함. -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전시가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문화 관광영소'로 개발에 앞장섬.											
(13)추천유공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속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16)직위	이사장				
(17)직급						(18)성명	이기용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3년 12월 18일 추천권 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성명 이기용											



주요 학력 및 경력			
(19)년월일	(20)이력	(21)년월일	(22)이력
1965. 2. 10	현양대 건축공학과 졸업(공학사)	1985. 8. 30.	연세대 산업대학 건축공학과 졸업(공학석사)
1967. 4. 23.	육군소위임명	1967. 8. 16.	강원도 교육위원회 시설과과장
1975. 12. 2	문화부 교육시설국(건축과)	1984. 3. 28.	전북대 시설과(건축과)
1987. 8. 1.	(주)광명종합시스템(대표이사)	1991.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사무이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 기록)			
(23)년월일	(24)내용	(25)년월일	(26)내용
1979. 4. 7.	공로표창(문화부장관)		
1981. 12. 1.	근정포장(대통령)		
(27)공적사항			
수상 후보자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유도열 사무이사는 국가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용에 익힌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문화와 산업, 꿈과 예술이 흐르는 위대한 책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13년을 몸부림쳐 헌신해왔다. 그는 오직 출판 육성의 건설을 위해 지난 13년 동안 출판, 인쇄, 출판유통 관련 산업인들과 출판관련 기업(吳業體)간의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로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조합의 경영자로서, 파주출판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일로 매진해왔다. 수상후보자의 열정을 바친 파주출판도시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에 전설유원지 48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서, 21세기 고도화 정보와 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 등 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출판문화산업을 집적화를 통해 지식기반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해 출판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전시가 이루어질 파주출판도시의 핵심복합문화연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유도열 사무이사가 있다. 유도열 수상후보자는 1991년부터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출판도시의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1997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를 받는 업적을 일구어 왔다. 이어 출판도시 조성에 대한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1998. 11. 당시 국무총리와 정관계 인사들 비롯, 언론계, 출판관련 산업인, 건축계, 일반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공사 기공식을 성대히 개최하였다.			

유도열 수상 후보자는 이렇듯 의의있는 건축가들과 함께 출판도시의 다양한 건축가의 건축물이나 여러 입주자의 다양한 산업형태, 시설장식이 조화롭게 완성되도록 공동성과 공동성의 가치를 추구하고 개체의 특성과 가치와 어울림을 발휘해 하자는데 합의한 『위대한 계약서』를 작성, 건축가와 입주자로 하이클 상호 서명을 이끌어 냈으며, 『공동성』 정신에 의한 건축설계작업을 마친후으로 출판도시가 계획적인 문화산업도시로의 면모를 갖추는 타전을 만들었다.

그는 특히 21세기 지식경제 원천산업단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에 출판·문화·예술에 관한 정보, 전시공간, 제정 및 연구와 교육기능 등을 수행할 복합문화산업시설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을 주체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재 동 센터의 교육연구동이 지난 2002년 말 완공되었으며, 전시정보동 건립공사는 내년 4월말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동 센터의 공익적 성격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건립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 받는 성과를 얻어냈다.

유도열 수상후보자는 특히 2003년 10월 출판도시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개편된 출판도시의 대표적인 첫 행사인 2003 파주어린이 책 한마당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책을 친구처럼 가까이 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어린이 책 관련자들의 역량 제고, 그리고 출판문화의 새로운 매카로 조성되는 파주출판도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를 이뤘다.

이러한 행사의 주무대가 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앞으로 파주출판도시 내에 출판, 학술, 문화예술 정보제공과 지원, 연구, 이벤트·전시 및 교육연구 기능 등을 수행하는 국제 수준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출판도시의 기능 제고 및 한국 출판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유도열 수상 후보자는 파주출판도시를 자연과 인간, 문화와 산업이 살아 숨쉬는 위대한 책의 도시, 생태환경도시, 건축사업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조성계획에서부터 인간과 자연이 일상을 교류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건축설계작업을 건축가들과 함께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주도면밀하게 파주출판도시 건설을 이끌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도시 내 갈대갯강의 생태계 보호, 보전, 간접디자인을 출판도시의 상층적 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속도감 있게 행정위주의 업무 추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행의 하나로 출판도시 갈대갯강 열 녹지대 10km급 동맥발전기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대안센터와 공동으로 시범, 설치하여 천연 무공해 자연에너지를 출판단지 내에 이용할 수 있다. 그는 또 출판도시가 문화도시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유명 조각가의 예술작품인 지혜의 빛을 설치했으며,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맛을 전한 한옥을 이전하여 출판도시에 전통문화를 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유도열 수상후보자는 출판계의 무질서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출판사·지자·독자가 함께 참여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갖추는 출판도시 내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인 출판유통 체제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출판 및 도서유통산업은 역동적인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국대적인 유통구조와 거래 질서의 문제로 인하여 출판산업 발전을 주도해야 할 유통시스템이 오히려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되었던 까닭에 21세기 개방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출판유통시스템의 구조 개선을 통한 국내외 경쟁력의 확보가 시급하고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의 핵심 시설인 첨단설비를 갖춘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출판유통구조 합리화를 정착시키는데도 열정을 아끼지 않고 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ON OF PJA AND BOOK CITY
413-804 동경도 조주시 교정동 출판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94-1
전화 031-702-0024 팩스 031-702-0024 E-mail: pajupec@net.net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 2003 - 310호

2003. 12. 22.

수 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 단장

참 조 : 개발부장/출판단지 개발사업소 소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 진출입로 관련 질의 및 요청사항

귀 사업단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단지의 진입로 공사가 지연되어 입주업체들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서도 원자재와 생산품의 이동 등 물류측면에서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하는 출판 및 인쇄관련 업체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출판과 인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체들로서 이들 입주업체에서 원활한 생산 활동을 하지 못 할 경우 우리나라의 출판관련 문화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입로 공사가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측진입로의 경우, 출판단지에서 남측진입로를 통해 자유로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커다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판단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측진입로를 통해 단지 외부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동측진입로는 남측진입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판단지의 경우 규모면에서나 단지 이미지 측면에서나 두개의 진출입로 모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남측진입로의 교통체제를 포함하여 단지 전체의 교통체제에 대한 내용을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하여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이 교통체제가 산업단지 입주업체에게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협의를 갖고자하니 일정과 장소를 확정하여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

문화관광부

(www.mct.go.kr)

우 110-703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 전화 02) 3704-9640 / 전송 02) 3704-9649
문화산업국 출판진흥과 과장 박경우 사무관 박영동 담당자 조은림

문서번호 출신86610-2259

시행일자 2003.09.05 (3년)

수 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참 조

연	장	지
결	일자	시
수	시간	결
	번호	재
	처리과	공
	담당자	람
	심사자	심사일

제 목 2003년도 하반기 경원 공익사업적립금 지원대상사업 통보

2003년도 하반기 경원 공익사업적립금 지원대상 사업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이를 통보하오니 귀 단체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경원문화본부 지원과, 전화 2240-5351)에 지형 신청하시어 동 사업이 연방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려 -

사업명	주관단체	지원액	비 고
2003 파주어린이 책 한마당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50백만원	

끝.



문화관광부장



문화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문화관광부

(www.mct.go.kr)

우 110-703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 전화 (02)3704-9626 전송(02)3704-9629
출판진흥과 과장 박 경 우 사무관 박영동 담당자 김준영(kjhng@mct.go.kr)

문서번호 출신 86610-243

시행일자 2003.01.28 ()

수 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참 조

제 목 국고보조금 확정통지

- 출신 86610-1092(2002.5.1)의 관련입니다.
- 귀 단체에서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 발전의 증진자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예관한법률 제29조에 의거 보조금 확정액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가. 보조사업명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나. 국고보조금 : 2,500,000,000원
다. 집 행 액 : 2,499,184,880원
라. 교부확정액 : 2,499,184,880원
마. 간 액 : 815,120원
바. 기 타 수 입 : 15,137,382원(예금이자)
사. 반 납 액 : 15,952,500원. 끝.

- 아울러 위 반납액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별도 송부예정인 세입고지서에 의하 여 기한내에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관광부장



문화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문화관광부

(www.mct.go.kr)

우 110-703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 전화 (02)3704-9640 / 전송(02)3704-9649
출판진흥과 과장 박경우 사무관 신영희 담당자 조은림(joe@ofnet.go.kr)

문서번호 출신86610-2491

시행일자 2003.10.07 (3)년

공개여부 공개

수 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참 조

연	장	지
결	일자	시
수	시간	결
	번호	재
	처리과	공
	담당자	람
	심사자	심사일

제 목 2003년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교부금 확정통보

- 우려우 치위 82340-590(2003.10. 6) 일 출판단지조합 차2000-64호(2003. 5.14)와 관련입니다.
- 이런이 문물학자를 통해 새로운 어린이 책문화의 정착과 국가 경쟁력이 있는 어린이도서 수출을 위하여 귀 단체에서 추진하는 '2003 파주 어린이 책 한마당' 행사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다음과 같이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교부결정의 확정통보가 있어 이를 알려드리니 동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은

- 사 업 명 : 2003파주 어린이 책 한마당
- 교 부 액 : 50백만원
- 지원대상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 붙 임 1.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사업 지침(별도송부) 1부.
2. 농림부 문서사본(별도송부) 1부. 끝.



문화관광부장



문화는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문화관광부

MCT.GO.KR

우 110-703/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02-3704-9639/ 전송 02-3704-9640
문화산업국 출판진흥과 과장 박경우 사무관 박영동 담당자 장현익

문서번호 출신86610-2624

시행일자 2003.10.23 (3)년

공개여부 공개

수 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참 조

연	장	지
결	일자	시
수	시간	결
	번호	재
	처리과	공
	담당자	람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사업수행 상황보고서 제출

- 출신 86610-1290(2003.5.10) 관련합니다.
- 귀 법인에서 추진중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2003년 3/4분기까지의 사업수행 상황보고서를 관련 세부 행정서류를 첨부하여 2003.10.29(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출시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서식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 사업 계약 내용
- 나. 사업 추진 실적
- 다. 사업비 지출 내역 및 지출 계획
- 라. 연차 확보 내역 및 조달 계획. 끝.

문화관광부장



문화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 2003년도 하반기 경원 공익사업적립금 지원대상사업 통보
- 국고보조금 확정통지
- 2003년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교부금 확정통보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사업수행 상황보고서 제출

문화관광부

(www.mct.go.kr)

우110-703 서울시 영등포구 세종로 82-1 / 전화(02)3704-9639 / 전송(02)3704-9648
출판진흥과 과장 박광우 사무관 박형동 담당자 장현익(pranche@mct.go.kr)

문서번호	출신86610-2742	연	월	일	시	분	초
시행일자	2003.11.06	(3)	년				
공개여부	공개	제	일	시	분	초	
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	수	변	초	결	재	
참조	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처	리	과	공	랑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시	일

제 목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1. 출신86610-1290호('03.5.10) 및 출판단지조합 제2003-242호(03.10.31) 관련입니다.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홍)에서 추진중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2003년도 3/4분기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교부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교부사업명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지원
나. 신 청 액 : 6,000,000천원
다. 교부결정액 : 6,000,000천원
라. 기 교부액 : 3,000,000천원
마. 금회교부액 : 3,000,000천원, 끝.



문화관광부장

문화는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문화관광부

(www.mct.go.kr)

우110-703 서울시 영등포구 세종로 82-1 / 전화(02)3704-9626 / 전송(02)3704-9629
출판진흥과 과장 박광우 사무관 박형동 담당자 김준형(kjhng@mct.go.kr)

문서번호 출신86610-1290

시행일자 2003.05.10

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참조

제 목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 출판단지조합 제2003-98호(2003.4.28)의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에서 추진중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2003년도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교부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교부사업명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지원
나. 신 청 액 : 6,000,000천원
다. 교부결정액 : 6,000,000천원(내: 건축비의 50%)
라. 금회교부액 : 3,000,000천원
마. 교 부 잔 액 : 3,000,000천원
바. 잔액 집행 : 사업진도 및 매칭펀드에 따라 3/4분기 기 집행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



문화관광부장

문화산업이 국가경제의 원천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발령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 보조사업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 이기홍)
- 사 업 기 간 : 2003년
- 교 부 목 적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 교부신청액 : 6,000,000천원
- 교부결정액

(단위 : 원)

교부결정액	분기별 배정계획		비 고
	2/4분기(금회)	3/4분기	
6,000,000,000 이내	3,000,000,000	3,000,000,000 이내	교부잔액은 사업추진실적과 매칭펀드에 따라 추후교부

7. 교부내역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비(건축비의 50%)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03년 5월 일

문화관광부장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은 교부목적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사업에 여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경정된 사유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은 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집행에 있어 우리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아래 보고서를 각각 기일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착수보고
 - 보조사업의 주된 사업이 착수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착수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 상황보고
 -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업수행 상황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의 정산
 - 실적보고
 -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국고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별지 제3, 4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의 회계
 - 교부받은 보조금은 자원사업의 실적보고 후 문화관광부의 보조금 회계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의 적합여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산잔액의 반납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금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의 관리
 - 보조사업 수익금(이자 등)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우리부가 정한 관리기간까지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칙 : 별첨)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문화관광부

(www.mct.go.kr)

우110-703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 전화 (02)3704-6539 / 전속 (02)3704-6549
문화산업국 출판산업과장 박광우 사무관 박형동 담당 장학익(pranche@mct.go.kr)

문서번호	출신	86610-2741	선	발	지
시행일자	2003.11.06	(3)년	일	시	시
공개여부	공개		시간	월	일
수신	(사)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회장		번호	제	일
참조			처리과	공	일
			담당자	랑	
			심사자	심사일	

제 목 법인해산 및 잔여재산처분 허가

- 출판문화센터 제2003-2호(2003.11.4) 관련입니다.
- 귀 법인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장관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해산허가 및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 아외관련 법인해산 및 법인해산이 종료되면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장제에관한규칙 제10조, 제12조 및 인법 제85조제1항, 인법 제94의 규정에 따라 법인해산등기 및 법인정산등기를 완료한 후 청산종결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

- 법인해산허가
 - 법인명 : 사단법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회장 홍일식)
 - 설립일 : 1998.12.1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 사유 : 자진해산(동법인 임시총회 의결, 2003.10.24)
- 법인잔여재산처분허가
 - 재산목록 : 20,643,441원
 - 처분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 귀속
 - 사유 : 자진해산에 따라 동법인 임시총회에서 의결(2003.10.24). 끝



문화관광부

우110-703 /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 전화 02-3704-6539 / 전속 02-3704-6549
출판산업국 과장 박광우 사무관 박형동 담당 장학익(pranche@mct.go.kr)

문서번호	출신	84410-3140	선	발	지
시행일자	2003.12.17	(30)년	일	시	시
공개여부	공개		시간	월	일
수신	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번호	제	일
참조			처리과	공	일
			담당자	랑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재단법인 설립 허가

귀조항이 제출한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인법 제32조와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장제에관한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설립 허가하오니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허가내용

- 가. 명 칭 :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
- 나.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8동력1
- 다. 임원현황 : 별첨
- 라. 설립목적
 - 21세기 지식, 정보사회를 선도할 '파주출판도시'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파주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 실현
 - 국제적 수준의 책문화연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운영을 통해 출판산업진흥의 기반 확충
- 마. 주요사업
 - 파주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업
 - 출판도시 내 책문화연구지원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 및 운영
 - 출판문화 및 지식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전사 교육 보급 사업
 - 출판문화 및 지식정보산업의 국제 교류 협력 사업
 - 국내외 도서전, 공연,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 바. 기본재산 목록 : 별첨
- 사. 정관 : 별첨
- 2. 허가조건
 - 가. 인법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장제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
 - 나. 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후임임원을 선정하여 법인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
 - 다. 귀 법인 설립허가일로부터 3달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할 것.
 - 라. 법인 설립시 제출한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후 3개월 이내에 출연할수 보고할 것.
 - 마. 귀 법인의 정관 이외의 제규정 등은 제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부에 보고할 것.
 - 바. 기타 법인의 목적 및 사업등과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 및 재민 민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사. 상가 사항 위변조에는 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3. 행정사항 : 인법 제49조에 의거, 법인설립 등기를 법정부고로 하고 다음의 서류를 법인설립 허가후 3주일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귀 법인등기부등본 1부(기본재산 기재 포함)
 - 나. 법칙 발행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1부
 - 다. 법인 재산 이전 금융기관 증명서 1부

- 첨부 : 1. 임원명단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3. 기본재산 목록 1부.
4. 법인 정관 1부. 끝.

문화관광부장

문화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7 - 법인해산 및 잔여재산처분 허가

8 -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경기 파주(坡州)의 교하(交河)읍, 그곳에서도 문발(文發)이라는 동네에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라고 불리는 긴 이름의 국가산업단지가 15년째 건설되고 있다. '출판도시(出版都市)' 또는 '북시티' '책마을'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프로젝트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해 최근에는 그 현장을 보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민간의 힘으로 만든 '출판메카'

국가산업단지라고 하지만 국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민간조직이 제안해 추진해 왔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드문 예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처음부터 최근까지 이 사업에 관여했던 한 행정관료는 이 사업을 가리켜 '가장 성공한 NGO의 작품'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업이 법적 근거 때문에 종래 개발독재시대에나 유용했던 '공업단지'라는 개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지혜롭게도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의 정비를 무한정 기다리지 않고 도시계획가-건축가들과 힘을 합쳐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도시'의 개념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도시에서는 간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간판은 숨어 있는 듯해서, 마치 숨어 있는 식당에서 정갈한 손님들이

문화칼럼

이기웅

열화당 대표·파주출판도시 이사장



책마을 파주의 걱정

식사하면서 조용조용 대화하는 것 같다. 모든 간판이 절제함으로써 기호로서의 간판과 미학으로서의 간판을 충분히 성공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도시계획, 말도 안 되는 도로체계, 건축물들간의 부조화와 건축 재료의 조악함, 도처에 여러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담육과 파장 등 이제까지 우리를 괴롭혀 왔던 도시환경들이 이곳 출판도시에서는 잘 극복되고 있다. 모든 게 고도로 절제돼 있고 '공동성'이 우선한다. 모든 것이 엄격한 지침 아래 시행되어 조화의 미덕을 얻으려 하고 있다. 채우기를 생각하기보다 '비워 두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둔다. 꿈과 예술이 넘쳐흐르게 하고자 한다.

이들이 또한 주목했던 것은 이곳 파주의 '역사성'이었다. 여러 사서(史書)나 지리지(地理誌)에 의하면, 파주의 역사는 유장하고 심원하다. 고대국가 시기부터 한반도 중심부에 자리하면서 감악산 내면 비로봉에 이어 아름다운 지맥이 서쪽으로 뻗어 내려와 골짜기 자리한 고장이다. 고려-조선조를 통해 송도인 개성과 함양인 서울 중간에 위치하면서 수많은 문예인과 학자,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자를 건립해 시유(詩遊)를 즐겼으며, 서원(書院)을 건립해 강학(講學)을 논했던 빛나는 문화(文輝)이었다. 진정 이 땅에서는 향기가 났다. 풍수해를 모르는 곡창지대였으며, 조선조 때 이의선(李義善)이란 자는 도

성의 지기가 쇠한다 하여 이곳 교하로의 천도(遷都)를 주장했던 명당터였다. 그러나 6·25전쟁 때엔 격전의 장소이자 동족상잔과 분단의 슬픈 눈물이 뿜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출판도시의 성공은 유구한 파주 역사의 기념비가 돼야 한다. 건물 하나하나의 건축적 성취, 그리고 출판문화적 성취는 우리 분단의 근대사와 함께 일찍이 슬픔을 달래는 레퀴엠이 돼야 한다. 출판도시가 자리한 동네 이름 '문발'이 아미로 '문화 발전'의 터요, 책의 메카를 마련하도록 준비된 약속의 땅이 아닌가 한다.

신도시 난개발로 이어져선 안돼

이제 한창 입주가 시작된 이곳 '파주 북시티'에 최근 유명 출판사들이 사옥을 옮겨 왔거나 속속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화제가 되는 데다 출판단지에 입점한 파주의 신도시 계획이 발표돼 한창 이곳이 뜨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 입주했거나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출판사 관계자들은 축하인사 받기에 바쁘다.

하지만 실은 딱히 그렇지만도 않다.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의 밑그림은 매우 그럴 듯하지만 또 하나의 난개발을 보게 될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름답고 유서 깊은 파주 땅을 아끼는 사람들의 이 같은 걱정이 노파심으로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출판단지 법인세 3년면제 혜택 발표후

출판사들 뒤늦게 파주 입주 '관심'

출판사들이 파주로 몰려들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입주를 준비하는 출판사들이 부쩍 늘어난 것.

현재 17개 출판업체가 이 단지에 입주해 있고 올해 말까지 50여 개, 내년 말까지 150여 개사의 출판업체가 이 곳으로 회사를 옮길 예정이다. 이처럼 파주단지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파주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법인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다. 입주업체에 한해 법인세 3년 면제, 5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매출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연 매출 50억원 전후인 중견 출판사의 경우 1억~2억원 정도가 감면되는 셈. 이 같은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

고 5년 동안 50% 감면 혜택까지 주어지면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이 때문에 용지를 분양받아 놓고도 건축비 부담과 경기불황 때문에 입주를 미루던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입주에 나선 것.

여기에 최근 파주 신도시 계획 등 파주지역을 중심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

파주출판단지 김근상 파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입주를 주저하던 출판사들이 최근 적극적"이라면서 "임대의 경우도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용지를 갖고 있지 않은 출판사들의 문의전화도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단지에는 지난해 12월에 한



경기도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감도

검사가 입주했고 올 들어 창작과비평사가 옮겨왔으며 국내 최대 출판사 중 하나인 민음사를 비롯해 효형출판, 열화당, 양서원, 자유아카데미가 곧이어 사옥을 옮길 예정이다.

어 밖에 상당수 출판사가 현재 건축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파주출판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허연기자

③ 인간과 책이 숨쉬는 '꿈의 도시'

④ 출판사들 뒤늦게 파주 입주 '관심'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자유로변, 파주 땅에서는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역사(大役事)'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주 '북 시티(Book City)', 공식명칭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라는 긴 이름이지만, 흔히 '파주 출판단지'라고들 부릅니다.

심학산 자락에 위치한 48만평 땅에 출판사·인쇄소·제본소·유통시설 등 책을 매개로 한 출판 관련 업체들이 모여 하나의 '테마도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난 1989년 아이디어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 5년 전 첫삽을 뚫었지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 사업의 의미나 규모를 실감치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기반공사가 끝나고 한길사와 창비가 사옥을 지어 이사한 것을 필두로, 조만간 민음사·열화당·동녘·효형출판·문학동네 등 굵직한 단행본 출판사들이 잇따라 이전할 계획이어서 도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방문한 출판단지는 본주하 오가는 트럭의 굉음으로 어수선했지만, 전에 없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선 신도시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외형에 입이 벌어지더군요. 젊고 독창적인 건축가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한 건축물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파주단지 건설을 처음부터 진두지휘해 온 이가용 열화당 대표는 "지난달 열린 '파주 어린이책 한마당' 행사에 연인원 6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큰 성황을 이루었다"며 기뻐하더군요. 내년 4월 종합유통센터가 완공되면 '제지에서부터 인쇄·물류에 이르는 출판의 전 과정을 하나로 묶는다'는 목표가 완성되는 셈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공공도서관을 짓고, 국제도서전을 유치해 명실공히 책을 테마로 한 세계적인 문화·생태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판단지에 대해 고운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범 초기부터 "출판업자들

이 땅 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는가 하면, "가장 자유롭고 독창적이어야 할 편집자들을 한 군데 모아 획일화할 이유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실패를 예견하는 비판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주 출판단지는 그 위용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미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사업'이 됐다는 느낌입니다. 영국에 한책방 마을 '헤이 온 와이'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제 첨단 책도시 파주 출판단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의미도 다르지만, 책을 매개로 한 '꿈의 공동체'라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송인배기자·Books팀장 jane@chosun.com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사업 3년 늦춰

2008년 완공 예정... 140업체 입주계획

파주시 교하면 일대 46만5000여평 부지에 조성중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2단계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3년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은 26일 "최근 군부대와 부지 이용에 관한 협의를 끝냈다"며 "2단계 사업 완공시기를 2005년에서 2008년으로 늦췄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실

시계획을 변경하고, 2005년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다음달 1단계 사업 완공을 앞둔 출판단지에는 현재 보진재와 화성프린원, 태평양그랜드, 한길사 등 출판·인쇄관련 업체 20곳이 입주해 있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부분 개장했다. 2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영상·소프트웨어 관련 업체 140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李性勳기자 ylgja@chosun.com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추진 관련 자료집 ❶

발행일 ——— 2016. 10. 1

발행인 ——— 이 은

편집인 ——— 이환구

발행처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12(문발동 637-1)
책과 영화의 도시 건설본부(서축공업기념관)
전화 031-955-0001 팩스 031-955-0065

편 집 ——— 전기석 · 조용진 · 박경신 · 이진희

인쇄처 ——— 스크린그래픽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발간된
〈자료집 ❶〉은 부정기 간행물로 조합원을 비롯하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사업에 관계되는
사회 각계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